

전략연구 2014-36

충남 지방문화원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최영화

발 간 사

지난 2004년부터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해오던 지역문화진흥법이 10년 만에 제정(2014.01.28) 되면서 지방문화원진흥법(2011.07.21 개정), 문화기본법(2013.12.30 제정)과 함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3대 기본법이 완성되었다.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서도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진흥이 핵심적인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지방자치시대 2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자치가 문화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생활문화'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문화가 시장이나 산업보다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과 더욱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 지역의 현실이므로, 지역문화를 가꿔가는 일이란 곧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을 통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삶의 전망을 발견해나가도록 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역의 여러 문화기반시설과 단체 중에서도 지방문화원은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하며 지역문화의 진흥에 기여해왔다. 특히 충남 지방문화원은 평균 운영기간이 50여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초창기의 설립 목적인 향토문화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사업 외에도 문화교육과 문화행사 등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며 생활권 내에서 주민들의 문화권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충남 지방문화원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는 충청남도 내 15개 지방문화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발전방안까지 제시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진흥의 중추 역할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방안과 도·시·군 등 공공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참조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책임자인 최영화 박사를 비롯한 내부연구진과,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자문위원 및 연구심의위원, 연구수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지방문화원과 충청남도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5년 2월 27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1. 연구배경과 목적

최근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시행(2014.7.29)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의 시행에 따라 정부가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충청남도의 열악한 문화 환경이 개선될 기회가 커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충청남도의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충남 지방문화원은 평균 운영기간이 50여 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역사가 길며, 지역의 생활권 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1954년에 공주문화원과 부여문화원이 최초로 설립된 이래 2014년 현재까지 충남 지방문화원의 전체 운영실태를 면밀하게 조사·연구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차례의 설문조사와 워크숍, 현장방문,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지방문화원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과 충청남도 및 시·군이 지방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2. 지역문화와 지방문화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지역문화란 지역에서 향유하고 있는 문화, 즉 지역의 전통문화(유산문화), 지역민의 생활문화(생활문화), 미래의 창조문화(예술문화) 등을 포괄한다. 지역문화는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를 의미하며, ‘지역’ 개념에는 지리적 공간과 행정권역뿐 아니라 생활공간, 정서공간, 경제공간 등 사회·문화·경제적 공간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생활양식 전체를 지역문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는 ①지역의 정체성을 발현하

도록 하고, ②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③지역 주민의 정신함양과 교육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오랜 기간 지역문화 진흥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지방문화원은 본래 향토문화를 보존·발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50년대 초부터 자생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후 1965년 7월에 비영리법인이 지역사회의 문화계발을 위해 행하는 지방문화사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됨으로써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사업자로서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고, 동법을 근거로 하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즉, 지방문화사업자로 등록된 지방문화원은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양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1994년에 들어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제정을 근거로 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특별 법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무렵부터 문화원은 기존의 향토문화 전승·보존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2011.07.21 개정) 제8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8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크게 4가지로 유형화하면 향토문화활동, 문화행사 활동, 문화교육활동, 문화홍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충남지역 문화원 실태분석

1) 정책적 환경

문화원이 소재한 충남의 14개 시·군 중에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조례」를 마련한 곳은 11곳(78.6%)으로, 아직 조례가 없는 곳은 천안시와 홍성군, 2곳(14.3%)이며, 서천군의 경우에는 조례를 마련할 예정에 있다. 이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조례」를 보유한 곳이 128개(56.1%)인 것에 비하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이어서 문화원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은 비교적 잘 갖춰진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2월에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2.23. 시행)의 제정으로 충청남도는 강원도와 대구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화원연합회 지원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가 되었다. 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운영비와 사업비 등이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에 지원됨으로써 도문화원연합회의 점진적인 역할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2) 사업 현황

충남 지방문화원마다 지역의 특성과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어, 대체로 문화원의 지역 특성화 대책에 대한 중장기적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문화원에서는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크게 ①역사와 전통을 지닌 연례사업(5년 이상), ②지역 특성 반영 사업, ③어르신, 다문화, 향토사 등 각종 기금사업, ④기타 문화원을 대표하는 우수 사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조사 결과, 2~3개 문화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원이 지역을 대표 할만한 문화 발굴과 육성을 통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영환경 분석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사업성과 정기점검이나, 사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경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미미해 문화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과 달리 충남지역 지방문화원에서는 문화원과 문화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충남 지방문화원의 홈페이지를 사용자들에게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편하는 한편,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 전략 수립과 홍보마케팅 교육도 필요한 실정이다.

3) 인프라 현황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해 사무실 외 회의실, 강당, 공연장 및 전시시설, 향토사료실 등 문화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3개 이상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 미만의 시설을 보유한 문화원이 3곳(천안서북구문화원, 논산문화원, 금산문화원)으로 나타나 해당 문화원에 대한 시설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논산문화원은 2014년부터 문화원사를 신축 중에 있어 시설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천안서북구문화원과 천안동남구문화원은 천안군 시절에 설립된 문화원으로서 인구가 적은 면단위 지역에 위치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시설 건립보다도 천안 시내의 공공기관이나 빈 건물로의 이전이 문화원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 지방문화원의 인건비 지급 인력 수는 평균 3.5명으로, 사무국장 외 직원 1~2명이 사업, 축제, 동아리, 교육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인력수가 타 문화기반시설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어서 시·군 차원의 인건비 지원 및 외부

전문인력 활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문화원이 재정 자립도를 키우고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회원 확보와 회비 납부를 증대를 통한 자체수입 마련 및 지역 내 기업과의 메세나 체결, 기부금 지원 등을 통한 후원 통로 개발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문화원의 시설 운영수익과 프로그램이나 공연 수익금 일부를 경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를 보완하는 등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4) 네트워크 현황

충남 지방문화원은 지역 내 타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가 주축이 되어서 지역 내 문화원을 비롯한 문화기반시설 간, 타 지역 문화원 간 네트워크 활동을 매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해외 유사 문화시설(일본의 공민관, 독일의 사회문화센터, 프랑스의 센나시오날)의 운영 사례를 통해, 지방문화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간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 필요하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직원들에게 전문교육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것과 대관 중심이 아닌 기획 공연 중심의 적극적인 운영형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우수사례로는 인력 활용 부문에 강릉문화원, 회원 관리 부문에 이천문화원, 예산 확보 부문에 대전서구문화원, 시설 활용 부문에 금산문화원, 경영 혁신 부문에 태안문화원, 이렇게 5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신규 전문인력의 확보 외에도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전문성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천문화원의 사례와 같이 홈페이지 재정비를 통해 향후 홈페이지가 문화원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회원을 확보하는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원의 재정자립도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나름의 노력 외에도 시·군과의 협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노후한 시설의 신축·이전이 필요할 시에는 대전서구문화원과 금산다락원 모델을 참조하여 운영예산

을 절감하고 네트워크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태안문화원의 사례처럼 문화원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을 수시로 개선해나가고, 사업결과를 2차, 3차 사업으로 연계해나가는 것도 문화원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충남지역 문화원의 발전방안

1) 기본 방향

충청남도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진흥의 주도적 기관이자 시설로서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크게 정책, 사업, 인프라, 네트워크 측면에서 설정하면, ‘문화자치 활성화 위한 정책기반 확립, 문화원 역할 재정립과 맞춤형 사업 발굴, 문화원 간 인프라 격차 해소, 문화네트워크 통한 지역문화 진흥 제고’로 제시할 수 있다.

2) 목표와 추진전략

[요약 표1] 네트워크 통한 문화원 발전방안

목표 : 함께 뛰는 충남 문화원, 고루 크는 지역 문화			
추진전략	문화원 자체 발전방안 마련	발전방안	1. 문화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문화원 정관 및 내부규정 개선
	문화원 정체성에 맞는 사업 특성화		3. 향토사료 발굴·연구·활용사업 강화 4. 생활권단위 생애주기별 문화사업 활성화
	인프라 개선 및 자생력 증진		5. 인력 전문화와 시설 확충 6. 회원 증대와 재원의 다변화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성화		7.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의 역할 강화 8. 지역문화네트워크 구축

3) 충남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① 정책 : 문화원 자체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문화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라도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의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문화원에서 내부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면 연구기관이나 컨설팅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문화원의 현 실태에 대한 분석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 그리고 문화원의 미래상에 기반 한 발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원의 운영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문화원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문화원의 정관과 내부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직원들의 신분(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② 사업 : 문화원 정체성에 맞는 사업 특성화

지방문화원의 고유한 역할이자 지역 내 타 문화시설이나 단체에서는 담당하기 어려운 사업이 바로 '향토사료의 발굴과 연구사업'이다. 타 지역 문화원에 비해 충남 문화원의 강점은 오랜 역사와 많은 향토사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제는 이러한 강점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방문화원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홈페이지를 재정비하고 문화원이 보유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원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문화원 회원들, 향토연구자들의 접근성과 친밀감, 향토자료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문화원의 미래를 위해서는 문화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향토문화사업에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교육사업과 문화행사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므로 생활권 단위의 교육사업과 문화사업들을 어떻게 특성화·활성화할 것인지 방안이 필요하다. 충남 지방문화원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아 회원의 확보와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어린이 회원부터 노인 회원까지 두루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인프라 : 인프라 개선 및 자생력 증진

문화원의 인프라(인력, 시설, 재정) 중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의 전문화와 외

부 전문인력의 활용이 도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원 직원들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운영방법 등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업무지침과 시스템 개발 및 활용,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의 전문성 강화, 외부 자원봉사인력의 적절한 활용, 전문적인 자문과 협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조직적인 연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한편, 문화원 시설의 확충과 개선도 필요하다. 문화원에 따라 리모델링,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전이 더 시급한 곳이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삼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문화원부터 국비와 도비, 시·군비의 지원을 받아 시설 확충과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원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회원 확보를 통해 회비 수입을 증대하고, 기업메세나 등을 통해 문화원의 재원 구조를 다변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④ 네트워크 :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성화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2월 23일에 공포·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의 기능과 역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합회는 조례에 따라 사무직원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등 보조금을 법적으로 지원받으며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조직을 재정비한 후 자체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각 문화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기획 전문가워크숍이나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원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문화원 간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나 도 차원의 문화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각 문화원에 전달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위탁사업에 대한 정보를 각 문화원에 신속하게 전달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독려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한국문화원연합회나 타 시·도의 문화원과의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개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한편, 충남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역할을 발전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안팎의 다양한 주체들과 일상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협업 활동을 더욱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화교육사업을 제외하고 문화원의 문화예술활동은 대부분 공연, 전시에 편중되어 있으나 전시공간과 공연공간, 수준 높은 예술인 등의 부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

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 구축과 협조가 필요하다. 지역 예술단체나 타 문화시설과 교류하는 가운데, 문화원을 비롯한 각 단체들은 상호 경쟁이 아닌 상생의 길을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지역 문화주체 간 연계가 긴밀해져 문화적 기반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및 정책제언

1) 정책제언

충남 지방문화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문화원과 도 문화원연합회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충청남도과 시·군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도 동반되어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지방문화원이 자생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법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① 충청남도의 역할

충남 지방문화원이 문화적 자치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역할 개편이 필요하다. 각 문화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직접 예산을 지원받기 보다는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를 매개로 하는 것이 문화원연합회와 문화원의 자치역량을 점차적으로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5개 지방문화원을 총괄하는 도 문화원연합회가 충청남도의 지방문화원 지원금을 받아 각 문화원의 실정에 맞게 배분하는 방안으로 지원과 관리의 통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도 문화원연합회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닌, 지방문화원의 이해를 대변하고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기적인 지방문화원 실태조사의 시행이 필요하다. 지방문화원은 주민 생활권 내에서 문화교육, 문화행사, 향토사료 연구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광범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문화원의 운영실태 조사는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실태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 조사로서 문화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정책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는 도내 여러 문화시설 및 단체가 역할을 조정해나갈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문화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각 시설과 단체 간 역할의 중복과 경쟁 또한 점차 심화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도 내 여러 문화시설과 단체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들 단체와 기관이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스스로의 역할을 정립해나갈 수 있도록 워크숍이나 정책 토론회 자리를 만드는 식으로 협의과정을 보조하고 지원하고, 도의 중재와 지원 속에서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예총, 지방문화원 등은 각자의 여건과 전문성에 맞는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야 할 것이다.

② 시·군의 역할

충남지역 15개 문화원 중 현재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조례」가 없는 곳은 천안시와 홍성군이며, 서천군은 조례를 마련할 예정에 있다.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원 지원의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만들어 문화원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문화원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체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수익금이나 시설 임대수입 중 일부라도 문화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사업 운영 수익금을 자체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문화원은 회원들의 회비 수입이나 자체 시설의 대관료 외에 자체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지역 문화원의 지원·육성 조례를 개정, 보완하거나 최소한 시·군의 협의를 거쳐 사업 운영 수익금이나 시설 임대료의 일부라도 문화원의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화원의 시·군에 대한 재정 의존도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충남도 내 시·군은 해당지역의 문화원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도 있다. 충남지역 문화원의 평균 운영기간이 50.3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인력, 재정, 사업 등에서 전국 문화원의 평균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은 향후 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도 없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계획의 수립에도 예산이 수반되므로 현재와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문화원에 해당 시·군이 재정 지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문화원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군은 문화원을 비롯한 문화시설과 단체들이 민간기업으로부터 메세나 후원금을 받으며 자체자금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문화기부운동의 홍보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기업이 문화시설이나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할 시에 10%의 법인세 혜택 효과가 있음을 알리고, 문화기부운동을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문화기부운동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은 시·군에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다. 충청남도 내에서는 아직 문화예술 분야 민간 기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크지 않으므로, 시·군이 문화기부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될 수 있을 때까지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기부운동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향후 연구과제

충남지역 문화원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충남도 내 15개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문화원 회원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원 이용실태나 문화원에 대한 인식 및 수요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각 문화원별 특성화 방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도 시행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향후 문화원의 개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할 연구로 남겨둔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목적	6
3) 기대효과	7
2.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12
 제2장 이론적 고찰	15
1. 지역문화와 지방문화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5
1) 지역문화	15
2) 지방문화원	28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	33
1) 지방문화원의 역할	33
2) 지방문화원의 활동	34
 제3장 충남 지방문화원 실태분석	36
1. 충남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개요	36
1) 조사목적	36
2) 조사방법 및 대상	37
3) 조사 설계	38

2. 충남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39
1) 충남 지방문화원 개요	39
2) 충남 지방문화원의 정책 환경	43
3) 충남 지방문화원의 사업 현황	46
4) 충남 지방문화원의 인프라 현황	85
5) 충남 지방문화원의 네트워크 현황	120
3. SWOT 분석과 시사점	123
1) SWOT 분석	123
2) 시사점	132

제4장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135

1. 해외사례	135
1) 일본 : 공민관	135
2) 독일 : 사회문화센터	138
3) 프랑스 : 센나시오날	142
4) 사례분석 종합	145
2. 국내사례	146
1) 인력 활용 부문 : 강릉문화원	146
2) 회원 관리 부문 : 이천문화원	150
3) 예산 확보 부문 : 대전서구문화원	155
4) 시설 활용 부문 : 금산문화원	158
5) 경영 혁신 부문 : 태안문화원	163
6) 사례분석 종합	167

제5장 충남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168

1. 접근틀과 기본방향	168
1) 접근틀	168
2) 기본방향	169
2. 목표와 추진전략	170
1) 목표	170
2) 추진전략	170

3. 충남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171
1) 정책 : 문화원 자체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171
2) 사업 : 문화원 정체성에 맞는 사업 특성화	174
3) 인프라 : 인프라 개선 및 자생력 증진	180
4) 네트워크 :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성화	18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96

1. 요약 및 정책제언	196
1) 요약 및 종합정리	196
2) 정책제언	204
2. 향후 연구과제	210

<input type="checkbox"/> 참고문헌	211
<input type="checkbox"/> 부록 1 : 1차 설문조사지	215
<input type="checkbox"/> 부록 2 : 2차 설문조사지	232
<input type="checkbox"/> 부록 3 : 연구회의록	240
<input type="checkbox"/> 부록 4 : 지역문화진흥법	268

표 목 차

[표 I-1] 2012~2014 충청남도 문화예술 부문 세부사업별 예산	3
[표 I-2] 지역문화시설과 문화원의 특성 비교	5
[표 I-3] 지방문화원과 문화재단의 특성 비교	6
[표 I-4] 연구 추진과정	11
[표 I-5]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14
[표 II-1] 지역과 지방 개념	17
[표 II-2] 지역문화의 개념 정의	18
[표 II-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범위	23
[표 II-4] 지역문화 진흥의 현행 법적 근거	24
[표 II-5] 지역문화 정책의 시대별 흐름	27
[표 II-6] 지방문화원의 성장과정	31
[표 II-7]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규정한 지방문화원 사업 내용	32
[표 II-8] 지방문화원의 유형별 운영프로그램 분류	32
[표 II-9] 지방문화원의 역할	34
[표 II-10]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 내용	35
[표 III-1] 충남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개요	36
[표 III-2] 충남 문화기반시설 총 현황	39
[표 III-3] 충남 지방문화원 개원연도 및 건립연도	41
[표 III-4] 전국 지방문화원 운영기간	42
[표 III-5] 충남 시·군의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유무	43
[표 III-6]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44
[표 III-7] 문화원별 인건비 총액	46
[표 III-8] 최근 5년 이내 충남 지방문화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현황	47
[표 III-9] 충남 지방문화원 향토사 연구 관련 중장기 연구사업계획 수립 현황	48
[표 III-10] 충남 지방문화원 5년 이상 연례사업 현황	50
[표 III-11] 충남 지방문화원 지역특성 반영 사업 현황	51
[표 III-12] 충남 지방문화원 어르신, 다문화, 향토사 등 각종 기금사업 현황	52
[표 III-13] 충남 지방문화원의 기타 문화원을 대표하는 우수사례 현황	53
[표 III-14] 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 노력 현황	55
[표 III-15] 충남 지방문화원과 전국 지방문화원의 운영프로그램 비중 비교	56

[표 III-16]	충남 지방문화원의 문화학교 등 교육프로그램 현황	57
[표 III-17]	충남 지방문화원의 교육프로그램명	58
[표 III-18]	충남 지방문화원의 공연프로그램 현황	59
[표 III-19]	충남 지방문화원의 공연프로그램명	60
[표 III-20]	충남 지방문화원의 전시프로그램 현황	61
[표 III-21]	충남 지방문화원의 전시프로그램명	62
[표 III-22]	충남 지방문화원의 공모/경연프로그램 현황	63
[표 III-23]	충남 지방문화원의 공모/경연 프로그램명	64
[표 III-24]	충남 지방문화원의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현황	65
[표 III-25]	충남 지방문화원의 지역커뮤니티 프로그램명	66
[표 III-26]	충남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 전승·보전 프로그램 현황	67
[표 III-27]	충남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 전승보전·프로그램명	68
[표 III-28]	충남 지방문화원의 위탁사업 프로그램 현황	69
[표 III-29]	충남 지방문화원의 위탁사업 프로그램명	70
[표 III-30]	충남 지방문화원의 학술행사 프로그램 현황	71
[표 III-31]	충남 지방문화원의 학술행사 프로그램명	72
[표 III-32]	충남 지방문화원의 축제프로그램 현황	73
[표 III-33]	충남 지방문화원의 축제 프로그램명	74
[표 III-34]	충남 지방문화원의 문화원형 활용사례	75
[표 III-35]	문화원별 동아리 활동 현황	76
[표 III-36]	문화원별 향토문화 연구사업	77
[표 III-37]	문화원별 향토문화 외 연구사업	78
[표 III-38]	충남 지방문화원의 발간자료	79
[표 III-39]	충남 지방문화원의 자료운영 현황	80
[표 III-40]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시청각 매체	81
[표 III-41]	충남 지방문화원의 매체별 지역정보서비스 제공 여부	82
[표 III-42]	충남 지방문화원의 문화원 사업 홍보 현황	83
[표 III-43]	충남 지방문화원의 문화원 홈페이지 운영 현황	84
[표 III-44]	충남 지방문화원의 시설 소유 형태 및 유형	86
[표 III-45]	충남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87
[표 III-46]	충남 지방문화원 건물연수	90
[표 III-47]	충남 지방문화원 시설 평균 면적	91
[표 III-48]	충남 지방문화원 시설 사용 일수	93
[표 III-49]	충남 지방문화원 시설 개방 여부 및 대여료 유무	94
[표 III-50]	충남 지방문화원 운영 관련 조직	97

[표 III-51] 충남 지방문화원 인력 현황	98
[표 III-52] 충남 지방문화원 원장의 고용형태	100
[표 III-53] 충남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의 고용형태	101
[표 III-54] 충남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의 임금수준	102
[표 III-55] 충남 지방문화원 직원의 고용형태 및 연봉 수준	103
[표 III-56] 문화원 운영 적정인력 / 필요인력	105
[표 III-57] 인력 활용 활성화 조치	106
[표 III-58] 문화원의 외부인력 활용 여부	107
[표 III-59] 직원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현황	108
[표 III-60]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여부	110
[표 III-61] 회원/회비 현황	112
[표 III-62] 충남 지방문화원 예산 현황	114
[표 III-63] 자체자금 마련 방법	117
[표 III-64] 지방비 감소 대책	117
[표 III-65] 자체 경상예산 확보 위한 필요 조치	118
[표 III-66] 충남 지방문화원의 외부 후원금 조성 현황	119
[표 III-67] 충남 문화원의 2009~2013년 해외 교류 현황	121
[표 III-68] 충남 지방문화원과 문화재단의 협력 정도	122
[표 IV-1] 국외 사례 분석 종합표	145
[표 IV-2] 강릉문화원의 직급 구분	147
[표 IV-3] 강릉문화원의 연봉지급 기준표	148
[표 IV-4] 강릉문화원의 인사평가제도	148
[표 IV-5] 연도별 이천문화원 회원수 증가 현황	150
[표 IV-6] 연도별 이천문화원 회비 증가 현황	152
[표 IV-7] CMS출금 실질회원 현황	153
[표 IV-8] 연도별 CMS회비 현황	153
[표 IV-9] 대전서구문화원 사업비	155
[표 IV-10] 대전서구문화원의 문화센터 자율운영 프로그램	156
[표 IV-11] 대전서구문화원의 2015년도 운영예산	157
[표 IV-12] 주차장법 시행령의 제1조의 2	157
[표 IV-13] 금산 다락원의 시설 개요	159
[표 IV-14] 금산 다락원 건립 시 7개 중앙부처 지원 현황	159
[표 IV-15] 금산 다락원 주요시설 내역	160
[표 IV-16] 금산문화원의 시설 이용 현황	161
[표 IV-17] 국내 사례 분석 종합표	167

[표 V-1]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치 순위	172
[표 V-2] 문화원의 미래 전망	175
[표 V-3] 문화원의 현재 사업 비중	177
[표 V-4]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중요사업 순위	178
[표 V-5] 문화원별 필요/부족 시설 순위	182
[표 V-6] 타 기관 임대시설 이용 현황	183
[표 V-7] 문화원 사업 활성화 위한 필요 조치	186
[표 V-8] 전국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187
[표 V-9] 한국문화원연합회 규정 상 시·도 문화원연합회의 주요 사업	188
[표 V-10]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주요 사업	190
[표 V-11] 시·도 문화원연합회의 주요 사업	191
[표 V-12] 충남 지방문화원의 강점 순위	193
[표 V-13] 네트워크 통한 문화원 발전방안	195
[표 VI-1] 2012~2014 충청남도 지방문화원 사업비 내역	205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충남 문화예술 정책과제 공감도 진단 결과-시·군민 입장	4
[그림 Ⅰ-2] 연구 추진 흐름도	11
[그림 Ⅲ-1] 충남 지방문화원 설문조사 절차	37
[그림 Ⅲ-2] 충남 지방문화원 개원연도	40
[그림 Ⅲ-3] 충남 지방문화원 운영기간	40
[그림 Ⅲ-4] 충남 지방문화원의 강점	42
[그림 Ⅲ-5] 충남 시·군의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유무	43
[그림 Ⅲ-6] 충남 지방문화원의 예산교부 주기	45
[그림 Ⅲ-7] 지역 특성화사업 및 우수 운영사례	49
[그림 Ⅲ-8] 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 노력	54
[그림 Ⅲ-9] 운영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 노력(연 횡수)	54
[그림 Ⅲ-10] 충남지역 지방문화원 전체 운영프로그램 수	56
[그림 Ⅲ-11] 교육프로그램 연평균 개수	58
[그림 Ⅲ-12] 교육프로그램 연평균 운영횟수	58
[그림 Ⅲ-13] 공연프로그램 연평균 개수	60
[그림 Ⅲ-14] 공연프로그램 연평균 운영횟수	60
[그림 Ⅲ-15] 전시프로그램 연평균 개수	62
[그림 Ⅲ-16] 전시프로그램 연평균 운영횟수	62
[그림 Ⅲ-17] 공모/경연프로그램 연평균 개수	64
[그림 Ⅲ-18] 공모/경연프로그램 연평균 운영횟수	64
[그림 Ⅲ-19]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연평균 개수	66
[그림 Ⅲ-20]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연평균 운영횟수	66
[그림 Ⅲ-21] 향토문화전승보존프로그램 연평균 개수	68
[그림 Ⅲ-22] 향토문화전승보존프로그램 연평균 운영횟수	68
[그림 Ⅲ-23] 위탁사업 프로그램 연평균 개수	70
[그림 Ⅲ-24] 위탁사업 프로그램 연평균 운영횟수	70
[그림 Ⅲ-25] 학술행사 프로그램 연평균 개수	72
[그림 Ⅲ-26] 학술행사 프로그램 연평균 운영횟수	72
[그림 Ⅲ-27] 축제프로그램 연평균 개수	74
[그림 Ⅲ-28] 축제프로그램 연평균 운영횟수	74

[그림 Ⅲ-29] 충남 지방문화원의 자료운영 현황	81
[그림 Ⅲ-30] 충남 지방문화원의 지역정보서비스 제공	82
[그림 Ⅲ-31] 충남 지방문화원의 문화원 사업 홍보 현황	83
[그림 Ⅲ-32] 충남 지방문화원의 홈페이지 운영 현황	85
[그림 Ⅲ-33] 충남 지방문화원 소유형태	85
[그림 Ⅲ-34] 충남 지방문화원 시설유형	85
[그림 Ⅲ-35] 충남 지방문화원의 시설 보유 현황	88
[그림 Ⅲ-36] 충남 지방문화원의 건물연수	89
[그림 Ⅲ-37] 전국 대비 충남 지방문화원 시설 평균 면적	92
[그림 Ⅲ-38] 충남 지방문화원의 무료 대여 시설수와 비중	95
[그림 Ⅲ-39] 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 매뉴얼/운영규정(1)	95
[그림 Ⅲ-40] 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 매뉴얼/운영규정(2)	96
[그림 Ⅲ-41] 충남 지방문화원 인력 현황	99
[그림 Ⅲ-42] 충남 지방문화원 운영 적정인력	104
[그림 Ⅲ-43] 충남 지방문화원 필요인력 순위	104
[그림 Ⅲ-44] 충남 지방문화원 인력 활용 활성화 조치 순위	106
[그림 Ⅲ-45] 충남 지방문화원 외부인력 활용 여부	108
[그림 Ⅲ-46] 직원 교육·연수프로그램 건수	109
[그림 Ⅲ-47] 직원 교육·연수프로그램 참가인원	109
[그림 Ⅲ-48] 충남 지방문화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111
[그림 Ⅲ-49] 충남 지방문화원 총회원 현황	111
[그림 Ⅲ-50] 충남 지방문화원의 연회비 현황	113
[그림 Ⅲ-51] 전국 대비 충남 지방문화원 평균 예산 조달방법	115
[그림 Ⅲ-52] 전국 대비 충남 지방문화원 지출형태	116
[그림 Ⅲ-53] 자체 경상예산 확보 위한 필요 조치	118
[그림 Ⅲ-54] 충남 지방문화원의 국내 네트워크 현황	120
[그림 Ⅲ-55] 충남 지방문화원의 SWOT 분석	123
[그림 Ⅳ-1] 강릉문화원 조직 구성	146
[그림 Ⅳ-2] 강릉문화원 팀별 업무 모듈화	147
[그림 Ⅳ-3] 연도별 이천문화원 홈페이지회원 증가 현황	151
[그림 Ⅳ-4] 태안문화원의 SWOT 분석	163
[그림 Ⅳ-5] 태안자염 상품	164
[그림 Ⅴ-1] 접근률	168
[그림 Ⅴ-2] 충남지역 문화원 발전의 기본 방향	169
[그림 Ⅴ-3] 충남지역 문화원 발전 목표	170

[그림 V-4] 충남지역 문화원 발전의 추진전략	171
[그림 V-5] 문화원의 미래 전망 순위	175
[그림 V-6] 문화원의 현재 사업 비중	177
[그림 V-7]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사업	178
[그림 V-8] 충남 지방문화원 인력 현황	180
[그림 V-9] 충남 지방문화원 총회원 현황	184
[그림 V-10] 문화원 사업 활성화 위한 필요 조치	187
[그림 V-11] 전국 문화원연합회 현황	189
[그림 V-12] 충남 지방문화원의 강점	193
[그림 VI-1] 충남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204
[부록 그림-1] 홍성문화원 시설 사진	263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과 필요성

(1) 세계적 배경 : 지역문화진흥 패러다임의 부상

전 세계적으로 지식사회화가 심화됨에 따라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이 부흥하면서 각 나라는 국가적·지역적 특성을 문화자원으로 활발하게 활용해오고 있다. 기술 환경의 발달로 인해 지역의 문화가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의 지역 혹은 도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OECD 국가들은 21세기 문화산업을 이끌어갈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동력이 지역문화에 내재해 있음을 인지하고 지역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재생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를 흔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자, 문화선진국들은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지역정체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원형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하여 문화사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인식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지역문화사업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2011~2012년에는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재생 프로젝트가 지자체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고, 2012~2013년에는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동네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어 가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김혜인, 2013: 47).

(2) 국가적 배경 :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2014.1.28. 공포)과 법 시행령(2014.7.22. 국무회의 통과)이 2014년 7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 기회가 확대되고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지방문화원의 실효적 운영과 성과 창출이 중요한 시점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은 ①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②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 지원 ③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④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자문사업단 지정·지원 ⑤지역문화실태조사 ⑥문화도시·문화지구 지정·지원 ⑦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⑧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이, 법의 시행에 따라 정부가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충청남도의 열악한 문화 환경이 개선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우선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충청남도의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발전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3) 지역적 배경 : 충남 지방문화원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문화예술 분야는 크게 창작, 시설, 향유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창작은 시설과 향유에 기반을 제공하며 문화산업과 관광의 활용에 기초가 된다. 충청남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예술 창작 관련 사업으로는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1)한국전통 무악의 거장 한성준 춤 발굴·계승 사업, 2)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 3)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4)충청남도 문화상 시상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지원예산의 크기 면에서 볼 때,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원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2014년 기준으로 문화예술 부문 예산(349.5억 원)은 창작(35.7억 원, 10.2%), 시설(162.2억 원, 46.4%), 향유(146.4억 원, 41.9%), 추진기반(5.2억 원, 1.5%)의 비율로 구성되며, 창작 관련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66.4%, 23.7억 원/ 20.6억 시설 보강비, 3.1억 원) 사업이다. 충청남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는 충남지역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지방문화원의 바람직한 역할을 논의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문화원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1-1] 2012~2014 충청남도 문화예술 부문 세부사업별 예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명	사업년도			연평균 증가율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11,632	18,325	34,954	+73.3%
창작	창작 부문 소계	2,167	1,301	3,570	+64.7%
	•한국전통 무악의 거장 한성준 춤 발굴·계승	-	-	400	-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1,167	417	2,370	+103.0%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1,000	868	800	-20%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	-	16	-	-100%
시설	시설 부문 소계	200	1,700	16,224	+800.7%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확충	-	1,700	16,224	+854.4%
	•공공도서관 건립	200	-	-	-
향유	향유 부문 소계	9,265	14,824	14,645	+25.7%
	•공립예술단 운영 내실화	8,105	8,541	8,541	+2.7%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	-	359	-
	•작은 도서관 조성·운영 지원	810	816	805	-0.3%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지원	150	170	130	-6.9%
	•우리문화 함께 즐기기 사업	200	200	-	-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	1,876	2,991	+59.4%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	-	2,221	1,819	-18.0%
	•2013년 제31회 전국연극제 추진	-	1,000	-	-
	•백제문화단지 운영 활성화 (비예산)	-	-	-	-
추진 기반	추진기반 부문 소계	-	500	515	+1.5%
	•2014 「충남 문화융성비전」 선포	-	-	15	-
	•충남문화재단 운영지원	-	500	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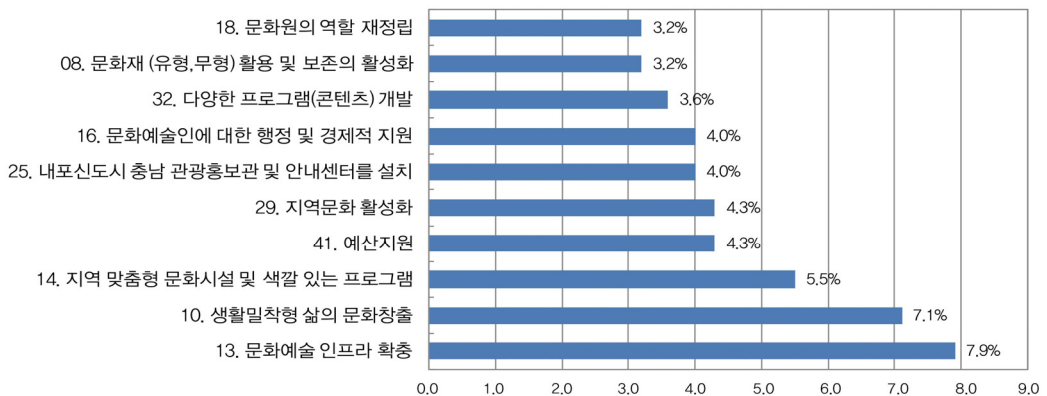
출처 : 2012, 2013, 2014년도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업무계획

※ 증감액과 증감률은 2012년 대비 2014년 기준으로 작성. 단, 2013년에 시작된 사업은 2013년 대비 2014년 기준으로 산정함

(4) 충남도민의 문화원 역할 재정립 방안 요구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공간으로서 지방문화원은 아래 <그림 I-1>에서 보듯이 '10)생활밀착형 삶의 문화 창출, 14)지역 맞춤형 문화시설 및 색깔 있는 프로그램, 29)지역문화 활성화'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도민공청회(14.3.31. 실시)에서 도민들도 '18)문화원의 역할 재정립'을 충청남도의 주요 문화예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요구한 바 있다. 도민공청회 결과 '생활밀착형 삶의 문화 창출'과 '문화원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의 매개자로서 문화원의 역할과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1] 충남 문화예술 정책과제 공감도 진단 결과-시·군민 입장



출처 : 디모스(2014),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도민공청회 결과보고서

(5) 지방문화원의 역할 차별화 필요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2014.7.29.)과 충남문화재단의 설립(2014.1.)이라는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충남지역 문화진흥기구 및 단체 간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발생했다. 지역의 여

러 문화기반시설 및 단체(지방문화원, 문화재단, 문예회관, 문화의 집, 예총 등)에서 유사한 문화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 시설, 인력, 재원의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므로, 이들 간 역할을 재정립하여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근거 조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이어질 예정이므로, 향후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간 역할 재정립의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여러 문화기반시설과 단체 중에서도 충청남도의 창작 관련 지원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서 가장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도민들의 관심이 큰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2] 지역문화시설과 문화원의 특성 비교

구분	운영주체	재원	전문인력	특징
문예회관	자치단체	자치단체예산	자치단체 공무원/ 일부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적인 예술공연, 전시, 고급예술 창조 및 향수 증진 ◦예술 중심의 사회교육
문화의 집	자치단체 / 위탁	자치단체예산 / 국고	자치단체 공무원/ 단체소속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 진흥 ◦주민 의사소통 증진 ◦주민 문화복지 증진 ◦시민문화 형성에 기여
주민 자치센터	자치단체	자치단체예산	자치단체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능력 증진 ◦문화복지 ◦주민 의사소통 증진 ◦생활문화 및 학습기회 제공
문화원	사단법인	자체예산/ 자치단체 보조	사단법인단체 근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사 및 향토문화 진흥 ◦지역 고유문화 개발 ◦생활문화 증진 ◦문화행사 및 교류 증진 ◦문화예술 및 지역, 환경 등 관련 사회교육 기능

출처 : 전국문화원협의회(2007),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연구 참조

특히 지방문화원과 문화재단 사이에 사업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으로 지자체별 문화재단의 설립이 증가할 예정에 있으므로, 문화재단과 차별화할 수 있는 지방문화원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문화재단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1-3] 지방문화원과 문화재단의 특성 비교

구분	설립기초	재원조성	주요역할
지방문화원	헌법 제9조 /지방문화원 진흥법	지방세 자체자금 기금 등	1.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 및 구축 2. 지역 고유문화 개발, 보급, 전승, 선양사업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예술인 및 예술경영 전문인력 육성 5.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6. 지자체 문화예술사업 위탁업무
문화재단	자치조례 /지역문화 진흥법	시·도 출연금 및 기금이자	1. 지역의 가치를 찾아내는 구체적인 정책 생산 2. 지역 문화단체 기금 지원사업 3.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지역 문화단체 사업 및 운영 평가 5. 지역 문화기반시설 운영관리 6. 지역 문화예술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출처 : 한국문화원연합회(2008), 지방문화원 재원 확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원연합회(2010),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토론회 및 권역별 세미나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지방문화원이 충청남도 지역문화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문화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에 적합한 문화진흥정책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 지역문화의 현황을 직시해야만 이를 개선하거나 진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와 지역문화사업의 수행실태 파악을 통해 지방문화원의 바람직한 역할을 논의하려고 한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지방문화원 대상 설문조사와 사무국장 워크숍,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각 문화원의 조직구성과 인력, 시설, 회원, 예산,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충청남도 지방문화원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지방문화원의 우수사례를 조사해 참조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충남지역 문화원의 시설·인력·예산·사업·경영 부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지역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이를 지방문화원에 대한 정책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문화원 대상 실태조사는 충남지역의 지방문화원 창립 이후 충남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 결과를 지방문화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이 지방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방문화원의 경영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지방문화원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각 문화원이 자발적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되고자 한다.

넷째, 시·군별 지방문화원의 균형적인 발전기반 구축에 기여한다. 시·군별 지방문화원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각 문화원의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방문화원 간 격차 해소를 도모하여 균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내 15개 지방문화원이며, 시간적 범위이자 분석의 기준 연도는 2013년(2013.1.1~2013.12.31)이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지역문화와 지방문화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충청남도 내 15개 지방문화원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해외 및 타 지역 문화원 우수사례 연구와 시사점 도출, 충청남도 지방문화원의 발전방안 제시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와 지방문화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지역문화의 개념과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주로 지방문화원의 설립배경과 설립근거, 변천과정,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타 문화시설과 구별되는 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조명한다.

(2) 충청남도 지방문화원의 실태 조사·분석

1954년에 공주문화원과 부여문화원이 최초로 설립된 이래 2014년 현재까지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문화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1999년에 문화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를 개발한 이후,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2000년도 전국문화원 사업평가』(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에 이어 최근까지 전국문화기반시설의 실태를 조사하는데 적용하고 있으나(『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 이는 전국 단위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기초적인 양적 조사와 분석으로서 충청남도 지방문화원의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충청남도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화원의 정책, 사업, 인프라, 네트워크 관련 현황이다.

(3) 해외 및 타 지역 지방문화원 우수사례 연구

해외 우수사례를 참조하여 충청남도 지방문화원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의 경우 ‘공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라야스시 공민관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검토해볼 것이다. 또한 독일의 ‘사회문화센터’ 중 빌레펠트시의 바움하이데 자유시간센터 사례와 프랑스의 센나시오날(Scene nationale)을 참고하고자 한다. 해외에서 ‘문화의 집’, ‘문화활동센터’, ‘문화발전센터’ 등으로 불리는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이것이 충남의 지방문화원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한편 국내 지방문화원 중 인력 활용, 회원 관리, 예산 확보, 시설 활용, 경영 혁신, 다섯 개 부문에서 우수한 사례로 손꼽히는 우수사례도 조사하여 충남지역 문화원이 응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때, 충남의 실상과는 거리가 있는 대도시 문화원의 사례까지 참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향후 충남 지방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내에서도 우수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원의 사례 또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해외 사례와 국내 타 시도의 우수사례는 앞으로 충남 지방문화원이 나아갈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하나의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충청남도 지방문화원의 발전방안 제시

충청남도 지방문화원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충남형 지방문화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문화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책, 사업, 인프라, 네트워크, 4개 부문에서 문화원의 중장기 발전방안, 충남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 문화원 고유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시설 리모델링 및 보완 방안, 인력 전문화 방안, 자원 확보 다변화 방안, 기관 간 네트워크 발전 방안 등을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이 지원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부분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법 외에도 연구과정에서 지방문화원 관계자, 전문가, 행정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의견수렴회,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현지조사법, 워크숍,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방법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지방문화원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충남지역 문화원의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4)과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한국문화원연합회, 2014), <2014 지방문화원 총람>(한국문화원연합회, 2014) 등의 전국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분석했다.

둘째, 지방문화원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를 확보하고자 했다. 지방문화원이 노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단지 충남지역 문화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각 지역의 문화원들이 마찬가지로 대면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타 지역의 문화원에 대한 기존연구인 학위논문과 연구논문 등을 참조하여 충남지역 문화원이 지닌 문제점 중 보편적인 문제와 특수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충남 지방문화원에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셋째,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조사와 설문조사,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충남 소재 15개 문화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문화원 사무국장과의 워크숍과 현장 답사를 통해 지방문화원의 세부 운영실태를 알아보았다. 특히 워크숍의 경우에는, 군 단위에 소재한 ‘농촌형 지방문화원’과 시 단위에 소재한 ‘도시형 지방문화원’으로 차별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문화원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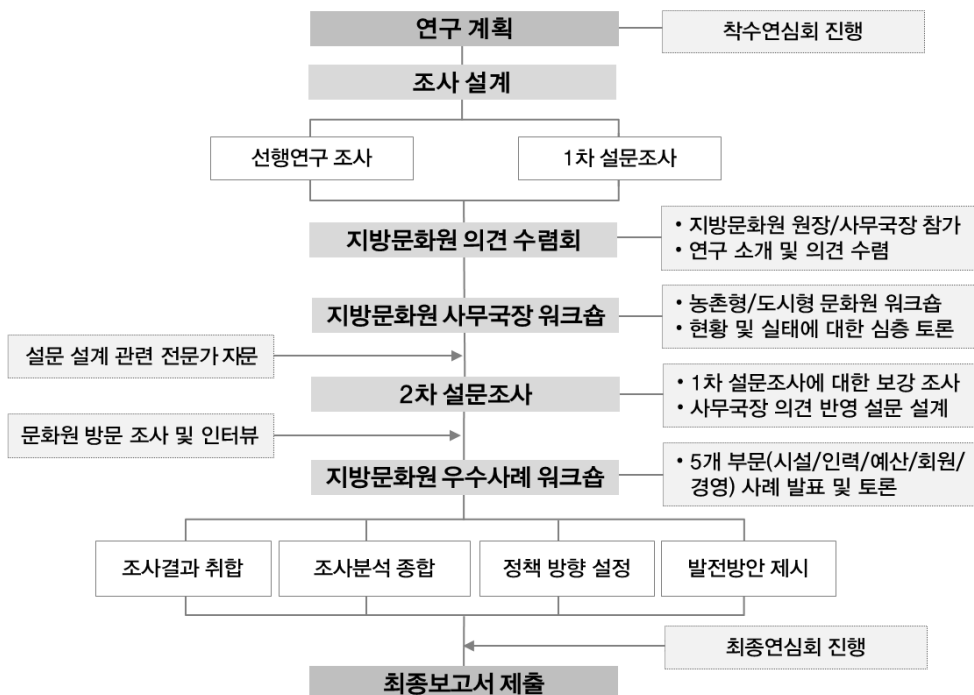
넷째, 충남형 지방문화원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해외 유사시설 중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문화원 중 참조할 만한 곳을 선정하여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을 추가적으로 진행했다.

다섯째, 충남 지방문화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남 지방문화원의 발전방안을 네 개 부문(정책, 사업, 인프라, 네트워크)에 걸쳐 제안했다. 특히,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과 충청남도과 시·군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와 문화원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 방안을 모색하였다.

[표 1-4] 연구 추진과정

- 2014.09.01. : 충남지역 문화원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시작
- 2014.09.26. : 충남지역 문화원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 착수연심회
- 2014.10.1.~10.30. : 지방문화원 1차 설문조사 실시
- 2014.12.15. : 지방문화원 의견수렴회(도청 문예회관)
- 2014.12.23. : 지방문화원 1·2차 워크숍(충남발전연구원)
- 2014.12.29~2015.01.06. : 지방문화원 1차 설문조사 보강
- 2015.01.05. : 지방문화원 2차 설문조사를 위한 자문회의(충남발전연구원)
- 2015.01.06.~01.22. : 지방문화원 2차 설문조사 실시
- 2015.01.09: 홍성문화원 현지답사 및 원장·시설관리과장 인터뷰(홍성문화원)
- 2015.01.30. : 전국 지방문화원 우수사례 워크숍(충남발전연구원)

[그림 1-2] 연구 추진 흐름도



3. 선행연구 검토

지방문화원 관련 선행연구는 주제별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지방문화원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둘째,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셋째, 지방문화원의 프로그램 관련 연구, 넷째, 지방문화원 사례연구이다.

우선, 지방문화원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부터 살펴보면, 정봉기(1995), 이원태(1998; 2000), 나명철(2002), 옥승현(2006), 문정희·장우권(2008), 홍지성(2008), 박은희(2013)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주민생활권역의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 중 문화원과 문화의 집 등을 비교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지방문화원이 획일화된 건립으로 인해 기존 시설과 프로그램 중복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특성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문화원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해 ‘문화축매운동’ 이론에 기반해 문화원의 인력 전문화, 재정 및 시설확충, 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는 박명규(1992), 임학순(1994), 이성근(2003), 김영순·오세경(2009), 한동현(2012), 양태인(2013)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지방문화원이 향토문화와 관련된 문화사업을 전개해야 하고 지역 내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방문화원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청소년들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활동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향토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해야 하며, 나아가 지역의 문화자원을 개발해 관광자원과 국제교류자원으로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지방문화원의 인력 전문화를 강조하며 문화원이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도와주는 상담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외부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사업을 수립·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과 시설이 네트워크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지방문화원의 프로그램 관련 연구로는 이윤희(2012), 한국문화원연합회(2013), 오지혜(2013) 등이 있다. 이중 한국문화원연합회(2013)의 연구는 『2013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연구』로서, 국고보조금 사업인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전국단위 사업현황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이다. 오지혜(2013)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선정한 우수 지방문화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과 선정 이유를 분석했다.

넷째, 지방문화원 사례 연구로는 박종호(2001), 김진학(2007), 문정희(2008), 오세경(2010), 박은희(2013), 지영희(2014) 등이 있으며, 지역별로는 충북, 인천, 서울 서초구, 전남 화순 등의 문화원 현황과 사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충북지역 문화원을 대상으로 한 박종호(2001)의 연구 외에는 모두 석사학위논문으로서 지역별로 몇 곳의 문화원을 샘플로 선정해 연구하다보니 대표성이 부족하고, 내용상 차이가 거의 없으며, 제시된 대안도 유사하여 지역별 문화원의 현황과 특성에 맞는 대안이라기보다는 전국의 지방문화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전국에 지방문화원이 229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유사한 분석과 획일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엿보였다. 인력, 예산, 시설, 프로그램과 같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었을 뿐, 각각의 구체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본 연구는 충남지역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어 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 우선, 전국 지방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인력, 시설, 재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충남지역 지방문화원의 실태에 근거한 지방문화원의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이 타 연구와의 차별점이다. 시·군별로 지방문화원과 유사한 문화사업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이나 ‘문예회관’, ‘문화재단’ 등 문화기반시설이 위치한 곳과 없는 곳이 있으므로, 각 시·군 문화원의 역할은 지역 현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연구 시 이를 고려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 ①충남지역의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②자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문화원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며, ③실태조사에 기반 해 지방문화원의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④연구결과가 정책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는 수행된 바 없는 본 연구만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5]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유형	연구자	연구 주요내용
선행 연구	지방문화원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봉기(1995) 이원태(1998) 이원태(2000) 나명철(2002) 옥승현(2006) 문정희·장우권(2008) 홍지성(2008) 박은희(2013) 한국문화원연합회(2013) 한국문화원연합회(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생활권역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문화원과 문화의집을 비교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성 제언 ◦지방문화원의 프로그램 중복 현상 지적 및 시설별 프로그램 특성화 전략 주장 ◦문화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문화축매운동, 향토문화 바로 알리기 운동 등 도입 주장 ◦문화원의 향토관리 실태 분석 ◦지방문화원 활성화 중장기 계획 제시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박명규(1992), 임학순(1994) 이성근(2003) 김영순·오세경(2009) 한동현(2012), 양태인(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문화 관련 문화사업 전개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사업 추진 방향성 제시 ◦지역 내 청소년들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 지역 활동 영역 확대 주장 ◦지역 문화자원을 개발해 관광자원과 국제교류자원으로 활용 주장 ◦인력 전문화 및 외부 전문인력 활용,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 방안 주장 ◦지방문화원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화 및 지방문화원 중심 문화기반시설 네트워크화 주장
	지방문화원의 프로그램 관련 연구	이윤희(2012) 한국문화원연합회(2013) 오지혜(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보조금 사업인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전국단위 사업현황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선정한 우수 지방문화원 프로그램과 선정 이유 분석 ◦대도시·농어촌별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분석
	지방문화원 사례 연구	박종호(2001), 김진학(2007) 문정희(2008), 오세경(2010) 박은희(2013), 지영희(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로 서울, 인천, 충북, 전남의 문화원을 대상으로 현황과 사업 연구
본 연구	충남지역 문화원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최영화, 박철희, 신선하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설문조사를 통한 충남지역 문화원 실태 파악 ◦충남 지방문화원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제시 ◦충청남도 지방문화원 자원육성사업의 토대로 활용 가능

제2장 이론적 고찰

1. 지역문화와 지방문화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지역문화

(1) 지역문화의 개념과 기능

지방문화원의 주요기능은 지역의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있다. 또한 지역문화사업은 궁극적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등장한 일련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사업의 대상은 바로 지역문화인 것이다. 즉, 지방문화원이 활동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문화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문화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① 지역의 개념

지역문화를 정의함에 앞서 ‘지역’과 ‘지방’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글래스(Glasson, 1974)에 따르면 ‘지방(local)’은 국가의 최소 하위단위를 말하고, ‘지역(region)’은 전국과 최하위 공간단위 사이에 존재하는 연대성을 지닌 중간계층 수준의 공간단위를 지칭한다. 즉 지방(local)은 중앙(center)과 구분되는 ‘local area’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지방화(localization)와 지방자치(local autonomy) 등의 개념적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류정아, 2008: 19).

우리나라에서 지역은 ‘일정한 지리적 범위’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방

은 ‘행정구역이나 어떤 표징으로 나누어진 땅’, ‘특수한 공간형태와 위치적 속성을 지닌 지리적 영역’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과 지방은 서로 혼용되기도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지역’은 가치중립적이고 층위의 개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지방’에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고, 주로 중앙 대 지방의 대립적인 관점에서 사용된다는 점이다(정광렬, 2005: 13).

그밖에 지역(communitiy)을 공동생활권에 기초한 지역사회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김문환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지역성’과 ‘지역사회의 의식’이다. 지역사회는 지리적·행정적 경계선에 의해서도 구분되지만, 사회적·문화적 동일성, 합의 및 자조 또는 다른 공동행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역의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문화 및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권역의 중심을 일컫게 된다(김문환, 2001: 6).

이와 유사하게 임정희도 ‘지역’을 우리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터전이자, 사회의 발전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장으로 보고 있다. 지역은 단순한 지정학적 의미의 영역개념이 아니라, 한 지리적 단위 안에 그 단위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와 존재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은 사회적 과정을 통해 생산되지만, 동시에 정치경제적·생태환경적·사회문화적 실천의 장소로서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임정희, 2006: 2).

마찬가지로 이종인도 지역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일정한 공간영역이라고 말한다. 이 공간적 영역(지역성)에 사회적 연대(공동체성)가 인정될 때 이것을 지역사회라고 한다(이종인, 1998: 25).

법령상 정의를 살펴보면,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의 개념을 ‘독특한 물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영토적 단위’로 규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을 지방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11.19, 제2조).

이와 같은 논의들을 요약하면, ‘지역’ 개념에는 지리적 공간과 행정권역뿐 아니라 생활공간, 정서공간, 경제공간 등 사회·문화·경제적 공간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임학순, 2003; 양태인, 2013). 이상의 ‘지역’에 대한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류정아, 2008: 19~22).

[표 II-1] 지역과 지방 개념

연구자 (연도)	구분	정의	특징
Glasson (1974)	지방 (local)	◦local은 국가의 최소하위단위 ◦행정적 층위 수준에서 사용	미국에서는 전대(nation), 주(state), 지역(county, city), 지방(local) 층위로 구분해서 사용됨
	지역 (region)	◦전국과 최하위 공간단위 사이에 존재하는 연대성을 지닌 중간계층 수준의 공간단위	
Richardson (1979)	지역 (local)	◦중앙(center)과 구분되는 local area의 개념으로 사용됨 ◦국가의 하위공간단위로 간주하는 경우	중앙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지방화, 지방자치 개념으로 사용됨
Markusen (1985)	지역	◦“독특한 물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영토적 단위”로 규정해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강조(문화적 공동체성)하는 개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문화진흥법 상 지역(문화) 개념과 유사함
정광렬 (2006)	지역	◦일정한 지리적 범위(area) 개념으로 사용 ◦가치중립적, 층위의 개념	1980년대에는 지방 개념이 주로 사용되다가 1990년대 이후 지역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
	지방	◦‘행정구역이나 어떤 표징으로 나누어진 땅’, ‘특수한 공간형태와 위치적 속성을 지닌 지리적 영역’ 등으로 정의 ◦가치 내재, 중앙-지방의 대립적 관점	
김문환 (2001)	지역 (community)	◦공동생활권에 기초한 지역사회 개념 ◦지역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지역성과 지역사회 의식 ◦지역사회 개념은 지리적·행정적 경계선에 의한 구분도 가능하지만, 사회문화적 동질성, 합의, 자조, 공동행위, 상호작용에 의한 구성되기도 함	문화복지가 지향하는 지역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문화 및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권역 중심의 지역을 기본단위로 고려
임정희 (2006)	지역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터전이며 사회발전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장 ◦지역은 지정학적 의미의 영역개념이 아니라, 한 지리적 단위의 존재이유와 존재방식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지니고 있음	지정학적 공간이나 지역주민들의 경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일상생활과 생산과정을 통해 형성
이종인 (2005)	지역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일정한 공간영역(지역성)에 사회적 연대(공동체성)가 인정될 때 지역사회라 함. 즉 지역사회는 ‘지역성’과 ‘공동체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지님	지역은 현실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범위를 넓히거나 좁힐 수 있고, 중층화 되기도 하며, 사이버스페이스까지 확대

출처 : 류정아(2008), 한국의 지역문화, 대왕사, 20쪽.

② 지역문화의 개념과 의의

다음으로 지역문화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란 “문화 혹은 문명이란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풍속 등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취득한 능력과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된다 (Tylor, 1871). 또한 “지적·정신적·심미적인 계발의 일반적 과정, 한 인간이나 시대 또는 집단의 특정 생활방식, 지적인 작품이나 실천행위 및 예술적인 활동”(Raymond Williams, 1983: 87)이 문화라고 일컬어지고 있기도 하다.

지역 개념에 대한 논의와 종합해 볼 때, 지역문화란 일차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에 기반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근간을 형성하고 정체성 정립의 기본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지역문화라고 할 때, 이러한 지역문화는 각 지역 간 차별화의 기제로 활용되기도 하고, 차이를 통한 상호소통과 교류의 매개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지역문화는 지역주민들의 가치관·동질성·연대성을 표현하는 기본토대가 되는 것으로 장기간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때로는 긍정적인 요소로, 때로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여타 정치경제적 요소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표 II-2] 지역문화의 개념 정의

연구자 (연구년도)	정의	특징
이종인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습득된 지식·신앙·예술·윤리도덕·관습 등의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총체 ◦주민자치의 기초단위인 일상생활권역에서 가꾸어진 기층문화(풀뿌리문화)이며, 공간적 개성(지역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연대성)을 지닌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자발성·창의성·책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민책임의 자주적인 활동의 소산임
임정희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주민의 지역적 삶과 유기적으로 연관되며, 지역의 문화정체성이 형성되고 실천되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으로 서울 중심문화에 맞서면서 지역적 특수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역문화 개념 자체가 무의미
지역문화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전통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시간적·공간적 단위인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그 결과물의 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광역시·도 지역 내, 지역 간 문화예술과 향토문화 등을 총칭함

출처 : 류정아(2008), 한국의 지역문화, 대왕사, 21쪽.

지역문화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크게 법적·정치적·행정적 측면, 어휘적 측면, 역사·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적·정치적·행정적 측면에서 지역문화는 “지방을 불문하고 주민자치의 일상생활 권역에서의 주민문화활동”을 일컫는다(박명규, 1992: 16).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면,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2354호, 시행 2014.07.29, 제2조 1항). 이 중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요컨대, 지역문화란 역사적 경험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시간적·공간적 단위인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고유의 문화유산, 생활문화, 문화산업, 관광산업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의 결과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6년 5월 공포된 「문화헌장」¹⁾ 제13항의 ‘7. 지역문화 창달의 원칙’에서는 지역문화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활력의 원천이며 지역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정체성의 토대”라고 정의하고, “지역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은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역주민은 자기 고장의 언어, 민속, 전통 같은 고유의 표현형식들을 포함하는 자생적 문화자원들을 보존하고 문화 발전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둘째, 어휘적 측면에서 지역문화를 살펴보면, 지역은 지(地)와 역(域)의 합성어이다. 지구 표면의 땅이라는 공간 중에서 어떤 부분을 경계로 하는 영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산맥이나 구릉, 하천유역 등과 같은 자연환경에 의해 구분되는 자연적 지역과 정치적·행정적 영역이나 역사적 영역, 동일한 방언이나 민속, 경제지역 등으로 구분된 인문학적 지역으로 대별될 수 있다(김승환, 2001). 즉, 지역문화는 ‘지역’과 ‘문화’의 합성어로 공통적인 요소로 연결된 일정한 공간의 생활양식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지역문화란 “정치적, 행정적 분권화와 주민자치가 전제되고, 주민의 구체적 생활기초인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개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생활감과 주민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여건과 환경양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기 위한 활동”(박명규, 1992: 16)으로 정의된다. 김승환

1) 우리나라 헌정 제정 사상 최초로 민이 만들고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로 형식과 절차를 밟아 공포한 헌장이다.

(2001)은 지역문화라 함은 지역의 역사적 공동경험과 문화의 동질성, 지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역사성'이 지역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문화라 함은 문화의 관점에서 지역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관점에서 문화적 특성을 바라보는 것이다. 지역문화는 지역에서 향유하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지칭하므로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이며, 일정한 공간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문화란 지역에서 향유하고 있는 문화, 즉 지역의 향토문화(전통문화, 문화유산), 지역민의 생활문화(생활문화), 미래의 창조문화(문화예술, 관광·여가문화) 등을 포괄하며,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생활양식 전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이성근, 2003; 오세경, 2010: 11~14).

③ 지역문화의 기능

지역문화는 지역의 정체성을 발현하도록 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주민들의 애향심 함양과 교육 기능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는 지역정체성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문화는 그 지역구성원과 지역에 대한 동질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함으로써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나 지역행사는 지역민으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공동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처럼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풍습과 문화자원을 지역민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지역의 동질성과 지역정체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지역문화는 사회통합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지역마다 고유의 역사가 있고 역사 속에서 얻어진 공동의 기억과 경험이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사상과 감정, 풍습 등의 향토문화는 세대를 아우르며 지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문화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며 긍정적으로 융화·발현된다면 지역사회의 지속과 통합을 이끌어내는 생활공동체 문화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지역문화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의 문화시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향유와 여가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행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산업화·관광자원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문

화시설의 조성과 활용으로 풍요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소득 창출은 물론 고용창출, 지역문화산업 및 지역관광산업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지역문화는 주민들로 하여금 애郷심을 함양하게 하는 등 교육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지역문화 발굴 및 진흥을 통해 지역문화 자체가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문화는 지역민들에게 교육의 장을 제공하며 동시에 지역에 대한 애郷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오세경, 2010: 14).

(2) 지역문화 진흥의 원칙

지역문화 진흥의 원칙은 여러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지만, 공통된 부분만을 언급한다면 주민자치 주도, 기초자치단체 주도, 개성화·차별화의 발현, 유지·계승·보존, 그리고 공유와 융합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양태인, 2013: 7~8).

① 주민자치 주도

지역문화 진흥은 주민자치의 원칙 아래 전개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화생활이나 문화활동은 주민의 자발성과 창의성, 책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문화는 주민책임의 자주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한편 창조주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문화 창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행정의 임무 중 하나일 것이다. 지역주민이 문화의 소비자이기 전에 문화의 생산자라는 지위를 되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② 기초 자치단체 주도

지역문화 진흥은 기초 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지역마다 그 지역의 개성이 담긴 독특한 지역문화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현장인 지역이야말로 문화 창조의 모체라고 본다면, 지역문화 진흥은 분권화가 되어야 하고, 지역민의 생활권역인 기초 자치단체 주도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시·군·구)는 지역문화 관리의 기초단위로서 실제적인 주체가 되어서 기본적인 지역문화발전계획을 입안·수립하고, 현실적인 시책을 지역특성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성근, 2003: 110~111).

③ 개성화·차별성의 발현

지역문화 진흥은 개성화와 차별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전례 답습과 법규에 얽매인 형식적이고 모방적인 실천에서 벗어나 지역다운 특성을 살리는 개성화의 실천이 중요하다. 즉 지역문화 진흥에는 획일적인 지침이 있을 수 없다. 한편 지역문화진흥은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려는 노력도 강구해야 한다.

④ 유지·계승·보존

지역문화를 가꾸고 보존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지역문화는 몇 차례의 전시와 이벤트 같은 일회적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문화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포함한 일상적 삶의 구석구석에 녹아있는 생활양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의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문화를 보존·계승하는 데 주체가 될 때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전승과 창조가 가능해질 수 있다.

⑤ 공유와 융합성

지역문화는 공유하고 융합할수록 그 가치가 확대된다. 아무리 우수한 지역문화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이를 향유할 수 없다면 그 존재적 가치는 점차 작아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현재에는 보존적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지역문화라 할지라도 이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 가치가 커지고, 나아가 지역문화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문화는 발굴·보존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에게 공유되고 다른 부문과 융합될 수 있도록 참여적·향유적 형태의 지역문화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3) 지역문화 진흥의 근거와 필요성

① 지역문화 진흥의 근거

지역문화 진흥의 현행 법적 근거부터 살펴보면, 먼저 「헌법」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

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문화국가의 원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문화국가의 원리란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문화를 형성하고 보호하는 헌법 원리이다. 지역문화는 국가의 문화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문화국가의 원리가 바탕이 된다.

지역문화 진흥의 또 다른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이 있다. 지방자치법은 헌법 제118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제시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이며, 이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섯 개 부문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이 지역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사무로 볼 수 있다.

[표 II-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범위

- | |
|--|
| ①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②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③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④지방문화·예술의 진흥
⑤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입법·시행된 법률로는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2354호 신규제정 2014.01.28)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제1조)이다. 이 법의 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을 의 기본원칙 삼아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II-4] 지역문화 진흥의 현행 법적 근거

- 헌법 제 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규정
-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 :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지역문화 진흥의 필요성

지역문화진흥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크게 세계적 수준, 국가적 수준, 지역적 수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세계적 수준에서 지역문화 진흥이 필요한 이유는 세계화·개방화의 흐름으로 인해 지역문화의 가치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부터 본격화된 세계화·개방화의 흐름으로 인해 서구문화와 문화산업이 보편화되면서 지역적으로 독자성과 개성을 갖춘 지역문화는 점점 더 그 가치가 경시되거나 소멸되는 위기에 직면해왔다. 세계화로 인해 지역의 독자성을 갖춘 지역문화가 점점 소멸되거나 획일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세방화(glocalization)의 진전으로 경쟁의 단위가 국가 수준에서 지역 수준으로 이동함으로써 지역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도시 간 경쟁, 지역 간 교류가 중요해지면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지역문화가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국가적 수준에서 지역문화의 진흥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지방화의 지속적인 심화 흐름 때문이다. 최근까지 이어져온 중앙집권적 개발과 통치 이데올로기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국가차원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중시해왔다. 따라서 어떤 개발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이나 지역차원의 접근과 논리가 존중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 20년을 맞이한 현재,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의 문화자치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성이 존중되고 지역 간 개성, 전통성, 다양성 등이 중시되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각종 개발과 통치에서 중앙의 논리보다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 지방의 논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지역문화가 중요해진 것은 ‘문화의 세기’의 도래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 한 지역의 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로 경제적 측면만을 중시해왔으나, 이

제는 생활환경, 정주성, 삶의 질 측면도 중시되고 있고, 특히 독특한 지역문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즉 문화의 세기에는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문화 상품보다는 다양하고 수요자 중심적인 측면에서 고려되는 지역문화가 더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이성근, 2003: 107~10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같은 물질적 부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지역민들이 문화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문화의 진흥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개성과 특색 있는 지역문화는 지역주민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창의성, 참여를 유발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 들어 지역 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지역문화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4) 지역문화 진흥 정책의 흐름과 여건 변화

① 지역문화 진흥 정책의 흐름

우리나라 최초의 단일입법으로서 시작된 지역문화정책은 1965년에 제정된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인해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만 치중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으로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비록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예진흥의 의무를 명시했고, 이에 따라 수립된 1978년의 <제2차 문예진흥5개년계획>에서 “전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고루 받을 것”을 선언했지만, 그 약속은 선언에 그치고 실천적인 대책은 거의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1980년대에도 변하지 않았으나,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권위적인 정부에 의해 역설적이게도 적극적인 지방문화 육성과 진흥책이 강구되기 시작했다. 문화정책이 그동안의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 지원과 장려 중심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1982년에는 지방문화 예술진흥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83년에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의 목표 조항에 ‘지방문화 육성과 문화시설 확충’이 명시됐다. 이어 1984년에는 <지방문화진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이 시기에는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한 지방 문화공간 조성 and 지역문화활동

지원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시기로 평가된다.

1990년대에는 문화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이 수립되었고, 이 중 '복지·조화의 틀'에 '지방문화육성'이 명시됐지만 역시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말았다. 1993년에 수립된 <신한국문화창달 5개년계획> 제2항에서 '중앙에서 지역으로'라는 정책 방향을 명시했지만, 이 조항 역시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균점화를 위한 예산 확대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가 부족하여 지역문화 육성의 실질적인 성과는 별로 이루지 못했다. 다만, 1994년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비로소 실천적인 지역문화정책들이 수립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역문화행정 전문가대회' 개최, <지역문화선언> 발표, 지방문화원의 경상비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역문화 진흥과 육성정책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²⁾ 특히 이 시기에는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자발적 의지에 따른 지역문화 진흥 활동과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지역문화 육성 활동이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제 실시가 각 지역별로 고른 문화적 혜택이나 문화발전을 이끌어주지는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³⁾

2000년대는 도시와 문화의 결합이 두드러진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에서 문화에 대한 투자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문화에 의한 경제파급효과를 유도하게 된 것이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경주 역사문화중심도시 지정 등이 도시와 문화가 결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정책을 사회정책의 일부로 인식하여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공생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기도 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문화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문화정책이 강조되어 왔지만, 지역문화 활성화 전략은 여전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노력은 아주 미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역적인 문화실태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획일적으로 답습해온 것이 지역적 특색을 상실하고 주민참여형 지역문화의 발전을 정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도 지적된다. 이 때문에 기존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으로는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의 관점에 입각한 지역문화의 추진체계와 자율적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류정아, 2008: 36~37).

2) 우리나라의 지역문화 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원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른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7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참조.

3) 이원태,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정책의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9집, 1998, 103~104쪽.

[표 II-5] 지역문화 정책의 시대별 흐름

시기	내용	특이점
1960~197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치중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시도는 미흡 지방문화원 설립 시작: 국정 홍보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대화라는 경제성장의 논리 속에서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지방문화사업조성법(1965) 제정
1970~198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정책의 초점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통한 민족정체성의 확립에 둠 문화 통제(정권 홍보, 지배이데올로기 확산의 도구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진흥법(1972) 제정 문화예술진흥 5개년계획(1973) 시작
1980~199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정책의 내용이 규제와 통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 문화부 발족(1990): 문화공보부가 공보처와 문화부로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에 국가의 문화진흥 의무 명시 문화진흥정책 수립(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문화예술 부문 포함) 지방문화원 역할 정립, 향토문화 특성화
1990~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태우 정권(1988~1992):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계획(1992~1996) 중 문화부 계획 수립: 문화창조력 제고, 문화매개기능 확충, 문화향수 확대, 지방문화 활성화 문민정부 출범(1993~1997): 문화의 세계화, 민족정기 확립, 지역문화의 활성화, 문화복지의 균점화 추진 국민의 정부(1998~2002): 새문화관광정책.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태우 정권: 문화발전 10개년계획(1990) 문민정부의 문화정책에서 문화복지가 강조되어 한국 문화정책에 큰 변화 계기 문민정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국민의 정부는 IMF관리체제로 인해 문화예술지원활동이 위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산 1%를 2000년에 실현 국민의 정부: 문화재청 승격, 지방문화원 진흥법(1994) 제정
2000~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정부(2003~2007): 창의한국, 새예술 정책 등 문화정책의 총합화 도시와 문화의 결합: 도시마케팅 활성화 지역개발과 문화의 관계가 긴밀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경주 역사문화중심도시 지정 사회정책의 일부로서 문화정책 위치 구축 문화향수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콘텐츠의 활용
2010~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정부(2008~2012): 4대강사업, 지역활성화 거점 사업(슬로시티) 박근혜 정부(2013): 지역문화융성, 지역문화격차 해소, 인문정신문화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근혜 정부: 문화기본법(2013), 지역문화 진흥법(2014) 제정

출처 : 류정아(2008), 한국의 지역문화, 37쪽; 박광무(2013), 한국문화정책론, 165~422쪽 참조.

② 지역문화 진흥 정책의 여건 변화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최근 여건 변화를 간략하게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므로, 노령사회에서 지역문화정책 및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찰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들의 여가시간 확대와 함께 상승하는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국가 및 지역의 중요한 문화정책 대상이 되고 있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간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과 기회의 불균형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복지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실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농촌 내 외국인 비율의 증대로 인해 다문화사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문화다양성 이념을 표방하는 지역문화정책과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과 국가의 지역문화융성 정책 등 지역문화를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지역 차원의 문화정책 방향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지방문화원

(1) 지방문화원의 설립배경과 설립근거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 비영리법인이다. 지방문화원의 설립근거를 시기별로 정리해보면, 195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하다가 1965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문화원에 대한 공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 수단(재원 및 법적·행정적 절차)의 미비로 지원방안이 부족하여 1994년에 단일 입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대체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문화원은 1950년대 초부터 향토문화 보존을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1950년대 초에는 문화원, 복지관, 문예관, 군민회관, 읍민회관, 공회당, 국민문화원, 공민관, 공보원이라는 사설문화단체들이 활발하게 등장했는데, 이는 일제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상처받고 훼손된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정기 및 민족문화를 재건하고자 하는 문화의식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문화원 대부분은 문화원 설립자인 원장의 사재나 지방 유지들의 후원금으로 재정을 마련했다. 1950년 6.25전쟁 직후에는 미국 국무성의 해외기관인 미국공보원(USIS) 산하 공보관으로부터 기자재 지원 등의 원조를 받으며 서방 선진국의 문화를 홍보

한 바 있으며, 이때 ‘문화관, 공보관, 유엔관’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기도 했다. 현재와 같이 ‘문화원’이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7년 전국세미나에서 통일된 명칭의 사용을 결정한 후부터다. 그러나 이 당시의 지방문화원은 정부시책의 홍보와 사회봉사 차원의 문화활동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다.

① 지방문화사업조성법(1965)

1965년 7월에 비영리법인이 지역사회의 문화계발을 위해 행하는 지방문화사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됐다. 이로써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사업자로서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고, 정부 및 공공 지원에 관한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 지방문화사업자로 등록한 지방문화원은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양여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각 지역에서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모태로 하여 향토문화개발과 전통문화진흥사업이 전개되었다. 이 법에 의해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사업자’라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지방문화사업자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업적을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사업, ②향토문화를 계발, 보급, 선전하는 사업, ③외국 문화기관과의 협조 하에 우방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선전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을 뜻한다.⁴⁾ 그러나 지방문화원의 법적 기반이 확립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열악한 재정과 문화예술 인구의 취약 등으로 인해 목적에 맞는 일들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② 지방문화원진흥법(1994)

1990년대에 들어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문화가 의식주의 뒷전에 밀려있었던 이전 시기와 달리, 국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것이다. 이에 오랜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종식하며 출범한 문민정부는 문화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며 문화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간다.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1996)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형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2대 목표로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박광무, 2013: 222. 참조).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기

4)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연구』, 1996, 3쪽.

시작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른다. 1994년 7월에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 법인으로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하고(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동법, 제8조, 전문개정 2011.7.21).

(2) 지방문화원의 성장과정과 설립현황

지방문화원은 1965년에 제정된 「지방문화사업조성법」과 1994년에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그 역할 범위가 커졌고, 향토문화 발굴 및 보전 센터로서의 위상이 높아졌다. 1962년에는 78개이던 지방문화원이 1970년에는 126개, 1980년에는 127개, 1990년에는 170개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⁵⁾, 2000년에 211개⁶⁾, 2013년 12월 31일 현재 총 229개로, 대부분 1 기초자치단체에 1 지방문화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지방문화원은 단순히 양적으로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 또한 점차 확대해나갔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문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면서부터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센터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지방문화원의 활동도 정부 홍보 기능에서 탈피하여 향토고유문화의 보존과 전승, 문화예술 사회교육, 지역문화의 개발, 경로효친의 선양, 기타 지역문화예술행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지방문화원은 문화체육부가 수립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문화부문 계획>(1992), <새문화·체육·청소년 진흥 5개년 계획>(1993), <문화와 함께 21세기를>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창달 5개년 계획 연구: 1993~1997> 등에서 지방문화의 산실이자 중심점으로 지목되는 등, 그 위상이 점차 제고되기에 이른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지방문화원이 1992년에 지역문화학교사업을 전개하면서부터 문화원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박종호, 2001: 27).

그러나 최초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된 지 50년이 지난 현재,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에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으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타 문화시설 혹은 단체와의 역할 중복으로

5) 문화체육부, 『전국문화원』, 1996, 참고.

6) 한국문화원연합회, 『월간 우리문화』, 1월호, 2001, 82쪽.

인해 내·외부적 딜레마에 봉착해있는 상황이다.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내적 혁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표 II-6] 지방문화원의 성장과정⁷⁾

연대	사업내용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발생적 문화원 설립 ◦주민들의 자주·자활의식 제고, 상록수 운동 거점 ◦각 지역 뿌리 찾기 차원의 향토문화연구 및 전통문화 보존 주력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6 군사정부의 정부시책 홍보 ◦향토문화운동 차원의 지역적 특색 있는 농악, 민요 등 활성화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정(1965.7)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년대 정부 홍보역할 폐단에 대한 반성으로 자주적 향토문화의 계발·정리·보급사업 전개 ◦문화원 본연의 이념 체계화에 따른 전통문화 선양 및 향토문화 창달 주력 ◦74년 문예진흥기금 지원 ◦76년 국고보조 지원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문화 부문 발전 시작 ◦정부의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정부가 문화원이 없는 시·군에 문화원 설립 권장 ◦문화원 중심 지역축제 개발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부의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 의거 지방문화원을 지역의 문화거점 기능을 하도록 육성(정부의 홍보활동, 문예진흥행사 주관, 전통문화 선양사업, 도서관사업, 지역사회 교육활동, 문화복지 활동, 국제 문화교류 활동) ◦문화원 활성화에 따른 문화원 조직 강화(임원 및 회원 수 확대운동 전개)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부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권한을 시·도에 이양 ◦재정자립 여건이 우수한 지방문화원과 농어촌 소재 지방문화원 격차 심화 ◦지방문화원의 지자체 예속 현상 발생 ◦지방문화원과 일반 문화단체와의 경쟁 체제 돌입 ◦정부 지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시범사업 거점으로 부각

(3) 지방문화원의 기능

1980년대부터 문화민주주의, 문화복지,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면서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과 함께 지역문화 활동의 중심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1994년 제

7) 양태인(2013),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 21쪽에서 재인용

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아래와 같이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전문개정 2011.7.21).

[표 II-7]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규정한 지방문화원 사업 내용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역의 향토문화에서부터 문화행사, 문화교류, 문화예술교육, 다문화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역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방문화원의 활동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사업 이외에 예술활동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전문적인 예술활동 보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문화활동을 지향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활동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향토문화활동, 문화행사활동, 문화교육활동, 문화홍보활동)로 분류할 수 있다.

[표 II-8] 지방문화원의 유형별 운영프로그램 분류

유형	관련 내용
향토문화활동	지역 전통문화, 교육문화의 계발, 보존
문화행사활동	지역축제·행사·공모전 등 개최
문화교육활동	문화강좌 및 사회교육 등 문화교육 활동 운영
문화홍보활동	지역문화 교류 및 관련 내용 출간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

지역문화는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민들이 향유하는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문화사업은 이러한 지역문화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의 발굴·보존·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이자 문화사업을 의미한다. 즉, 지역의 향토성, 생활환경, 문화·예술환경 등 지역문화를 토대로 다양한 가치를 끌어내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를 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문화정책의 근본이념을 문화민주주의, 문화복지주의, 문화평등주의를 표방하는 ‘문화자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역문화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문화의 육성을 통한 창조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실천적인 문화계획과 실질적 정책수단을 통한 지역문화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⁸⁾ 다만 이러한 정책의 방향뿐만 아니라 정작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 과제는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역할을 제외하고는 논의를 진행시키기가 어렵다.

앞으로 정치제도로서의 지방자치제가 더욱 뿌리내릴 것에 발맞추어 ‘문화자치’를 달성할 주체들도 역시 지방문화원의 역할 수행 정도에 달려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제반 주변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역문화를 지키고 가꾸어온 지방문화원의 역할은 더욱더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1) 지방문화원의 역할

지방문화원은 주로 향토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전통문화의 조사·발굴, 지역문화축제, 교양 및 문화강좌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역할’ 별로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을 것이다.

8) 이원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른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7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153쪽.

[표 II-9] 지방문화원의 역할⁹⁾

- ① 기록자로서 역할 : 사라져가는 선인들과 지역주민의 삶의 모습들을 기록·정리
- ② 전승자로서 역할 : 지역문화를 오늘에 되살려 재현하고 보존
- ③ 분배자로서 역할 : 취약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공공 문화서비스와 주민들의 생활문화의 질적 수준을 높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고루 분배

특히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선인들과 지역 주민의 삶의 모습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지역문화의 ‘기록자’로서 역할과, 이를 오늘날에 되살려 보존·재현하는 ‘전승자’로서의 역할은 거의 전적으로 지방문화원의 활동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공공 문화서비스와 생활문화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도 힘을 기울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고루 나누어주는 ‘분배자’로서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 지방문화원의 역할이다(이원태, 1998: 104~105). 요컨대, 지방문화원은 타 문화시설과 유사한 기능도 하고 있으나, 지역의 향토사와 향토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기록자로서 역할)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교육(전승자로서 역할), 주민들 대상 문화공간과 각종 문화서비스 제공(분배자로서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문화원의 활동

지방문화원에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사업 내용’별로 분류하면 ①향토문화연구활동, ②문화행사활동, ③사회교육활동, ④문화체험활동, ⑤문화예술활동, ⑥지역문화교류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여섯 가지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토문화 연구활동은 지역의 향토문화와 전통문화를 연구·조사하고 주민 생활사에 관한 책·잡지·자료 등을 발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는 지역 고유문화를 보존하고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의 역사적 자취를 기록화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화행사활동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나 문화예술 전시회, 공모전과 같이 지역 주

9) 이원태,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정책의 방향, 문화정책논동, 제9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104~105쪽 참조.

민과 외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내의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진행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사회문화교육활동은 문화강좌나 문화교실과 같이 교육을 목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과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일컫는다. 최근에는 점차 노령화되어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고안된 실버문화학교와 같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넷째, 문화체험활동은 지역민들에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역사기행 및 탐방, 미술관·박물관 체험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민들 사이에 유대감을 키우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다섯째, 문화예술활동은 지역의 문화예술을 증진시키고 예술인들을 지원·육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연이나 미술창작, 음악 등 지역 내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시회나 공연 등을 개최하고 지원하는 활동이 이에 속한다.

여섯째, 지역문화교류활동은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특성화하기 위해 다른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증진하는 활동이다. 타 지역에서는 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조사나 역사문화답사, 탐방활동도 이에 속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섯 가지 지방문화원의 활동유형과 사업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오세경, 2010: 15~16).

[표 II-10]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 내용

구분	내용
향토문화연구활동	지역전통문화, 고유문화를 계발·보존하는 활동
문화행사활동	지역을 위하여 축제, 축전 등을 개최하는 활동
사회문화교육활동	지역문화 및 정보제공 등 교육의 장을 마련해주는 활동
문화체험활동	지역민들에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활동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 증진 및 예술인 육성 등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지역문화교류활동	국내·외 타 지역과 교류하는 활동

참고 : 김영순·오세경(2009) 재구성

제3장 충남 지방문화원 실태분석

1. 충남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설문조사는 충청남도 소재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지방문화원이 충청남도 지역문화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과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충남지역 문화원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문화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과 시·군 차원의 지원방안과 문화원의 자체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1] 충남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 충남지역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 조사
조사 대상	◦ 충청남도 소재 15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조사 기간	◦ 1차 조사(2014.10.1~10.30), 2차 조사(2015.1.6~1.22)
조사 방법	◦ 온라인으로 설문조사지 배포 후 수거
조사 내용	◦ 충남지역 지방문화원 운영실태 - 정책 : 목표 및 비전, 중장기계획 - 사업 : 문화원 사업 - 인프라 : 조직, 인력, 시설, 예산 비율과 활용 - 네트워크 :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등

2) 조사 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15개 충남지역 문화원으로 한다. 충남지역의 등록 문화원은 총 16개이나 ‘천안문화원’의 경우, 현재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격만 남아있는 상태다. 따라서 1차와 2차 설문조사 모두 천안문화원을 제외한 15개 충남지역 문화원의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매회 15개 설문조사 응답지를 모두 회수하여 유효표본으로 분석에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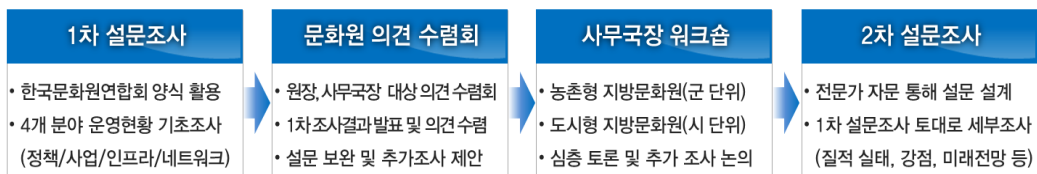
(2) 조사 방법

조사방식은 응답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self-administered) 설문지 방식을 채택했다. 1차 설문조사는 2014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에 걸쳐 진행했으며, 설문응답의 누락이나 오류 등을 검토하여 추가 보완작업을 2014년 12월 연말까지 진행했다.

1차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해 15개 충남 지방문화원의 원장과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의견 수렴(2014.12.15)을 거친 결과, 일부 설문 내용의 오류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방문화원의 실태를 더욱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설문의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충남 지방문화원을 시 지역에 위치한 ‘도시형’과, 군 지역에 위치한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워크숍(2014.12.23)을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적으로 수렴했다. 이 때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충남 지방문화원의 지형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필요한 조사항목을 보완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차 설문조사 항목을 설계해 2015년 1월 6일부터 22일까지 2차 조사를 실시했다.

[그림 III-1] 충남 지방문화원 설문조사 절차



3) 조사 설계

(1) 1차 설문지 구성

1차 설문조사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를 ①정책, ②사업, ③인프라(조직, 인력, 시설, 예산), ④네트워크,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설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한국문화원연합회, 2014) 양식을 사용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실태조사 설문항목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권역/지역 특성을 반영한 10여명)과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다층적인 델파이(Delphi)¹⁰⁾ 기법을 통해 설계된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관점을 폭넓게 반영하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표를 도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자체 개발한 1차 설문지로 전국 229개 문화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한국문화원연합회,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14.6)와, 본원에서 동일한 양식으로 15개 충남지역 문화원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충남 지방문화원의 전국적 위치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2) 2차 설문지 구성

2차 설문조사에서는 1차 설문조사에서 실시한 4개 영역(정책, 사업,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문항으로 구성했다. 1차 설문조사 시에는 일반적인 양적 현황만 조사했다면, 2차 조사에서는 보유 시설별 활용도, 필요시설 순위, 시설의 문제점, 시설 운영 활성화 조치, 필요인력 보충 분야, 사무국장의 주요 역할, 직원들의 고용형태와 연봉 수준, 인력 활용 활성화 방안, 자체자금 마련 방안, 사업 활성화 방안 등 질적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작성했다. 또, 충남지역 문화원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펴 보기 위한 조사항목과 충남지역 문화원이 가진 강점, 잠재력, 미래전망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충남지역 문화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분명히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10)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되풀이해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집단의 의견들을 조정·통합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의견수렴 및 구체화 과정.

2. 충남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1) 충남 지방문화원 개요

충남에는 총 147개의 문화기반시설이 있다. 시·군별로 문화기반시설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시(24개)이며, 다음으로 공주시(17개), 아산시(14개), 금산군(13개), 당진시(11개) 순으로, 문화기반시설이 군 단위 농촌지역 보다 시 단위 도시 지역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충남의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에서 개소 수가 가장 많은 것은 공공도서관(55개소), 등록박물관(44개소), 문예회관(17개소), 지방문화원(16개소)¹¹⁾, 등록미술관(8개소), 문화의집(7개소) 순으로, 지방문화원이 시설 수면에서 4번째로 많은 편이다.

[표 III-2] 충남 문화기반시설 총 현황

시·군	합계 (개)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 의집
		계	지자체	교육청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충남(15)	147	55	36	19	44	27	14	3	8	1	7	17	16*	7
천안시	24	10	7	3	7	4	2	1	1	-	1	3	3	-
공주시	17	4	2	2	9	4	3	2	1	-	1	1	1	1
보령시	10	4	2	2	2	2	-	-	1	-	1	1	1	1
아산시	14	6	5	1	5	3	2	-	1	-	1	1	1	-
서산시	7	5	3	2	-	-	-	-	-	-	-	1	1	-
논산시	7	3	2	1	1	1	-	-	1	-	1	1	1	-
당진시	11	4	3	1	3	2	1	-	1	-	1	1	1	1
계룡시	4	2	2	-	-	-	-	-	-	-	-	1	-	1
금산군	13	5	4	1	4	3	1	-	-	-	-	1	1	2
부여군	7	1	-	1	4	4	-	-	-	-	-	1	1	-
서천군	5	2	1	1	-	-	-	-	-	-	-	1	1	1
청양군	3	1	-	1	-	-	-	-	-	-	-	1	1	-
홍성군	8	2	1	1	3	2	1	-	1	1	-	1	1	-
예산군	10	3	2	1	4	1	3	-	1	-	1	1	1	-
태안군	7	3	2	1	2	1	1	-	-	-	-	1	1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11) 위 표와 같이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서는 충남의 문화원 개소 수에 천안문화원을 포함해 총 16개로 보고 있으나, 천안 문화원의 경우 활동을 하지 않은지 오래되었고, 현재 법인 정리 단계에 있어 보다 정확한 현황 분석을 위해 실태조사 대상 문화원 개소 수에서 제외하였다.

(1) 지리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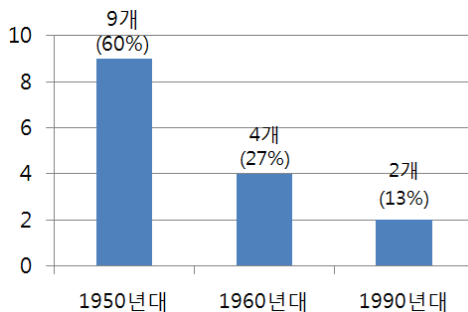
충남지역 문화원은 총 16개이나 천안문화원의 경우, 활동이 정지돼 법인격만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15개 문화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충남지역 15개 지방문화원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천안시에 2개의 문화원(천안동남구문화원, 천안서북구문화원)이 있는 반면, 계룡시에는 문화원이 없다. 시 단위의 중소도시에 위치한 문화원이 8개, 군 단위의 농어촌에 위치한 문화원이 7개로, 시·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개원연도 및 운영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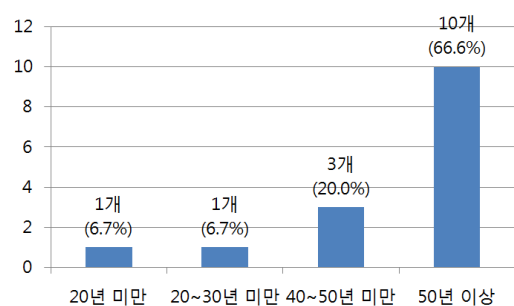
지방문화원의 개원연도를 살펴보면, ‘1950년대’(60%, 9개), ‘1960년대’(27%, 4개), ‘1990년대’(13%, 2개)로, 1980년대 이전에 설립된 문화원이 87%(13개)이며, 1990년대 이후 설립된 문화원이 13%(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최근인 90년대에 설립된 문화원은 태안문화원(1990년 설립)과 당진문화원(1995년 설립)이다.

한편, 충남지역 지방문화원의 평균 운영기간은 50년으로, 20년 미만인 곳이 6.7%(1개), 20~30년 미만인 곳이 6.7%(1개), 40년~50년 미만인 곳이 20.0%(3개), 50년 이상인 곳이 66.6%(10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원 건물의 평균연수는 20.6년으로, 전국평균(18.8년)에 비해 오래된 문화원이 많은 상황이다(한국문화원연합회, 2014: 18, 참조).

[그림 III-2] 충남 지방문화원 개원연도



[그림 III-3] 충남 지방문화원 운영기간



[표 III-3] 충남 지방문화원 개원연도 및 건립연도

시설명	개원연도	운영기간	건립연도	건물연수
천안시동남구문화원	1958	55	1982	32
천안서북구문화원	1963	50	1972	42
공주문화원	1954	59	2001	13
보령문화원*	1956	57	2013	1
온양문화원	1957	56	1990	24
서산문화원	1957	56	2003	11
논산문화원	1957	56	1986	28
당진문화원	1995	19	1998	16
금산문화원	1967	46	2004	10
부여문화원	1954	59	1993	21
서천문화원	1965	48	2000	14
청양문화원	1965	48	1955	59
홍성문화원	1954	59	2005	9
예산문화원	1955	58	2002	12
태안문화원	1990	23	1996	18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충남지역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 구 '대천문화원'에서 '보령문화원'으로 명칭 변경(2015.2.27, 정관변경).

아래 표는 전국 지방문화원과 충남 지방문화원 간 운영기간을 비교한 것이다. 우선, 전국 단위 통계자료에서는 충남의 지방문화원을 16개(천안문화원 포함)로 간주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국 지방문화원의 운영기간을 살펴보면,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지역의 문화원보다 대도시, 특히 수도권 소재 지방문화원의 운영기간이 다소 짧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광역시(인천, 부산, 대구, 울산, 광주)에 20~30년 미만의 신규로 설립된 문화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전국 문화원의 평균 운영기간(35.2년)과 비교해 볼 때(한국문화원연합회, 2014: 16), 충남지역 문화원의 평균 운영기간은 50.3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 되었으며, 평균 운영기간이 50년이 넘는 경우도 충남지역이 유일하다. 이는 곧 충남의 문화원이 전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지역 문화원의 강점을 묻는 2차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각 문화원은 '오랜 지역문화 활동에 따른 높은 인지도'와 '풍부한 향토문화자원 발굴 및 축적'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충남 문화원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쌓아온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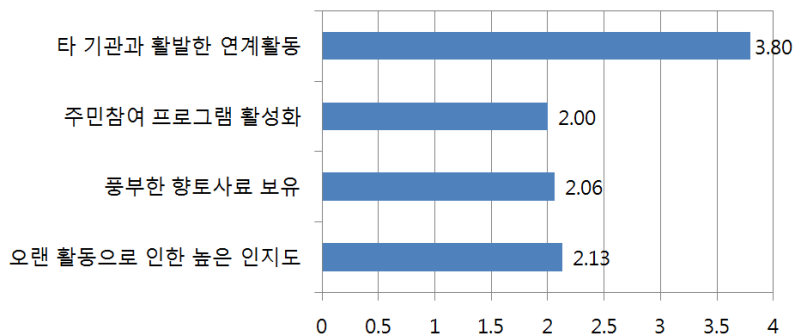
[표 III-4] 전국 지방문화원 운영기간

구분	개소	평균	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50년 미만	50년 이상
합계	229	35.2	28.8	14.8	7.4	23.1	25.8
수도권		64	25.8	48.4	23.4	7.8	10.9
	서울	25	16.5	84.0	16.0	—	—
	인천	8	18.5	87.5	—	—	12.5
	경기	31	35.1	9.7	35.5	16.1	19.4
	강원	18	44.6	—	—	33.3	27.8
충청권		34	45.7	11.8	11.8	—	23.5
	대전	5	26.4	60.0	20.0	—	20.0
	세종	1	50.0	—	—	—	100.0
	충북	12	47.3	—	16.7	—	33.3
	충남	16*	50.3	6.3	6.3	—	25.0
영남권		70	33.3	37.1	8.6	7.1	22.9
	부산	14	11.0	100.0	—	—	—
	대구	8	16.8	75.0	25.0	—	—
	울산	5	11.0	100.0	—	—	—
	경북	23	45.1	—	4.3	17.4	52.2
	경남	20	47.7	5.0	15.0	5.0	20.0
호남/제주권		41	40.2	11.6	20.9	2.3	41.9
	광주	5	29.8	60.0	—	—	40.0
	전북	14	36.4	—	50.0	—	21.4
	전남	22	46.9	4.5	4.5	4.5	59.1
	제주	2	19.0	50.0	50.0	—	—

출처 : 한국문화원연합회(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7쪽.

* 전국 단위 자료에서는 충남의 문화원 수가 16개(천안문화원 포함)로 조사되어있음

[그림 III-4] 충남 지방문화원의 강점 (1에 가까울수록 강점)



2) 충남 지방문화원의 정책 환경

(1) 정책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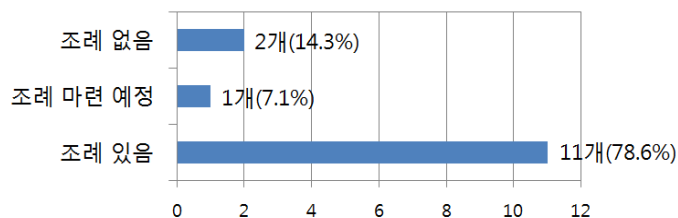
①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조례

문화원이 소재한 충남의 14개 시·군 중에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조례」를 마련한 곳은 11곳(78.6%)으로, 아직 조례가 없는 곳은 천안시와 홍성군, 2곳(14.3%)이며, 서천군의 경우에는 조례를 마련할 예정에 있다. 이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조례」를 보유한 곳이 128개(56.1%)인 것에 비하면 평균보다는 높은 비율이다(한국문화원연합회, 2014: 172).

[표 III-5] 충남 시·군의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유무

지방문화원명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유무	조례 제정 년도
천안동남구문화원	×	×
천안서북구문화원	×	×
공주문화원	○	2013.05.01(제862호)
보령문화원	○	2007.12.20(제720호)
온양문화원	○	2010.01.05.(제868호)
서산문화원	○	2008.07.10.(제681호)
논산문화원	○	2007.03.13(제555호)
당진문화원	○	2012.01.01(제73호)
금산문화원	○	2014.12.30(제1964호)
부여문화원	○	2010.12.31.(제1958호)
서천문화원	△(예정)	△(예정)
청양문화원	○	2013.07.18(제1892호)
홍성문화원	×	×
예산문화원	○	2008.12.26.(제1856호)
태안문화원	○	2015.01.06(제1110호)

[그림 III-5] 충남 시·군의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유무



한편, 전국 128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중에서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진행한 사업 수익금을 문화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28개(22.8%)인데 반해 (한국문화원연합회, 2014: 172), 충남지역의 11개 조례에는 관련 조항을 포함한 것이 한 개도 없다. 지방문화원이 자체자금을 마련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 수익금을 문화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사업 수익금을 자체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문화원은 위탁사업비나 회원들의 회비, 시설 대관료, 기업 매세나 지원금 외에는 아직까지 자체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원 중 자체 독립원사를 보유한 문화원이 2곳(천안서북구, 청양)에 불과해 사실상 시설 대관료 수입을 통한 자체자금 마련이 어렵고, 문화원이 위탁사업에 과도하게 몰입할 경우, 향토사 연구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원이 보조금 사업이나 지자체 임대시설의 대관료 수입을 통해 자체자금을 마련할 기회와 통로를 열어줄 있도록 시·군의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한 예로, 과천시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시행 2012.12.28, 경기도과천시조례 제 1245호, 2012.12.28, 일부 개정)에 문화원이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을 자체자금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과천시는 해당 조례 제7조 3항에서 “수탁자(문화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전대 받은 사람 또는 법인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III-6]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7조(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문화원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문화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전대 받은 사람 또는 법인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④ 수탁자는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제항에 의한 수탁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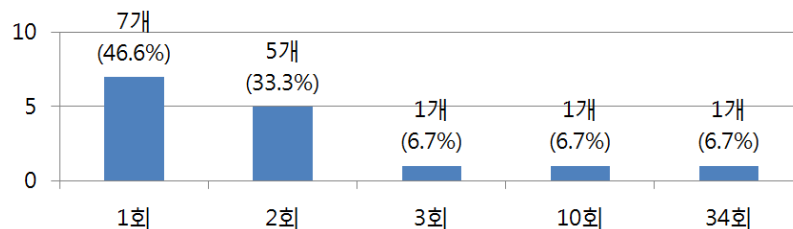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경기도 과천시 조례 제1245호, 2012.12.28.)

한편, 인터뷰 조사 결과, 충남지역 문화원 중에서도 공주문화원을 비롯한 일부 문화원은 조례상 관련 조항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대관료를 자체 수입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군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문화원별로 보조금 사업의 수익금이나 시설 대관료를 통해 자체수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화원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예산교부

문화원이 당해년도 예산(지방비)을 교부받는 주기는 '1회'가 7개 문화원(4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회'(5개 문화원, 33.3%), '3회'(1개 문화원, 6.7%), '10회'(1개 문화원, 6.7%), '34회'(1개 문화원, 6.7%) 순으로 연 평균 4.3%회 예산을 교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 보조금을 34회에 걸쳐 교부받는 문화원은 논산문화원이다.

[그림 III-6] 충남 지방문화원의 예산교부 주기



한편, 예산 교부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4개, 26.7%), '다소만족'(1개, 6.7%), '보통'(5개, 33.3%), '다소불만'(5개, 33.3%)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33.4%, '보통'과 '불만족'이 각각 33.3%로, 만족도가 높지는 않은 편이다.

대체로 문화원 인건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구성되는 비율이 높으나, 보령문화원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문화원의 자체예산으로 지급하고 있고, 예산문화원도 상당 부분 자체예산으로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인건비 전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조받는 경우는 천안서북구 문화원과 논산문화원, 금산문화원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문화원별 인건비 총액

문화원명	예산교부 주기 및 만족도			문화원 인건비 중 지원금 비중 (단위: 천원, %)*			
	교부주기 (회)	교부시기 (월)	예산교부 만족도	인건비총액	지자체 예산	문화원 자체예산	인건비 구성비율
천안동남구문화원	2	1월,6월	다소불만	45,177	34,000	11,177	75 : 25
천안서북구문화원	1	5월	다소불만	50,883	50,883	0	100 : 0
공주문화원	1	3월	매우만족	94,700	66,800	27,900	71 : 29
보령문화원	1	3월	보통	52,060	25,000	27,060	48 : 52
온양문화원	2	1월,7월	매우만족	109,723	106,198	3,525	97 : 3
서산문화원	2	1	보통	162,804	79,200	83,604	49 : 51
논산문화원	34	1~12월	보통	114,655	114,655	0	100 : 0
당진문화원	1	2	다소불만	77,984	56,906	21,078	73 : 27
금산문화원	3	2	다소만족	88,200	88,200	0	100 : 0
부여문화원	1	3	매우만족	96,094	84,636	11,458	88 : 12
서천문화원	2	3	보통	52,710	52,710	0	100 : 0
청양문화원	1	4	다소불만	77,760	66,150	11,610	85 : 15
홍성문화원	2	3월	다소불만	145,367	121,667	23,700	84 : 16
예산문화원	10	1~9월	보통	90,000	57,800	32,200	64 : 36
태안문화원	1	1	매우만족	116,691	107,040	9,651	92 : 8

* 주 : 외부인력 제외한 문화원 내 직원 인건비 총액으로, 지자체 예산과 문화원 자체예산의 규모

3) 충남 지방문화원의 사업 현황

(1)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구사업 계획

충남지역 지방문화원 중에서 문화원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3년 이상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문화원은 모두 6곳(공주문화원, 온양문화원, 논산문화원, 금산문화원, 예산문화원, 태안문화원)으로 전체 문화원의 40.0%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금산문화원은 2013년도에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인 <삶꽃사랑운동>을 수립하여 추진했으며, 이 계획은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마당'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 외 공주문화원과 온양문화원, 논산문화원, 예산문화원, 태안문화원도 아래 표와 같이 일부 사업에 한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지역 내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사업이나 위탁사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문화원마다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8] 최근 5년 이내 충남 지방문화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현황

문화원명	부문	연도	발전계획명	주요 내용
공주문화원	일부계획	2009	공주저명성씨발굴	우리 조상 알리기 사업
온양문화원	일부계획	2014	생활문화센터 운영	찾아오는 문화원
논산문화원	일부계획	2011	사진으로 보는 논산 100년	옛 사진 수집, 공모, 발간, 전시
금산문화원	종합계획	2013	삶꽃사랑운동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마당
예산문화원	일부계획	2013	예산문화원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자립도 신장 방안	문화원 홈페이지를 활용한 문화상품 구매장터 구축
태안문화원	일부계획	2012	태안문화원 신축 이전	태안문화원 신축 이전을 통해 지역 문화사업 확대 및 수장고 전문 소공 연장 확보
		2012	태안 소금명품화 사업지원 (태안군공동사업)	자염재현 통한 태안 소금브랜드 확보
		2010	태안향토유물수집사업	지역생활 향토유물수집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한편, 지방문화원만의 고유한 역할인 ‘향토사 연구 및 발굴사업’과 관련하여 ‘3년 이상 중장기 연구사업 계획’이 있는 문화원은 8곳(53.3%)으로 나타났다. 먼저 향토사 연구 및 발굴사업 관련 종합적인 중장기 연구사업계획으로는 천안동남구문화원의 ‘향토민속발굴사업’(2012), 공주문화원의 ‘공주전통마을연구’(2002), 금산문화원의 ‘마을이야기’(2005), 부여문화원의 ‘부여의 군수현감 조사발간’(2011)과 ‘부여의 옛 시문 조사발간’(2012)이 있다. 또한, 온양문화원과 서산문화원, 당진문화원, 예산문화원도 중장기 향토사 연구 및 발굴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충남지역의 전체 15개 문화원 중 53.3%에 해당하는 8개 문화원이 향토사 연구 및 발굴사업과 관련된 중장기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는 사실에서 충남 지방문화원은 오랜 역사에 걸맞게 향토사 연구에 강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2014)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타 시도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60.0%,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강원도가 각각 50.0% 비율로 향토사 연구와 관련된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외 시도에서는 20~30%나 그 미만의 비율을 보였다(한국문화원연합회, 2014: 29).

[표 III-9] 충남 지방문화원 향토사 연구 관련 중장기 연구사업계획 수립 현황

문화원명	계획부문	연도	발전계획명	주요 내용
천안동남구문화원	종합계획	2012	향토민속발굴사업 (천안동남문화지 발간)	천안 동남구 지역 향토문화 발굴 및 책 발간
공주문화원	종합계획	2002	공주전통마을연구	전통마을 조사 및 연구
온양문화원	일부계획	2014	고불 맹정승 알리기	청소년에게 청백리 정신 알리기
서산문화원	일부계획	2013	향토민속발굴사업	서산의 벚가릿대 연구조사
당진문화원	일부계획	2011	면양잡록번역사업	면양잡록번역 및 주석작업
금산문화원	종합계획	2005	마을이야기	마을역사이야기 발굴
부여문화원	종합계획	2011	부여의 군수현감 조사발간	조선시대 군수현감 조사
		2012	부여의 옛 시문조사발간	부여를 기록한 시문조사
예산문화원	일부계획	2014	예산군 개명 1,100년에 즈음한 예산군 관내 지명유래 연구조사	지명유래 수록 연차별 서적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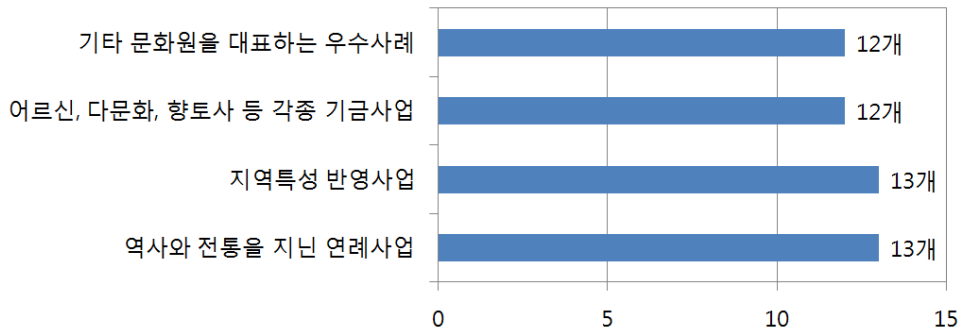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2) 지역 특성화사업 및 우수 운영사례

지방문화원에서는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은 크게 ①역사와 전통을 지닌 연례사업(5년 이상), ②지역특성 반영 사업, ③어르신, 다문화, 향토사 등 각종 기금사업, ④기타 문화원을 대표하는 우수사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아래 표는 충청남도 15개 지방문화원에서 4개 부문별 사업 운영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서, 2~3개 문화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원이 지역을 대표할만한 문화 발굴과 육성을 통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 지역 특성화사업 및 우수 운영사례



① 역사와 전통을 지닌 연례사업

지역 특성화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역사와 전통을 지닌 연례사업’은 충남지역 15개 문화원 중에서 천안서북구문화원과 온양문화원을 제외하고 13개 문화원이 모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천안서북구문화원의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예외적인 사례로 봐야할 것이다.¹²⁾

그 외 문화원들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반영하는 연례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사업의 내용과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민속놀이, 전통관례, 축제, 자연환경, 문화유적, 역사인물, 역사문화 등을 소재로 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애郷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 중 천안동남구문화원의 ‘백전민속씨름대회’는 2013년 기준으로 69회를 맞이했으며, 25년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예산문화원의 ‘추사 휘호대회’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세부적인 사업명과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12) 천안서북구문화원의 경우, 2012년 3월 15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내분으로 인하여 경상비 보조금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으며, 당해 9월 11일 이후에야 경상운영비가 지원되었고, 문화원활동사업 보조금은 11월 22일부터 지원이 재개되었으므로 2013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천안서북구문화원이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2014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표 III-10] 충남 지방문화원 5년 이상 연례사업 현황

문화원명	역사와 전통을 지닌 연례사업(5년 이상)	
	사업명	주요 내용/특성
천안동남구문화원	백전민속씨름대회	향토지역 전통 씨름대회 (2013년 기준 69회를 맞이함)
	유관순열사추모제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	
	아우내 단오축제 대회	
천안서북구문화원	-	-
공주문화원	백제문화제	역사문화축제
보령문화원	3.1절 행사, 한내돌다리밟기민속행사	-
온양문화원	-	-
서산문화원	서산의 숨결 발간	1983년 11월부터 매월 문화원보 발간
논산문화원	정월대보름맞이	대보름을 맞아 논산시민과 다양한 민속행사 개최, 연40회 이상 시민과 지역문화유적 답사
	민속 한마당	
	문화유적 답사	
당진문화원	문화예술의 향연	수강생들의 전시 및 공연발표
금산문화원	4계절축제	관광산업축제육성
부여문화원	부여서동연꽃축제	궁남지 연꽃을 주제로 한 전국축제(11회 실시)
서천문화원	기벌포예술제	금강하구의 옛지명 기벌포의 이름으로 열리는 축제
청양문화원	칠갑문화 발간사업	원고 접수를 통해 매년발간
홍성문화원	전통성년식	전통관례 및 계례 재현
예산문화원	추사 휘호대회	추사 김정희의 학열과 예술혼을 선양하기 위한 휘호대회(대한민국 대통령상 수상, 25년간 개최)
태안문화원	벚가릿대놀이 등 민속행사 보존지원사업	전통민속놀이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행사를 통해 전국 최고의 체험마을로 성장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② 지역특성 반영 사업

‘지역특성 반영 사업’ 또한 충청남도 내 15개 문화원 중 2곳(천안서북구문화원, 청양문화원)을 제외한 13개 문화원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마다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으로, 주로 향토민속을 발굴하고 기록하여 발간하는 사업, 지역 출신 역사인물과 문화예술인을 기리고 조명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기록화·자원화 한다

는 점에서 2차 개발을 통해 문화산업이나 문화관광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므로 향후 활용도가 높은 사업이다. 또한 지역의 향토민속과 역사에 대한 축적된 자료와 이해가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타 문화예술시설이나 단체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지방문화원만의 고유한 사업으로써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

[표 III-11] 충남 지방문화원 지역특성 반영 사업 현황

문화원명	지역특성 반영 사업	
	사업명	주요 내용/특성
천안동남구문화원	지역 역사인물 만화책 간행	지역의 역사 인물에 대해 만화책으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의 이해 도모
천안서북구문화원	-	-
공주문화원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지역 문화예술인 초청 공연
보령문화원	해맞이 행사	역사인물 추모제향
	김좌진장군 추모제향	
	김성우장군 추모제향	
온양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	곡교천의 역사와 문화 책 발간
서산문화원	지역문화특성화사업	서산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성화사업
논산문화원	향토민속 발굴	김장생, 윤증 등 만화책제작 논산의
	지역문화 특성화	맛있는 이야기 향토음식책
	우리문화 즐기기	소금단지화재매이 산신제 발굴보존
당진문화원	당진시립박물관 민영근 기증유물전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당진시립박물관에 대한 당진시민의 관심 제고
금산문화원	임희재문학 발굴사업	임희재문학 발굴
부여문화원	시인 신동엽 추모백일장	지역출신 시인을 기리는 도 단위 백일장(11회 실시)
서천문화원	성씨 뿌리 찾기 사업	지역에서 배출한 유명한 인물들의 뿌리 고찰
청양문화원	-	-
홍성문화원	결성 성호리 동제 기록화 사업	무형문화자산인 결성 성호리 동제(오방제)를 널리 알리고, 원형보존과 계승을 위해 자료집과 영상물(DVD)로 기록화 및 재현
예산문화원	옛 사진전	지역문화특성화사업
	예산의 인물사 편찬 사업 예당호 해맞이 사업	
태안문화원	자염민속 발굴 및 재현	전국 최초로 전통소금 재현방식 고증 및 재현 실시, 각종 교육 및 소금역사자료로 활용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③ 어르신, 다문화, 향토사 등 각종 기금사업

인구의 고령화와 다문화사회화가 특히 농촌 지역에서 급속히 진행되면서 어르신과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지방문화원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 생활권 내에서 소외계층의 문화복지를 신장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다문화사회화의 흐름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는 농촌지역 문화원에서는 앞으로 더욱 주력해야 하는 사업이다.

충청남도 내 15개 문화원 중 3개 문화원(천안동남구, 천안서북구, 금산문화원)을 제외한 12개 문화원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로 어르신 문화학교와 문화동아리 활성화, 문화나눔 사업, 찾아가는 문화학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 지방문화원의 경우, 아직까지는 다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표 III-12] 충남 지방문화원 어르신, 다문화, 향토사 등 각종 기금사업 현황

문화원명	어르신, 다문화, 향토사 등 각종 기금사업	
	사업명	주요 내용/특성
천안동남구문화원	-	-
천안서북구문화원	-	-
공주문화원	문화나눔봉사단	전통문화공연단 동아리운영
보령문화원	전문강사 파견	-
	향토사 책자 발간	
온양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	아코디언 어르신 문화동아리, 아름다운 손끝예술 아코디언
서산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어르신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어르신 문화교육
논산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	어르신 23명을 대상으로 한지공예, 어르신문화나눔 봉사단, 교류활성화사업 등
당진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	"老소미합창단"을 창단하여 합창교육 및 공연
금산문화원	-	-
부여문화원	민속발굴선양사업	군내 주요민속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서천문화원	어르신 자서전 집필·발간	지역 민중에서 역사인물 선정 자서전 발간
청양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국고 지원사업
홍성문화원	어르신 문화동아리 아코디언 앙상블 활성화	어르신 아코디언 동아리의 지속적 관리와 보수교육, 공연관람을 통하여 문화나눔봉사단으로 육성발전, 문화소외계층에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 실시
예산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	어르신문화학교 및 생활문화전승 사업
태안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	충남도 태안군의 지원사업으로 매년 태안지역의 중요한 향토문화와 역사를 정리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④ 기타 문화원을 대표하는 우수사례

‘기타 문화원을 대표하는 우수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15개 문화원 중 3개(천안동남구문화원, 천안서북구문화원, 서천문화원) 문화원을 제외한 12개 문화원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여문화원의 경우, 전 문화재청장인 유홍준 교수 등 저명인사와 함께 하는 부여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산문화원에서도 2014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문하여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천주교 성지인 해미읍성에서 역사체험축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태안문화원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서 1박2일 일정의 가족문화여행을 매년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해오고 있었다.

[표 III-13] 충남 지방문화원의 기타 문화원을 대표하는 우수사례 현황

문화원명	기타 문화원을 대표하는 우수사례 현황	
	사업명	주요 내용/특성
천안동남구문화원	-	-
천안서북구문화원	-	-
공주문화원	찾아가는우리문화순회공연	학교 및 복지시설 방문 전통문화체험
보령문화원	우리고장바로알기 교양강좌	매주 목요일 강좌실시(년20회)
온양문화원	우리문화 즐기기	가족단위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우리문화 관심도 제고
서산문화원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서산의 대표 유적인 해미읍성에서 역사체험축제 개최
논산문화원	조선시대과거제 향시 재현	전국 대상 향시 시험시상, 각종 부대행사
당진문화원	전통성년례	성년의 책무를 일깨워주고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최
금산문화원	삶꽃문화사랑	마을문화 선양
부여문화원	명사와 함께하는 부여답사	유홍준 교수 등 저명인사와 연7회 5년간 실시
서천문화원	-	-
청양문화원	동아리활동사업	매년 동아리공고와 심사를 통해 지원
홍성문화원	정월대보름 한마당축제	정월대보름 맛이 민속행사를 통해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발전, 군민화합 도모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발표회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연말 발표회
태안문화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1박2일 가족문화여행을 매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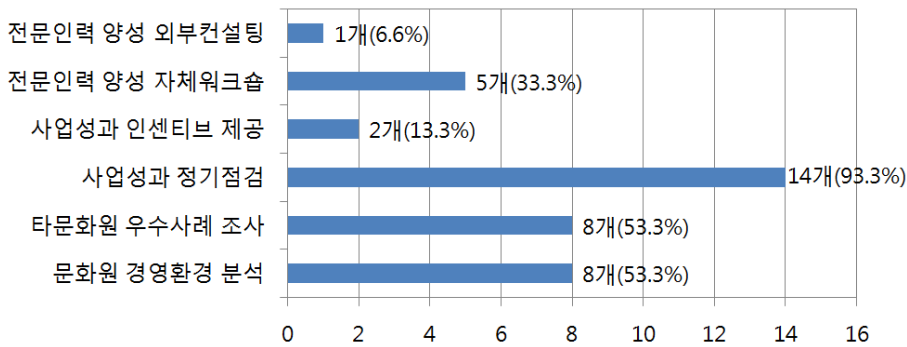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3) 운영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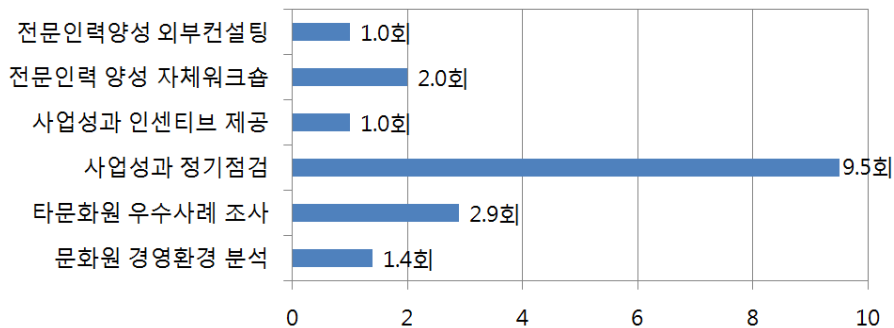
충남 지방문화원에서는 운영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을 위해 ①문화원 경영환경 분석, ②타 문화원 및 기관 우수사례 조사, ③사업성과에 대한 정기점검, ④사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⑤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체 워크숍, 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부 컨설팅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문화원의 운영제도 개선 노력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원 경영환경을 분석’하는 문화원은 8개(53.3%)로, 연 평균 1.4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문화원 및 기관 우수사례 조사’를 실시하는 문화원도 8개(53.3%)로, 연 평균 2.9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성과 정기점검’은 홍성문화원을 제외한 14개 문화원(93.3%)에서 연 평균 9.5회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림 III-8] 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 노력



[그림 III-9] 운영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 노력(연 횟수)



그러나 ‘사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화원은 서산문화원과 논산문화원 2개소(13.3%)뿐으로 연 1회 지급하는 것에 그쳤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체 워크숍’을 실시하는 문화원도 5개(33.3%)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외부컨설팅’을 실시하는 문화원은 예산문화원 1개소(6.6%)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원마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횟수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 노력 현황

문화원명	문화원 운영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 노력 현황(연 횟수)					
	문화원 경영환경 분석	타 문화원 우수사례 조사	사업성과 정기점검	사업성과 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 위한 자체워크숍	전문인력 양성 위한 외부컨설팅
천안동남구문화원	1	—	2	—	—	—
천안서북구문화원	—	—	1	—	—	—
공주문화원	1	—	2	—	—	—
보령문화원	—	1	1	—	—	—
온양문화원	1	1	4	—	—	—
서산문화원	2	—	33	1	1	—
논산문화원	—	12	40	1	—	—
당진문화원	—	1	1	—	1	—
금산문화원	—	—	3	—	5	—
부여문화원	2	3	4	—	—	—
서천문화원	1	1	1	—	—	—
청양문화원	—	—	2	—	—	—
홍성문화원	—	—	—	—	—	—
예산문화원	2	수시	수시	—	2	1
태안문화원	1	1	30	—	1	—

출처 : 충남발전재단연구원(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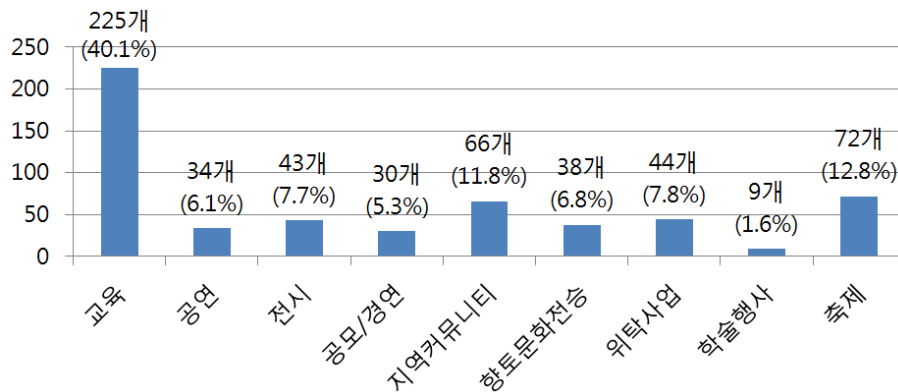
앞으로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역할을 재정립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체 경영환경 분석과 타 기관 우수사례 조사를 통한 운영제도 개선 및 경영 혁신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원 직원들의 전문화를 위한 자체워크숍과 외부컨설팅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소수 인원으로 많은 문화원 사업을 운영하는 문화원 직원들에게 사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무능력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문화원 사례를 참조하여 보수규정과 복지후생 제도를 점차 개선·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4) 프로그램

충남지역 지방문화원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운영한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15개 문화원에서 총 561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프로그램을 9개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225개로 전체의 40.1%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축제가 72개 (12.8%), 지역커뮤니티/교류사업(66개, 11.8%), 위탁사업(44개, 7.8%), 전시(43개, 7.7%), 향토문화 전승·보전(38개, 6.8%), 공연(34개, 6.1%), 공모/경연(30개, 5.3%), 학술행사(9개, 1.6%) 순이었다.

[그림 III-10] 충남지역 지방문화원 전체 운영프로그램 수



이러한 경향은 전국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도 일부 유사하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에 전국 문화원이 운영한 프로그램(8,908개) 중 교육프로그램이 총 4,593개(5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연(736개, 8.3%), 공모/경연(640개, 7.2%), 지역커뮤니티 621개(7.0%), 위탁사업(615개, 6.9%), 향토문화 전승/보전(560개, 6.3%), 축제(516개, 5.8%), 전시(453개, 5.1%), 학술행사 (151개, 1.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문화원연합회, 2014: 77). 한편, 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프로그램은 전국 지방문화원에 비해 축제와 전시 행사를 더 많이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5] 충남 지방문화원과 전국 지방문화원의 운영프로그램 비중 비교

충남	교육 > 축제 > 지역커뮤니티 > 위탁사업 > 전시 > 향토문화전승/보전 > 공연 > 공모/경연 > 학술행사
전국	교육 > 공연 > 공모/경연 > 지역커뮤니티 > 위탁사업 > 향토문화전승/보전 > 축제 > 전시 > 학술행사

① 교육프로그램

충남지역 지방문화원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운영한 교육프로그램은 모두 225개로 전 시·군의 문화원에 걸쳐 고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문화원이 10여개 내외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서산문화원은 6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독보적으로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표 III-16] 충남 지방문화원의 문화학교 등 교육프로그램 현황

(1) 교육프로그램 현황													
문화원명	전체 프로그램 (개)	전체 횟수 (회)	전체 시수 (시간)	투입 인력 (명)	직접 수혜자 (명)	간접 수혜자 (명)	만족도 조사	전체예산 (단위: 천원)	참여계층(%)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합계
합계	225	4,890	5,633	433	6,623	24,800	—	409,104	15.3	6.6	28.0	30.1	—
천안동남구문화원	7	326	652	7	100	—	○	20,246	—	—	70	30	100
천안서북구문화원	3	14	21	9	1,570	—	○	2,078	—	64	10	26	100
공주문화원	17	300	600	21	950	600	○	50,000	—	—	—	—	—
보령문화원	14	연중	—	15	280	20,000	○	49,500	—	—	30	70	100
온양문화원	7	280	560	120	140	—	○	16,290	—	10	5	85	100
서산문화원	63	1,766	—	62	1,310	—	×	64,250	—	—	—	—	—
논산문화원	2	33	92	20	32	800	○	27,000	20	20	20	40	100
당진문화원	16	737	1,498	30	560	2,100	○	53,640	—	—	55	45	100
금산문화원	14	500	260	14	236	—	×	41,000	—	—	80	20	100
부여문화원	8	8	60	24	240	—	○	4,100	100	—	—	—	100
서천문화원	10	400	800	40	100	150	○	9,500	—	—	—	—	—
청양문화원	9	90	180	9	154	—	×	6,000	95	—	5	—	100
홍성문화원	15	240	480	15	300	—	○	10,000	—	—	85	15	100
예산문화원	25	1~2	—	30	450	1,000	○	38,000	15	5	30	50	—
태안문화원	15	196	430	17	201	150	○	17,500	—	—	30	7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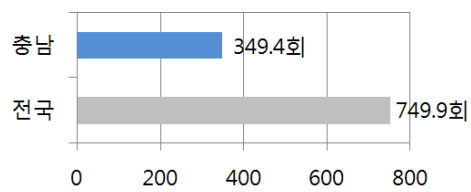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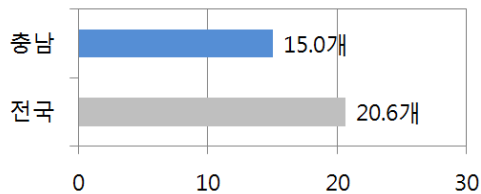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충남지역 문화원 실태조사

* 참여계층(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별 합계는 각 문화원의 참여비중 합계를 15개 문화원으로 평균 낸 값임

그러나 충남지역 문화원의 교육프로그램 개수와 운영 횟수를 전국 문화원 평균과 비교해 보면 프로그램 개수와 횟수 모두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다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지역 문화원은 교육프로그램을 평균 15개, 연간 349.4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국 지방문화원의 평균은 20.6개, 749.9회에 달한다. 프로그램의 개수 자체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나 운영횟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문화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강좌나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11] 교육프로그램 연평균 개수 [그림 III-12] 교육프로그램 연평균 운영횟수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충남지역 문화원 실태조사

한국문화원연합회(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88쪽

한편,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①어르신문화학교, ②문화예술교육, ③생활스포츠, ④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여계층에 대한 조사결과, 중장년층과 어르신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많으며, 이는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인 충남의 현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7] 충남 지방문화원의 교육프로그램명

구분	교육 프로그램명
어르신문화학교	어르신문화학교, 평생학습,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지역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	전통다례, 풍수지리, 한학, 서예, 서양화, 한국화(문인화, 사군자), 공예(양초공예, 생활도예, 도자기페인팅, 전통매듭, 짚풀공예), 노래교실, 음악난타교실, 악기(하모니카, 아코디언, 오카리나), 피오피(손글씨)교실
생활스포츠	요가, 필라테스, 방송댄스, 발리댄스, 댄스스포츠, 음악줄넘기
어린이·청소년 교육	어린이역사교실, 어린이발레, 생활영어

② 공연프로그램

충남지역의 15개 지방문화원 중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한 문화원은 4개 문화원(천안시동남구 문화원, 보령문화원, 온양문화원, 서산문화원)을 제외한 11개이며, 2013년 한 해 동안 모두 34개의 공연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공연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교류의 장이자, 지역사회에 문화원을 알리고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도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사업과 함께 문화원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표 III-18] 충남 지방문화원의 공연프로그램 현황

(2) 공연프로그램 현황													
문화원명	전체 프로그램 (개)	전체 횟수 (회)	전체 시수 (시간)	투입 인력 (명)	직접 수혜자 (명)	간접 수혜자 (명)	만족도 조사	전체 예산 (단위: 천원)	참여계층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합계
합계	34	58	192	1,220	25,965	34,800	—	620,813	3.1	15.3	11.7	16.5	—
천안동남구문화원	—	—	—	—	—	—	—	—	—	—	—	—	—
천안서북구문화원	1	3	6	7	1,500	—	×	2,600	—	100	—	—	100
공주문화원	2	8	16	45	70	2,000	○	25,000	—	—	—	—	—
보령문화원	—	—	—	—	—	—	—	—	—	—	—	—	—
온양문화원	—	—	—	—	—	—	—	—	—	—	—	—	—
서산문화원	—	—	—	—	—	—	—	—	—	—	—	—	—
논산문화원	13	13	47	225	600	16,450	○	507,113	10	30	40	20	100
당진문화원	1	6	12	5	120	10,000	○	6,000	—	—	20	80	100
금산문화원	6	12	73	390	22,000	—	—	17,500	—	—	—	—	—
부여문화원	1	1	2	10	300	200	○	8,400	10	10	60	20	100
서천문화원	1	2	4	150	300	—	○	7,000	—	—	—	—	—
청양문화원	3	3	6	140	140	750	×	22,200	12	2	26	60	100
홍성문화원	3	7	14	60	60	2,100	○	13,000	—	—	—	—	—
예산문화원	2	2	4	180	850	3,000	○	6,000	15	5	30	50	100
태안문화원	1	1	8	8	25	300	○	6,000	—	83	—	1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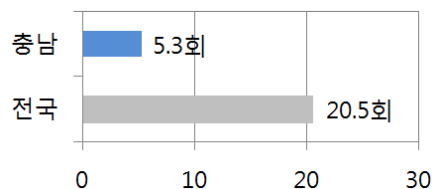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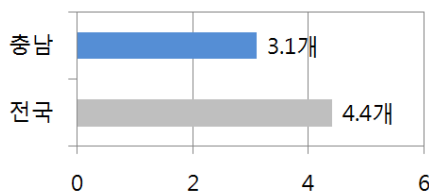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 참여계층(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별 합계는 각 문화원의 참여비중 합계를 15개 문화원으로 평균 낸 값임

충남지역 문화원의 공연프로그램 개수와 운영 횟수를 전국 문화원 평균과 비교해 보면, 프로그램 개수도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충남: 3.1개, 전국: 4.4개), 운영횟수는 1/4 수준

(충남: 5.3회, 전국: 20.5회)이어서 공연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농촌지역 특성상 관객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도 있는 문화예술인이나 공연 예술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공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문화원도 많아서 공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인력, 공연기획 면에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III-13] 공연프로그램 연평균 개수 [그림 III-14] 공연프로그램 연평균 운영횟수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충남지역 문화원 실태조사

한국문화원연합회(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89쪽

공연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음악회이며 시 단위에 위치한 논산문화원이 가장 규모가 큰 공연행사를 많이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진문화원과 태안문화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운영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표 III-19] 충남 지방문화원의 공연프로그램명

구분	문화원명	공연 프로그램명
도시형	보령문화원	문화학교, 어르신문화학교
	논산문화원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자리,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충남교향악단 음악회, 뮤지컬 난센스, 연극 미운남자, 정태춘·박은옥의 작은음악회,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공연, 3디바 뮤지컬콘서트, KBS2출발드림팀과 함께하는 논산 시민의 날 음악회, 수험생과 시민을 위한 논산사랑 희망콘서트, 7080낭만콘서트, 웃으면 복이와요 리턴즈, 빅3콘서트
	당진문화원	찾아가는 문화나눔
농촌형	부여문화원	궁남지 작은음악회
	서천문화원	힐링콘서트, 송년음악회
	청양문화원	한사랑음악회, 행복한 시낭송콘서트, 문화나눔의 밤
	예산문화원	내포보부상 놀이 공연, 문화학교 종강 발표회
	태안문화원	움직이는 문화공연

③ 전시프로그램

2013년 한 해 동안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한 문화원은 12개이며, 총 43개의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전시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계층이 함께 관람할 수 있고 행사 투입인력 대비 직·간접 수혜자가 많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경험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표 III-20] 충남 지방문화원의 전시프로그램 현황

(3)전시프로그램												
문화원명	전체 프로 그램 (개)	전체 일수 (일)	투입 인력 (명)	직접 수혜자 (명)	간접 수혜자 (명)	만족도 조사	전체예산 (단위: 천원)	참여계층				
								어 린 이	청 소 년	중 장 년	어 르 신	합 계
합계	43	219	830	14,147	55,800	—	148,225	5.0	6.8	27.1	14.4	—
천안동남구문화원	—	—	—	—	—	—	—	—	—	—	—	—
천안서북구문화원	1	8	5	—	10,000	×	3,831	—	20	60	20	100
공주문화원	5	25	7	35	4,000	○	10,000	—	—	—	—	—
보령문화원	7	3	7	140	1,000	×	4,100	—	—	50	50	100
온양문화원	—	—	—	—	—	—	—	—	—	—	—	—
서산문화원	3	39	1	700	1,800	—	20,000	—	—	—	—	—
논산문화원	2	11	20	303	600	—	—	30	20	10	40	100
당진문화원	2	14	35	7,050	20,300	○	40,794	20	25	40	15	100
금산문화원	6	18	180	300	—	—	9,000	—	—	—	—	—
부여문화원	—	—	—	—	—	—	—	—	—	—	—	—
서천문화원	2	14	10	400	—	○	5,000	—	—	—	—	—
청양문화원	5	20	40	90	800	×	9,500	—	—	44	56	100
홍성문화원	4	28	50	50	800	×	3,000	—	—	100	—	100
예산문화원	5	33	445	5,000	14,500	○	36,000	15	15	50	20	100
태안문화원	1	6	30	79	2,000	○	7,000	10	22	53	15	100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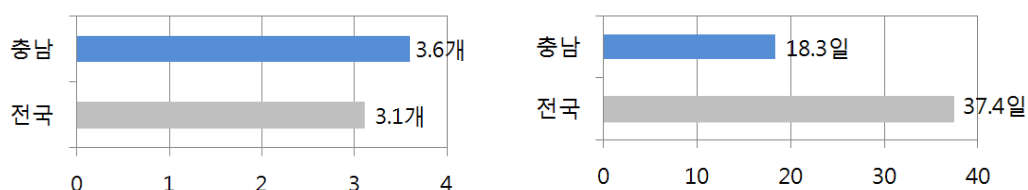
* 참여계층(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별 합계는 각 문화원의 참여비중 합계를 15개 문화원으로 평균 낸 값임

전국 문화원 평균과 비교해 보면, 충남지역 문화원의 전시프로그램 개수는 전국 수준을 근소하게 상회하지만(충남: 3.6개, 전국: 3.1개), 운영일수는 절반 수준(충남: 18.3일, 전국: 37.4일)이어서 상대적으로 장기 전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프로그램이 장기간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로는 우선 전시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충남지역 15개 문화원 중 전시실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원은 9개(60%)인데, 전시실 면적은

146.4㎡로 전국평균 188.3㎡에 비해 협소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시공간이 부족하거나 협소한 문화원은 시·군의 타 문화시설이나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전시프로그램 기획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부족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 내 대학의 관련 학과 청년인력이나 전문 문화예술단체와의 협업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I-15] 전시프로그램 연평균 개수 [그림 III-16] 전시프로그램 연평균 운영횟수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충남지역 문화원 실태조사

한국문화원연합회(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90쪽

한편, 전시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작가 초대전이나 공모전, 지역 문화예술인 작품전, 지역 역사문화자료전, 문화학교 발표회, 문화원 기획전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각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의 작품 전시회였다. 향후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동호회의 성과물을 연계한 전시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문화향유의 대상에서 문화예술 창작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21] 충남 지방문화원의 전시프로그램명

구분	전시 프로그램명
작가 초대전	초대 작가전, 추사회화대회 초대작가 전시회
공모전	문화재그림공모전, 추사회화대회 수상작품 전시회
지역 예술인 작품전	한국춘란전시회, 청양서우회전, 청양칠갑사진회원전, 한국미술협회청양지부전, 한뫼각시규방 공예전시회
지역 역사문화전	오청취당 시 도록제작, 당진시립박물관 민영근 기증 유물전, 추사서각전시회, 조선4대 명필 자암유품전시회
문화학교 발표회	문화학교 작품 전시회, 어르신문화학교한지공예
문화원 기획전	문화예술의 향연, 태안문화원 초대전

④ 공모/경연 프로그램

천안서북구문화원과 서천문화원, 홍성문화원을 제외한 12개 지방문화원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운영한 공모/경연프로그램은 모두 30개다. 문화원의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공모/경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백일장이나 사생대회 프로그램이 많아 청소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편이다.

[표 III-22] 충남 지방문화원의 공모/경연프로그램 현황

(4)공모/경연프로그램													
문화원명	전체 프로 그램 (개)	전체 횟수 (회)	전체 시수 (시간)	투입 인력 (명)	직접 수혜자 (명)	간접 수혜자 (명)	만족도 조사	전체예산 (단위: 천원)	참여계층				
									어 린 이	청 소 년	중 장 년	어 르 신	합 계
합계	30	86	3,848	556	6,050	68,650	-	421,618	7.0	20.9	18.5	13.7	-
천안동남구문화원	2	2	-	40	600	500	×	16,000	-	-	50	50	100
천안서북구문화원	-	-	-	-	-	-	-	-	-	-	-	-	-
공주문화원	2	2	6	10	80	1,500	○	12,000	-	-	-	-	-
보령문화원	1	1	1일	2	70	50,000	○	9,500	-	-	95	5	100
온양문화원	3	18	60	54	400	-	○	18,500	10	50	10	30	100
서산문화원	3	3	-	7	804	100	-	8,750	-	-	-	-	-
논산문화원	9	11	3,540	210	1,065	3,250	○	117,018	20	30	20	30	100
당진문화원	1	1	-	5	50	-	○	1,000	-	100	-	-	100
금산문화원	1	1	4	100	500	-	○	3,000	-	-	-	-	-
부여문화원	1	1	3	6	400	400	-	6,600	-	100	-	-	100
서천문화원	-	-	-	-	-	-	-	-	-	-	-	-	-
청양문화원	1	40	88	28	28	7,000	×	10,950	-	-	43	57	100
홍성문화원	-	-	-	-	-	-	-	-	-	-	-	-	-
예산문화원	4	4	144	83	1,500	5,500	○	210,000	20	20	30	30	100
태안문화원	2	2	3	11	553	400	○	8,300	55	13	29	3	100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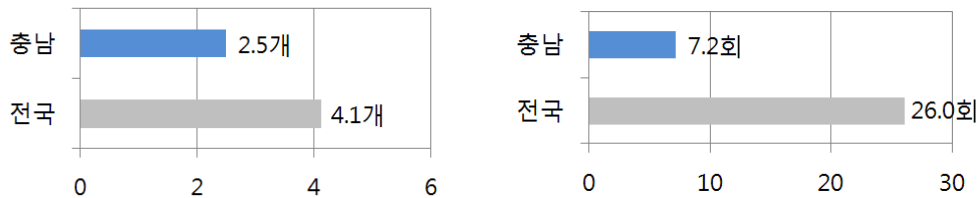
* 참여계층(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별 합계는 각 문화원의 참여비중 합계를 15개 문화원으로 평균 낸 값임

충남지역 문화원의 공모/경연프로그램 개수와 운영 횟수를 전국 문화원 평균과 비교해 보면, 프로그램 개수와 운영횟수 모두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프로그램 개수는 충남지역 문화원이 연평균 2.5개인데 반해, 전국 평균은 4.1개였으며, 운영횟수도 충남이 7.2회인데 반해, 전국평균은 그보다 3배 이상 많은 26.0회였다.

대부분의 문화원 사업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공모/경연 프로그램은 어린이

와 청소년들도 참여가 가능한 사업이므로,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공모/경연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하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향후 문화원의 회원이나 주요한 창작인력이 될 수 있으므로, 문화원의 사업과 행사에 미래세대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림 III-17] 공모/경연프로그램 연평균 개수 [그림 III-18] 공모/경연프로그램 연평균 운영횟수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충남지역 문화원 실태조사

한국문화원연합회(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91쪽

공모/경연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모프로그램은 서예나 독후감, 사진 공모전이 대부분이며, 경연프로그램도 지역 역사문화인물을 기념하는 백일장이나 사생대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논산문화원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대회나 향시, 서예회화 대회와 강경포구 전국 연날리기 대회 등 특색 있는 경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표 III-23] 충남 지방문화원의 공모/경연 프로그램명

구분	공모/경연 프로그램명
공모	자암김구 전국 서예공모전, 지역문화특성화사업(책발간), 독후감공모전, 효글짓기공모전, 입상작 논산문예, 재활용 새집 만들어달기, 어르신문화학교, 사진으로보는논산100년
경연	백전민속씨름대회, 서산문화대상, 가족백일장 및 애향사생대회, 남이흥장군문화제기념 학생 백일장, 시인신동엽추모백일장, 소성백일장, 유관순열사추모제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 청소년문화상, 논산시청소년문화제,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초,중 미술실기대회, 청소년문학제, 논산시어르신장기대회, 추사추모 전국 청소년 회화대회, 추사추모 전국 회화대회, 논산향시재현, 논산시서예회화대회, 강경포구전국연날리기대회

⑤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지역교류나 탐방 등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내 문화유적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타 지역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커뮤니티의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조사 결과, 천안서북구문화원과, 금산문화원, 서천문화원을 제외한 12개 문화원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모두 66개의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충남 지방문화원의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현황

(5)지역교류/지역탐방 등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문화원명	전체 프로그램 (개)	전체 횟수 (회)	전체 시수 (시간)	투입 인력 (명)	직접 수혜자 (명)	간접 수혜자 (명)	만족도 조사	전체예산 (단위: 천원)	참여계층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합계
합계	66	226	2,191	801	11,497	8,816	—	525,018	8.5	7.0	19.3	18.6	—
천안동남구문화원	1	5	—	—	225	—	×	2,960	—	—	—	—	—
천안서북구문화원	—	—	—	—	—	—	—	—	—	—	—	—	—
공주문화원	1	7	56	3	350	700	×	9,500	—	—	—	—	—
보령문화원	2	2	2일	2	250	250	×	4,500	—	—	50	50	100
온양문화원	1	8	64	24	720	—	○	8,000	—	—	10	90	100
서산문화원	5	17	—	13	2,550	—	—	46,145	—	—	—	—	—
논산문화원	12	58	612	292	2,387	3,145	○	114,086	30	20	20	30	100
당진문화원	14	15	73	36	499	1,000	○	86,562	—	—	50	50	100
금산문화원	—	—	—	—	—	—	—	—	—	—	—	—	—
부여문화원	14	84	829	181	2,721	2,721	—	95,397	30	10	40	20	100
서천문화원	—	—	—	—	—	—	—	—	—	—	—	—	—
청양문화원	5	10	—	27	330	—	×	13,500	18	54	17	11	100
홍성문화원	4	4	48	160	160	—	×	3,500	—	—	—	—	—
예산문화원	1	1	5	30	300	1,000	○	30,000	10	15	50	25	100
태안문화원	6	15	504	33	1,005	—	○	110,868	39	6	52	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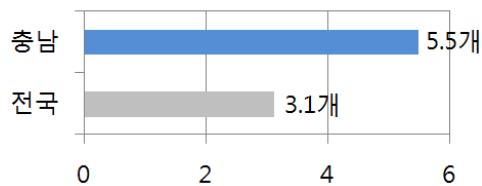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 참여계층(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별 합계는 각 문화원의 참여비중 합계를 15개 문화원으로 평균 낸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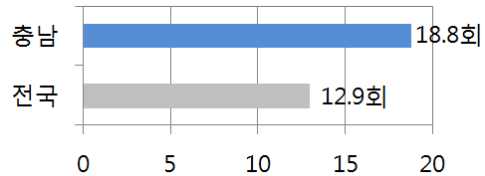
평균적으로 충남지역 문화원당 연간 5.5개, 18.8회의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전국 평균(3.1개, 12.9회)에 비해 프로그램 개수나 운영회수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문화원연합회, 2014: 92쪽 참조). 도시권 소재 문화원에 비해 지역의 문화원은 주변에 문화유적지 등 답사나 탐방을 갈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남아있어 지역 탐방 프로그램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역 탐방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에 오랫동안 정주한 주민들이 탐방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해설사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커뮤니티의 활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I-19]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연평균 개수



[그림 III-20]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연평균 운영횟수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충남지역 문화원 실태조사
한국문화원연합회(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92쪽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문화원 회원이나 시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적 답사, 탐방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다. 그 중, 당진문화원의 '소외계층 역사교육'과 청양문화원의 '다문화가족 문화체험'은 문화취약계층을 특별히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주목할 만하다.

[표 III-25] 충남 지방문화원의 지역커뮤니티 프로그램명

구분	지역교류/지역탐방 등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명
지역교류	국내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해외 문화교류/탐방, 당진문화 발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지원, 충남정신 발양사업, 태안향토문화지 발간, 서산의 숨결 발간, 소성의 향기 발간, 어르신교류활성화, 충남 어르신문화홍보 단들의 한마당
지역탐방	문화유적(유산) 답사/탐방/현장학습, 청소년역사체험순례, 교사를 위한 문화유산순례 강좌,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가족문화체험/교실, 소외계층역사교육, 태안섬기행, 우리 땅 우리역사 바로알기, 청양문화유적지킴이, 가족나들이바우처, 권역별어르신문화축제, 백제역사문화탐방시티투어, 문화학교생 문화체험, 인문학탐방, 예산군 마을동제 지원프로그램, 강경등록문화재탐방

⑥ 향토문화 전승·보전 프로그램

충남지역 문화원 중 향토문화 전승·보전 프로그램을 운영한 문화원은 전체 15개소 중 66.7%에 해당하는 10개 문화원이다. 이는 전국 문화원의 프로그램 운영비율인 66.8%(229개 문화원 중 153개 문화원에서 운영)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향토문화 전승·보전 프로그램의 전체 개수를 살펴보면 모두 38개로, 운영 횟수 면에서 볼 때, 공주문화원(3개 프로그램, 90회)과 태안문화원(5개 프로그램, 240회)에서 가장 활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충남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 전승·보전 프로그램 현황

(6)향토문화 전승·보전 프로그램													
문화원명	전체 프로그램 (개)	전체 횟수 (회)	전체 시수 (시간)	투입 인력 (명)	직접 수혜자 (명)	간접 수혜자 (명)	만족도 조사	전체 예산 (단위: 천원)	참여계층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합계
합계	38	357	13,184	535	12,319	25,150	—	751,401	0.8	3.7	19.7	15.8	—
천안동남구문화원	—	—	—	—	—	—	—	—	—	—	—	—	—
천안서북구문화원	—	—	—	—	—	—	—	—	—	—	—	—	—
공주문화원	3	90	450	15	220	2,000	○	30,000	—	—	—	—	—
보령문화원	1	1	1일	2	10,000	1,000	×	10,000	—	—	40	60	100
온양문화원	—	—	—	—	—	—	—	—	—	—	—	—	—
서산문화원	3	3	—	8	—	—	—	59,600	—	—	—	—	—
논산문화원	5	8	12,690	57	57	3,300	○	84,600	—	—	80	20	100
당진문화원	5	5	5	35	21	2,350	○	96,301	—	40	40	20	100
금산문화원	—	—	—	—	—	—	—	—	—	—	—	—	—
부여문화원	1	1	—	5	200	1,000	—	12,700	—	—	—	—	—
서천문화원	—	—	—	—	—	—	—	—	—	—	—	—	—
청양문화원	7	7	—	110	120	600	×	57,600	—	5	33	62	100
홍성문화원	1	1	4	50	50	700	×	3,000	—	—	—	—	—
예산문화원	7	1	35	100	700	1,500	○	3,500	5	5	50	40	100
태안문화원	5	240	—	153	951	12,700	○	394,100	7	5	53	3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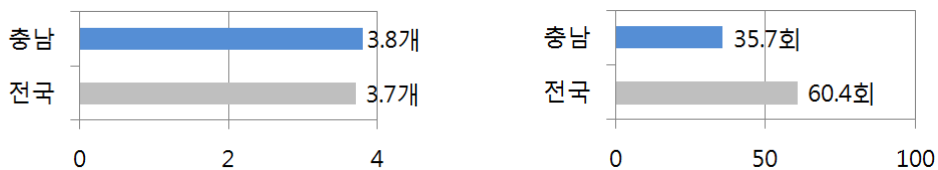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 참여계층(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별 합계는 각 문화원의 참여비중 합계를 15개 문화원으로 평균 낸 값임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충남 문화원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가 향토문화 전승·보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향토문화 전승·보전 프로그램의 연평균 개수가 충남지역 문화원이 3.8개, 전국문화원이 3.7개인데 반해, 운영횟수는 충남이 평균 35.7회, 전국평균이 60.4회로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방문화원의 고유한 활동 중 하나가 바로 향토문화의 전승·보전임에도 실제로는 충남지역 문화원의 주요 운영사업 순위에서 하위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문화원의 역할을 재고하고 향토문화 전승·보전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III-21] 향토문화전승보전프로그램 연평균 개수 [그림 III-22] 향토문화전승보전프로그램 연평균 운영횟수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충남지역 문화원 실태조사,
한국문화원연합회(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93쪽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크게 ①발굴·조사·연구 사업과 ②발간·제작 사업, ③향토·민속 전승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문화원별로 지역의 향토문화사와 역사인물, 문화유적을 조명하는 책자 발간사업을 하고 있으며, 태안문화원의 경우에는 전통 소금제조법인 자염제조법을 재현하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표 III-27] 충남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 전승보전·프로그램명

구분	향토문화 전승·보전 프로그램명
발굴 조사연구	향토민속발굴사업, 창말당제 학술조사, 조촌 추양리 두레품물 발굴조사, 향토민속발굴(김언석고택), 제헌국회의원 초부 김용제선생 학술세미나, 면양잡록해제번역사업, 향토사연구회 조사활동, 장승연구회 조사활동
발간제작	논산금석문대관2집, 예학의 고장 논산, 문화유적 영상물 제작, 자염제조 재현 및 영상 작업, 우리문화 즐기기, 논산문화 발간, 당진의 사찰 발간, 마을제 영상물 제작, 태안 군지 발간, 화재맥이 소금단지, 논산의 맛있는 이야기, 도호의숙, 칠갑문화 도서발간
향토민속 전승보전	전통성년례, 가족생활교육(제례), 바둑대회, 도서관 및 향토사료관 운영

⑦ 위탁사업 프로그램

충남지역 전체 15개 지방문화원 중에서 위탁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은 공주문화원, 서산문화원, 부여문화원, 태안문화원으로 총 4개소에 불과했다. 가장 큰 규모의 위탁사업을 진행한 문화원은 공주문화원으로 예산은 2억5천650만원이었으며, 직간접적인 수혜자도 2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부여문화원과 태안문화원은 위탁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표 III-28] 충남 지방문화원의 위탁사업 프로그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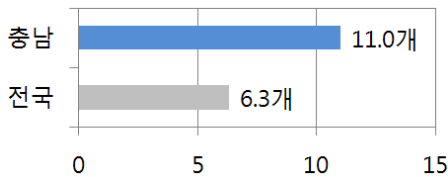
(7)위탁사업 프로그램													
문화원명	전체 프로 그램 (개)	전체 횟수 (회)	전체 시수 (시간)	투입 인력 (명)	직접 수혜자 (명)	간접 수혜자 (명)	만족 도 조사	전체예산 (단위: 천원)	참여계층				
									어 린 이	청 소 년	중 장 년	어 르 신	합 계
합계	44	49	188	541	10,048	27,910	－	572,923	1.3	0.8	6.1	4.3	－
천안동남구문화원	－	－	－	－	－	－	－	－	－	－	－	－	－
천안서북구문화원	－	－	－	－	－	－	－	－	－	－	－	－	－
공주문화원	6	13	－	150	3,000	20,000	×	256,500	－	－	－	－	－
보령문화원	－	－	－	－	－	－	－	－	－	－	－	－	－
온양문화원	－	－	－	－	－	－	－	－	－	－	－	－	－
서산문화원	3	－	－	4	802	1,500	×	165,802	－	－	－	－	－
논산문화원	－	－	－	－	－	－	－	－	－	－	－	－	－
당진문화원	－	－	－	－	－	－	－	－	－	－	－	－	－
금산문화원	－	－	－	－	－	－	－	－	－	－	－	－	－
부여문화원	21	21	41	60	5,500	5,500	○	97,500	10	10	50	30	100
서천문화원	－	－	－	－	－	－	－	－	－	－	－	－	－
청양문화원	－	－	－	－	－	－	－	－	－	－	－	－	－
홍성문화원	－	－	－	－	－	－	－	－	－	－	－	－	－
예산문화원	－	－	－	－	－	－	－	－	－	－	－	－	－
태안문화원	14	15	147	327	746	910	○	53,121	10	2	41	35	100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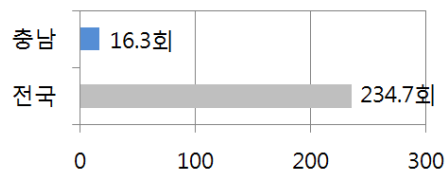
* 참여계층(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별 합계는 각 문화원의 참여비중 합계를 15개 문화원으로 평균 낸 값임

전국평균과 비교해보면, 전국의 문화원당 평균 6.3개의 위탁 프로그램을 연간 234.7회 운영한 반면에, 충남지역 문화원은 11.0개의 위탁 프로그램을 연간 16.3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당 약 1.5회 운영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일회성 위탁사업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I-23] 위탁사업 프로그램 연평균 개수



[그림 III-24] 위탁사업 프로그램 연평균 운영횟수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충남지역 문화원 실태조사
한국문화원연합회(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94쪽

한편, 위탁사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다양하다. 서산문화원의 경우, 노인 대상 일자리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템플스테이 관광프로그램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문화원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공연과 평생학습을 운영했다. 특히, 태안문화원은 '원청리 별주부옹왕제' 등 태안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차별화된 문화원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표 III-29] 충남 지방문화원의 위탁사업 프로그램명

구분	위탁사업 프로그램명
공주문화원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 제59회 백제문화제사왕추모제, 제59회 백제문화제 혼불채화 봉송합화, 제1회전국시낭송대회, 나태주 토크콘서트,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서산문화원	노인일자리사업, 템플스테이플러스원투어,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
부여문화원	부여군민과 함께하는 열린문화공연, 부여군평생학습&주민자치발표회 등
태안문화원	당제전승 및 보존, 이원면 벵가릿대놀이, 원청리 별주부옹왕제, 범군민중앙대제, 문양목선생 추모제, 안양사 제례행사지원, 옷점조개부르기제, 군민을 위한 음악회, 동학혁명 추모제

⑧ 학술행사 프로그램

세미나나 토론 등 학술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 충남지역 문화원은 8개소로 전체 15개 문화원 중 53.3%에 해당한다. 참여계층은 주로 중장년층 이상이고, 5명 이상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참석한 행사는 논산문화원의 '인문학포럼'과 예산문화원의 '조선 4대 명필 자암 김구 학술세미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산문화원의 '인문학 포럼'과 같은 성격의 학술행사는 지역 내 청소년,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므로 타 문화원에서도 시도해볼 만하다. 한편, 보령문화원과 청양문화원을 제외한 6개 문화원에서 모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충남 지방문화원의 학술행사 프로그램 현황

(8)세미나·토론 등 학술행사 프로그램													
문화원명	전체 프로그램 (개)	전체 횟수 (회)	전체 시수 (시간)	투입 인력 (명)	직접 수혜자 (명)	간접 수혜자 (명)	만족 도 조사	전체예산 (단위: 천원)	참여계층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합계
합계	9	29	90	118	1,702	3,150	—	110,051	1.2	1.1	17.1	14.0	—
천안동남구문화원	—	—	—	—	—	—	—	—	—	—	—	—	—
천안서북구문화원	—	—	—	—	—	—	—	—	—	—	—	—	—
공주문화원	1	2	8	10	—	600	○	25,000	—	—	—	—	—
보령문화원	1	20	60	20	1,000	1,000	×	9,000	—	1	39	60	100
온양문화원	—	—	—	—	—	—	—	—	—	—	—	—	—
서산문화원	—	—	—	—	—	—	—	—	—	—	—	—	—
논산문화원	1	1	3	10	30	200	○	23,517	10	10	50	30	100
당진문화원	1	1	2	15	150	—	○	5,034	—	—	50	50	100
금산문화원	—	—	—	—	—	—	—	—	—	—	—	—	—
부여문화원	—	—	—	—	—	—	—	—	—	—	—	—	—
서천문화원	1	1	—	10	200	—	○	12,500	—	—	—	—	—
청양문화원	1	1	3	8	100	—	×	10,000	—	—	—	—	—
홍성문화원	—	—	—	—	—	—	—	—	—	—	—	—	—
예산문화원	1	1	5	10	200	1,000	○	10,000	5	5	50	40	100
태안문화원	2	2	9	35	22	350	○	15,000	3	—	67	3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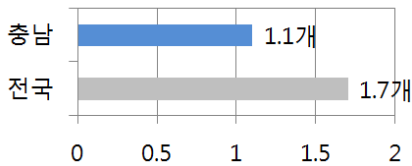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 참여계층(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별 합계는 각 문화원의 참여비중 합계를 15개 문화원으로 평균 낸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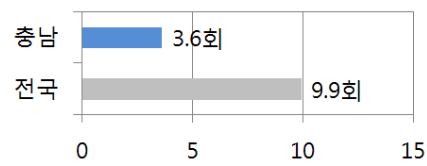
학술행사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전국평균과 비교해보면, 전국 문화원당 평균 1.7개의 프로그램을 연간 9.9회 운영한 반면에, 충남지역 문화원은 1.1개의 프로그램을 연간 3.6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한 보령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문화원 경우, 1~2회 정도 일회성 행사를 진행했으며, 행사횟수에 비해 직간접 수혜자 수가 많은 편이어서 대규모 학술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I-25] 학술행사 프로그램
연평균 개수



[그림 III-26] 학술행사 프로그램
연평균 운영횟수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충남지역 문화원 실태조사
한국문화원연합회(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95쪽

학술행사의 세부 프로그램은 세미나, 워크숍, 학술발표회, 포럼, 토론회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주로 지역 내 역사인물에 대한 연구 차원에서 진행된 세미나가 많은 편이다. 청양문화원의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운영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고, 서산문화원에서는 평생학습 발표회, 태안문화원은 태안군 문화예술인 토론회를 여는 등 다양한 목적의 학술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31] 충남 지방문화원의 학술행사 프로그램명

구분	학술행사 프로그램명
세미나	제헌국회의원 초부 김용제 선생 학술세미나, 성씨 뿌리찾기 학술세미나, 조선4대명필 자암김구 학술세미나
워크숍	칠갑문화축제 개선 발전을 위한 워크숍
학술발표회	제7회 태안역사문화 학술발표회, 서산시 평생학습 발표회
포럼	인문학포럼
토론회	태안군 문화예술인 토론회
기타	새해인사회, 신년교례회

⑨ 축제 프로그램

천안서북구문화원과 공주문화원, 홍성문화원을 제외한 13개 문화원에서 총 72개의 축제프로그램을 개최했으며, 그 중에서도 백제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부여군의 부여문화원은 46개의 축제프로그램을 운영해 개수 면에서 독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부여 서동연꽃축제’의 프로그램이 33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2] 충남 지방문화원의 축제프로그램 현황

(9)축제프로그램												
문화원명	전체 프로그램 (개)	전체 일수 (일)	투입 인력 (명)	직접 수혜자 (명)	간접 수혜자 (명)	만족도 조사	전체예산 (단위: 천원)	참여계층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기타
합계	72	271	1,354	238,945	574,450	—	2,028,256	8.9	6.4	25.6	12.1	0.3
천안동남구문화원	1	1	20	100	500	×	33,000	—	—	90	10	—
천안서북구문화원	—	—	—	—	—	—	—	—	—	—	—	—
공주문화원	—	—	—	—	—	—	—	—	—	—	—	—
보령문화원	1	1	2	2,000	2,000	○	5,000	5	5	80	5	5
온양문화원	1	2	10	320	—	○	20,000	—	—	—	—	—
서산문화원	3	5	17	—	270,000	—	806,713	—	—	—	—	—
논산문화원	1	1	100	100	700	○	20,000	30	10	20	40	—
당진문화원	2	2	5	250	2,500	○	8,017	30	20	40	10	—
금산문화원	3	5	—	—	—	—	100,000	—	—	—	—	—
부여문화원	46	7	245	222,400	217,400	○	536,656	30	10	30	30	—
서천문화원	1	5	40	200	—	○	19,000	—	—	—	—	—
청양문화원	1	3	300	550	50,000	○	180,000	—	22	37	41	—
홍성문화원	—	—	—	—	—	—	—	—	—	—	—	—
예산문화원	1	1	150	3,000	3,000	○	15,000	10	15	50	25	—
태안문화원	11	238	465	10,025	28,350	○	284,870	29	14	37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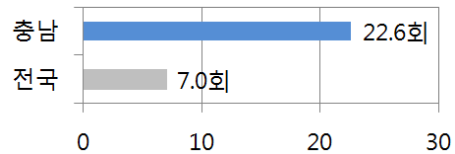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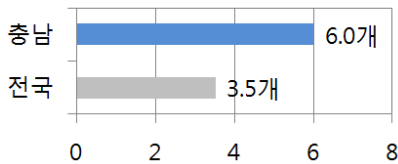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 참여계층(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별 합계는 각 문화원의 참여비중 합계를 15개 문화원으로 평균 낸 값임

한국문화원연합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 지방문화원 중 64.2%(147개)가 축제를 개최했으며,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권역별로는 충청권에 기반을 둔 문화원에서 축제/행사 프로그램 수가 많았다(한국문화원연합회, 2013: 96). 특히 충남지역 문화원의 경우, 전국 문화원 대비 축제프로그램의 운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국 지방문화원의 연평균 축제

프로그램 개수는 3.5개, 개최일수는 7.0일인데 비해, 충남지역 문화원은 연평균 6.0개의 축제프로그램을 22.6일로 나타냈다. 태안문화원의 경우, 자염재현축제를 230일간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문화원과 자염을 홍보했다.

[그림 III-27] 축제프로그램 연평균 개수 [그림 III-28] 축제프로그램 연평균 운영횟수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충남지역 문화원 실태조사

한국문화원연합회(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96쪽

지방문화원이 주관하는 축제프로그램은 크게 새해 해맞이축제, 향토민속축제, 문화예술축제 등으로 구분된다. 축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므로, 문화원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인 마을축제를 지속적으로 창안한다면 지역의 활력도 높이고 타 지역과의 교류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III-33] 충남 지방문화원의 축제 프로그램명

구분	축제 프로그램명
새해 축제	해맞이 행사(성흥산, 예당호, 백화산)
향토민속 축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한마당, 아우내단오축제, 맹정승축제, 성년례, 소원성취 띠벳놀이, 부여서동연꽃축제
문화예술 축제	작은예술제, 기벌포예술제, 칠갑문화축제, 제11회 태안문화제, 어르신문화축제, 새충남문화대축전
기타	자염 재현 축제,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홍산대첩문화제

(5) 기타 사업

① 문화원형 활용사업

충남 지방문화원 중에서 문화제 및 전설, 민담, 설화 등 문화콘텐츠인 문화원형을 가공·활용하여 축제, 전통놀이, 음악회,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개발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 문화원은 6개(40.0%)로 나타났다. 주요 활용사례로는 민속콘텐츠를 축제와 문화제에 접목시킨 상월고구마 축제, 홍산대첩문화제, 정월대보름한마당축제, 만해추모제 및 추모음악회, 내포영산대제, 추사 휘호대회, 자연축제, 벚가리대놀이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해당 민속콘텐츠를 전통제례나 축제 등에서 그대로 재현하는데 그치고 있고, 연극이나 인형극, 뮤지컬, 동화 및 만화책 발간 등으로 2차 개발을 한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충남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및 민담, 설화 등을 스토리텔링화하고 2차적으로 가공하여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관광 사업 부문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시도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III-34] 충남 지방문화원의 문화원형 활용사례

시군	문화원형 구분	문화원형	활용사례 주요내용
공주	시도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	의당집터다지기, 선학리지계놀이 민속전승
논산	민속콘텐츠	상월방망이 상여소리	상월지역에 내려오는 독특한 방망이 상여소리를 상월 고구마축제에서 재현
부여	문화재자료	홍산태봉산성	고려시대 최영장군의 홍산대첩 활용 홍산대첩문화제
홍성	민속콘텐츠	민속놀이 민속신앙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인 민속놀이와 정월대보름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을 활용한 정월대보름한마당축제
	민속콘텐츠	전통관례 및 계례	우리나라 전통 통과례인 전통관례 및 계례를 활용한 전통 성년식 재현사업
	시도지정문화재	한용운선사 생가지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지를 활용한 만해추모제 및 추모음악회(만해문학강연, 만해백일장 및 사생휘호대회, 만해추모다례, 만해추모음악회, 만해문학의밤)
예산	문화재자료	대흥임존성	백제부흥운동 최후의 항거지인 대흥임존성에서 위령제 봉행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시도지정문화재	내포영산대제	예산 내포지역의 불교제례양식인 내포영산대제 실연
	시도지정문화재	추사고택	추사고택을 활용한 전통추모제례 및 휘호대회 진행
태안	민속콘텐츠	전통자연 생산갯벌	국내 유일의 자연생산갯벌을 활용해 태안지역의 민속과 브랜드 개발, 각종 영상·교육 자료화, 자연축제 개발
	민속콘텐츠	벚가릿대놀이	벚가릿대놀이 보존과 재현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국 최고의 농촌체험마을로 성장

② 동아리 지원사업

충남지역 문화원 중 지역주민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문화원은 천안동남구문화원, 천안서북구문화원, 보령문화원을 제외한 12개 문화원이며, 동아리수는 모두 68개, 회원수는 1,267명이다. 이중 가장 많은 동아리와 회원수를 보유한 문화원은 금산문화원(25개 동아리, 430명)이며, 다음으로 청양문화원(11개 동아리, 272명), 서천문화원(10개 동아리, 100명) 순이다.

[표 III-35] 문화원별 동아리 활동 현황

구분	동아리수(개)	회원수(명)	동아리명
공주문화원	4	83	논두렁발두렁, 청소년오케스트라, 연극동아리, 문화원합창단
온양문화원	1	40	어르신문화동아리
서산문화원	2	30	선다회, 서산시낭송회
논산문화원	2	15	위풍당당 어르신 한지공예가, 더불어 생각하는 기억상자 토우반
당진문화원	4	65	건강택견체조, 늘푸른 악단, 아코디언공연단, 민속놀이
금산문화원	25	430	자도시동인회, 금동인(미술), 금산농악회, 금목회, 물폐기농요, 풍각쟁이, 금산민속연보존회, 농바우끄시기, 만해풍물단, 금곡서회, 창현회, 산꽃시동인회, 그룹사운드 파랑새, 토리풍류회, 금산역사문화연구소, 송계지계놀이보존회, 한량무, 메아리합창단, 주부난타, 생활도자기, 수채화, 가야금, 해금, 캘리그라피, 여성작가협회
부여문화원	1	84	부여청소년오케스트라
서천문화원	10	100	전통다례, 서예, 요가, 기타 등
청양문화원	11	272	소리사랑예술단, 금빛무용단, 청무풍물패, 청양색소폰동호회, 정산서예동아리, 운곡주부풍물단, 칠갑색소폰동호회, 소리여울통기타동아리, 연극동아리, 문화사랑동호회, 문화나눔봉사단
홍성문화원	4	61	아코디언앙상블, 예그리나 우쿨렐레, 챔버오케스트라 내포파르텟, 홍주국악관현악단
예산문화원	2	60	내포시조 보존회, 대한시조 보존회
태안문화원	2	27	나이아가라 실버마술단, 한울타리봉사단

동아리는 주로 악기연주, 합창, 공연, 풍물 등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나 금산문화원의 경우, 금산농악회, 물폐기농요, 민속연보존회 등 향토역사문화자원의 보존·전승과 관련된 활동이 많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자원을 자발적으로 보존·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문화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③ 연구·발간 사업

○ 향토문화연구사업

충남 지방문화원에서 향토문화연구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천안동남구문화원과 천안서북구문화원, 청양문화원, 홍성문화원을 제외한 11개 문화원이며, 연구사업 건수는 총 29개였다. 투입인력을 살펴보면 주로 외부 인력을 많이 활용하여 향토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원이 지역의 향토문화를 연구·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외부 향토문화 전문가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학예사나 향토연구전문가가 문화원에 상근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 조건을 개선해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36] 문화원별 향토문화 연구사업

구분	사업 건수	주요연구내용	예산	투입인력	
				내부	외부
천안동남구문화원	-	-	-	-	-
천안서북구문화원	-	-	-	-	-
공주문화원	4	향토민속발굴 민속신앙 영상사업 외	32,000	-	8
보령문화원	4	향토문화 책자 4권 발행	69,000	2	4
온양문화원	2	토정 이지함 책자 발간, 곡교천 역사와 문화 책 발간	52,600	3	10
서산문화원	3	서산의 법사와 얹은곳, 명천리 창말당제, 서산 가로림만 도서 지역 민속과 생활	59,600	1	7
논산문화원	4	향토음식, 소금단지화재매이산신제, 금석문, 향토인물연구	54,600	13	24
당진문화원	3	당진의 사찰, 도호의숙, 면양잡록 번역	88,100	5	3
금산문화원	2	임희재문학 발굴사업, 성불산 마을이야기 발간	31,600	2	2
부여문화원	1	부여 조촌 추양리 두레풍물조사	12,700	1	4
서천문화원	1	성씨 뿌리 찾기	-	-	-
청양문화원	-	-	-	-	-
홍성문화원	-	-	-	-	-
예산문화원	2	충청남도 예산 방언 연구, 조선 4대명필 자암 김구 생애와 학문 연구	40,000	3	10
태안문화원	3	태안역사문화학술 발표회, 태안향토문화지 발간, 향토민속 발굴	27,100	9	54

○ 향토문화 외 연구사업

향토문화 외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문화원은 공주, 보령, 논산, 당진, 4개 문화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체로 문화원 소식지를 발간하는 일이다.

[표 III-37] 문화원별 향토문화 외 연구사업

문화원명	사업 건수	주요연구내용	예산	투입인력	
				내부	외부
공주문화원	1	격월간 <공주문화> 발간	30,000	2	-
보령문화원	1	소식지 발행	28,000	2	1
논산문화원	1	논산문화	30,000	4	11
당진문화원	1	초부김용제선생학술세미나	5,000	5	10

○ 발간자료

지방문화원이 발간한 자료는 크게 ‘향토문화자료’와 ‘향토문화 외 자료’(문화원지/지역 관광 정보/지역정보 소개 등)로 분류할 수 있다. ‘향토문화자료’는 주로 각 지역의 문화유적이나 향토사, 생활민속, 자연환경, 역사·문화인물, 특산물, 전설, 설화 등과 관련된 단행본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또, ‘향토문화 외 자료’에는 문화원에서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소식지나 지역문화예술인 주소록, 작품전시회 도록, 백일장 문집 등 문화원에서 주관한 행사의 자료집, 지역 관광 안내서 등이 있다.

충남의 지방문화원이 개원한 이래 50여 년간 발간된 자료는 총 1,108종, 73만5천7백16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이내에 발간된 자료는 총 218종, 17만9천9백3권으로, 전체 발간자료의 24.5%를 차지해, 최근 들어 자료 발간이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2009~2013년까지 각 문화원의 평균 발간자료 수는 14.5권으로 매년 약 3권의 자료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원 이래 가장 활발하게 자료를 발간한 문화원은 온양문화원(200종, 10만권), 예산문화원(200종, 10만권), 서산문화원(150종, 7만5천권), 홍성문화원(82종, 8만권), 당진문화원(80종, 8만권) 순이다. 발간 종수로 미루어볼 때,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발간자료가 많은 문화원은 예산문화원(35종, 3만권)이었다. 한편, 태안문화원의 경우, 문화원에서 주최한 태안문화제, 어린이동요대회 등의 행사 촬영분을 CD나 DVD로 제작·발행하기도 했다.

[표 III-38] 충남 지방문화원의 발간자료

문화원명	문화원 발간자료 현황			
	(1) 문화원 개원 이후		(2) 2009~2013년 발간자료	
	발간 종수(종)	발간 부수(권)	발간 종수(종)	발간 부수(권)
합계	1,108	735,716	218	179,903
천안동남구문화원	-	-	7	7,000
천안서북구문화원	21	46,800	9	9,800
공주문화원	59	41,300	20	1,400
보령문화원	50	50,000	14	1,000
온양문화원	200	100,000	9	10,600
서산문화원	150	75,000	12	31,900
논산문화원	41	70,500	12	32,000
당진문화원	80	80,000	19	22,000
금산문화원	50	1,000	12	1,000
부여문화원	35	35,000	5	6,500
서천문화원	-	-	21	21
청양문화원	64	55,950	10	8,650
홍성문화원	82	80000	19	18,000
예산문화원	200	100,000	35	30,000
태안문화원	76	166	14	32

④ 정보·자료 운영사업

○ 자료운영 현황

충남 지방문화원의 자료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온양문화원을 제외한 14개 문화원이 모두 발간책자와 자료 등을 보관하는 별도의 자료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구 보존을 위한 별도의 자료 아카이빙(디지털화 등)을 하고 있는 문화원은 6개 문화원(공주문화원, 서산문화원, 논산문화원, 부여문화원, 예산문화원, 태안문화원)에 불과해, 자료 보존과 열람을 위한 아카이빙 구축이 시급한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역의 오랜 향토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

적으로 관리할 전문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문화원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천안동남구문화원을 제외한 14개 문화원이 보유한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나, 사무국장 대상 워크숍과 인터뷰 조사 결과, 자료를 관리할 전문인력의 부족과 아카이빙의 미비, 자료목록 구축 미비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자료의 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문화원의 행사 프로그램 산출물 등의 자료는 천안서북구문화원과 온양문화원을 제외하고 대체로 보관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발간책자 등 자료목록(DB)을 구축하지 못한 문화원이 4곳(천안서북구문화원, 온양문화원, 금산문화원, 서천문화원)이나 되어, 실상 자료의 원활한 활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문화원의 체계적인 자료 관리는 향후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문화원만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전문사서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 문화원의 회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료 관리 및 운영방안, 혹은 지역 내 도서관과의 연계운영 방안 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표 III-39] 충남 지방문화원의 자료운영 현황

문화원명	문화원의 자료운영 현황					
	별도 자료실	별도 자료 아카이빙	전문사서 배치	자료대출 기능	문화원 행사 자료 보관	자료목록 구축
천안동남구문화원	○	×	×	×	○	○
천안서북구문화원	○	×	×	○	×	×
공주문화원	○	○	×	○	○	○
보령문화원	○	×	×	○	○	○
온양문화원	×	×	×	○	×	×
서산문화원	○	○	×	○	○	○
논산문화원	○	○	×	○	○	○
당진문화원	○	×	×	○	○	○
금산문화원	○	×	×	○	○	×
부여문화원	○	○	×	○	○	○
서천문화원	○	×	×	○	○	×
청양문화원	○	×	×	○	○	○
홍성문화원	○	×	×	○	○	○
예산문화원	○	○	×	○	○	○
태안문화원	○	○	×	○	○	○

○ 시청각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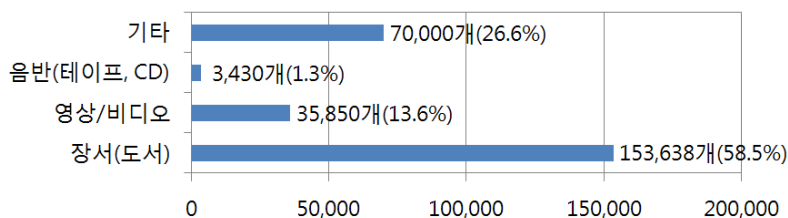
문화원마다 전문사서가 없고 자료목록 구축이 안 되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응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사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충남 지방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청각매체는 총 262,918개, 종류별로는 장서 153,638권, 영상/비디오 35,850개, 음반 3,430개, 기타 70,00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0]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시청각 매체

문화원명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시청각 매체(단위: 개)			
	장서(도서)	영상/비디오	음반(테이프·CD)	기타
합계(262,918)	153,638	35,850	3,430	70,000
천안동남구문화원	6,800	50	30	-
천안서북구문화원	2,000	-	130	-
공주문화원	5,000	250	400	-
보령문화원	-	2	-	-
온양문화원	20,000	-	50	-
서산문화원	10,530	150	86	-
논산문화원	5,200	2,100	1,500	60,000
당진문화원	30,000	30,000	120	5,000
금산문화원	15,000	-	30	-
부여문화원	30,000	700	300	5,000
서천문화원	1,500	-	-	-
청양문화원	5,950	1,183	384	-
홍성문화원	4,700	500	-	-
예산문화원	10,000	300	200	-
태안문화원	6,958	615	200	-

문화원이 보유한 자료 절반 이상(58.8%)이 도서자료이므로, 최소한 도서자료에 한해서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료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29] 충남 지방문화원의 자료운영 현황



○ 지역정보서비스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역 문화재, 지역 문화관광 정보 등 ‘지역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원은 전체 15개 문화원 중 홍성문화원을 제외한 14개 문화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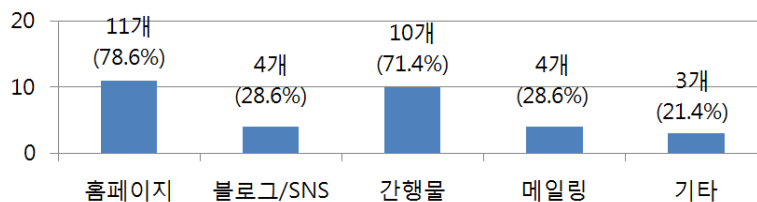
[표 III-41] 충남 지방문화원의 매체별 지역정보서비스 제공 여부

문화원명	유/무	홈페이지	블로그/SNS	간행물	메일링	기타
천안동남구문화원	○	○	×	○	×	×
천안서북구문화원	○	○	×	×	×	×
공주문화원	○	○	×	○	○	×
보령문화원	○	×	×	○	×	×
온양문화원	○	○	×	○	○	×
서산문화원	○	×	×	○	×	×
논산문화원	○	○	○	○	×	○
당진문화원	○	○	×	○	○	×
금산문화원	○	×	×	○	×	×
부여문화원	○	○	×	×	×	×
서천문화원	○	○	○	○	×	×
청양문화원	○	○	×	×	×	×
홍성문화원	×	×	×	×	×	×
예산문화원	○	○	○	○	×	○(문자)
태안문화원	○	○	○	×	○	○(우편)

‘지역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4개 문화원의 매체별 활용 여부를 살펴보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문화원이 전체의 78.6%(11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간행물(71.4%, 10개), 블로그/SNS와 메일링이 각각 28.6%(4개), 기타(21.4%, 3개) 순이다. 기타에는 ‘문자’나 ‘우편’이 있다.

대부분의 문화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 지역 내 각종 행정 정보와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문화원 회원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III-30] 충남 지방문화원의 지역정보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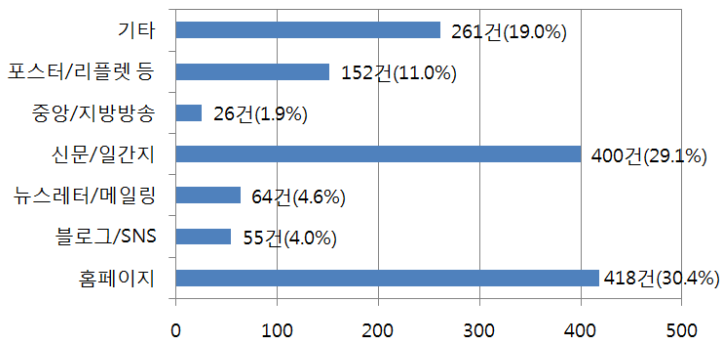
⑤ 홍보사업

2013년 한 해 동안 문화원이나 문화원의 사업을 홍보한 건수는 총 1천375건이며, 매체별로는 '홈페이지 홍보'를 진행한 문화원이 13개, 건수로는 4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문/일간지(12개 문화원, 400건), 포스터/리플렛/팸플릿(12개 문화원, 152건), 뉴스레터/메일링(3개 문화원, 64건), 블로그/SNS(3개 문화원, 55건), 중앙/지방방송(5개 문화원, 26건) 순이다.

[표 III-42] 충남 지방문화원의 문화원 사업 홍보 현황 (단위: 건)

문화원명	홈페이지	블로그 SNS	뉴스레터 메일링	신문/일간지	방송	포스터 리플렛	기타	전체 홍보수	정기홍보 유/무
합계	418	55	64	400	26	152	261	1,376	7
천안동남구문화원	20	-	-	-	-	10	-	30	○
천안서북구문화원	7	-	-	-	-	-	-	7	×
공주문화원	45	-	12	24	6	35	160	282	○
보령문화원	30	-	-	-	-	-	-	30	×
온양문화원	15	-	-	12	3	10	-	40	○
서산문화원	-	-	-	10	-	2	-	12	×
논산문화원	38	40	-	102	5	21	1	207	×
당진문화원	10	-	10	20	-	10	-	50	○
금산문화원	-	-	-	4	-	4	-	8	○
부여문화원	20	-	-	20	-	13	-	53	×
서천문화원	100	-	-	2	-	-	-	102	×
청양문화원	46	-	-	58	-	5	-	109	×
홍성문화원	15	-	-	18	-	10	-	43	×
예산문화원	30	-	-	50	3	25	100	208	○
태안문화원	42	15	42	80	9	7	-	195	○

[그림 III-31] 충남 지방문화원의 문화원 사업 홍보 현황



⑤ 홈페이지 운영사업

충남지역 문화원 중에서는 금산문화원을 제외한 14개 문화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안내 등 정보 제공’은 하고 있으나, ‘소장자료 목록을 서비스’하는 문화원은 10곳뿐이었으며, ‘자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시하는 문화원은 6곳에 불과해 홈페이지가 자료 아카이브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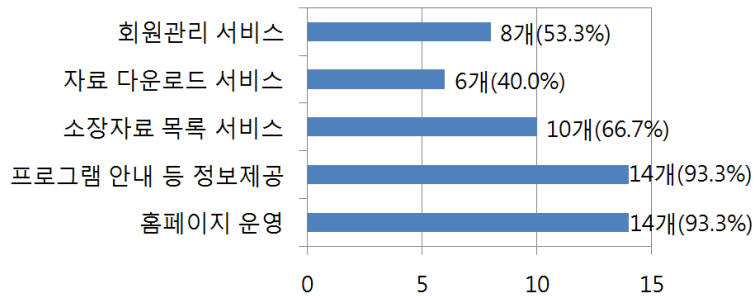
문화원이 향토역사문화와 관련된 다수의 장서 등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료들이 디지털화가 되어있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리도 되지 않아 사실상 지방문화원의 자료 활용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과 메일링 등의 회원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문화원도 전체 14개 문화원 중 8개(57.1%)에 불과해 온라인 회원관리 서비스의 취약점도 드러났다.

[표 III-43] 충남 지방문화원의 문화원 홈페이지 운영 현황

문화원명	홈페이지 운영 유/무	프로그램 안내 등 정보제공	소장자료 목록 서비스	자료 다운로드 서비스	회원관리/ 메일링 서비스
천안동남구문화원	○	○	×	○	○
천안서북구문화원	○	○	○	○	×
공주문화원	○	○	○	×	○
보령문화원	○	○	○	×	×
온양문화원	○	○	×	○	×
서산문화원	○	○	○	○	○
논산문화원	○	○	○	×	○
당진문화원	○	○	×	×	×
금산문화원	×	×	×	×	×
부여문화원	○	○	○	×	×
서천문화원	○	○	×	×	○
청양문화원	○	○	○	×	×
홍성문화원	○	○	○	×	○
예산문화원	○	○	○	○	○
태안문화원	○	○	○	○	○

[그림 III-32] 충남 지방문화원의 홈페이지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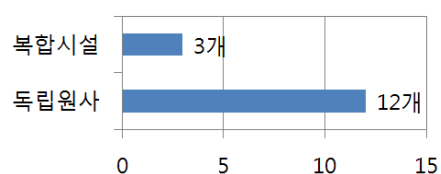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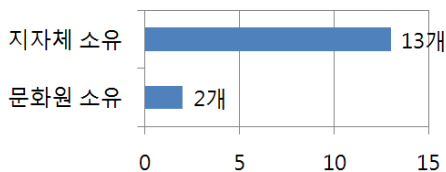


4) 충남 지방문화원의 인프라 현황

(1) 시설

충남지역 15개 문화원 중 13개(86.7%) 문화원이 지자체가 소유한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천안서북구문화원과 청양문화원 2곳(13.3%)만 독립원사를 소유하고 있다. 시설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원만 별도의 독립원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12곳(80.0%), 복합시설 중 일부 공간을 임대한 경우가 3곳(20.0%, 보령문화원¹³⁾, 온양문화원, 논산문화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논산문화원은 2015년에 신축 독립원사를 준공할 예정이다.

[그림 III-33] 충남 지방문화원 소유형태 [그림 III-34] 충남 지방문화원 시설유형



*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13) 보령문화원의 경우, 2013년 12월 문화원 신축 시 문화관광지구 조성 계획에 따라 복합시설로 건축되었다. 구 대천역에 보령문학관, 보령박물관, 야외공연장, 갯벌생태과학관, 관광홍보관, 보령문화원이 집적되어 공간 이용도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표 III-44] 충남 지방문화원의 시설 소유 형태 및 유형

문화원명	소유 형태	시설 유형
천안동남구문화원	지자체 소유	독립원사
천안서북구문화원	문화원 소유	독립원사
공주문화원	지자체 소유	독립원사
보령문화원	지자체 소유	복합시설
온양문화원	지자체 소유	복합시설
서산문화원	지자체 소유	독립원사
논산문화원	지자체 소유	복합시설
당진문화원	지자체 소유	독립원사
금산문화원	지자체 소유	독립원사
부여문화원	지자체 소유	독립원사
서천문화원	지자체 소유	독립원사
청양문화원	문화원 소유	독립원사
홍성문화원	지자체 소유	독립원사
예산문화원	지자체 소유	독립원사
태안문화원	지자체 소유	독립원사

① 시설 보유 수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실, 회의실,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전시실, 도서실’ 중 사무실을 포함해 세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연면적 33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 2011.12.28 개정). 이러한 시설 기준은 1965년 제정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서 제시되었던 강당, 전시실, 시청각실, 사무실, 연면적 660㎡ 이상의 공간보다는 훨씬 완화된 기준이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15; 박종호, 2001: 24~26).

이처럼 지방문화원의 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기타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충남지역 문화원 중에서 형식적으로라도 기본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은 15개 문화원 중 6개소(공주문화원, 서산문화원, 부여문화원, 서천문화원, 홍성문화원, 태안문화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5] 충남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단위: m²)

구분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공연장	향토사 연구소	향토자료 전시관	기타
천안동남구문화원	77.8	—	138.6	80.0	66.0	—	8.0	—	66.0
천안서북구문화원	99.7	—	92.73	—	—	—	—	—	—
공주문화원	200.0	150.0	350.0	300.0	100.0	—	70.0	250.0	740.0
보령문화원 ¹⁴⁾	37.0	44.0	302/108	—	—	—	(사무실)	—	—
온양문화원	49.7	92.4	184.8	—	—	—	—	132.3	138.3
서산문화원	78.3	37.8	201.6	141.6	70.8	—	—	429	244.4
논산문화원	60.1	—	—	—	—	—	—	—	—
당진문화원	57.1	22.0	180.0	160.4	—	—	—	—	—
금산문화원 ¹⁵⁾	50.2	—	—	381 (청산 아트홀)	1,172 (인삼고을 도서관)	3,657 (생명 의집)	36.0	2,325 (금산 향토관)	—
부여문화원	125	180.0	375.0	252.0	125.0	210.0	—	—	—
서천문화원	62.8	52.8	234.7	46.2	56.1	—	—	—	128.8
청양문화원	82.5	148.5	313.5	—	66.0	—	—	30.3	33.0
홍성문화원	68.0	45.9	428.3	186.2	93.3	81.0	—	121.5	220.3
예산문화원	25.7	57.0	71.5	49.22	—	—	38.5	14.5	9.36
태안문화원	37.0	30.0	181.0	102.0	54.0	—	—	99.0	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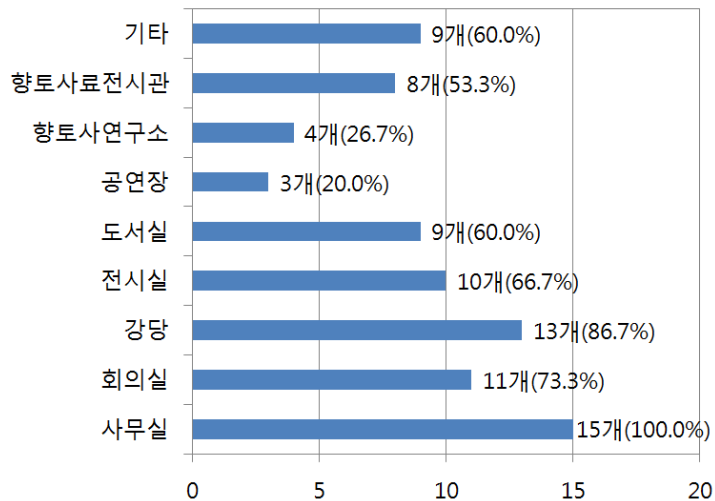
시설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사무실(15개, 100.0%), 강당(13개, 86.7%), 회의실(11개, 73.3%), 전시실(10개, 66.7%), 도서실(9개, 60.0%), 향토자료전시관(8개, 53.3%), 향토사연구소(4개, 26.7%), 강당 외 별도 공연장(3개, 20.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시설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의실(천안동남구, 서산), 사랑방(온양), 지하 전통체험실(홍성), 자료실(예산)이다.

14) 보령문화원은 2013년 12월 문화원 신축 시 보령문학관, 보령박물관, 야외공연장, 갯벌생태과학관, 관광홍보관과 함께 복합문화시설로 구성되어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전시실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설 공유를 통해 전시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15) 금산문화원의 시설은 공간 구획이 유연하게 이루어져 있고, 다락원 내 타 시설과 시설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적인 문화원의 시설 구분 범주에 맞추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시실은 다락원 내 청산아트홀을, 도서실은 인삼고을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 공연장은 생명의 집, 향토자료전시관은 금산향토관과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3층으로 되어있는 금산문화원만의 층별 보유시설 총 면적은 아래와 같다. 금산군지편찬위원회(2011), 『금산군지3: 변화와 도약의 인삼고을』, 157쪽 참조.

- 1층: 116평(사무국, 문화사랑, 금산사랑, 준비실)
- 2층: 126.5평(풍류방, 금산역사문화연구소, 합창단실, 놀이방, 원장실, 향토자료박물관)
- 3층: 126평(그림방, 서예방, 글방, 공방, 농파헌, 도자공방)

[그림 III-35] 충남 지방문화원의 시설 보유 현황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 적시된 것처럼 사무실을 포함해 3개 이상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은 2013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2개 문화원(천안서북구문화원, 논산문화원)이며, 이 중 천안서북구문화원은 사무실과 강당만 보유하고 있어서 시설 보완이 필요한 형편이다. 그러나 그동안 독립원사 없이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해온 논산문화원의 경우에는 2014년에 예산 46억4200만 원(국비 18억5600만 원, 도비 4억 원, 시비 23억8600만 원)을 확보해 2015년 3월부터 신축 문화원의 착공에 들어갔다. 논산문화원은 1541㎡면적에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실, 다목적실, 배움터, 자료실 및 문서보관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상 문화원 보유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화원은 2015년 기준으로 천안서북구문화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금산문화원은 금산군의 복합문화시설인 다락원과 시설을 공유하고 있어 예외적인 사례로 봐야할 것이다. 금산 다락원은 금산군의 문화, 복지 시설을 한 곳에 집적한 복합문화시설로서 2006년도에 대지면적 56,517㎡에 건축면적 9,861.35㎡ 규모로 설립되었다. 다락원 내 시설로는 생명의집, 건강의 집, 만남의집, 문화의집(문화원), 청소년/장애인의집, 노인의집, 여성의집, 농민의집, 스포츠센터, 기적의 도서관, 인삼고을도서관, 청산회관, 청산아트홀, 금산향토

관이 있다(금산다락원, 2009: 6). 이중 문화의집(문화원)은 연면적 1,389.5㎡이며, 문화사랑방, 풍류방, 금산향토사연구소, 합창단실, 서예방, 그림방, 글방, 연공방, 소리방, 도자기방 등의 시설을 운영 중이다. 그 밖에 문화원이 갖추지 못한 시설은 다락원 내 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공간 활용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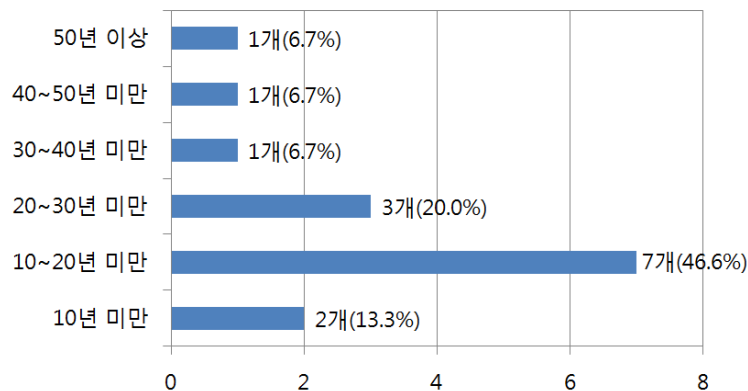
그 밖에 3개 이상의 기본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원들도 도서실이나 전시실, 회의실, 강당 등을 고루 갖추지 못해 다양한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② 건물연수

시설의 낙후 정도도 문화원의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들의 접근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5개 문화원의 건물 건립연도와 연수를 조사한 결과, 2013년 12월 기준으로 2개(13.3%) 문화원(보령문화원, 홍성문화원)만이 건물연수가 10년 미만이었으며, 10년 이상~20년 미만(7개, 46.6%), 20년 이상~30년 미만(3개, 20.0%), 30년 이상~40년 미만(1개, 6.7%), 40년 이상~50년 미만(1개, 6.6%) 순이었다. 건물연수가 50년 이상 된 문화원도 1곳(청양문화원, 1955년 건립, 건물연수 59년) 있어서 시설의 보수나 이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단, 조사 시점인 2013년 이후에 시설현황에 몇 가지 변동이 생겼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태안문화원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신축하여 이전 예정이며, 건립된 지 28년이 넘은 논산문화원의 경우에도 2016년까지 신축 독립원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문화원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들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36] 충남 지방문화원의 건물연수



[표 III-46] 충남 지방문화원 건물연수

문화원명	개원년도	건립년도	건물연수(년)	비고
천안동남구문화원	1958	1982	32	-
천안서북구문화원	1963	1972	42	-
공주문화원	1954	2001	13	-
보령문화원	1964	2013	1	-
온양문화원	1957	1990	24	-
서산문화원	1957	2003	11	-
논산문화원	1957	1986	28	2015년 신축
당진문화원	1995	1998	16	-
금산문화원	1967	2004	10	-
부여문화원	1954	1993	21	-
서천문화원	1965	2000	14	-
청양문화원	1965	1955	59	-
홍성문화원	1954	2005	9	-
예산문화원	1955	2002	12	-
태안문화원	1990	1996	18	2014년 신축

③ 시설 면적

각 세부시설을 보유한 문화원에 한해서 시설의 평균 면적을 살펴보면, 강당 외 별도 공연장(1,316㎡), 향토사료전시관(425.2㎡), 강당(229.3㎡), 도서실(200.4㎡), 전시실(169.9㎡), 회의실(78.2㎡), 사무실(74.1㎡), 향토사연구소(38.1㎡) 순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보이는 강당 외 별도 공연장을 보유한 곳은 세 개 문화원이다. 이 중 금산 다락원과 시설을 공유하는 금산문화원의 경우, 다락원 시설 중 하나인 '생명의 집'에서 3,657㎡ 규모의 공연장(대공연장 738석, 소공연장 280석)을 보유하고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 부여문화원은 210㎡, 홍성문화원은 81㎡ 면적의 소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공연장 면적이 가장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강당 외 별도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원이 2곳 밖에 없고, 공연장의 규모도 협소하여 다양한 규모의 공연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회의실이나 강당, 전시실 등 전반적으로 충남지역 문화원이 보유한 시설 면적을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볼 때, 협소한 실정이다. 금산 다락원의 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금산문화원의 시설 운영

상 특이성으로 인해 충남지역 문화원의 전체 평균 시설 면적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도서관의 경우, 평균 면적이 200.4㎡로 전국평균(86.3㎡)에 비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금산 다락원 내 ‘인삼고를 도서관’ 시설 1,172㎡가 포함된 수치이므로 예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또, 공연장도 금산 다락원의 ‘생명의 집’ 3,657㎡가, 향토사료전시관도 다락원의 ‘금산향토관’ 2,325㎡가, 전시관도 다락원의 ‘청산아트홀’ 381㎡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원만의 별도 시설이 아닌 이들 공유시설 면적을 제외하면 충남지역 문화원의 전시실, 도서관, 공연장, 향토관의 규모는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표 III-47] 충남 지방문화원 시설 평균 면적

(단위 : ㎡)

구분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관	공연장	향토사 연구소	향토사료 전시관	기타
전국평균	107.7	150.1	298.0	188.3	86.3	268.6	41.9	156.9	250.7
충남평균1*	74.1	78.2	229.3	169.9	200.4	1,316.0	38.1	425.2	186.9
충남평균2**	74.1	78.2	229.3	146.4	78.9	145.5	38.1	153.8	186.9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 2014 충남지역 문화원 실태조사

한국문화원연합회(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31쪽

* 충남평균1은 금산문화원이 공유하고 있는 금산 다락원의 시설 면적이 포함된 수치임. 전시실에는 다락원의 청산아트홀(381㎡), 도서관에는 인삼고를 도서관(1,172㎡), 공연장에는 생명의 집(3,657㎡), 향토사료전시관에는 금산향토관(2,325㎡) 면적이 각각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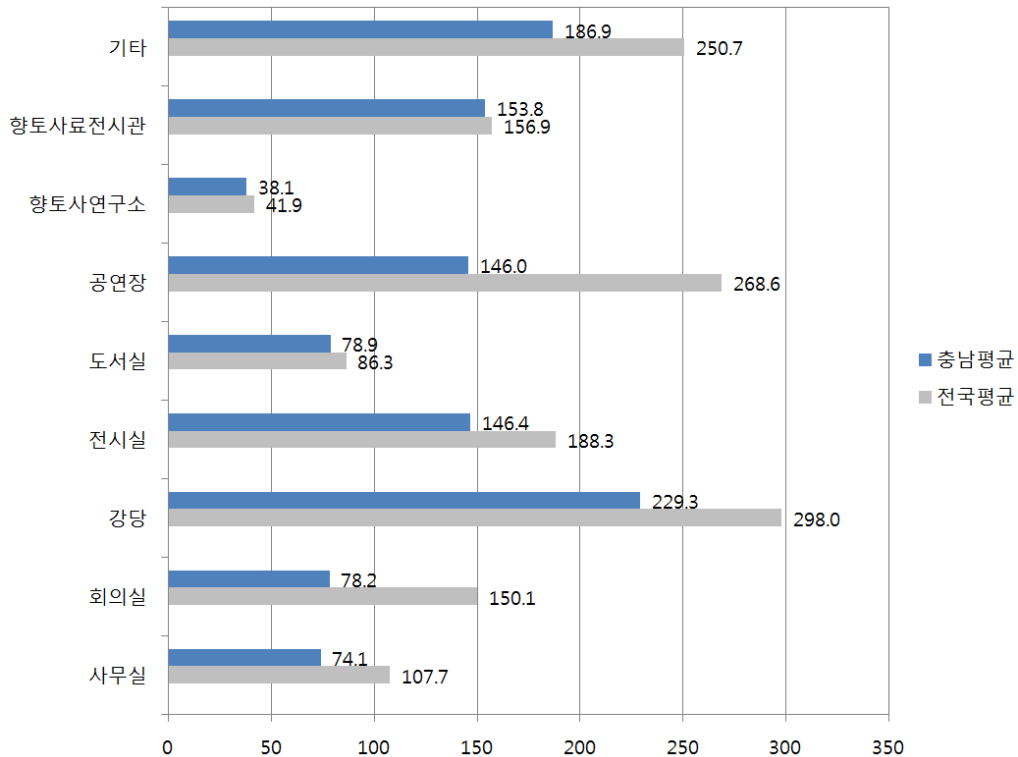
** 충남평균2는 금산문화원이 공유하고 있는 금산 다락원의 시설(전시실, 도서관, 공연장, 향토사료전시관)을 제외한 문화원만의 별도 시설에 대한 평균 면적을 나타냄

아래 그림은 금산다락원의 시설을 제외한 충남지역 문화원만의 시설 평균 면적과 전국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특히 공연장이나 강당과 같은 대규모 관객 수용시설의 면적이 전국평균에 비해 작았으며, 회의실과 사무실도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향토사료전시관과 향토사연구소, 도서관의 경우에만 전국평균보다 근소한 차이로 면적이 작았다.

한편, 충남 지방문화원 사무국장들과의 워크숍에서 문화원에 가장 필요한 시설로 제시된 것은 소규모 공연장이었다. 문화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내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기관·단체 등의 소규모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공연장보다는 설비가 잘 갖추어진 소공연장이 활용도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또한, 공연장의 유무가 문화원의 대관수입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락원의 공연장 시설을 공유하는 금산문화원을 제외하고는 부여 문화원과 홍성문화원만 강당 이외의 별도 공연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문화원 시설의 재정비나 신축 시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소공연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37] 전국 대비 충남 지방문화원 시설 평균 면적 (단위 : m²)



④ 시설 사용일수

문화원에서 보유한 세부시설의 사용일수를 알아본 결과, 사무실은 주 평균 5.2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강당·전시실(5.1일), 회의실·도서실·강당 외 별도 공연장·향토사 연구소·기타시설(5.0일), 향토자료전시관(4.4일) 순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원 시설의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주 5일간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에 따른 사용일수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전국 문화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III-48] 충남 지방문화원 시설 사용 일수

구분	시설 사용 일수(단위: 주 평균, 일)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강당 외 별도공연장	향토사 연구소	향토사료 전시관	기타
평균 사용 일수	5.2	5.0	5.1	5.1	5.0	5.0	5.0	4.4	5.0
천안동남구문화원	5	-	5	5	5	-	5	-	5
천안서북구문화원	5	-	5	-	-	-	-	-	-
공주문화원	6	7	7	7	5	-	5	5	7
보령문화원	-	-	-	-	-	-	-	-	-
온양문화원	5	3	3	-	-	-	-	2	2
서산문화원	5	5	5	5	5	-	-	5	5
논산문화원	5	-	-	-	-	-	-	-	-
당진문화원	5	3	4	3	-	-	-	-	-
금산문화원	5	5	5	5	-	-	-	-	-
부여문화원	6	6	6	5	5	5	-	-	-
서천문화원	5	5	5	5	5	-	-	-	-
청양문화원	5	5	5	-	5	-	-	5	5
홍성문화원	5	6	6	6	5	5	-	5	6
예산문화원	-	-	-	-	-	-	-	-	-
태안문화원	5	-	-	-	-	-	-	-	-

향토사료전시관이 타 시설에 비해 사용일수가 적은 편인데, 이는 평상시 전시물의 관람자가 적어 시설 개방은 하되 사용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홍성문화원 현장답사(2014.01.09) 결과, 문화원의 향토사료전시관에서 전시 중인 유물들은 주로 민중들이 사용하던 향토민속물품으로 유물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은데다, 전시 유물의 수가 많지 않아서 관람객들의 흥미를 크게 유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향토사료전시관을 기획력 있게 운영할 만한 학예사 등 전문인력의 부족도 시설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한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군에 등록박물관이 전혀 없는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소재 지방문화원이나, 등록박물관이 1개 있는 논산시, 2개 있는 보령시나 태안군 소재 문화원의 경우에는 향토사료전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향토역사문화자료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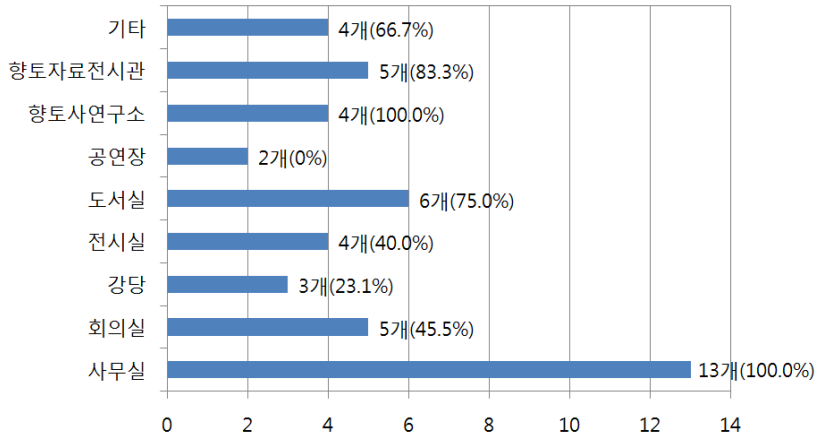
⑤ 시설 개방 및 대여비 유무

대체로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전체가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문화원 시설 중 무료 개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사무실(13개, 100%)과 향토사연구소(4개, 100%)였으며, 다음으로 향토자료전시관(5개, 83.3%), 도서실(6개, 75%), 기타(4개, 66.7%), 회의실(5개, 45.5%), 전시실(4개, 40%), 강당(3개, 23.1%), 강당 외 별도 공연장(2개, 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9] 충남 지방문화원 시설 개방 여부 및 대여료 유무

문화원명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공연장		향토사연구소		향토자료전시관		기타	
	개방	대여료	개방	대여료	개방	대여료	개방	대여료	개방	대여료	개방	대여료	개방	대여료	개방	대여료	개방	대여료
천안동남구문화원	○	×	-	-	○	×	○	×	○	×	-	-	○	×	-	-	○	×
천안서북구문화원	○	×	-	-	○	○	-	-	-	-	-	-	-	-	-	-	-	-
공주문화원	○	×	○	○	○	○	○	○	○	×	-	-	○	×	○	×	○	×
보령문화원	○	×	○	○	○	○	-	-	-	-	-	-	-	-	-	-	-	-
온양문화원	○	×	○	×	○	×	-	-	-	-	-	-	-	-	○	×	○	×
서산문화원	×	×	○	○	○	○	○	○	○	○	-	-	-	-	○	×	○	○
논산문화원	○	×	-	-	-	-	-	-	-	-	-	-	-	-	-	-	-	-
당진문화원	○	×	○	×	○	○	○	×	-	-	-	-	-	-	-	-	-	-
금산문화원	○	×	○	×	○	×	○	×	○	×	-	-	○	×	-	-	-	-
부여문화원	○	×	○	○	○	○	○	○	○	×	○	○	-	-	-	-	-	-
서천문화원	○	×	○	×	○	○	○	×	-	-	-	-	-	-	-	-	-	-
청양문화원	○	×	○	○	○	○	○	○	○	○	-	-	-	-	○	×	×	×
홍성문화원	×	×	○	○	○	○	○	○	○	×	○	○	-	-	○	×	○	○
예산문화원	-	-	-	-	-	-	-	-	-	-	-	-	-	-	-	-	-	-
태안문화원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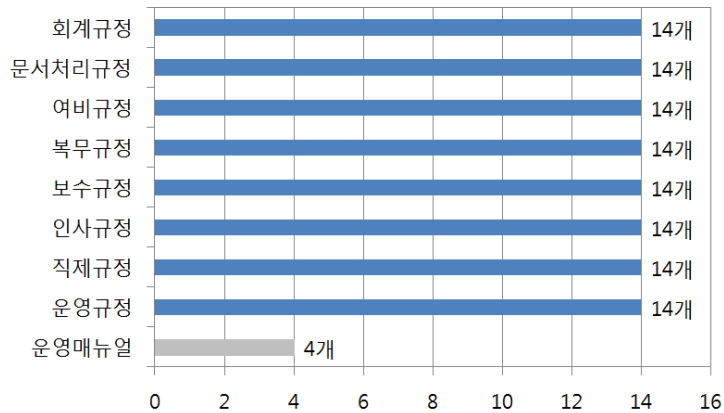
[그림 III-38] 충남 지방문화원의 무료 대여 시설수와 비중



(2) 운영 관련 매뉴얼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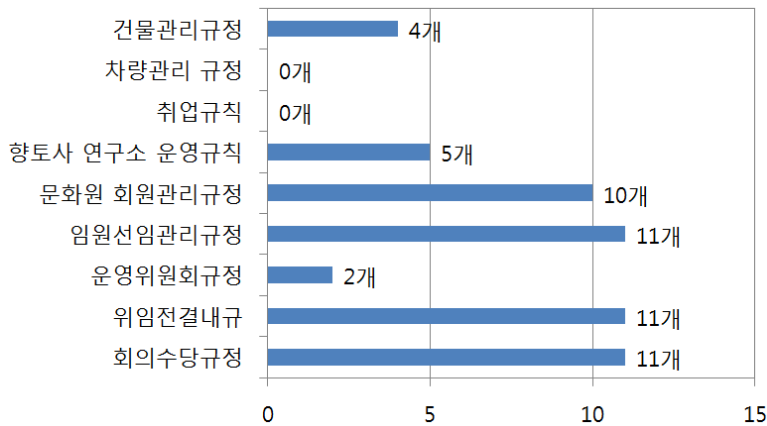
15개 지방문화원 중 천안동남구문화원은 운영매뉴얼이나 운영규정(사무처 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문화원 운영을 위해 매뉴얼과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14개 문화원 중에서는 '업무 및 재난 등과 관련된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문화원이 4곳(공주, 온양, 당진, 부여)이며, 사무처 운영규정은 14개 문화원이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림 III-39] 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 매뉴얼/운영규정(1)



사무처 운영규정 중에서도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여비규정, 문서처리규정, 회계규정’은 14개 문화원이 모두 마련하고 있었고, 회의수당규정, 위임전결내규, 임원선임관리 규정은 11개 문화원이, 문화원 회원관리규정은 10개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그림 III-40] 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 매뉴얼/운영규정(2)



그러나 향토사연구소 운영규칙은 5개 문화원(공주, 당진, 금산, 청양, 태안)만이, 건물관리규정은 4개 문화원(서산, 당진, 홍성, 예산), 운영위원회 규정은 2개 문화원(공주, 금산)만 보유하고 있고, 취업규칙이나 차량관리 규정을 가지고 있는 문화원은 없어 운영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력 있게 지켜질 경우에만 문화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일례로 직제규정이나 인사규정, 보수 규정 등이 규정대로 잘 지켜져야만 문화원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되고, 적절한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지속력 있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6) 그 밖에 보령문화원에 인장규정(2013), 부여문화원에 업무추진비집행규정(2013), 태안문화원에 대의원 선임규정(2004)과 태안군 문화예술헌장조례(2011), 서산문화원에 향토사료관 운영규정(2003), 후원회규정(1990), 작은도서관 규정(1992)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조직 및 인력 현황

① 문화원 운영과 관련된 조직현황

문화원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법적 기구인 '이사회'가 15개 문화원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문화원의 필요와 특성에 따라 운영위원회, 대위원회, 문화원 분원, 향토사연구소, 기타 조직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향토사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원 연구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거나, 향토사 및 예술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어 문화원의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었다. 그 밖에 문화원 소식지 편집위원회나 문화원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표 III-50] 충남 지방문화원 운영 관련 조직

문화원	이사회	운영위원회		대위원회		문화원 분원		향토사연구소		기타	
	인원	인원	주요 기능	인원	주요 기능	인원	주요 기능	인원	주요 기능	인원	주요 기능
천안 동남구	27	-	-	-	-	-	-	5	향토사 연구	-	-
천안 서북구	29	-	-	-	-	-	-	-	-	-	-
공주	30	170	문화원 운영참여	-	-	-	-	12	연구사업 협의	-	-
보령	20	-	-	-	-	-	-	-	-	2	직원
온양	32	-	-	-	-	-	-	-	-	50	여성회
서산	19	-	-	95	총회 개최	15	대의원 포함	-	-	2	문화원 감사
논산	25	-	-	-	-	-	-	-	-	10	논산문화 편집위원
당진	20	-	-	-	-	-	-	20	향토사 연구	10	자문 활동
금산	32	17	문화원 운영참여	87	총회 개최	-	-	20	향토사 연구	-	-
부여	28	-	-	-	-	-	-	-	-	-	-
서천	14	-	-	-	-	-	-	-	-	-	-
청양	15	-	-	-	-	197	-	19	향토사 연구	-	-
홍성	25	-	-	-	-	-	-	-	-	-	-
예산	15	-	-	-	-	-	-	-	-	7	자문 활동
태안	20	-	-	70	총회 개최	-	-	35	향토사 연구	235	정회원 (임원선거)

② 인력 현황

무보수 명예직인 원장을 제외하고 문화원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력으로서 사무국장과 직원을 포함해 평균 3.5명의 적은 인력이 문화원의 모든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충남 지방문화원의 경우, 보통 사무국장 1인과 직원 2~3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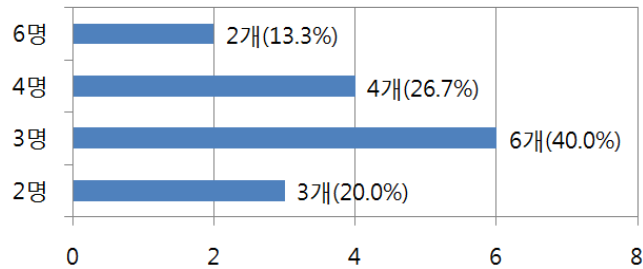
[표 III-51] 충남 지방문화원 인력 현황

문화원명	인력 현황(명)		
	사무국장	직원	계
합계	15	37	52
천안동남구문화원	1	1	2
천안서북구문화원	1	1	2
공주문화원	1	2	3
보령문화원	1	1	2
온양문화원	1	3	4
서산문화원	1	5	6
논산문화원	1	2	3
당진문화원	1	2	3
금산문화원	1	3	4
부여문화원	1	2	3
서천문화원	1	2	3
청양문화원	1	3	4
홍성문화원	1	5	6
예산문화원	1	2	3
태안문화원	1	3	4

사무국장을 포함해 전체 직원이 2명인 문화원이 3개(천안동남구, 천안서북구, 보령)로 20%를 차지하고, 총 직원이 3명인 문화원은 6개(공주,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예산)로 40%를 차지했다. 직원이 4명인 문화원은 4개(온양, 금산, 청양, 태안)였으며, 6명인 문화원은 2개(서산, 홍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천안동남구문화원이나 천안서북구문화원의 사업 추진이 타 문화원에 비해 미흡한 데에는 인력 부족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사무국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문화원의 모든 사업을 소화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41] 충남 지방문화원 인력 현황



○ 문화원장 현황

문화원별로 원장의 고용형태와 근무기간, 전공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15개 문화원의 문화원장은 모두 추천이나 공개 모집을 통해 입후보를 한 후,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방식으로 채용되었으며, 전체가 보수를 받지 않는 비정규 명예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 연령은 5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까지 다양하며 평균 65.1세로 나타났다. 원장의 경우, 문화원에서 따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타 직업을 가지고 겸직하여 상근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원장의 ‘문화예술 분야 전공’ 여부이다. 설문에 응답한 15개 문화원 중 문화예술 전공자는 6개 문화원장(공주, 보령, 온양, 논산, 부여, 태안)에 불과했고, 나머지 9개 문화원장은 비전공자였다. 원장은 문화원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원장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경우, 문화원의 정체성이나 특색과 상관없는 사업을 하게 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원장이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라고 해서 반드시 문화원의 사업방향을 잘 이끌어 가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원장이 문화원의 지역 내 역할에 대한 이해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을 경우, 문화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나 도·시·군 차원에서 문화원장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문화예술 교육 워크숍을 마련하고 참석을 의무화한다면, 문화원장이 스스로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문화원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52] 충남 지방문화원 원장의 고용형태

문화원명	채용방식	고용형태	연령	문화원 근무기간	상근 여부	문화예술분야 전공 여부
천안동남구문화원	선거	비정규직	83	5년 9개월	비상근(겸직)	비전공
천안서북구문화원	선거	비정규직	60	1년 6개월	상근	비전공
공주문화원	선거	비정규직	69	5년	비상근(겸직)	전공
보령문화원	선거	비정규직	63	6년 11개월	비상근(겸직)	전공
온양문화원	선거	비정규직	71	2년 6개월	비상근(겸직)	전공
서산문화원	선거	비정규직	72	6년 7개월	비상근(겸직)	비전공
논산문화원	선거	비정규직	68	3년 10개월	상근	전공
당진문화원	선거	비정규직	60	11년 2개월	상근	비전공
금산문화원	선거	비정규직	64	1년 2개월	비상근(겸직)	비전공
부여문화원	선거	비정규직	62	1년 1개월	비상근(겸직)	전공
서천문화원	선거	비정규직	55	1년 6개월	비상근(겸직)	비전공
청양문화원	선거	비정규직	64	1년 7개월	상근	비전공
홍성문화원	선거	비정규직	59	1년	비상근(겸직)	비전공
예산문화원	선거	비정규직	67	5년 6개월	비상근(겸직)	비전공
태안문화원	선거	비정규직	59	3년 9개월	비상근(겸직)	전공

○ 사무국장 현황

문화원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무국장은 전원이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용되었으나, 고용형태를 보면 전체 문화원 중 26.7%에 해당하는 4개 문화원(천안서북구, 보령, 서천, 홍성)의 사무국장이 ‘단기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국장은 문화원의 전체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경우, 고용계약이 종료되면 사업의 단절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안정성과 조직적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원의 사업과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의 고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안정화를 시켜야 사명감을 가지고 문화원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꾸려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당 지방문화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문화원 정관과 내규를 개정·보완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무국장은 3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 연령대 분포가 다양하며, 평균연령은 48세이다. 근무기간도 최소 9개월에서 최대 32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문화예술 분야 전공 여부는 문화원장과 마찬가지로 전공자(5명, 33.3%)보다 비전공자(9명, 60.0%)가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원 별로 사무국장의 문화원 근무기간 간 차이가 커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나 업무역량에도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장과 사무국장의 문화예술 관련 직무 능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워크숍 등을 통해 사무국장이나 원장 간 자발적인 정보 교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III-53] 충남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의 고용형태

문화원명	채용방식	고용형태	연령	문화원 근무기간	상근 여부	문화예술분야 전공 여부
천안동남구문화원	공채	정규직	32	4년	상근	전공
천안서북구문화원	공채	단기계약직	53	1년 6개월	상근	비전공
공주문화원	공채	정규직	52	14년	상근	비전공
보령문화원	공채	단기계약직	55	4년	상근	전공
온양문화원	공채	정규직	48	3년	상근	비전공
서산문화원	공채	정규직	43	18년	상근	전공
논산문화원	공채	정규직	41	11년	상근	전공
당진문화원	공채	정규직	46	1년	상근	비전공
금산문화원	공채	정규직	59	29년	상근	전공
부여문화원	공채	정규직	55	32년	상근	비전공
서천문화원	공채	단기계약직	41	9개월	상근	비전공
청양문화원	공채	정규직	54	11년4개월	상근	비전공
홍성문화원	공채	단기계약직	53	1년	상근	비전공
예산문화원	공채	정규직	45	6년	상근	비전공
태안문화원	공채	정규직	43	15년	상근	전공

다음 표는 충남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의 임금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충남지역 문화원의 사무국장 연봉 수준은 문화원별로 격차가 상당히 크다. 물론 사무국장 간 근속연수나 고용형태도 이러한 연봉 격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슷한 근속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원별 연봉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무국장이 문화원의 사업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연봉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 강릉문화원은 자체적으로 ‘연봉제 및 보수규정’을 마련하여 직급과 경력별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놓고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본 보고서 4장 국내 사례 부분 참고). 충남 지방문화원에서도 이와 같이 합리적인 직급별 연봉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원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III-54] 충남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의 임금수준

문화원명	사무국장			
	인원	근속연수	고용형태	연봉수준
천안동남구문화원	1	4년	정규	2천~2천5백 미만
천안서북구문화원	1	1년 6개월	단기계약	2천~2천5백 미만
공주문화원	1	14년	정규	3천5백~4천 미만
보령문화원	1	4년	단기계약	2천5백~3천 미만
온양문화원	1	3년	정규	3천5백~4천 미만
서산문화원	1	18년	정규	5천 이상
논산문화원	1	11년	정규	4천5백~5천 미만
당진문화원	1	1년	정규	3천~3천5백 미만
금산문화원	1	29년	정규	3천5백~4천 미만
부여문화원	1	32년	정규	3천5백~4천 미만
서천문화원	1	9개월	단기계약	2천~2천5백 미만
청양문화원	1	11년 4개월	정규	2천~2천5백 미만
홍성문화원	1	1년	단기계약	3천~3천5백 미만
예산문화원	1	6년	정규	2천5백~3천 미만
태안문화원	1	15년	정규	4천5백~5천 미만

○ 일반 직원 현황

문화원 직원은 고용형태별로 단기계약직이 8명, 무기계약직이 4명으로, 사무국장을 포함해 문화원의 계약직 직원 비율이 충남지역 문화원 전체 인력 52명 중 16명(30.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 명 중 세 명은 고용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이라는 뜻으로, 지방문화원이 지속적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활동할 수 있으려면 직원들의 직위 보장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원들의 연봉 수준도 마찬가지로 문화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연봉 지급에 대한 기준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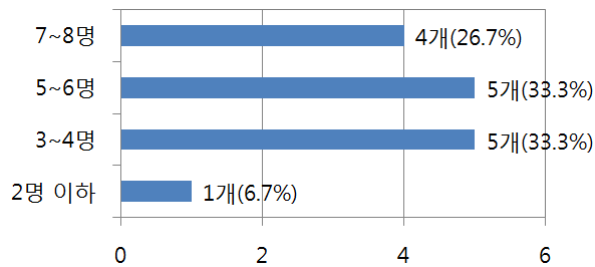
[표 III-55] 충남 지방문화원 직원의 고용형태 및 연봉 수준

문화원명	직원			
	인원	근속연수	고용형태	연봉수준(단위: 만원)
천안동남구문화원	1	5년	정규	2천 미만
천안서북구문화원	1	5개월	단기계약	2천 미만
공주문화원	1	5년	정규	2천~2천5백 미만
	1	6년	정규	2천~2천5백 미만
보령문화원	1	8년	무기계약	2천~2천5백 미만
온양문화원	1	3년	정규	2천5백~3천 미만
	1	4년	정규	2천5백~3천 미만
	1	1년	정규	2천~2천5백 미만
서산문화원	1	9년	정규	4천~4천5백 미만
	1	7년	정규	3천5백~4천 미만
	1	8년	정규	3천5백~4천 미만
	1	3년	단기계약	2천 미만
	1	1년	단기계약	2천미만
논산문화원	1	12년	정규	3천~3천5백 미만
	1	6년	정규	2천5백~3천 미만
당진문화원	1	4년	정규	2천~2천5백 미만
	1	2년	정규	2천 미만
금산문화원	1	7년	정규	3천~3천5백 미만
	1	17년	정규	2천~2천5백 미만
	1	2년	단기계약	2천~2천5백 미만
부여문화원	1	13년	정규	2천~2천5백 미만
	1	3년	무기계약	2천 미만
서천문화원	1	2개월	단기계약	2천~2천5백 미만
	1	1개월	단기계약	2천 미만
청양문화원	1	11년1개월	정규	2천 미만
	1	8년2개월	정규	2천 미만
	1	6개월	정규	2천 미만
홍성문화원	1	8년 7개월	정규	2천~2천5백 미만
	1	2년 6개월	정규	2천 미만
	1	4년 2개월	정규	2천 미만
	1	5년 6개월	단기계약	3천~3천5백 미만
	1	3년	단기계약	2천~2천5백 미만
예산문화원	1	5년	정규	2천 미만
	1	2년	정규	2천 미만
태안문화원	1	9년	정규	2천5백~3천 미만
	1	3년	무기계약	2천 미만
	1	2년	무기계약	2천 미만

③ 문화원 필요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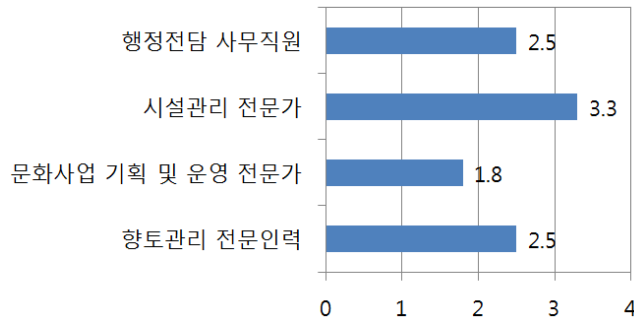
지방문화원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인력 수와 필요 부문에 대해서는 문화원별로 운영사업 현황에 따라 '2명 이하'(1개 문화원, 6.7%), '3~4명'(5개, 33.3%), '5~6명'(5개, 33.3%), '7~8명'(4개, 26.7%)로 응답해, 평균 5~6명 정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2] 충남 지방문화원 운영 적정인력



한편, 인원 보충이 가장 필요한 인력으로는 '문화사업 기획 및 운영 전문가'(평점 1.8)가 가장 높고, '향토자료 관리 전문인력'(평점 2.5)과 '행정전담 사무직원'(평점 2.5)이 뒤를 이었다. '시설관리 전문가'(평점 3.3)에 대한 필요도는 4개 부문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문화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문화사업과 향토자료 관리사업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III-43] 충남 지방문화원 필요인력 순위 (1에 가까울수록 필요)



[표 III-56] 문화원 운영 적정인력 / 필요인력

문화원명	총 적정 인력 수 (사무국장 포함)	필요인력 순위			
		향토자료 관리 전문인력 (학예사 등)	문화사업 기획 및 운영 전문가	시설관리 전문가	행정전담 사무직원
천안동남구문화원	3~4명	4	2	3	1
천안서북구문화원	2명 이하	3	1	4	2
공주문화원	5~6명	3	1	4	2
보령문화원	3~4명	3	2	4	1
온양문화원	3~4명	1	2	3	4
서산문화원	7~8명	1	3	2	4
논산문화원	5~6명	2	1	4	3
당진문화원	3~4명	3	1	4	2
금산문화원	5~6명	1	2	4	3
부여문화원	5~6명	3	4	1	2
서천문화원	3~4명	2	1	4	3
청양문화원	5~6명	3	1	2	4
홍성문화원	7~8명	2	1	4	3
예산문화원	7~8명	4	1	3	2
태안문화원	7~8명	2	4	3	1

④ 문화원 인력활용 활성화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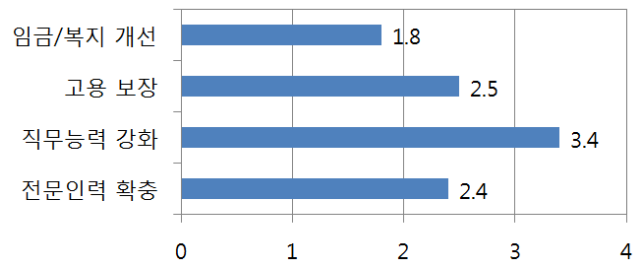
문화원의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임금 및 복지처우 개선’(평점 1.8)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전문인력 확충’(평점 2.4), ‘고용 보장’(평점 2.5), ‘직무능력 강화’(평점 3.4)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전문인력을 확충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임금과 복지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인력 활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는 점에서, 문화원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앞서 표에서 살펴보았듯이 충남지역 문화원의 연봉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고 문화원별로 차이가 상당히 크다. 문화원 직원들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직급별 연봉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표 III-57] 인력 활용 활성화 조치

문화원명	전문인력 확충	직무능력 강화	신분(고용) 보장	임금 및 복지처우 개선	기타
천안동남구 문화원	1	3	4	2	-
천안서북구 문화원	1	2	3	4	-
공주문화원	1	4	3	2	-
보령문화원	3	5	2	1	4 (행정전담 사무직원)
온양문화원	3	4	1	2	-
서산문화원	4	1	3	2	-
논산문화원	3	4	1	2	-
당진문화원	3	4	2	1	-
금산문화원	1	4	2	3	-
부여문화원	2	4	3	1	-
서천문화원	4	1	3	2	-
청양문화원	3	4	2	1	-
홍성문화원	3	4	1	2	-
예산문화원	2	3	4	1	-
태안문화원	2	4	3	1	-

[그림 III-44] 충남 지방문화원 인력 활용 활성화 조치 순위



⑤ 문화원 외부인력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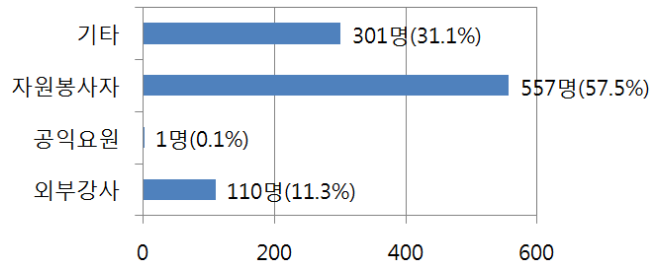
충남지역 15개 문화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총 969명의 외부인력을 문화원 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외부강사'를 활용한 문화원은 10곳(110명)이었으며, 5개 문화원이 지역주민 557명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은 557명 중 89.8%에 해당하는 500명의 자원봉사자가 모두 논산문화원에서 활동했다는 것이다. 논산문화원의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충남지역의 다른 문화원들도 지역주민을 자원봉사자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원의 인력 부족 문제도 덜고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내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체 지방문화원 중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곳은 청양문화원 1곳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기타인력'으로서 예산문화원은 '평생학습 실습생'을 문화원 사업에 활용했다.

[표 III-58] 문화원의 외부인력 활용 여부

문화원명	외부강사		공익요원		자원봉사자		기타	
	인원수	전공 경력	인원수	전공 경력	인원수	전공 경력	인원수	전공 경력
합계(969)	110	-	1	-	557	-	301	-
천안동남구	7	○	-	-	-	-	-	-
천안서북구문화원	-	-	-	-	-	-	-	-
공주문화원	18	○	-	-	1	2	-	-
보령문화원	24	○	-	-	-	-	-	-
온양문화원	13	○	-	-	50	2	-	-
서산문화원	-	-	-	-	-	-	-	-
논산문화원	2	○	-	-	500	2	-	-
당진문화원	-	-	-	-	-	-	-	-
금산문화원	12	○	-	-	-	-	-	-
부여문화원	-	-	-	-	4	2	-	-
서천문화원	3	○	-	-	-	-	-	-
청양문화원	8	○	1	×	-	-	-	-
홍성문화원	15	○	-	-	-	-	-	-
예산문화원	-	-	-	-	2	1	1	○
태안문화원	8	○	-	-	-	-	300	○

[그림 III-45] 충남 지방문화원 외부인력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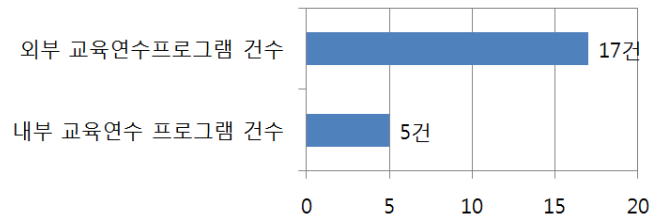
⑥ 문화원 직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문화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 문화원은 8개(53.3%)로, ‘내부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건수는 총 5건(평균 1.25건), 참여인원은 105명(평균 35명)이며, ‘외부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총 17건(평균 2.4건)으로, 70명(평균 1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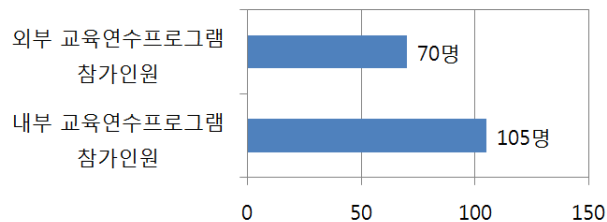
[표 III-59] 직원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현황

문화원명	직원연수 실시여부	문화원에서 진행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유형			
		연간 총 건수(건)		연간 참여 인원(명)	
		내부 교육연수	외부 교육연수	내부 교육연수	외부 교육연수
천안동남구문화원	×	—	—	—	—
천안서북구문화원	×	—	—	—	—
공주문화원	○	—	3	—	4
보령문화원	○	2	—	2	—
온양문화원	×	—	—	—	—
서산문화원	○	1	3	3	5
논산문화원	○	—	2	—	3
당진문화원	○	—	3	—	2
금산문화원	○	2	1	100	50
부여문화원	○	—	3	—	3
서천문화원	×	—	—	—	—
청양문화원	×	—	—	—	—
홍성문화원	×	—	—	—	—
예산문화원	○	—	2	—	3
태안문화원	×	—	—	—	—

[그림 III-46] 직원 교육·연수프로그램 건수



[그림 III-47] 직원 교육·연수프로그램 참가인원



내부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건수(총 5건) 보다 외부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가 건수(총 17건)가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볼 때, 각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직원교육을 시키기 보다는 외부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화원 평균 직원 수가 2~3명 남짓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만한 여건과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화원에서 참가하는 외부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가 15개 시·군 문화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문화원 사무직원 위탁 교육'과 '지방문화원 활성화 워크숍'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직원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전혀 실시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문화원이 절반에 가까워 문화원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 단위의 농어촌 지역(3개 문화원: 금산, 부여, 예산)보다는 시 단위의 중소도시 지역 소재 문화원(5개 문화원: 공주, 보령, 서산, 논산, 당진)에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문화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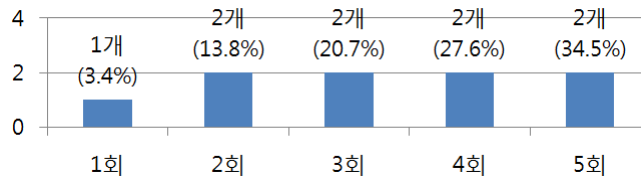
지방문화원의 의사 결정 개방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문화원의 운영과정이나 주요한 의사 결정과정에 있어 지역문화예술인 및 외부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여부를 파악해 본 바, 7개(46.7%) 문화원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문화원에 한해 살펴본 결과, 총 위원회 구성인원은 105명, 평균 15명이다. 회의 개최 건수는 총 29회로, 각각 '1회(1개, 3.4%)', '2회(2개, 13.8%)', '3회(2개, 20.7%)', '4회(2개, 27.6%)', '5회(2개, 34.5%)'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3.2건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남 지방문화원 중에서는 논산문화원이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원 행사를 추진하고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가장 활발히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0]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여부

문화원명	위원회 유무	위원회 명칭	설치근거	위원수	회의개최 건수
천안동남구문화원	×	-	-	-	-
천안서북구문화원	×	-	-	-	-
공주문화원	○	문화원 자문위원	문화원 정관	6	연4건
		예인촌 모임	지역문화예술공연	15	연2건
보령문화원	×	-	-	-	-
온양문화원	×	-	-	-	-
서산문화원	×	-	-	-	-
논산문화원	○	대보름추진위원회	-	10	3
		향사추진위원회	-	10	3
		논산문화편집위원회	-	10	4
당진문화원	○	자문위원회	내부규정	10	5
금산문화원	○	금산문화운영위원회	제19조의거	30	5
부여문화원	○	전국백제토기 경연대회 자문위원	-	5	1
서천문화원	×	-	-	-	-
청양문화원	×	-	-	-	-
홍성문화원	×	-	-	-	-
예산문화원	○	예산문화원 자문위원	예산문화원정관제19조	9	1~2건
태안문화원	○	-	-	-	-

[그림 III-48] 충남 지방문화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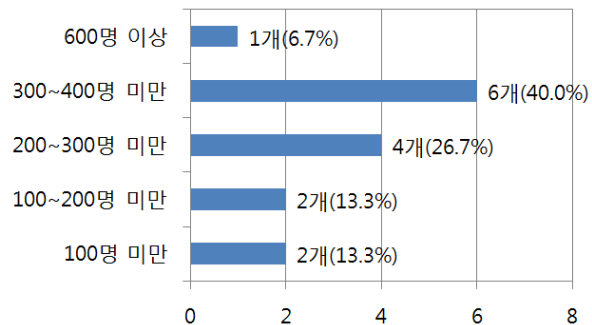
(4) 회원 현황

① 총 회원 수

준회원과 후원회원 등을 제외한 충남지역 지방문화원의 정회원 수는 총 3천891명이다. 회원수가 100명 미만인 문화원은 2개(13.3%), 100명 이상~200명 미만인 문화원 2개(13.3%), 200명 이상~300명 미만인 문화원 4개(26.7%), 300명 이상~400명 미만인 문화원 6개(40.0%), 600명 이상인 문화원은 온양문화원 1개(6.7%)로 나타났으며, 문화원당 평균 259.4명이 정회원으로 등록해 회비를 내며 활동하고 있었다.

한편, 문화교육 프로그램이나 축제 등 문화원 행사 참가자인 준회원까지 포함하면 회원 수는 357,67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산문화원이 준회원이라고 제시한 30만 명은 축제 참가자를 포함한 인원수이다.

[그림 III-49] 충남 지방문화원 총회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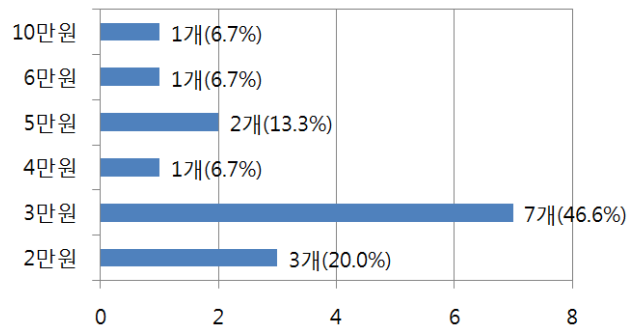
[표 III-61] 회원/회비 현황

구분	정회원			준회원 (일반 참가자)		2013년 기준 회원/회비 총계	
	회원수	가입비	연회비	회원수	연회비	회원수	총 회비
합계	3,891	-	-	353,779	-	50,719	172,435,800
천안동남구문화원	60	-	20,000	-	-	60	1,200,000
천안서북구문화원	이사: 30 회원: 90	-	이사:240,000 회원:30,000	-	-	110	4,360,000
공주문화원	160	-	100,000	2,000	-	112	15,000,000
보령문화원	388	50,000	40,000	5,000	-	345	12,000,000
온양문화원	617	-	20,000	250	10,000	867	14,840,000
서산문화원	211	-	30,000	300,000	-	211	10,255,000
논산문화원	300	-	30,000	5,600	-	5,900	13,150,800
당진문화원	200	-	30,000	8,000	-	8,350	6,000,000
금산문화원	318	-	30,000	120	-	438	17,730,000
부여문화원	257	100,000	50,000	2,359	10,000	2,616	36,920,000
서천문화원	335	-	30,000	8,000	-	8,335	10,050,000
청양문화원	208	-	임원:20,000 회원:60,000	-	-	208	15,180,000
홍성문화원	70	-	50,000	21,750	-	21,820	1,850,000
예산문화원	318	-	30,000	700	-	1,018	7,500,000
태안문화원	329	-	20,000	-	-	329	6,400,000

② 회비 납부 현황

충남지역 문화원들은 대체로 가입비 없이 월회비가 아닌 연회비를 받고 있다. 가입비를 받는 문화원은 보령문화원(5만원)과 부여문화원(10만원) 두 곳이다. 전체 15개 문화원 중 연회비를 2만원 받는 문화원은 모두 3곳(20.0%)이며, 3만원을 받는 문화원은 7곳(46.6%), 4만원은 1곳(6.7%), 5만원은 2곳(13.3%), 6만원과 10만원은 각각 1곳(6.7%)이었다. 문화원 한 곳당 연평균 3.8만원의 회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0] 충남 지방문화원의 연회비 현황



문화원 행사의 일반 참가자들인 준회원에게는 회비를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온양문화원과 부여문화원은 준회원에게 1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었다. 2013년 기준으로 충남 지방문화원들의 총 회비수입은 1억7천2백4십3만5,800원이다. 이 금액에는 기부금이나 특별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회비수입은 이보다 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원들의 회비는 문화원의 자체경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회비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문화원은 도나 시·군의 문화원 지원사업이나 위탁사업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문화원의 자체적인 고유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문화원의 특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원의 재정자립도를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회원 확보를 통한 회비 수입의 증대이므로, 향후 충남지역의 문화원들은 보다 다양한 연령계층을 회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사업을 고안하고 회원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문화원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2105.1.30,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회원관리의 모범사례를 살펴본 결과,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확대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회원수가 2,006명(총 회원 1,245명, 인터넷회원 761명)인 경기도 이천문화원의 경우, 2003년부터 CMS 회원관리제도를 도입해 회비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졌고, 2007년부터는 문화원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에 노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인터넷회원과 함께 일반회원 수도 동반 증대하여 2012년 한 해 동안만 신규 회원 가입자 수가 무려 222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충남지역 문화원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홈페이지를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리뉴얼할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에 문화원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향토자료를 디지털화해 홈페이지를 향토사 자료의 아카이브로 활용한다면, 인터넷회원 과 정회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재정·예산

① 예산 현황

2013년 한 해 동안 충남지역 15개 문화원의 예산 총액은 84억331만원 수준으로, 1개 문화원 당 1년 예산 평균액은 5억6천22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국 기준 문화원 1관 당 평균 예산액(4억7천161만원)에 비하면 8천860만원 가량 많은 편이다(한국문화원연합회, 2014: 167).

총 예산의 조달 방법은 지방비가 68억153만원(80.9%)으로서 절대적으로 많고, 국고가 3억1천105만원(3.7%), 위탁사업비가 3억3천430만원(4.0%), 자체수입이 8억8천434만원(10.5%), 기타가 7천208만원(0.9%)이다. 충남지역 문화원의 경우, 지방비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자체수입, 국고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총 예산의 지출형태를 살펴보면, 사업비가 63억4천99만원(75.5%), 경상비는 20억6천231만원(24.5%)으로 사업비가 7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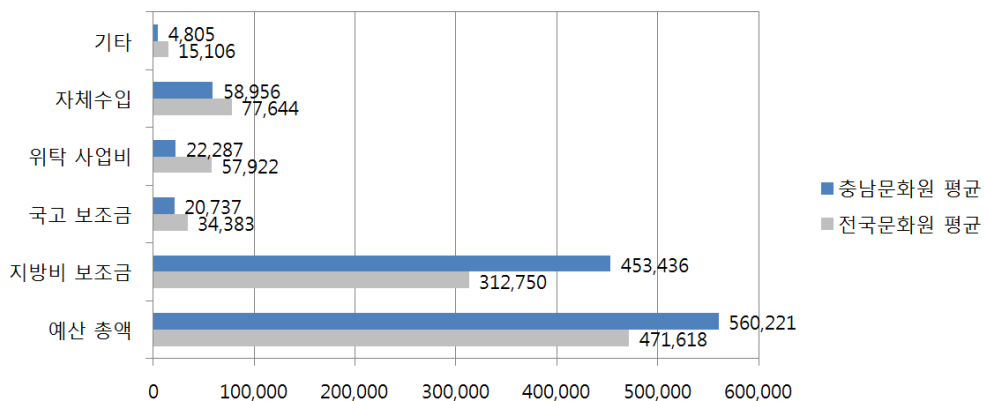
[표 III-62] 충남 지방문화원 예산 현황

문화원명	문화원의 2013년도 결산 규모(단위: 천원)							
	결산 총액	결산총액 중 사업비 총액	결산총액 중 경상비 총액	지방비	국고 (기금 등)	위탁 사업비	자체수입	기타
총 합계	8,403,312	6,340,995	2,062,317	6,801,535	311,057	334,300	884,340	72,080
1문화원당 평균	560,221	422,733	137,488	453,436	20,737	22,287	58,956	4,805
천안동남구문화원	222,770	137,600	85,170	193,600	3,000	—	26,170	—
천안서북구문화원	51,111	12,509	38,602	31,320	—	—	4,791	15,000
공주문화원	618,000	418,000	200,000	253,600	12,500	256,500	95,400	—
보령문화원	292,613	187,822	104,791	225,730	10,000	—	56,883	—

온양문화원	437,053	271,063	165,990	334,040	17,885	31,150	31,713	22,265
서산문화원	1,425,476	1,186,722	238,754	1,287,344	13,155	—	124,977	—
논산문화원	1,029,560	890,779	138,781	983,771	30,890	—	14,899	—
당진문화원	401,245	291,348	109,897	259,600	13,125	—	128,520	—
금산문화원	477,314	440,203	37,111	440,203	—	—	37,111	—
부여문화원	897,371	761,353	136,018	831,100	—	—	66,271	—
서천문화원	310,405	184,726	125,679	255,450	27,030	—	24,240	3,685
청양문화원	300,215	153,550	146,665	187,450	10,950	42,150	49,665	10,000
홍성문화원	490,036	242,026	248,010	367,000	95,255	4,500	23,281	—
예산문화원	615,239	452,893	162,346	475,025	13,105	—	127,109	—
태안문화원	834,904	710,401	124,503	676,302	64,162	—	73,310	21,130

한편,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충남의 문화원은 전국 문화원 평균에 비해 지방비 보조금을 통해 예산을 조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그 밖에 국고 보조금과 위탁 사업비, 자체수입은 전국 문화원 평균에 비해 적은 편이다. 특히 위탁 사업비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자체수입도 전국평균에 비해 평균 2천만원 가량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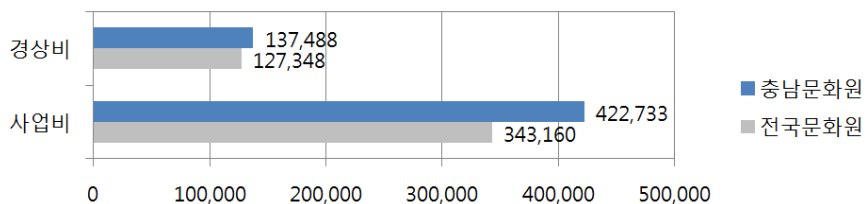
[그림 III-51] 전국 대비 충남 지방문화원 평균 예산 조달방법(단위: 천원)



지출형태 또한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경상비 지출액은 평균 1천만원 가량 많으나, 사업비 지출액은 충남지역 문화원이 전국 문화원에 비해 평균 7천9백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문화원연합회, 2014: 167 참조). 한 해 동안 충남지역 문화원당 평균 37.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것이 전국 평균인 38.9개에 비해 오히려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사업비 규모가 더 큰 것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축제와 지역커뮤니티프로그램을 충남지역 문화원에서 더 많이 개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충남 지방문화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총 72개의 축제를 개최했는데, 이는 문화원 한 곳당 4.8개의 축제를 개최한 셈이다. 반면 전국 229개 문화원은 총 516개의 축제를 개최해 한 곳당 2.3개의 축제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탐방, 답사 등을 진행하는 지역커뮤니티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충남은 평균 4.4개, 전국은 2.7개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문화원연합회, 2014: 77 참조).

[그림 III-52] 전국 대비 충남 지방문화원 지출형태(단위: 천원)



한편, 충남 지방문화원이 자체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것은 ①회원 회비, ②기부금/찬조금, ③시설 대관료, ④(위탁)사업 수입이다. 조례 상 사업 운영 수익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고, 대부분의 문화원이 지자체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므로 시설 대관료가 모두 지자체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회비 수익이 가장 보편적인 자체자금 마련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표 III-63] 자체자금 마련 방법

구분	회원 회비	기부금/찬조금	시설대관료	(위탁)사업수입	기타
천안동남구문화원	○	○	-	-	-
천안서북구문화원	○	○	-	-	○(수강료)
공주문화원	○	○	○	○	-
보령문화원	○	-	-	-	○
온양문화원	○	○	○	-	-
서산문화원	○	○	○	-	-
논산문화원	○	○	-	-	-
당진문화원	○	○	○	-	-
금산문화원	○	○	-	○	-
부여문화원	○	-	○	○	-
서천문화원	○	-	○	-	-
청양문화원	○	○	○	-	-
홍성문화원	○	○	○	-	-
예산문화원	○	○	○	-	-
태안문화원	○	○	-	○	-

또한 현재보다 지방비 보조금이 더 줄어들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문화원은 세 곳에 불과했다. 공주문화원의 경우,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서산문화원은 회원, 자체수익, 기부금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예산문화원은 지역문화상품 개발과 판매, 지역행사 용역, 문화예술 창작품의 브랜드 활용 등 문화산업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타 문화원과 차별화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4] 지방비 감소 대책

구분	대책 유무	예산 마련 방법	예상금액 (단위: 천원)
공주문화원	유	공모사업(위탁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	50,000~70,000
서산문화원	유	회원 확대	15,000
		자체수익 확대(문화학교, 답사, 대관)	150,000
		기부금 확대(기금 조성)	200,000
예산문화원	유	지역문화상품 개발을 통한 판매(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5,000
		지역 행사 용역(지역 행사 대행)	10,000
		지역 문화예술 창작품의 지적재산 관리 통한 브랜드 활용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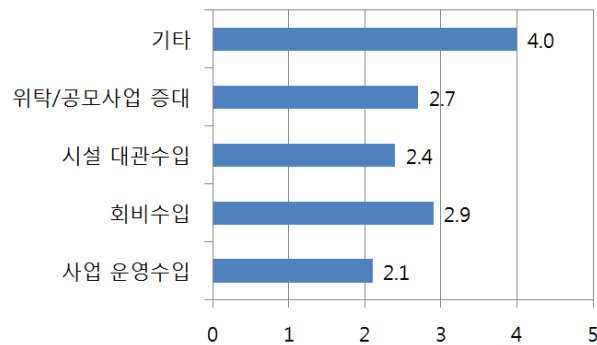
그 외에 자체 경상예산의 확보 혹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①사업 운영수입, ②시설 대관수입, ③위탁/공모사업 증대, ④회비수입, ⑤기타 순으로 나타나, 충남지역 문화원의 실정에서 자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사업 운영수입과 시설 대관수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5] 자체 경상예산 확보 위한 필요 조치

구분	사업 운영 수입	회비 수익금	시설 대관 수입	위탁·공모 사업 증대	기타
천안동남구문화원	1	3	2	4	-
천안서북구문화원	1	2	3	4	-
공주문화원	3	2	4	1	-
보령문화원	4	2	3	1	-
온양문화원	1	4	3	2	-
서산문화원	2	3	1	4	-
논산문화원	4	2	1	3	-
당진문화원	1	3	2	4	-
금산문화원	4	1	3	2	-
부여문화원	2	4	1	3	-
서천문화원	2	3	4	1	-
청양문화원	3	2	4	1	-
홍성문화원	1	3	2	4	-
예산문화원	1	5	2	4	3*
태안문화원	2	4	1	3	5*

* 기타 의견으로 예산문화원은 '충남 지역 문화상품 및 브랜드 공동 개발을 통한 b to b mall 운영'을, 태안문화원은 '정기적인 기업체 후원'을 각각 자체 경상예산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로 제시함

[그림 III-53] 자체 경상예산 확보 위한 필요 조치 (1에 가까울수록 중요)



② 외부의 후원/지원 현황

개원 초기의 문화원은 지역민들의 후원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금 마련으로 운영된 경우가 많았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거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재정 지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공헌 등 메세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지원금을 받아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충남의 지방문화원 중에서는 4곳(공주, 당진, 예산, 태안)이 지역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자체자금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사업에 활용하고 있었다. 타 문화원에도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문화원의 재정 자립도를 신장하기 위한 자체자금 마련의 경로를 다양하게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66] 충남 지방문화원의 외부 후원금 조성 현황

문화원명	연도	건수	금액(천원)	주요 수령처	주요 수령 명목
공주	2010	1	20,000	농협	백제문화제
	2013	1	20,000	농협	백제문화제
당진	2010	1	4,000	당진화력 등	지역문화행사지원
	2011	7	44,000	NH당진지부, 당진화력 등	지역문화행사지원
	2012	5	16,000	NH당진지부, 동서발전당진화력 등	지역문화행사지원
	2013	4	10,000	NH당진지부, 동서발전당진화력 등	학술세미나, 전통성년례
예산	2011	18	54190	농협, 마사회 등	축제 및 목적사업비 총당
	2012	9	43900	농협, 추사사업회 등	축제 및 목적사업비 총당
	2013	27	38500	웅기명장, 농협	축제 및 목적사업비 총당
태안	2011	4	39,700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 한국서부발전(주)	어버이날 기념식 및 군민경로위안 잔치, 태안사랑가족 걷기대회, 태안군여성대회, 만리포 정서진축제
	2012	7	30,500	한솔애드텍, 반도신협, 한국서부발전(주),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 태안주류판매(자)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 문화가족 건강검진, 범군민중앙대제, 움직이는 문화공연, 태안군민을 위한 백화산기우제, 다문화가족 사진전, 문화원 운영지원금
	2013	4	47,500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 한화호텔앤드, 한국서부발전(주)	백화산해맞이행사, 어버이날 행사 지원금, 태안문화제 불꽃놀이, 2013소원성취 띠벳놀이 불꽃놀이, 태안군어린이 동요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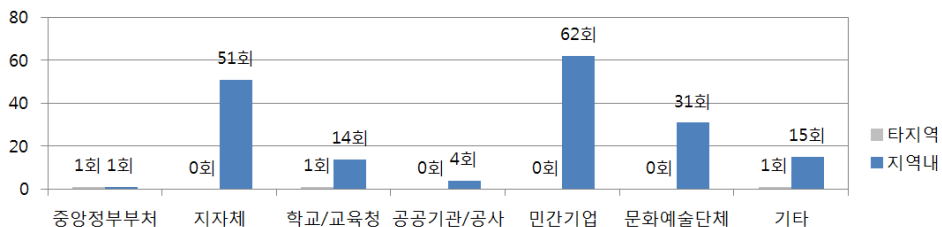
5) 충남 지방문화원의 네트워크 현황

(1) 지역 내외 네트워크 사업

지방문화원이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기관을 지역 내/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주로 지역 내 기관과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기관 및 단체와는 연간 총 178회(98.3%)에 걸쳐 교류활동을 한 반면에 타 지역 기관과는 연간 3회(1.7%)가 전부였다. 지역 내 기관 중에서는 ‘민간기업’(62회, 34.8%)과의 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하고, 다음으로 ‘지자체’(51회, 28.7%), ‘문화예술단체’(31회, 17.4%), ‘기타’(15회, 8.4%), ‘학교/교육청’(14회, 7.9%), ‘공공기관 및 공사’(4회, 2.2%), ‘중앙정부부처’(1회, 0.6%) 순이다.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관별로 ‘중앙정부부처’(1회, 33.3%), ‘학교/교육청’(1회, 33.3%), ‘기타’(1회, 33.3%)로 각 1회씩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4] 충남 지방문화원의 국내 네트워크 현황



지역 내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활동은 주로 행사 협조, 홍보활동, 보조사업 관련 협의, 사업 자문, 행사 추진과 관련된 것이고, 학교/교육청과는 백일장, 답사 등 청소년 관련 행사가 대부분이다. 한편, 민간기업과의 네트워크는 기부 및 사업 공조와 각종 축제, 행사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것이며, 문화예술단체와는 문화행사 공동 진행, 공연, 행사 지원, 발간사업 등과 관련해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내 타 문화시설과의 네트워크 사업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문화원이 지역문화 진흥의 센터 역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안팎의 다양한 주체들과 일상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협업 활동을 더욱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해외 교류 사업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해외교류사업을 진행한 문화원은 공주문화원과 논산문화원 2곳(13.3%)뿐이다. 공주문화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과 전통문화공연을 공동주최했으며, 논산문화원은 2009년부터 5년간 일본과 싱가포르의 민간교류협의회와 도자기, 국악, 한지 공예, 음식 등 다양한 문화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7] 충남 문화원의 2009~2013년 해외 교류 현황

문화원명	횟수	교류기간		주최	교류국가 /단체명	경비 부담률(%)			주 교류내용
		부터	까지			문화원	해외	기타	
공주문화원	2	2012	2013	공동주최	중국	-	50	50	전통문화공연
논산문화원	3	2009	2013	문화원 주최	일본 도치키현 민간교류협의회, 나가사키공민관, 싱가폴	-	-	100 지자체	일본도치키현 도자기마을 민간교류협의회와 OT, 국악공연, 한지공예전시, 나가사키공민관교류회, 국악공연, 군가초마쓰리참관 싱가폴 세계미식가대회참관

아직까지 충남지역 문화원에서는 국제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등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문화원의 활동영역을 넓혀가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농촌지역에서 이미 오랫동안 거주해온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점차 타 문화권과의 교류영역을 확장해가는 것도 점진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기초 문화재단과 네트워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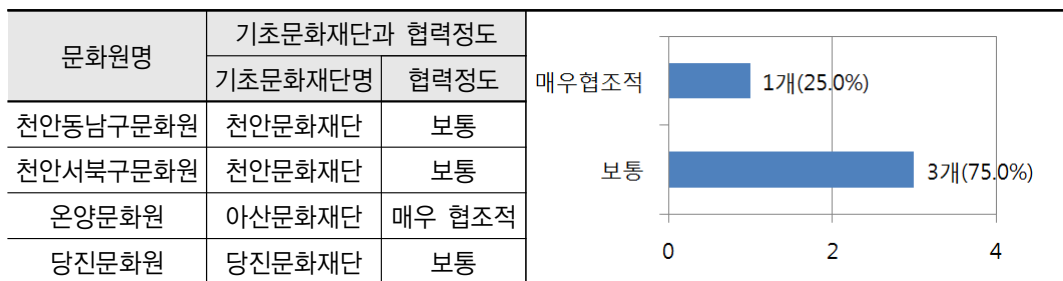
충청남도 내 지방문화원과 기초문화재단이 모두 소재한 지자체는 3개 시(천안시, 아산시, 당진시)로 나타났다. 해당 시에 소재한 문화원은 4곳으로 천안동남구문화원, 천안서북구문화원, 온양문화원, 당진문화원이다. 그 밖에 기초문화재단은 아니지만 홍성문화원 인근에도 광역

문화재단인 충남문화재단이 2014년 1월에 새로 설립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기초문화재단의 설립이 추가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충청남도 내 시·군은 없으나 2014년 7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서 향후 시·군에 지역문화재단이 추가로 설립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방문화원과 지역문화재단은 모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과 기관이므로 상호 경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체계를 만들어 교류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문화원과 문화재단 중 어느 하나만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서로 지역의 문화적 실태와 현안에 대한 공동 논의에서부터 인적 교류, 시설 공유, 프로그램 협업 등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

한편, 기초문화재단이 소재한 지자체의 4개 문화원은 공동 프로그램 진행, 정보교류 등에 있어서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 3개 문화원이 ‘보통’(75%)이라 답했고, 온양문화원만 아산문화재단과의 협력 정도에 ‘매우 협조적’(25%)이라고 답했다. 아직까지는 지방문화원과 문화재단 간 협력 정도가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지방문화원과 문화재단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표 III-68] 충남 지방문화원과 문화재단의 협력 정도



3. SWOT 분석과 시사점

1) SWOT 분석

충남지역 문화원이 지닌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III-55] 충남 지방문화원의 SWOT 분석

강점요인 (Strengths)	약점요인 (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내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조례」 제정율이 78.6%(11개 시·군)로 전국평균 56.1%에 비해 높아 문화원 지원의 법적·행정적 기반 확보 ○ 전국 3번째로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지원·육성조례」 제정에 따른 도문화원연합회의 역할 강화 ○ 전국에서 가장 오랜 지역문화 활동에 따른 풍부한 향토문화자료의 수집·축적 및 높은 인지도 ○ 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문화유적 답사·탐방 등 지역커뮤니티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기반한 특색 있는 사업보다 획일적 사업 운영 ○ 문화원 건립기간이 오래되어 건물 보수가 요구되며 사업 운영 위한 기본 시설의 보완 및 정비 필요 ○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사무국장 일인의 사업 기획력과 전문성에 대한 의존도가 큼 ○ 지역문화자료의 구축·활용체계 미비와 문화원 사업의 홍보 부족으로 회원 확보가 어려움
기회요인 (Opportunities)	위협요인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시행으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확대 예상 ○ 중앙정부의 기업 메세나 활동 장려로 문화원과 지역 기업 간 메세나 통한 자체재정 마련 기회 증대 ○ 신축 문화원사(태안문화원, 논산문화원)의 지속적인 건립·이전으로 전반적인 시설 활용도 제고 ○ 문화원 홈페이지 재단장 통한 온라인 아카이브·홍보 매체로서 활용도 제고 및 회원 모집 시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향후 기초문화재단의 설립이 계속될 시 문화원과 역할 정립 필요 ○ 지역 내 타 문화시설·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중복 심화와 갈등 우려 ○ 문화원 고유의 향토문화사로 발굴 및 축적사업 비중 감소로 인한 문화원 전문성의 약화 ○ 지방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자금 마련을 위한 통로와 대책이 부족하여 재정 자립도 취약

(1) 강점요인

① 문화원 지원의 법적·행정적 기반 확보 및 강화

충청남도의 경우,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되는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조례」의 제정 비율은 78.6%로, 천안시와 서천군, 홍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2015년 현재 서천군이 조례 제정 과정 중에 있으므로 향후 조례 설치 비율은 85.7%로

높아질 예정이다. 지방문화원이 설치되어 있는 충청남도 내 14개 시·군 중 천안시와 홍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 지방문화원 지원 조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의 평균 조례 제정비율 56.1%에 비해 22.5%가 높아 상대적으로 충청남도 지자체가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문화원 지원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편이고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이 충청남도 지방문화원이 지닌 환경적 강점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시·군별로 제정된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가 문화원마다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원과 시·군 사이의 민관 파트너십이 보다 긴밀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문화원연합회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도 문화원연합회의 역할 강화

2015년 2월에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2.23. 시행)의 제정으로 충청남도는 강원도와 대구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화원연합회 지원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가 되었다. 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운영비와 사업비 등이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에 지원됨으로써 도문화원연합회의 점진적인 역할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문화원연합회가 도내 15개 지방문화원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원활히 수행한다면, 문화원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상생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원연합회와 도문화원연합회의 업무 교류를 통해 전국 문화원과 충청남도 문화원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오랜 지역문화 활동에 따른 풍부한 향토문화자원의 축적과 높은 인지도

충남 지방문화원의 개원년도는 1950년대 9개(60%), 1960년대 4개(27%), 1990년대 2개(13%)로 대부분이 1950~60년대에 설립돼 50년 이상 활동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 문화원의 평균 운영기간이 35.2년인데 비하면 충남지역 문화원의 운영기간이 평균 15년 정도 긴 편이다.

활동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그 동안 문화원에서 구축한 향토문화 연구·발간자료의 수도 상당하다. 전국 기준으로 문화원 개원 이후 총 발간 자료는 7,903종, 1,093만 8,353개인데(한국문화원연합회, 2014: 110), 충남지역 문화원이 개원 이래 50여 년간 발간한 자료가 1,108종, 73만 5,716권인 것으로 조사되어 발간 종별로는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내 생활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운영하며 쌓아온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충남지역 문화원의 강점을 묻는 2차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각 문화원은 ‘오랜 지역문화 활동에 따른 높은 인지도’와 ‘풍부한 향토문화자원 발굴 및 축적’을 강점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충남 문화원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쌓아온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활성화

지방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유형별로 크게 9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충남지역 문화원의 경우에는 비중별로 교육(225개, 40.1%) > 축제(72개, 12.8%) > 지역커뮤니티/교류사업(66개, 11.8%) > 위탁사업(44개, 7.8%) > 전시(43개, 7.7%) > 향토문화 전승·보존(38개, 6.8%) > 공연(34개, 6.1%) > 공모/경연(30개, 5.3%) > 학술행사(9개, 1.6%) 순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경향은 전국 지방문화원의 운영 프로그램 현황과도 유사하다. 2013년도에 전국 229개 문화원이 운영한 프로그램(8,908개)의 비중은 교육프로그램 4,593개(51.6%) > 공연(736개, 8.3%) > 공모/경연(640개, 7.2%) > 지역커뮤니티 621개(7.0%) > 위탁사업(615개, 6.9%) > 향토문화 전승/보존(560개, 6.3%) > 축제(516개, 5.8%) > 전시(453개, 5.1%) > 학술행사(151개, 1.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문화원연합회, 2014: 77).

이러한 전국 경향과 비교해볼 때, 충남 지방문화원은 전국 지방문화원에 비해 축제와 지역커뮤니티 사업, 전시 행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축제나 지역커뮤니티 사업(문화유적 답사, 탐방, 현장학습, 타 지역 교류 등)은 문화원 회원 외에도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심을 높이고 타 지역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 커뮤니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

(2) 약점요인

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미비와 획일적 사업 운영

충남지역 문화원 중에서 문화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3년 이상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문화원은 금산문화원 한 곳 뿐이며, 프로그램과 관련한 일부 계획을 세운 곳도 5곳(공주문화원, 온양문화원, 논산문화원, 예산문화원, 태안문화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비전의 부재는 문화원이 저마다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고 그에 입각해 타 문화원과 차별화되

는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매해 반복되는 계속사업과 일회적인 사업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역의 여러 문화시설 및 단체와 프로그램 중복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문화원은 자체적인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지역 내 문화원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지역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의 참여로 진행한 두 차례의 워크숍에서 일부 사무국장들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싶으나 인력과 예산의 부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 발전계획의 설립을 위해 연구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나 시·군, 도내 연구기관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자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장기 연구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방문화원들이 적극적으로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이에 근거한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계획 안에는 문화원의 경영 환경 분석과 운영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사업성과 정기점검이나, 사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경영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② 시설의 부족·노후화에 따른 보완 및 정비 필요

충남지역 문화원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건립기간 또한 오래되어 건물의 보수 또는 신설·이전이 필요한 문화원이 많은 상황이다. 지방문화원의 개원연도를 살펴보면, ‘1950년대’(60%, 9개), ‘1960년대’(27%, 4개), ‘1990년대’(13%, 2개)로, 1980년대 이전에 설립된 문화원이 87%(13개)이며, 1990년대 이후 설립된 문화원이 13%(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최근인 90년대에 설립된 문화원은 태안문화원(1990년 설립)과 당진문화원(1995년 설립)이다.

문화원 건물의 평균연수는 20.6년으로, 전국평균(18.8년)에 비해 오래된 문화원이 많은 상황이다(한국문화원연합회, 2014: 18, 참조). 시설의 노후화는 문화원의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들의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15개 문화원 중 2개(13.3%) 문화원(보령문화원, 홍성문화원)만이 건물연수가 10년 미만이었으며, 연수별로 10년 이상~20년 미만(7개, 46.6%), 20년 이상~30년 미만(3개, 20.0%), 30년 이상~40년 미만(1개, 6.7%), 40년 이상~50년 미만(1개, 6.7%), 50년 이상(1개, 6.7%)인 것으로 조사되어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노후화 외에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시설의 부족이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해 사무실 외 회의실, 강당, 공연장 및 전시시설, 향토사료

실 등 문화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3개 이상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 미만의 시설을 보유한 천안서북구문화원의 경우에는 원활한 문화원 활동을 위한 기초 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정부와 도, 시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충남지역 문화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은 순서대로 강당, 강당 외 별도 공연장, 전시실, 도서실, 향토사료전시관, 향토사연구소, 사무실, 회의실로서, 공연과 강연 등 다양한 행사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당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전문인력의 부족과 사무국장에 대한 의존도 집중

충남 지방문화원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해 전체 직원이 3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원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기획·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공공도서관’(8.82명), ‘등록박물관’(9.52명), ‘등록미술관’(9.45명), ‘문예회관’(18.22명) 등 타 문화기반시설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이처럼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사무국장 1인의 전문성과 사업 기획력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 문화원의 사무를 총괄해야 하는 사무국장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취약한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존 직원의 임금과 복지처우를 개선하고 신분(고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문화원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과 낮은 처우 수준이 높은 이직률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인력의 확충과 관련해서도 다방면에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 인원 보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사업 기획·운영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향토자료 관리 전문인력’과 ‘행정전담 사무직원’이 동일한 선호도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설관리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밖에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시·도나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에서 정기적으로 직무능력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지역문화자원의 구축 및 활용체계의 미비와 사업 홍보 부족으로 회원 확보가 어려움

금산문화원을 제외한 14개 문화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 최소

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으나,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자료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은 6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홈페이지가 지역문화자원의 아카이브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랜 기간 지역에서 활동하며 구축해온 향토문화사료들이 디지털화되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유통될 수 있다면, 누적된 지역문화콘텐츠를 2차 사업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어 사업 개발과 학술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활용체계의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향후 문화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고, 문화원의 사업을 홍보하며, 회원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문화원’으로 재정비 한다면 부족한 청소년, 청년 층 회원들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기획요인

①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확대 예상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2014.07.29)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 법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지역문화진흥법, 제1조), 오랜 기간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해온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충남이 우선지원을 받아 문화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방문화원이 앞서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② 중앙정부의 기업 메세나 활동 장려로 메세나 통한 자체재정 마련 여건 조성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메세나 및 예술시장 활성화’ 계획이 포함되어 향후 기업의 메세나 확산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①기업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또는 문화예술분야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조특법 개정), ②문화예술후원우수기업 발굴·인증, 후원기업 등 우수 문화예술후원자 대상 ‘문화훈장’ 지원, ③기업과 함께 예술나무 키우기’ 캠페인 추진 등이다.

중앙정부의 기업 메세나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방문화원도 이에 대응해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전략적으로 제휴해 자체재정을 마련할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③ 신축 문화원사의 지속적인 건립·이전으로 전반적인 시설 활용도 제고

건물연수가 18년이 된 태안문화원과 28년이 된 논산문화원이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독립원사 신축 공사에 착수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문화원 시설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독립원사 없이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해온 논산문화원은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 전시실과 다목적실, 배움터, 자료실, 문서보관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논산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신축 문화원사의 건립이 이어지면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상 문화원 보유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화원은 2015년 기준으로 천안서북구문화원 한 곳만 남게 되었다. 천안서북구문화원은 천안군 시절에 인구가 적은 면단위 지역에 설립되어 현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자체소유의 독립원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1972년도에 건립되어 40년이 지나 노후화되었고, 2012년도에 일부 리모델링을 했으나 주차장이 없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는 시설 건립보다도 천안 시내의 공공기관이나 빈 건물로의 이전이 문화원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천안서북구문화원도 이전과 시설 보강을 통해 기초적인 시설을 마련한다면 충청남도의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④ 문화원 홈페이지 재단장 통한 활용도 제고 및 회원 모집 시 활용 가능

수도권과 다르게 충남지역 문화원에서는 그동안 문화원과 문화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시·군 문화원 홈페이지 기능 보강 사업’을 시작하며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한 사업비를 15개 문화원에 일괄 지원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홈페이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문화원 홈페이지가 단순히 프로그램 목록을 게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데 그치고 있었다면, 재단장을 마친 후에는 온라인 지역향토사료관으로서 아카이브 기능과 홍보매체, 소통매체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매체의 다변화 흐름에 발맞추어 홈페이지와 SNS, 블로그 등을 연계한 홍보 마케팅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매체를 활용해 문화원의 행사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회원 및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간다면 문화원의 입지도 굳건해지고, 문화원 회원 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4) 위협요인

① 지역 기초문화재단의 설립이 계속될 시 문화원과 역할 정립 필요

「지역문화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을 포함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활동해온 다양한 문화시설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 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고 규정하고 있어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 또한 되고 있다.

현재 충남지역에는 기초문화재단 3개소(천안, 아산, 당진)와 광역문화재단 1개소(충남문화재단)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그 외 시·군에서도 지역문화재단이 추가적으로 설립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동안 문화 인프라 수준이 열악한 농촌지역 특성상 문화원을 포함한 생활권 내 문화시설과 단체가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올 수밖에 없었으나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각각의 시설과 단체가 본연의 역할에 걸맞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할 정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문화시설과 단체 간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공통의 논의가 시도되지 않는다면, 자칫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들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문화재단이 시·군에 설립됨으로써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더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특성화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방식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협의를 해나가야 할 때다.

② 지역 내 타 문화시설·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중복 심화

지역 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지자체 외에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예총, 문화의집, 복지시설, 도서관 등 유관시설이나 단체와의 네트워크 활동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문화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문화시설과 단체에 대한 지원 경로가 얽히고 중복되어 있는 탓도 크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각 기관과 단체마다 유사한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까닭에 불가피하게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버렸다.

지역의 문화기관과 단체는 시설이나 재원, 인력 등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더욱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조를 통해서 힘을 모으고 나눌 필요가 있다. 시·군마다 문화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각 기관의 특성과 위치, 인프라 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공동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해 추진해 나간다면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③ 문화원 고유의 향토문화사료 발굴 및 축적사업 비중 감소로 인한 문화원 전문성의 약화

문화원의 고유한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지역의 향토문화사료 발굴·축적·발간 사업이다. 이 역할은 지역 내 타 문화기관이나 단체가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충남지역 문화원 보다 더 잘 해내기가 어렵다. 즉, 문화원이 가장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향토사 연구와 전승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문화원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원 전체 사업 중 ‘문화교육사업’이 평균 36.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다음으로 ‘문화행사사업(35.2%)’, ‘향토문화사업(22.8%)’, ‘문화홍보사업(9.0%)’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홍보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문화원의 주요 사업 중 가장 비중과 관심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원이 본연의 고유한 역할 중 하나인 향토문화사업을 외면할 경우,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이 제대로 발굴, 보존, 전승되지 않을뿐더러, 획일적인 문화교육사업들만 경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는 문화원이 가장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포기하며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향토문화사료 발굴, 조사, 연구, 발간 및 전승 사업은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더라도

지역의 정체성을 가꿔나가고 미래세대들이 두루 활용될 수 있는 문화원형을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일이므로 문화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며, 시·군도 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④ 지방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재정 자립도 취약

충남지역 문화원의 예산 조달방법은 2013년 기준으로 예산 총액 84억331만원 중에서 지방비가 68억153만원(80.9%)으로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고가 3억1천105만원(3.7%), 위탁사업비가 3억3천430만원(4.0%), 자체수입이 8억8천434만원(10.5%), 기타가 7천208만원(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비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자체수입, 국고 순인 것이다.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의 10% 정도에 그쳐 문화원의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원은 지원금이 지급되는 목적사업이나 위탁사업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게다가 지방재정의 악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에는 문화원의 사업과 역할이 급격히 축소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문화원이 자치역량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취약한 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향후 지방문화원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 확보에 따른 회비 수입 증대와 지역 내 기업과의 메세나 체결을 통한 기부금 모금 등 다방면에서 후원 통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수익금이나 시설 운영 수익금 일부를 문화원이 자체수입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정책적 방안의 모색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원이 소재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시사점

(1) 실태조사를 통한 충남 지방문화원의 종합적인 지형도 파악

1954년에 공주문화원, 부여문화원, 홍성문화원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충남 지방문화원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의 문화중추기관 역할을 담당하며 중요한 지역 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왔다. 최근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역문화 진흥계획과 법령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지방문화원을 포함해 지역의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노력해온 단체나 기관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4년 7월에 제정·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의 문화진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시·도 지사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반영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적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장 오랜 기간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역할해온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충청남도의 지방문화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전수조사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초의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2) 지방문화원 간 격차를 실질적으로 파악해 균형발전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충청남도 내에서도 지방문화원마다 여건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 지방문화원의 시설, 인력, 예산,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과 자체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3)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지표관리 필요

본 연구는 2013년도 현황에 근거해서 조사되었다. 최근 들어 지방문화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책적 환경과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5년도에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 2. 23. 시행)가 제정되었는데, 문화원연합회 조례가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강원도와 대구시에 이어 충청남도가 3번째이다.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자치단체의 문화원연합회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므로 지방문화원의 운영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 지방문화원에서 관리하도록 해온 문

회원 홈페이지가 2015년부터는 도와 시·군의 지원을 받아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동안 문화원 홈페이지의 활용이 저조했었으나, 향후 홈페이지 관리를 통한 회원 확대와 문화원 사업 소개 등으로 문화원의 활동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화원마다 통일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했던 회계관리시스템도 최근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문화원을 둘러싼 여러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표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문화원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설계하거나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이 자발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본 장에서는 해외 유사 문화시설과 국내 우수 지방문화원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충남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문화 환경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통해 충남 지방문화원이 고령화·다문화사회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사업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1. 해외사례

1) 일본 : 공민관

(1) 개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나 지방문화원과 유사한 형태의 공민관(公民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자치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등 지역민과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공민관은 1945년 8월 15일 패전에 의해 폐허와 빈곤 속에 놓여 있는 일본의 재건과 향토 부흥을 위해, 또는 일본 국민들에게 새로운 생활양식을 제시하기 위해 제창되어 건설된 시설이다(야마다 노리히로, 2004: 930). 1946년 7월 15일 문무부 차관 통첩 「공민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에 의해 발족되어, 1949년의 교육기본법과 사회교육법에 의해 법제화되었다(김진학, 2008: 35).

주민들의 학습센터이자, 지방행정의 가장 기초단위인 시·정·촌(市町村) 단위에 세워지는 공민관에는 사회교육주사라고 불리는 공무원이 배치되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공민관은 민주

적인 방법으로 개인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소이며, 지역주민의 활동 거점이자, 사회교육 지방분권화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바야시·이토, 2010: 13~14).

(2) 공민관의 목적 및 역할

사회교육법에 따른 공민관의 목적은 “시·정·촌이나 일정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교육, 학술, 문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교양 향상 및 건강 증진, 정서 순화 등을 도모하고 생활문화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이윤희, 2012: 64).

공민관은 설립 초기에는 부진을 면치 못했고 지역에 따른 편차도 심했으나, 1970년대 일본사회에서 사회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주장되면서 점차 발전하기 시작한다. 1980년대 이후 행정개혁과 함께 공민관 개혁이 요구되면서 시설정비, 민영화 및 위탁운영, 비상근 자원봉사자 활용 등 공민관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평생교육활동에 관한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공민관 제도는 자기정체성 모색과 함께 새로이 지역사회의 거점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학교 또는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 기타 여러 지역 시설들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김미향, 2010: 42).

한편, 생애학습센터가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설립되면서 그 기능이 공민관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두 기관은 현재 지역재생을 위한 ‘마을 만들기’와 ‘인간 만들기’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노력해오고 있다(테우치·오지마, 2010: 150). 60여년의 역사를 쌓아오면서 주위 환경에 의해 변화를 거듭해온 공민관은 이제 자기 본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하여 지역과 함께 생존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가고 있는 중이다.

(3) 공민관의 운영

공민관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공민관 운영심의회를 통해 운영되는데, 이때 심의회의 위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10명 이내에서 선출되며, 2년 임기로 활동한다. 또한 체육대회, 레크레이션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단체, 기관들과의 연락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모이는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공민관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41호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둘 수 있으며, 국가가 공민관의 시설, 설비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재원 마련을 위해 공민관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 사용료를 받는다는지, 공민관을 이용하는 단체 회원에게 회비를 받아 자체수익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2010: 47~51 참고).

(4) 우라야스시 공민관의 사례

우라야스(うらやす) 시에는 츠우오 공민관, 호리에 공민관, 후쿠오카 공민관, 미하마 공민관, 토우다이지마 공민관, 히노데 공민관 등 총 6개의 공민관이 있다. 이 공민관들은 시민 휴식의 장, 집단 활동의 거점, 시민 학습의 장, 문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히노데 공민관의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합창교실, 요리교실, 예비유치원, 유아방 등을 운영하며 각 세대별 주민들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그에 맞는 문화사업과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는 공민관 보육시설을 통해 학습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연금제도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년기의 생활과 복지에 대한 학습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일본 전통무용강좌, 목공예강좌, 곤봉제조 등 고령자 관련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정영희, 2002: 33).

(5) 시사점

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중점 운영

일본의 공민관은 지역주민의 요구와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공민관은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시설 및 단체와 연계해 그 기능을 체계화하고 종합화하려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다른 시설과의 중복 기능이나 경합을 피해 공민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민관은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아동, 청소년, 여성, 장년층, 노인 등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이미 노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었다.

② 체계적인 재정 확충 가능

공민관은 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보조금 지원 외에 기금과 특별회계, 자체수입 등 우리나라 지방문화원보다 체계적인 재원 확충이 가능하다. 특히 시설 사용료를 자체수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충남지역 문화원들의 재정자립도 신장을 위해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③ 주민대표로 이루어진 공민관 운영심의회를 통해 운영

공민관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공민관 운영심의회를 통해 운영되는데, 이때 심의회의 위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10명 이내에서 선출되며, 2년 임기로 활동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다.

2) 독일 : 사회문화센터

(1) 개요

독일의 사회문화센터(SozioKulturelle Zentren)는 대안문화를 실현하려는 운동의 일환으로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난 문화기관으로서, 독일의 사회변동 과정과 맞물리면서 발전해왔다. 1960년대 독일은 고도산업사회로 이행하던 시기였다.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화 속에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기성세대의 전근대적 문화에 반발하며 ‘68 학생혁명’이 발생했고,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신사회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문화 분야로 파급되어 ‘사회문화센터’라는 기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회문화센터는 기존의 문화 개념으로는 수용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화욕구를 조직적으로 표현하고 수용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때마침 문화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문화정책 이념이 소개되기 시작한다. ‘모두를 위한, 모두로부터의 문화(Kultur fuer alle, von allen)’라는 모토와 ‘사회

문화' (SozioKultur)라는 개념이 생겨나 실천되기 시작했다.

‘사회문화’는 모두를 위한 모두의 문화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을 모두 문화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를 실현하는 장으로서의 사회 문화 센터에서는 기존의 문화기관이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영역까지 문화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연극이나 음악행사 등 전통적 의미의 문화행사는 물론 도시의 지역사업, 평생교육, 노인이나 청소년 등을 위한 사업, 나아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여권 신장과 반핵평화운동 등에 관한 사업과 창조성과 감수성에 관한 훈련 등도 사회문화센터가 중시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다(정갑영, 1997).

(2) 사회문화센터의 목적 및 역할

사회문화센터의 이념은 ‘아래로부터 문화운동을 진흥’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센터의 모든 사업은 정치운동의 색채를 띠고 있지 않으며 또 철저히 반상업적인 원칙 아래 실행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이 문화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사회문화센터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문화기관과는 그 성격과 사업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센터의 또 다른 목표는 고전적인 문화예술이 아닌 생활문화 중심의 문화를 확산하고 보급하는 것에 있다. 사회문화센터 자체가 기존 문화에 맞서 대안문화를 창조하려는 운동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문화생산에 모두가 참여하고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 목적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이윤희, 2012: 66~67).

(3) 사회문화센터의 운영

사회문화센터는 대부분 법인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의사결정은 이사회에 소속되거나 회원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또 보장된다. 운영은 주로 동호회 집단이 주도해왔으나 최근에는 동호회 집단과 함께 유한회사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문화센터가 문화운동의 결과 자생적으로 생겨난 만큼, 직원을 비롯한 인력의 전문성보다는 자발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화센터의 건물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 속해 있으나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은 임대계약을 통해 확보하며, 사회문화센터의 50% 정도는 법적으로 임대기간을 보장받고 있다. 사회문화센터가 자생조직인 만큼 시설의 규모가 일률적이지 않은데, 30% 이상이 폐공장이나 폐가옥 등을 시에서 대여 받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내부수리를 거쳐 문화센터 건물로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그 비용은 대단히 저렴하며 사회문화센터로의 전용은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슈트트가르트(Stuttgart)의 '연극의 집(Theaterhaus)'이라 불리는 문화센터는 공장이 이전하면서 남겨진 폐건물을 개조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했다. 이 기관은 연극 위주의 문화사업을 운영하면서 남미나 제3세계의 문화를 소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의 주 수입원은 자체적으로 기획한 문화행사프로그램의 입장수입, 회원들의 회비, 식당의 임대수입, 그리고 자치단체로부터의 약간의 보조 등이다. 자치조직이지만 80년대 들어서부터는 '사회문화' 개념이 일반적으로 수용되면서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보조도 이루어지고 있다(정갑영, 1997).

(4) 빌레펠트 시의 바움하이데 자유시간센터 사례

독일 북서쪽에 위치한 빌레펠트(Bielefeld)시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에 속하는 인구 32만명의 공업도시로 독일 기준에서 볼 때 대도시에 속하는 편이다. 빌레펠트시의 바움하이데(Baumheide) 자유시간센터는 대도시에 있는 사회문화센터가 주민들의 자치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그 밖의 동호회 집단이나 사회복지단체 등과 상호 협조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한국 문화정책개발원, 1997).

주요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어린이 및 청소년 모임, 노인 모임과 연극 공연, 음악회, 전시회 등을 비롯한 문화행사인데,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계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 그밖에 교육, 가정문제, 심리문제, 실업문제, 부채문제 등 여러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학생들을 위해 공부방과 도서관도 운영한다. 사회체육 진흥을 위해 스포츠 동호회가 주관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러시아-독일인 합창단도 운영하고 있다(정영희, 2002, 35).

(5) 시사점

① 동호회, 유한회사, 자치단체 공동운영

독일의 사회문화센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단체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문화센터를 이끌어가는 핵심계층은 관변단체나 정부가 아니라 지역사회단체 또는 동호회 집단으로서, 스스로 지역사회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서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② 기초자치단체 건물 및 폐건물 활용

사회문화센터의 건물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 속해 있으나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은 임대계약을 통해 확보하며, 사회문화센터의 50% 정도는 법적으로 임대기간을 보장받고 있다. 사회문화센터의 30% 이상이 폐공장이나 폐가옥 등을 시에서 대여 받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내부수리를 거쳐 문화센터 건물로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그 비용은 대단히 저렴하며 사회문화센터로의 전용은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③ 생활문화 및 대안문화 프로그램 운영

독일의 사회문화센터 프로그램은 단순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래로부터 문화를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안적 문화의 성격이 강하고 대중성 역시 강하다.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아래로부터 생겨난 운동에 의해 충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안문화적인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는 없으나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는 운영방식은 생활문화기관으로서 문화원이 참고해야 할 것이다(이윤희, 2012: 68; 정갑영, 1997).

④ 연령대별 문화, 교육, 상담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연령대별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이며 가족 전체를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다수 있다. 문화행사와 교육, 각종 상담 외에 사회체육 진흥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함으로써 젊은이들을 핵심 참여대상으로 끌어왔다는 점에서 지방문화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프랑스 : 센나시오날

(1) 개요

센나시오날(Scene nationale)이란 프랑스의 문화의 집, 문화활동센터, 문화발전센터 등 지역 단위의 공공문화시설들을 일컫는 말이다. 센나시오날 문화시설의 발전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초대 문화부장관인 앙드레 말로는 1959년에서 1969년에 걸쳐 문화의 지방자치, 고급문화의 창달, 문화민주화 등을 표방하면서 지역에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 건립비용은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50%를 충당하는 식이었다. 문화의 집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설립되었으며, 현대음악과 무용, 영화 등을 모두 망라했다. 당시 문화부는 문화의 집이 갖춰야할 시설로서 연극, 음악, 영화를 위한 다목적 홀, 전시실, 작은 규모의 대중홀, 도서관, 음악감상실, 만남의 장소 등을 제시했다.

둘째, 1970년대에는 제2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문화의 집 개념이 문화활동센터 개념으로 바뀐다. 문화활동센터의 건립비용은 국가와 지역이 각각 50%씩 부담했으나 운영비용은 국가 1/3, 지역 2/3의 비율로 분담했다.

셋째, 1980년대에는 문화발전센터라는 제3세대 유형이 등장한다. 문화발전센터는 기본적으로 문화의 집이나 문화활동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문화발전센터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지역사회의 부담비율이 높아졌다(김진학, 2007: 44).

(2) 센나시오날의 목적 및 역할

센나시오날은 대부분 기획사업을 위해 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예술을 위해 대관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무대예술에 치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타 문화시설과는 다르게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다.

센나시오날의 예술 프로그램을 테마별로 살펴보면, 연극(일반용과 청소년용 연극, 서정적 연극), 무용(고전무용, 현대무용, 전통무용, 일반용과 청소년용), 음악(고전음악, 현대음악, 전통음

악, 재즈, 록, 버라이어티, 카바레, 카페-테아트, 유머, 일반용과 청소년용), 무언극·인형극·서커스(일반용과 청소년용), 기타 공연예술(일반용과 청소년용, 회의, 토론), 영화(일반용과 청소년용) 등이 있다. 영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문예회관의 프로그램과는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김진학, 2007: 45~46).

(3) 센나시오날의 운영

일반적으로 센나시오날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의 집, 문화활동센터, 문화발전센터 등의 시설들은 대부분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영리 협회 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각 시는 지역의 센나시오날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시설과 장소 등을 무료로 위임하며, 장소의 사용 방식에 대해 문화부와 협의하여 센나시오날과 협약을 맺는다(김진학, 2007: 46).

센나시오날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의 집과 문화센터들의 재정구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27%, 지방 50%, 자체수입 23% 정도다. 르아브르 문화의 집은 외부 지원금은 전체의 75% 내지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 내지 25%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외부 지원금은 국가에서 50%, 시에서 40%, 데빠트망(departement, 도 단위)에서 10% 정도를 지원한다. 르아브르 문화의 집의 영화관 시설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회원여부, 요일, 관객 특성에 따라 입장료 차별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 실업자, 회원, 노인, 예술 분야 학생 등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센나시오날 전체 프로그램의 장르별 유료 입장객 분포를 살펴보면, 연극 31.5%, 음악 19%, 무용 8%, 마임 및 서커스 5%, 기타 2.5%, 영화 34%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연이 66%, 영화가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입장객은 88%가 유료입장객이며 무료입장객은 12%에 불과해 기획공연의 입장료를 통해 자체수입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남서빈, 2004: 34~35).

(4) 아미앵 문화의 집 사례

1965년에 설립된 아미앵(Amiens) 문화의 집 경우에는 관장, 부관장, 프로그램 기획부서(영화, 무용, 연극, 음악, 전시, 촬영), 홍보, 영접, 출판, 비서, 커뮤니케이션, CEMA(지부와의 관계, 음반제작, 국제관계, 녹음스튜디오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장 1명과 직원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관장은 재정상태, 조직기구, 문화의 집의 특성에 맞는 인력 채용 등을 담당한다. 아미앵 문화의 집은 전속 문화예술 단체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각종 문화예술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을 활발하게 참여시키고 있다. 센나시오날의 관장은 문화시설 경영의 책임자로서 임기가 3년이며, 주로 문화예술 전문가들이다.

아미앵 문화의 집은 젊은 예술가를 육성하는 기회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센나시오날 중에서는 유일하게 음반 제작실을 갖추고 음반을 제작하는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젊은 예술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남서빈, 2004: 31~33).

(5) 시사점

① 전문가 관장의 책임 자율운영제 실시

비영리 조직형태로 운영되는 프랑스 센나시오날은 관장 또는 극장장의 경우, 문화예술인, 프로듀서, 감독 등 민간 전문가를 3년 임기로 선임한다. 그리고 임기 동안에는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전문가로 하여금 책임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② 관장 선출 시 엄격한 심사 및 공개 채용

센나시오날의 운영은 관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관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철저히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자질과 사업계획의 심사를 통해 선출한다.

③ 교육프로그램보다 예술 향수의 기회 확산에 중점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센나시오날은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보다는 예술 향수의 기회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 대부분이 공연예술이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유료 입장을 전제로 한다.

④ 전체예산의 1/4을 자부담으로 충당

예산은 시기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배정 비율이 각기 다르다. 또, 개별적인 문화의 집마다

지원 비율도 일정하지 않다. 예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영역의 개입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20~25%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문화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김진학, 2007: 48).

4) 사례분석 종합

해외 유사 문화시설 운영 현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충남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을 매개로 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인력을 영입 또는 직원들에게 전문교육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대관 중심이 아닌 기획 공연 중심의 적극적인 운영형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문화원의 자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기획공연과 영화관람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확충하는 등 조직, 운영, 사업 면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이고 과감한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표 IV-1] 국외 사례 분석 종합표¹⁷⁾

구분	시설의 성격	시사점
일본 (공민관)	사회교육시설 (교육법에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위원회 관련 공무원이 운영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중점 운영 ◦체계적인 재정 확충 가능 ◦주민대표로 이루어진 공민관 운영심의회를 통해 운영
독일 (사회문화센터)	지역주민, 사회단체, 동호회의 자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호회, 유한회사, 자치단체 공동운영 ◦기초자치단체 건물 및 폐건물 활용 ◦생활문화 및 대안문화 프로그램 운영 ◦연령대별 문화, 교육, 상담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프랑스 (센나시오날)	비영리협회조직, 다목적 문화공간, 종합 문화활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장의 책임 자율운영제 실시 ◦관장 선출 시 엄격한 심사 및 공개 채용 ◦교육프로그램보다 예술 향수의 기회 확산에 중점 ◦전체예산의 1/4을 자부담으로 충당

17) 김진학(2007: 49) 일부 수정.

2. 국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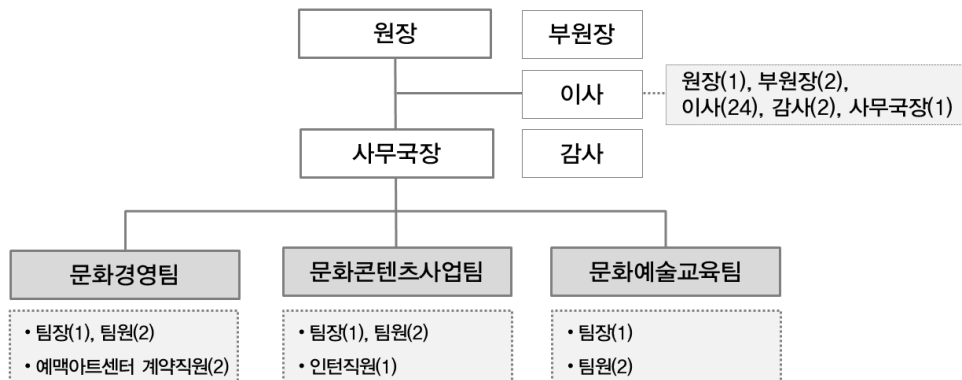
1) 인력 활용 부문 : 강릉문화원¹⁸⁾

(1) 개요

① 조직구성

강릉문화원은 사무국장 아래 1국 3팀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팀은 문화경영팀(4명), 문화콘텐츠사업팀(4명), 문화예술교육팀(3명)으로 원장을 제외한 실제 근무인력이 총 12명이다.

[그림 IV-1] 강릉문화원 조직 구성



② 팀별 업무 모듈화

강릉문화원은 팀별로 업무를 모듈화하여 팀 구성을 통한 업무 목표와 성과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팀원 개인의 독립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연스러운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며, 필요에 따라 TF(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른 팀과의 교류활동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심오섭(2015), 『In Good Company, In Good 강릉문화원』, 『전국 지방문화원 우수사례 워크숍』 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2015.1.30, 1~13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IV-2] 강릉문화원 팀별 업무 모듈화

문화경영팀	문화콘텐츠사업팀	문화예술교육팀
일반행정 및 법인업무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강원지역국악 · 예술강사 지원
예산 편성 및 회계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예매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다문화지도자양성사업	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
	지역문화예술교육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	

(2) 인력 관리 내용

① 보수규정 및 연봉제도

충남지역 문화원의 경우, 문화원별로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의 임금격차가 심하고,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상황이나, 강릉문화원은 직급별로 연봉지급 기준(표 참고)을 마련하여 인사평가에 따른 개인별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수규정을 통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표 IV-2] 강릉문화원의 직급 구분

직급	직책
1급	사무국장
2~3급	팀장
4~5급	주임
6급	팀원

보수규정과 관련해서는 직급별로 연봉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고, 경력기간 등을 고려하여 범위 내에서 연봉을 책정하도록 하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IV-3] 강릉문화원의 연봉지급 기준표

직급	하한액(단위: 천원)	상한액(단위: 천원)
1급	30,000	55,000
2급	24,000	40,000
3급	21,600	35,000
4급	18,000	30,000
5급	16,200	25,000
6급	14,400	23,000

보수지급은 기본급(연차수당, 가족수당 포함) 외 시간외 근무수당과 직책수당으로 구성된다. 또, 1년 이상 근속직원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연봉 월액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당 1개월분의 금액을 지급하며, 직원 개별 퇴직금 적립 계좌를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복지후생제도로는 4대보험 가입과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충남지역 문화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인사평가제도

강릉문화원은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해 인사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업무 능률과 능력 개발을 증진하고, 담당 업무의 수행, 성과 등을 평가해 개인의 발전과 문화원의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 한편 인사평가에 따라서 직원 개인별 연봉도 조정하고 있었다.

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평가대상이 되며, 서면자료에 의한 절대평가를 실시해 상대평가에 따르는 경쟁과 부작용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평가 자료는 직무기술서, 담당업무 추진 실적 보고서, 근태관리 종합자료, 자기평가서 등이다.

[표 IV-4] 강릉문화원의 인사평가제도

평가 대상	◦ 팀장을 포함한 전 직원
평가 방법	◦ 서면자료에 의거한 절대평가
평가 자료	◦ 직무기술서 ◦ 담당업무 추진 실적 보고서(상, 하반기) ◦ 근태관리 종합자료 ◦ 자기평가서 ◦ 기타 참고자료 등

③ 직원 워크숍 및 프로그램

직원들의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상·하반기에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에는 문화예술 선진지역 견학을 목표로 전 직원이 동대문디지털 프라자 견학, 국립현대미술과 관람, 뮤지컬 <위키드> 관람, 케이팝 홀로그램 콘서트를 관람하는 등 직접 보고 느끼면서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일깨우기 위한 시도를 진행했다. 당해 하반기에는 문화예술 저명인사를 문화원으로 초청해 강연을 개최한 바 있다. 강릉을 커피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커피박물관 ‘커피커피’의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직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며, 동해시 벽화마을 ‘논골담길’을 견학하기도 했다. 정선군 폐광지역을 문화예술적으로 복원한 ‘삼탄아트마인’ 견학도 다녀온 바 있다.

(3) 시사점

① 문화원의 경쟁력은 전문인력 확보

강릉문화원의 업무 모듈화 시스템은 직원들을 각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다. 전문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나 여건이 되지 않는 충남지역의 문화원에서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문화원 직원을 전문인력으로 키워나가는 방안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②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유도하는 시스템

강릉문화원은 자기평가서 제도를 통해 스스로 성찰과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또,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 체결로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시기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직원 단합 도모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직원 교육 워크숍을 통해 직원 간 소통을 도모하고 업무 관련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 체육대회와 등반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원들 간 친목을 도모하기도 했다.

2) 회원 관리 부문 : 이천문화원¹⁹⁾

(1) 개요

① 이천문화원의 전체 회원 수

2003년 이후 2011년까지 이천문화원에서는 연평균 74명의 회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정회원은 2010년(295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일반회원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비교할 때 2013년 현재 정회원은 40%에서 22%로 감소한 반면 일반회원은 48%에서 73%로 상승했다. 현재의 회원증가율 감안 시 2020년에는 회원 2,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14년 말 현재 총 회원수: 1,245명).

특히, 2007년부터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회원 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홈페이지 리뉴얼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에 노력해왔음이 나타났다. 2012년에는 한해 회원 가입자 수가 무려 222명에 이르렀고, 2014년 말 현재 인터넷회원 수는 761명이며 인터넷회원을 포함한 총 문화원 회원 수는 2,00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IV-5] 연도별 이천문화원 회원수 증가 현황

구 분	임원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	특별	총회원수	증감
2001년 말	25명	35명	230명	0명	4명	294명	-
2002년 말	26명	49명	382명	0명	4명	461명	167명
2003년6월	33명	168명	393명	4명	4명	602명	141명
2003년 말	34명	175명	207명	4명	12명	432명	△170명
2004년 말	35명	209명	304명	4명	12명	564명	132명
2005년 말	39명	227명	379명	4명	11명	660명	96명
2006년 말	38명	243명	467명	4명	12명	764명	104명
2007년 말	34명	274명	540명	4명	14명	866명	102명
2008년 말	39명	288명	619명	4명	15명	965명	99명
2009년 말	39명	291명	660명	4명	12명	1,006명	41명
2010년 말	34명	295명	680명	4명	12명	1,025명	19명
2011년 말	39명	285명	784명	4명	10명	1,122명	97명
2012년 말	38명	274명	819명	4명	10명	1,145명	23명
2013년 말	37명	271명	887명	4명	13명	1,212명	67명
2014년 말	40명	260명	927명	10명	8명	1,245명	33명

19) 이동준(2015), 「회원관리 부문: 이천문화원 사례」, 『전국 지방문화원 우수사례 워크숍』 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2015.1.30, 15~33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IV-3] 연도별 이천문화원 홈페이지회원 증가 현황

홈으로	관리자홈으로	회원관리	접속통계	고객지원/링크	로그아웃
-----	--------	------	------	---------	------

회원관리 페이지

접속통계					
총회원수	761	2015년 01월 가입자수	5	총 탈퇴회원수	0

【회원 상세 통계】

연도별 가입통계	
2006 년	9 명
2007 년	68 명
2008 년	92 명
2009 년	89 명
2010 년	72 명
2011 년	90 명
2012 년	222 명
2013 년	59 명
2014 년	58 명

월별 가입통계												2014년 ▼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명	4명	11명	5명	6명	4명	1명	0명	10명	4명	9명	3명	

② 연도별 회비 구조의 변화

연도별 회비 수익의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를 ‘임원회비 주도 시기’, ‘정회원 회비 주도 시기’, ‘일반회원 주도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화원 임원회비 주도 시기

2002년 전체 회비에서 임원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3%에 이르는 등 2003년까지는 임원회

비(25명 내외)가 주된 경상수입원이었다. 그러나 2003년에 정회원이 전년 대비 126명이 증가하면서 정회원 회비가 8배 증가하게 되었다.

○ 정회원 회비 주도 시기

2003년 이후 정회원의 증가에 힘입어 2005년 정회원회비 비중이 40%로 임원 회비 비중(28.6%)을 앞질렀다.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정회원 회비 비중이 문화원 전체 회비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해왔다.

[표 IV-6] 연도별 이천문화원 회비 증가 현황

(단위: 만원)

구 분	임원회비	정회비	일반회비	특별회비	과년도분	회비 총액
2002년	1,530	223	220	58	831	2,862
2003년	2,138	1,708	633	122	578	5,178
2005년	1,924	2,685	1,353	92	670	6,724
2006년	1,880	2,754	1,645	72	615	6,966
2007년	1,810	2,855	1,910	78	1,140	7,792
2008년	2,176	3,095	2,107	132	1,128	8,638
2009년	2,455	3,112	2,562	140	657	8,925
2010년	2,117	3,101	2,674	120	398	8,409
2011년	2,409	2,783	2,802	261	492	8,748
2012년	2,301	2,480	2,804	612	310	8,506
2013년	2,218	2,342	2,984	342	370	8,255
2014년	2,581	2,052	2,945	340	432	8,349

* 2004년 자료는 자료 불충분으로 데이터에서 제외

○ 일반회원 회비 주도 시기

2011년부터 정회원 수가 감소하고 일반회원이 꾸준히 증가해서 일반 회비가 정회원 회비를 앞질렀다. 2014년 말 현재 일반 회비 비중 35.3%, 정회원 회비 비중 24.6%로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현재의 회원추이 감안 시 일반회비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회원 확보 내용

① 홈페이지 재정비

이천문화원은 2007년부터 문화원 홈페이지를 재정비하는 시도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인터넷회원 수가 급증하고, 정회원 수도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CMS회원관리제도 시행

2003년 4월부터 CMS 회원관리제도를 도입해 시행 이후 회비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졌다. 2014년 말 현재 월평균 CMS회원은 816명으로 전체 회원 중 66.5%의 비중을 차지한다. CMS회원 중 출금잔액 부족 등 불능사유를 감안하면 CMS회비 출금회원 수는 2014년 월평균 615명으로 입금비율 75.4%(입금건수 기준)이며 전체 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4%이다.

[표 IV-7] CMS출금 실질회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임원	특별회원	정회원	일반회원	총계	비고
전체등록회원	40명	10명	260명	927명	1245명	2014년말 기준
CMS출금 실질회원 수	26명	4명	108명	464명	615명	2014년 평균
실질회원비율	65.0%	40.0%	41.5%	50.1%	49.4%	

한편, CMS회원의 입금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12월 평균 CMS 신청건수 816건 중 입금건수 615건으로 입금비율(건수기준)은 75.4% 수준이다. 입금액 기준으로 보면 2014년 총 회비입금액 8,506만원 중 CMS입금액은 5,872만원으로 CMS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회원에 비해 CMS회원 가입률이 떨어지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문화욕구 조사 실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8] 연도별 CMS회비 현황

(단위: 건, 만원, %)

구 분	CMS 신청건수	CMS 입금건수	입금비율 (건수)	총회비 입금액	CMS 입금액	CMS 회비비중
2012년	724건	585건	80.9%	8,506	5,872	69.0%
2013년	784건	623건	79.1%	8,255	5,896	71.4%
2014년	816건	615건	75.4%	8,349	5,922	70.9%

(3) 시사점

① 홈페이지 통한 회원관리제도 시행으로 회원 확대

이천문화원은 홈페이지를 재정비하여 온라인회원과 정회원을 획기적으로 확보했다. 충남지역 문화원에서는 아직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2015년부터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와 시·군 문화원 홈페이지가 정비될 예정에 있어 향후 홈페이지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가 새롭게 재정비되면, 문화원이 보유한 풍부한 향토자료의 제공과 각종 사업의 홍보, 온라인 회원 가입 등 고품질의 웹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회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회원 등급(정회원, 일반회원, 온라인회원)에 따른 차별화된 혜택 제공

충남지역 문화원이 홈페이지를 재정비함에 있어, 일반시민과 문화원 회원 간 홈페이지 이용 시 분명한 혜택의 구분을 뒤서 회원 가입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정회원이 아닌 인터넷회원에게도 e소식지, 행사안내 e레터, 자료실 이용 권한 등을 부여해 인터넷회원을 정회원으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회원과 일반회원 간에 서비스 혜택상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만 정회원의 가입과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회원에게 각종 문화탐방, 문화학교 수강비 등 할인, 문화공연티켓 송부, 문화원 발간자료 송부 등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해 회원 간 혜택 재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③ CMS 회원관리제도 도입 등 회원 배가를 위한 방향 모색

회원 배가를 위해서는 문화원사무국의 운영체제를 정비하여 모든 회원을 결집하고 문화원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충남의 문화원들은 대체로 설립기간이 오래되었으므로, 임원진과 사무국이 창립 50주년, 60주년,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활동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문화원의 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문화원 사업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공공기관과 문화시설의 협조를 얻어 배포하는 시도도 해봄직 하다. 회비납부가 되지 않거나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명목상의 회원들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 현금 납부회원을 CMS회원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명목회원에 대한 실질회원 활동 독려를 위한 정비 등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3) 예산 확보 부문 : 대전서구문화원²⁰⁾

(1) 개요

① 대전서구문화원 건립 배경

대전 시민 150만 명 중 인구 50만 여명이 거주하는 대전서구 지역에 문화원(1995년 개원)이 별도의 건물 없이 둔산1동 주민센터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이에 대전서구문화원에서 인구밀집 지역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근린생활 시설을 연면적 30% 범위 내에서 건축 가능(나머지 70%는 주차장)’하도록 한 제도를 활용하여, 문화원의 건립을 건의했다. 이 제안이 대전시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받아들여져 총 5억 1천여 만 원의 사업비(국비 1,532천 원, 시비 1,787천 원, 구비 1,787천 원)로 2009년 5월 6일부터 2010년 6월 5일까지 13개월에 걸쳐 지하1층, 지상6층(연면적 2,731.77㎡) 규모의 문화원을 건립했다. 내부 시설은 공연장(269석), 전시실, 도서실, 강의실, 취미교실, 향토사박물관로 구성되어 있다.

주차장 부지 중 29.8% 면적에 문화원을 건립하여 문화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회원이 주차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대전서구문화원의 운영에 큰 이점으로 작용했다.

[표 IV-9] 대전서구문화원 사업비

연도	합계(천원)	국비(광특)	시비	구비
합계	5,106	1,532	1,787	1,787
2009년	3,412	750	875	1,787
2010년	1,694	782	912	-

② 신축 대전서구문화원 운영 현황

신축문화원의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따른 필수인력을 5명 증원했고, 300여개의 문화강좌를 운영하여 자체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 문화원 인력 수는 12명으로, 원장(1명), 사무국장(1명), 경영시설팀(2명), 문화진흥팀(2명), 교육지원팀(2명), 대관운영팀(2명), 기타(구청 파견직원,

20) 송재민(2015), 「대전서구문화원 건립 추진 및 운영 현황」, 『전국 지방문화원 우수사례 워크숍』 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2015.1.30, 35~46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100% 자체 운영을 위한 장기계획을 운영 목표로 세우고 문화센터 자율운영 시스템, 운영비 예산절감 노력, 대관운영 등을 통해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예산 확보 내용

① 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대전서구문화원은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문화원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문화원 신축 이전에는 30여개에 불과했던 프로그램이 신축 이후 10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문화원에서 개발한 ‘자율운영 프로그램’ 덕분이다. 이 방식으로 대전서구문화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체수입도 확충하고 있다.

[표 IV-10] 대전서구문화원의 문화센터 자율운영 프로그램

- 수강료/ 수강인원/ 수강내용을 강사가 직접 정하며, 정원 미달 시 폐강 원칙
- 수강료의 80%를 강사료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운영비 수입
- 1일 5교시 수업프로그램 운영 : 5교시×7강의실×6일=210개 강좌 가능
- 2015년도 운영예산 35,000만원 중 운영비 7,000만원 (가능)
- 시스템을 간소화한 관리 프로그램 개발로 인하여 1인 운영이 가능함

② 시설의 상시 개방을 통한 이용률 확대

연중 시민이 필요로 하면 언제나 개방하여, 공연장의 연 이용률 300회, 전시장의 연 이용률도 300회 정도에 이른다. 세미나실 여유공간은 강의실로 활용하는데, 이 모든 공간을 관리하는 직원은 2명으로 주 5일 40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근무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관수입과 문화학교 강좌 등을 통해 대전서구문화원이 2015년 운영수입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5억여 원 정도다. 세부적으로는 회비 등을 통한 수익이 1천4백여만 원, 대관수입이 1억3천여만 원, 문화학교 강좌 수익이 3억5천여만 원으로 예상된다. 문화원의 자체수익이 점차 많아지면서 청소인력 인건비 등을 문화원이 시 보조금 대신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등, 시·구의 경상비 지원금 비중이 낮아지고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 IV-11] 대전서구문화원의 2015년도 운영예산

◦ 연간 운영비 소요액 : 718,915천원

합계(천원)	인건비	물건비	문화원 운영	문화센터 운영
718,915	247,834	108,364	12,717	350,000
718,915	시/구 : 218,915, 자비: 500,000 자체운영 비율: 보조 30.5%, 자비 69.5%			

◦ 예상 수입액 : 500,000천원

합계(천원)	경상수입(회비 등)	경상 외 수입(대관 수입)	문화학교 강좌
500,000	14,000	136,000	350,000

(3) 시사점

① 전국 최초로 주차장 용지를 활용한 문화원 신축·이전으로 예산 절감

대전서구문화원은 주차장 용지로서 연면적 30% 범위 내에서 문화시설이 건축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활용하여 공사비 및 부지매입비(약 50억)를 절감하여 신설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주차장 부지에 문화원을 신설함으로써 주차장과 문화원의 '복합공간' 조성으로 문화원 이용객을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자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주차장 수입 등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표 IV-12] 주차장법 시행령의 제1조의 2(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 주차장 외 용도의 부분이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사용될 경우, 70% 이상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함

충남의 경우에도 문화원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문화원의 현 입지가 활발한 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곳이 많아 앞으로 이전이 필요한 곳들이 많다. 문화원 이전과 신설에 따른 경비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하고, 신설에 따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② 자체예산(구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대전서구문화원의 경우,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문화원 신설, 혁신적인 문화학교 운영 등 다

양한 사업을 통해 자체수입을 크게 늘린 결과, 경영평가 부문에서 우수문화원으로 선정되었다.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원의 운영수익은 순수한 자체운영비로 활용되고, 시청이나 도의 수익으로 가지는 않는다.

③ 혁신적인 문화학교 운영프로그램으로 자체수익 증액

문화원에서 개발한 ‘자율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전서구문화원은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체수입도 확충하고 있다. 그 결과 문화원 신축 이전에는 30여개에 불과했던 프로그램이 신축 이후 10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④ 수준 높은 상주단체(오케스트라, 풍물, 메타댄스) 운영으로 자체수익 확보

대전서구문화원에서 오케스트라, 풍물, 메타댄스 3개의 상주단체의 운영이 직접적으로 문화원의 예산 수익을 확보하는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 높은 상주단체 운영을 통해 공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주단체의 공연을 통해 입장료 수입을 얻고 있다. 문화원 상주단체의 운영비는 사업 예산을 구에 신청하고, 사업운영을 통한 수익금은 문화원의 수익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타 문화원들과의 차이이다.

4) 시설 활용 부문 : 금산문화원²¹⁾

(1) 개요

① 금산다락원(多樂苑)과 금산문화원의 설립 배경

금산문화원이 시설을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금산 다락원은 기존에 금산군에 없던 문화·체육·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7개 부처의 국비사업을 하나의 시설로 집적화해 설립되었다. 2000년 12월부터 2006년에 걸쳐 41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되었으며, 현재 지하 1층, 지상3층의 14개 동(25,719㎡)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안용산(2015), 「금산다락원과 금산문화원 사례」, 『전국 지방문화원 우수사례 워크숍』 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2015.1.30, 47~51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표 IV-13] 금산 다락원의 시설 개요

위 치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금성면 양전리
사업기간	2000. 12. 15 ~ 2006. 4. 9
개 원 일	2004. 10. 29(부분준공) 2006. 4. 9(전체준공)
사 업 비	419억원 (당초 310억 + 추가 109억)
부지면적	70,176㎡ (당초 45,874 + 추가 24,302)
건축면적	14개동 25,719㎡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일부 지상 8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금산문화원은 다락원 부지 내에 2000년부터 2004년에 걸쳐 연면적 1,203㎡의 지상3층 건물로 건립되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이 중 국비가 1억6천만원, 도비 1억6천만원, 군비 6억8천만원으로 16 : 16 : 68의 비율로 지원했다.

국가 부처별로는 문화관광부가 문예회관과 문화원, 야외공연장 시설의 건립비를 지원했으며,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회관을, 농림수산부는 농업경영인회관을, 행정자치부는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비를, 농업진흥청은 여성생활과학관 건립비를, 마사회는 농어촌문화체육센터, 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센터를 지원했고, 그 밖에도 공모와 기능을 통해 기적의 도서관과 향토관, 청산회관이 건립되었다.

[표 IV-14] 금산 다락원 건립 시 7개 중앙부처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지원시설	지원액
합계	-	15,906
문화관광부	문예회관, 문화원, 야외공연장	2,160
보건복지부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회관	3,099
농림수산부	농업경영인회관	500
행정자치부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100
농업진흥청	여성생활과학관	560
마사회	농어촌문화체육센터(실내체육관)	1,100
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센터(수영장)	3,000
공모 및 기증	기적의도서관향토관(공모사업), 청산회관(기증)	5,387

② 금산 다락원의 시설 특징

금산다락원은 건물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융복합 시설의 활용성을 높이 평가받아 '2005 대한민국 건축물 베스트 7'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다락원 내 각 시설의 연계로 타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결과, 금산군이 다락원 덕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표 IV-15] 금산 다락원 주요시설 내역

시설명		연면적		주요시설
		㎡	평	
총계		23,529	7,117	생명의 집 등 14동
생명의 집		3,657.59	1,106	대공연장(738석), 소공연장(280석), 귀빈실, 카페테리아
건강의 집		2,303.57	697	소장실, 건강증진연구실, 의사지도연구실, 회의실, 소회의실, 방문보건팀실, 정신보건센터, 예방접종상담실 등
만남의 집		1,057.05	320	관리사무실, 대·소회의실, 프레스센터/휴게실, 금산발전연구소, 자료실
문화의 집		1,389.5	364	문화사랑방, 풍류방, 금산향토사연구소, 합창단실, 서예방, 그림방, 글방, 연공방, 소리방, 도자기방
청소년/장애인의 집		2,264.79	685	정보화교육실, 체력단련실, 인터넷실, 물품관리실, 예절방, 춤방, 노래방, 그림방, 오디오방, 상담실, 심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어학실, 수화통역센터, 자료실, 휴게/다목적실
노인의 집		1,160.55	351	일반·특수목욕실, 건강증진센터, 서예교실, 자원봉사자실, 상담실, 사회교실, 노인회지회, 사랑방(남·여)
여성의 집		906.69	274	생활교육실, 예절실, 놀이방, 요리준비실, 요리실습실, 식품가공실, 취미교실, 강사실, 인삼요리실습실
농민의 집		775.53	235	인삼고을명품판매장, 관리실, 농업발전연구실, 쉼터방, 자료전시실, 농업정보실
스포츠센터		4,602.64	1,392	실내수영장, 헬스장, 건강증진실, 정신건강증진센터 다목적실, 실내체육관, 재활운동실
도서관	기적	529	160	책나라열람실, 아가들방, 이야기방, 디지털자료실, 도움방, 지킴이방
	인삼고을	1,172.06	355	향토자료실, 전자정보/디지털자료실, 일반열람실, 문화사랑방, 보존서고, 도우미실, 자원봉사자실
청산회관		2,850	862	신축중(지상1층, 지상8층)
청산아트홀		381.41	115	전시공간
금산향토관		2,325	703	민속전시관, 역사전시관, 농악전시관, 다목적회의실

출처 : 금산다락원(2009), 금산다락원운영위원회 자료집, 6쪽

시설을 금산군에서 관리하다 보니, 건축 및 운영관리 예산이 대폭 절감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건축 당시에는 실시설계비 등 2억6천만원과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21억4천5백만원을 절감했으며, 이후 공공요금과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관리비가 연간 5억2천5백만원이나 절감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2) 내용

① 시설 운영 현황

1층에 있는 금산문화기획실이 문화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전체 다락원 시설 사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층별로 문화원이 사용하는 시설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V-16] 금산문화원의 시설 이용 현황

층별	시설 이용 내용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실(28.6평) : 무용, 사물놀이, 작은공연 등 이용 ◦ 금산문화기획실(15.2평) : 문화원 사무실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창단실(22.9평) : 메아리합창단 등 현대음악단체 이용 ◦ 금산역사문화연구소(10.9평) : 서고와 금산역사연구 기능 ◦ 풍류방(19.3평) : 풍각쟁이, 토리풍류회 등 고전음악 단체 이용
3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공방(11.4평) : 도자기 등 공예단체 이용 ◦ 글방(11.4평) : 좌도시, 산꽃씨 등 문학단체 이용 ◦ 서예방(17.7평) : 금곡서회, 금묵회 등 서예단체 이용 ◦ 그림방(19.3평) : 금동인회, 창현회 등 미술단체 이용 ◦ 농파헌(6.5평) : 금산농악보존회, 나야내풍물단 등 농악단체 사무실 ◦ 기타 : 자재 및 교육자료실

② 운영상 장단점

문화원 소속 단체들이 특성화된 공간의 확보로 이용이 극대화 되는 측면이 장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을 공유하고, 시설관리를 금산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공간 공유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났다. 전체 다락원 시설 중에서 문화원이 중점적으

로 사용하는 공연장, 전시장, 회의실, 향토사료관 등도 공유시설이므로 타 기관이 필요로 할 때 문화원의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불편이 따르기도 한다. 또한, 지역 문화원으로서 공간의 상징성이 약화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3) 시사점

① 융복합시설(다락원)의 신축과 시설 연계로 시너지 효과 창출

금산의 경우, 다락원 모델이 가능했던 이유는 여타의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이 없었고, 이들을 별도로 짓는 것보다 한 데 모아서 융복합시설로 건립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문화기반시설이 입지해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다락원과 같은 모델을 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화기반시설들의 모두 노후화되어 있고 입지가 좋지 않아 신축을 검토하는 시·군의 경우에는 다락원 모델을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

② 다락원 시설 공유를 통한 운영비 절감

금산문화원은 연간 시설관리비를 전기세 항목으로 150만원 밖에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익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 지방문화원들에게 운영비 절감은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또, 여러 단체와 시설이 한 공간에 공존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각 주체 간 상호 경쟁보다는 협조를 통해 부족한 인력과 프로그램을 교류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③ 여러 시설이 한 공간에 공존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형성

금산다락원에는 24개 문화단체가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필요에 따라 여러 시설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가능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5) 경영 혁신 부문 : 태안문화원²²⁾

(1) 개요

① 태안문화원의 일반 현황

태안문화원은 1990년에 개원했으며, 1996년도에 문화원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2633㎡, 798평)로 신축했다. 인적 구성은 임원 22명과 직원 4명(사무국장 1, 과장1, 간사2), 대의원 70명, 문화가족 329명으로 이루어져있다.

태안군은 지정문화재만 총 26건(국가지정 6건, 지방문화재 20건)을 보유하고 있는 등, 문화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이러한 지역적 특색에 맞게 태안문화원도 향토사료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전국향토문화 도서(7,326권), 태안관련 도서 및 간행물(971권), 향토유물(442종, 1,204점), 시청각자료 및 오디오자료(585종, 641개), 지역관련 사진 및 옛 사진(70,000점 이상) 등 도서, 유물, 시청각 자료의 다량 수집 및 관리가 태안문화원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② SWOT 분석으로 본 태안문화원

태안문화원의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약점을 개선하고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태안문화원은 여러 경영 상 혁신적인 운영방법을 도입했다.

[그림 IV-4] 태안문화원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의 수집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유물, 시청각 자료 등 ◦ 지역예술단체와 유연한 협조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 접근성 낮음 ◦ 전문예술인 부재 ◦ 부족한 경상채원 ◦ 문화학교 수강생·강의실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원사 신축 이전(3,421㎡) ◦ 축적된 문화자료 ◦ 문화원의 인지도 상승 ◦ 한국서부발전 본사 태안 이전(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문화원 경상비 확보 ◦ 유사 문화시설 신축 ◦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제도

22) 정지수(2015), 「경영 혁신 부문: 태안문화원 사례」, 『전국 지방문화원 우수사례 워크숍』 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2015.1.30, 53~65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2) 내용

① 통계자료를 활용한 사업 점검 및 활용

태안문화원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조금 70,000천원, 자부담 17,500천원)을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었다. 당 사업은 가족 간의 대화와 세대 간 추억의 공유라는 취지로 1박2일 가족여행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참여그룹이 가족여행으로 선호하는 시기나 참여자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거주지별 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참가자의 수요에 맞게 사업을 개선해나감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느티나무 야외음악회’ 사업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개최시기를 사전에 통계자료를 이용해 조사하여 결정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내었다.

② 사업결과 활용을 통한 2차 사업 활용

매년 문화원에서는 무수히 많은 향토자원과 역사자원 등 옛것이 발굴되고 다양한 형식으로 사업에 접목된다. 이렇게 발굴된 자료가 현대 문화 경향에 알맞게 가공되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연계사업의 개발, 사업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례로 태안문화원에서는 2001년도에 실시한 전통소금제조법 ‘자염’의 고증 및 재현사업을 2차 가공해 태안자염을 상품화하고 마케팅하는 등 다양한 2~3차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 ‘태안자염’ 상품화

- 영농조합법인 ‘소금 굽는 사람들’ 설립
- 태안자염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자염의 상품화가 이루어짐
- 자염에 대한 특허 및 ‘지리적표시제’ 추진 중

◦ 태안소금 이미지 마케팅 활용

- 자염의 전통적 이미지와 청정 이미지를 활용해 ‘태안소금명품화사업단’의 천일염, 송화소금을 동반 홍보함으로써 태안지역 소금산업 활성화에 기여

[그림 IV-5] 태안자염 상품



③ 지역 내 향토문화기증 캠페인 연중 실시 및 지역문화예술인 작품 구입·관리

태안문화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향토문화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내 향토문화 기증 캠페인을 지역신문사의 후원을 통해서 연중사업으로 실시하고 기증자에게는 기증서와 신문 기사를 내줌으로써 기증유물에 대한 책임관리 의지와 믿음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작품(무형문화재 설위설경작품 30여 점 구입 등)도 꾸준히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④ 관련 부서 외 타 부서 및 기관과도 연계사업 추진

태안문화원은 주로 관련 부서 이외의 주민복지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0,000천 원 지원), 농정과, 태안소금명품화사업단(자염 재현행사 30,000천원), 평생교육과(우리고장바로알고 바로알리기 10,000천원), 한국서부발전태안화력본부, 태안장학회(태안군어린이동요대회 12,000천원) 외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 등의 후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문화원 임직원의 지역 문화 분야 위원회 활동 병행 통한 문화원 역량 강화

태안군의 인구가 적고 다양한 분야의 문화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역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화원의 임직원들이 지역 내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문화원은 지역 내 활동상황을 홍보하고 연계정보를 확보하기도 한다.

(3) 시사점

① 통계자료를 활용한 사업 점검 및 활용

문화원의 사업 특성 상 설문지 조사를 통해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사업성과에 대한 단순한 만족도 평가도 할 수 있고, 향후 사업방향을 설정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뿐더러 통계수치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계량화하고 보조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이나 명분을 증대시켜 지원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화원 업무의 과다로 인하여 매년 설문지를 돌리고 수거하고 통계내고 분석하는 일이 수월하지는 않지만 특정 사업의 경우 통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사업성과와 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사업결과 활용을 통한 2차 사업 활용

지방문화원은 예산 대비 연간 사업의 건수가 상당히 많다. 이는 적은 금액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칫 운영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사업의 수가 많아질 경우 사업 결과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된다. 사업 결과 중 일부는 약간의 가공을 통해 2차, 3차의 문화산업으로서 가치가 크게 상승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열악한 운영환경 탓에 2~3차 가공이나 활용에 엄두를 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문화원이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만 역점을 두지 말고 기존사업의 장점을 살리고 재가공하는 사업에 더 큰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③ 지역 내 향토문화기증 캠페인 연중 실시 및 지역문화예술인 작품 구입·관리

군 단위 문화원의 경우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사업구역의 문화적 특징이나 향토문화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문화자원의 수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 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은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곧 지방문화원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④ 관련 부서 외 타 부서 및 기관과도 연계사업 추진

군 단위 문화원은 도시권 문화원에 비해 재정 확보를 위한 통로가 비교적 좁다. 하지만 지역 내 경제적인 환경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이용하면 다양한 사업비 지원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관련부서, 연합회, 시도 등의 공모사업을 비롯하여 기업, 금융기관, 지자체 소관부서 이외에도 농·수·축·임업 관련부서, 복지부서, 평생교육관련 부서, 지자체를 근거로 하는 사업단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⑤ 문화원 임직원의 지역 문화 분야 위원회 활동 병행 통한 문화원 역량 강화

원장을 비롯한 임원은 기관장 회의를 비롯해 기부금심의위원, 도시계획위원, 지역 내 문화재위원, 평생교육관련 위원, 향토문화위원 등의 활동이 필요하고, 사무국장은 지자체 기록물평가위원, 도서관운영위원, 사회복지협의회위원,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관리협의회 위원 등 지역문화 관련 실무 분야에서 위원회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문화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외 문화원 실무직원의 지역 내 시민기자,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 등도 문화원 운영에 긍정적으로 기여가 될 것이다.

6) 사례분석 종합

충남지역 문화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활용, 회원관리, 예산확보, 시설활용, 경영혁신 면에서 국내 타 문화원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일부 방침과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신규 전문인력의 확보 외에도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전문성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홈페이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우수한 모델을 벤치마킹해 향후 홈페이지가 문화원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회원을 확보하는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원의 재정자립도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나름의 노력 외에도 시·군과의 협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노후한 시설의 신축·이전이 필요할 시에는 금산 다락원 모델을 참조하여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네트워크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문화원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을 개선해나가고, 사업결과를 2차, 3차 사업으로 연계해나가는 것도 문화원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V-17] 국내 사례 분석 종합표

구분		시사점
인력 활용	강릉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모듈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유도하는 절대평가 시스템 운영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 체결과 인센티브 지급으로 근무의욕 고취 ◦워크숍, 답사, 체육대회 등 다양한 직원 단합 도모 프로그램 운영
회원 관리	이천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통한 회원관리제도 시행으로 회원 확대 ◦회원 등급(정회원, 일반회원, 온라인회원)에 따른 차별화된 혜택 제공 ◦CMS 회원관리제도 도입 등 회원 배가를 위한 방향 모색
예산 확보	대전 서구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용지를 활용한 문화원 신축·이전으로 예산 절감 ◦자체예산(구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혁신적인 문화학교 운영프로그램으로 자체수익 증액 ◦수준 높은 상주단체(오케스트라, 풍물, 메타댄스) 운영으로 자체수익 확보
시설 활용	금산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복합시설(다락원)의 신축과 시설 연계로 시너지 효과 창출 ◦다락원 시설 공유를 통한 운영비 절감 ◦여러 시설이 한 공간에 공존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형성
경영 혁신	태안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자료를 활용한 사업 점검 및 활용 ◦사업결과 활용을 통한 2차 사업 활용 ◦지역 내 향토문화기증 캠페인 연중 실시 및 지역문화예술인 작품 구입·관리 ◦관련 부서 외 타 부서 및 기관과도 연계사업 추진 ◦문화원 임직원의 지역 문화 분야 위원회 활동 병행 통한 문화원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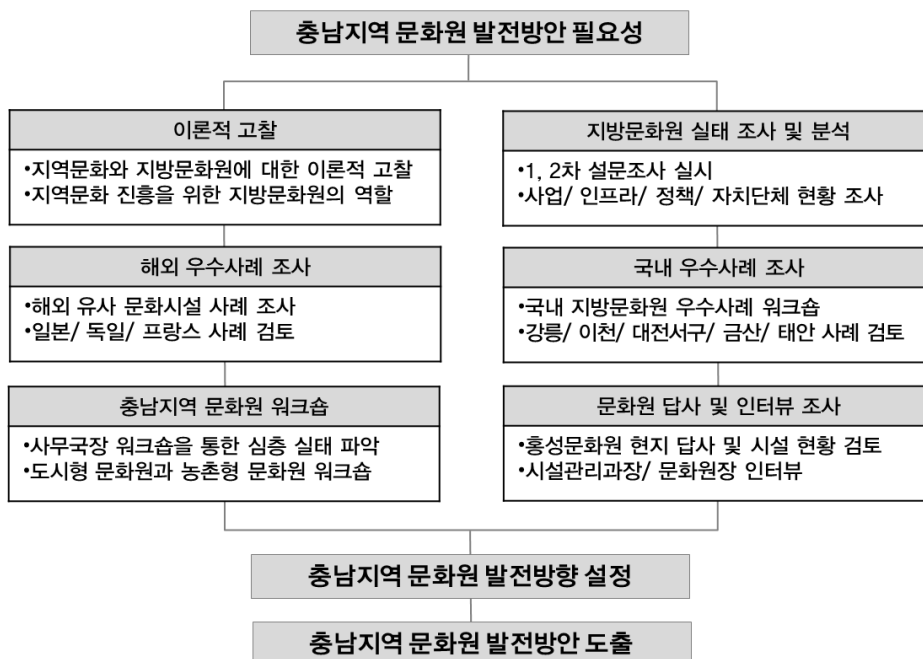
제5장 충남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1. 접근틀과 기본방향

1) 접근틀

본 연구에서 충남지역 문화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접근틀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V-1] 접근틀



법에 명시된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충남지역 문화원의 정책, 사업, 인프라, 네트워크 현황 등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대상 워크숍 논의 내용을 토대로 충남지역의 실정에 맞는 문화원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내 지방문화원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 문화시설 및 단체의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에서 인력 활용, 회원 관리, 예산 확보, 시설 활용, 경영 혁신 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다섯 개 지방문화원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발전방안에 담아내었다.

2) 기본방향

충청남도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진흥의 주도적 기관이자 시설로서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크게 정책, 사업, 인프라, 네트워크 측면에서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 (1) 문화자치 활성화 위한 정책기반 확립
- (2) 문화원 역할 재정립과 맞춤형 사업 발굴
- (3) 문화원 간 인프라 격차 해소
- (4) 문화네트워크 통한 지역문화 진흥 제고

[그림 V-2] 충남지역 문화원 발전의 기본 방향



2. 목표와 추진전략

1) 목표

오랜 기간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온 충남지역 문화원이 균형적으로 도약함으로써 충남도 내 15개 시·군의 지역문화가 골고루 성장하고 지역주민들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것을 충남지역 문화원의 발전 목표로 삼는다.

[그림 V-3] 충남지역 문화원 발전 목표

목표	함께 뛰는 충남 문화원, 고루 크는 지역문화
키워드	지역문화진흥, 격차해소, 균형발전, 문화자치

2) 추진전략

충남 지방문화원의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문화원 자체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문화원 정체성에 맞는 사업 특성화로 전문성 강화’, ‘인프라 개선 및 자생력 증진’, ‘타 기관 및 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성화’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중 일부는 문화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충청남도나 시·군 차원에서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도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6장 결론의 ‘정책제언’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 (1) 문화원 자체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2) 문화원 정체성에 맞는 사업 특성화로 전문성 강화
- (3) 인프라 개선 및 자생력 증진
- (4) 타 기관 및 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성화

[그림 V-4] 충남지역 문화원 발전의 추진전략



3. 충남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1) 정책 : 문화원 자체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1) 문화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충남지역 지방문화원의 평균 운영기간은 50.3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문화원 중에서 문화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3년 이상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문화원은 단 한 곳도 없다. ‘사업’과 관련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곳은 앞서 살펴봤듯이, 2013년도에 <삶꽃사랑운동>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금산문화원을 포함해 모두 5곳(공주문화원, 온양문화원, 논산문화원, 금산문화원, 예산문화원, 태안문화원)이 있지만, 금산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원들은 종합계획이 아니라 일부 사업을 위한 계획이다.

이러한 사실은 충남지역의 문화원이 문화원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미래를 내다보며 일관성 있게 문화원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매년 일회적으로 끝나는 사업이나 공모사업, 위탁사업 등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물론 사무국장을 포함해 평균 3~4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충남 지방문화원의 열악한 운영 여건 상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문화욕구 성장과 지역문화 진흥 흐름에 따라 문화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문화시설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현재, 문화원이 지역사회 내 역할에 대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스스로의 목표에 맞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해나가지 않는다면, 문화원의 정체성은 점점 더 불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 타 문화시설과의 차별점도 모호해질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화원의 활동영역과 입지를 더욱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라도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의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화원에서 내부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면 연구기관이나 컨설팅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문화원의 현 실태에 대한 분석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수요, 그리고 문화원의 미래상에 기반한 발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한편 문화원이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양하다. 예컨대 충남지역 문화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설문조사에서 천안서북구문화원과 천안동남구문화원은 문화원의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를 ‘시설조성 및 건립’이라고 밝힌 바 있다.

[표 V-1]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치 순위

구분	시설 조성 및 건립	시설 리모델링	시설 관리 인력 확충	시설 내 장비 마련	기타
천안동남구문화원	1	4	2	3	-
천안서북구문화원	1	4	2	3	-
공주문화원	4	1	3	2	-
보령문화원	4	2	1	3	-
온양문화원	1	2	4	3	-
서산문화원	1	2	4	3	-
논산문화원	1	4	3	2	-
당진문화원	2	1	4	3	-
금산문화원	-	-	-	-	-
부여문화원	4	3	1	2	-
서천문화원	2	1	3	4	-
청양문화원	1	2	3	4	-
홍성문화원	1	4	3	2	-
예산문화원	1	2	3	4	-
태안문화원	2	3	1	4	5.중심 시가지 장소이전

우선, 천안서북구문화원은 천안시 소재 문화원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3만 명 정도로 적은 성환읍에 위치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운영하고자 해도 주민들의 수요가 없어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물은 1972년에 건립되어 40여년이 지난 상태이며 2012년에 일부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주차장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져 문화강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시내 중심가로 이전해 도시형 문화원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 천안동남구문화원의 경우에도 50년 이상 된 노후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내권에서 대중교통으로 40~50분 떨어진 거리의 인구 1만 명이 거주하는 면 단위(병천면)에 위치하다 보니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주민이 거의 없다는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양 문화원은 천안군 시절에 설립되어 ‘시’로의 환경 변화에 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원의 이미지를 새로이 제고할 발전방안을 찾고자 하고 있는데, 이때 문화원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시·군에 문화원 이전 또는 신축 설립의 타당성을 입증하며 설득해낸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주차장 부지에 문화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찾아내어, 실제로 주차장에 문화원을 신축함으로써 넓은 주차장도 활용하고 시설의 활용도도 제고한 대전서구문화원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계획 아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문화원은 사업을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운영하면서 타 시설과 구별되는 문화원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여타 시설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경쟁적으로 중복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화원의 적은 인력으로는 소모적일 뿐이며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원의 위상과 그에 따른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편이 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원 정관 및 내부규정 개선

조사결과 충남 지방문화원 중에서 문화원의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있는 문화원은 15개 문화원 중 8개로 절반이 약간 넘는 정도였으며, 경영환경 분석 평균횟수는 연 1.4회 정도였다. 타 문화원의 우수사례를 조사하는 문화원은 8개로, 평균 연 2.9회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곧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7개 문화원에서는 연중 단 한 번도 경영환경 분석이나 타 문화원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지원도 있어야겠지만 문화원의 운영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문화원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을 찾아내어 개선하고, 타 시설로부터 좋은 점을 배우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특히 두 차례의 설문조사와 워크숍 등을 통해 발견한 문화원 발전의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문화원의 내부 운영기준의 문제였다. 예컨대, 문화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는 직원들의 신분(고용) 보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잦은 이직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 문화원마다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연봉 수준이나 고용형태가 다양했는데, 이 문제는 외부에서 간섭하여 해결하기 어렵다. 문화원에서 내적으로 연봉기준을 세우고, 직원들의 경우 최소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규정을 만들어 실천한다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이다.

앞서 국내 사례조사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강릉문화원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직급에 따른 보수규정과 연봉지급표를 마련해두고 실행하고 있다. 강릉문화원이 인력 활용부문에서 국내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이유가 직원들의 신분 보장이나 직급과 경력에 합당한 임금 지급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하거나 양성해 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이직을 하지 않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 외에도 문화원장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원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문화원의 활동도 중단된 사례가 있어 이러한 사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문화원 표준정관에 따라 마련된 충남지역 문화원의 정관에는 “정치 관여 등의 금지”²³⁾에 대한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문화원장이 특정한 정치활동으로 문화원 운영에 큰 타격을 미칠 경우에는 총회 등을 통해 이사회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해보아야 할 것이다.

2) 사업 : 문화원 정체성에 맞는 사업 특성화

(1) 향토사료 발굴·연구·활용 사업 강화

2차 실태조사 시에 ‘문화원의 미래 전망’을 묻는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중요도를 표시하도록 한 결과, 문화원의 미래 전망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순서별로 ①선도적인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②생활권 단위 문화사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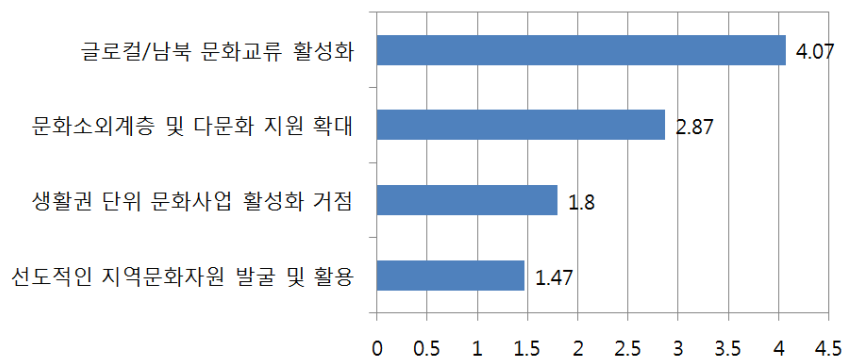
23) 문화원마다 정관 ‘제3장 임원’ 관련 제 16조(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본원은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갖추고 있다.

의 거점, ③문화소외계층 및 다문화 지원 확대, ④글로벌/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로 나타났다.

[표 V-2] 문화원의 미래 전망

구분	선도적인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생활권단위 문화사업 활성화의 거점	문화소외계층/ 다문화 지원 확대	글로벌/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기타
천안동남구문화원	2	1	3	4	—
천안서북구문화원	1	3	2	4	—
공주문화원	2	1	3	4	—
보령문화원	1	2	3	4	—
온양문화원	3	1	2	4	—
서산문화원	1	2	3	4	—
논산문화원	1	2	3	4	—
당진문화원	1	2	3	4	—
금산문화원	1	2	3	4	—
부여문화원	1	2	3	4	—
서천문화원	1	2	3	4	—
청양문화원	1	2	3	4	—
홍성문화원	3	1	2	4	—
예산문화원	2	1	3	4	—
태안문화원	1	3	4	5	2_지역문화정보 수집 및 축적

[그림 V-5] 문화원의 미래 전망 순위 (1에 가까울수록 선호도 높음)



지방문화원의 고유한 역할이면서 지역 내 타 문화시설이나 단체에서는 할 수도 없는 사업이 바로 향토사료의 발굴과 연구사업이다. 이미 충남지역의 문화원들은 50여년에 이르는 운영기간 동안 많은 향토자료를 축적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들이 목록화, 데이터베이스화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카이빙도 되어있지 않아서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때문에 문화원의 도서관에 도서자료의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향토사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하러 오는 경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고를 관리할 사서 등 전문인력도 없어서 각 문화원마다 자료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타 지역 문화원에 비해 충남 문화원의 강점은 오랜 역사와 많은 향토사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제는 이러한 강점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디지털 향토문화 아카이브의 구축'이 필요하다. 마침 2015년부터 충청남도과 시·군의 지원을 받아 15개 지방문화원의 홈페이지가 개편될 예정에 있다. 이 기회에 지방문화원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홈페이지를 재정비하고 문화원이 보유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원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문화원 회원들, 향토연구자들의 접근성과 친밀감, 향토자료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더 나아가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향토사료를 활용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의 가치를 제고할 만한 연구와 사업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지방문화원이 모색해야 할 길이다. 태안문화원이 전통 소금제조법인 '자염'에 대한 향토사료와 연구를 자염상품 개발과 체험마을 개발 등으로 2~3차 연계하여 활용한 것처럼, 지역문화자원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문화산업이나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가공하여 활용하는 사업방식을 다른 지방문화원에서도 시도할 만하다. 결국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원천자원은 지방문화원이 발굴하고 축적하여 연구한 문화원형인 향토사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2) 생활권 단위 생애주기별 문화사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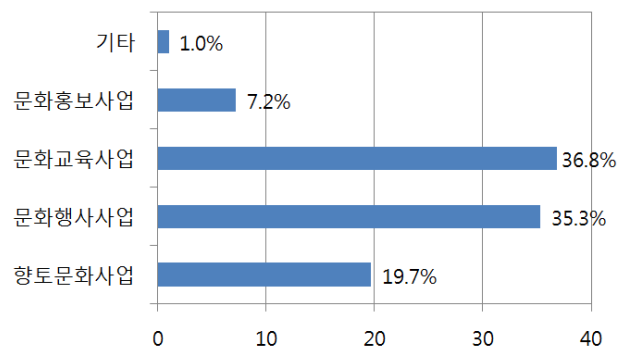
앞서 문화원의 미래 전망을 묻는 설문항목에서 2순위에 해당하는 것이 '생활권 단위 문화사업 활성화 거점'이다 '현재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비중'에 대한 질문에서도 15개 충남 지방문화원은 '문화교육사업'(36.8%)과 '문화행사사업'(35.3%)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의 전체 사업 중 가장 비중이 높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향토문화사업'(19.7%)과 '문화

홍보사업'(7.2%), '기타'(1.0%) 순이다.²⁴⁾ 문화원의 미래를 위해서는 문화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향토문화사업에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교육사업과 문화행사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이 또한 문화원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표 V-3] 문화원의 현재 사업 비중 (단위: %)

구분	향토문화사업	문화행사사업	문화교육사업	문화홍보사업	기타	합계
천안동남구문화원	20	35	35	10	-	100
천안서북구문화원	-	20	80	-	-	100
공주문화원	35	25	30	10	-	100
보령문화원	35	30	30	5	-	100
온양문화원	25	20	40	5	10	100
서산문화원	20	20	50	10	-	100
논산문화원	20	50	15	15	-	100
당진문화원	25	25	30	20	-	100
금산문화원	12	70	17	1	-	100
부여문화원	10	30	40	15	5	100
서천문화원	30	20	40	10	-	100
청양문화원	-	50	50	-	-	100
홍성문화원	5	60	30	5	-	100
예산문화원	25	25	50	-	-	100
태안문화원	34	49	15	2	-	100

[그림 V-6] 문화원의 현재 사업 비중



24) 부문별 사업의 예는 다음과 같다. 향토문화사업(예: 향토·민속자료 조사, 발굴, 연구, 편찬 사업 등), 문화행사사업(예: 각종 축제, 대회, 공모전, 음악회, 사진·미술전시회, 문학제, 영화제 등), 문화교육사업(예: 문화학교, 교양강좌, 역사탐방, 답사, 사회교육 등), 문화홍보사업(예: 지역문화 교류 및 홍보 활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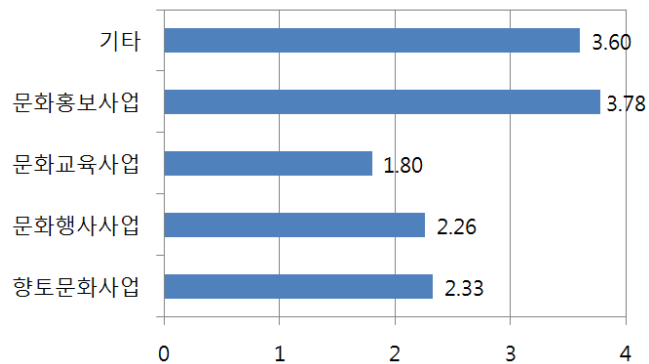
또,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중요사업 순위'에 대한 질문에서도 '문화교육사업'과 '문화행사사업'이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 현재에도 미래에도 문화원의 사업 중 문화교육사업과 문화행사사업의 비중과 중요도는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권 단위의 교육사업과 문화행사 사업들을 어떻게 특성화·활성화할 것인지 방안이 필요하다.

[표 V-4]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중요사업 순위

구분	향토문화사업	문화행사사업	문화교육사업	문화홍보사업	기타
천안동남구문화원	4	2	1	3	—
천안서북구문화원	2	3	1	4	—
공주문화원	3	2	1	—	4*
보령문화원	3	1	2	4	—
온양문화원	2	1	3	4	—
서산문화원	3	4	1	5	2*
논산문화원	1	4	2	3	—
당진문화원	1	3	2	4	—
금산문화원	3	1	2	4	—
부여문화원	3	2	1	4	5*
서천문화원	1	2	3	4	—
청양문화원	4	2	1	3	—
홍성문화원	2	1	4	3	—
예산문화원	2	3	1	4	—
태안문화원	1	3	2	4	—

* 기타 사업으로 공주문화원은 '우리조상뿌리찾기사업', 서산문화원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부여문화원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문화공연'을 각각 제시함

[그림 V-7]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사업 (1에 가까울수록 중요)



대다수 문화원들이 문화센터와 같은 여타 문화시설과 차별화되지 않는 일반적인 문화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요가, 노래교실 등 지역의 문화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인 여가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조차 접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문화원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문화복지의 확대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시·군 내 타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면, 문화원에서는 이 보다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편이 낫다.

해외사례 중 일본의 공민관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중 하나는 고령화사회에 맞추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행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독거노인의 비율도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충남도 내 65세 이상 노인은 32만9000여명으로, 인구의 15.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고령사회에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충남의 노인 자살률은 10만명 당 107명으로 '전국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맞춤형 문화복지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충청일보, 2015.02.05).

일본의 공민관처럼 충남의 지방문화원도 생활권 단위 프로그램으로서 고령자들의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각종 사회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노년기의 문화생활과 문화복지를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면, 선도적인 미래형 사업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노인들의 우울감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 음악치유, 미술치유, 연극치유 등 문화예술과 접목한 치유프로그램을 충남지역 문화원에서 운영하여 노인자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 내 문화원의 위상과 입지도 확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충남지역의 문화원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아 회원의 확보와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어린이 회원부터 어르신 회원까지 두루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센나시오날 사례처럼 문화원의 소강당을 활용해 영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영화관이 없는 군 지역의 청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도 제공하고, 문화원 행사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층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원 행사에 함께 참여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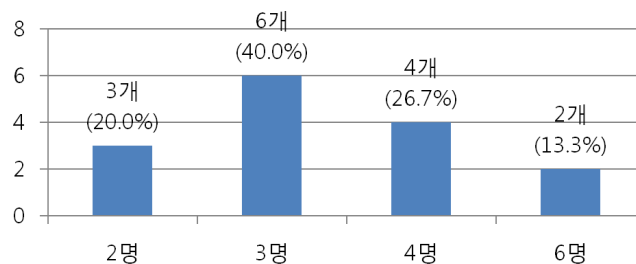
3) 인프라 : 인프라 개선 및 자생력 증진

(1) 인력 전문화와 시설 확충

① 인력 전문화와 전문인력 활용

충남 지방문화원에 상근하는 인력은 문화원의 지위나 목적, 사업수행범위에 비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사무국장을 포함해 전체 직원이 2명인 문화원이 3개(천안동남구, 천안서북구, 보령)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직원이 3명인 문화원은 6개(공주,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예산)로 40%를 차지했다. 직원이 4명인 문화원은 4개(온양, 금산, 청양, 태안)였으며, 6명인 문화원은 2개(서산, 홍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V-8] 충남 지방문화원 인력 현황



직원 수의 부족뿐만 아니라 문화원의 직원들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이들에게 전문성을 키워줄 연수 프로그램이 충분치 않다는 것 또한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문화사업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의 연수를 충청남도연합회에서 정기적으로 조직해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교육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직원연수 프로그램은 지역 내 기관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지역 대학과 연계해 기획하는 방안도 시도해볼 만하다.

둘째,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 운영방법 등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업무지침과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서구문화원의 경우, 업무처리 간소화 시스템의 도입

으로 직원 1인이 100여개 문화교육강의를 총괄 담당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해당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문화원장과 사무국장만이라도 문화예술 전문인력으로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문화원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문화원 임원규정에는 원장 또는 사무국장의 자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임원규정과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임원취임 승인만으로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원 종사 전문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의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책임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옥승현, 2006: 23 참조). 이와 관련하여 관장의 전문적인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되, 운영을 자유롭게 맡기는 프랑스 센나시오날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넷째, 지방문화원의 부족한 인력을 뒷받침하고 문화원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원봉사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예술단체, 전문가 및 아마추어 동호회, 대학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등 문화예술인들을 자원봉사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과 결정 과정에 일정한 경비를 제공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박은희, 2013: 60~61 참조).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원의 문화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과 협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조직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충남지역 문화원 중에서 문화원 운영에 참여하는 전문가 운영위원회를 둔 곳은 공주문화원과 금산문화원 두 곳뿐인데, 문화원마다 지역 내 문화단체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하여 문화원의 합리적, 전문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문화원 시설 확충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시설기준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은 사무실, 회의실,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전시실, 도서실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충남지역 문화원 중에서 형식적으로라도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은 15개 문화원 중 6곳(공주문화원, 서산문화원, 부여문화원, 서천문화원, 홍성문화원, 태안문화원²⁵⁾)에 불과하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 적시된 것처럼 사무실을 포함해 3개 이상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은 현재 3개 문화원(천안서북구문화원, 논산문화원, 금산문화원)으로서, 천안서북구문화원은 사무실과 강당만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금산문화원은 금산군의 복합문화시설인 다락원과 시설을 공유하고 있어 자체시설은 부족하나 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없는 특수한 사례이고, 논산문화원은 현재 논산시 문예회관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2014년에 논산문화원 신축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에 준공될 예정이므로, 실제로는 천안서북구문화원만이 문화원의 기본적인 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문화원에 대한 시설 지원이 필수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많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대부분의 문화원이 건립기간이 오래되어 노후화 정도가 심하고, 규모가 전국 평균보다 협소한 데다, 공연장 등 문화원 운영에 꼭 필요한 시설이 없거나, 문화원의 위치 자체가 주민들이 방문하기 어려운 외곽지역이라서 이전이 필요하기도 하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화원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은 다양하다.

[표 V-5] 문화원별 필요/부족 시설 순위

구분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별도 공연장	향토사 연구소	향토자료 전시관	기타
천안동남구문화원	7	8	6	2	5	1	3	4	-
천안서북구문화원	-	6	1	2	3	-	4	5	-
공주문화원	-	-	-	-	-	-	-	-	1.강의실
보령문화원	-	-	-	1	-	-	-	-	-
온양문화원	-	-	-	1	-	-	2	3	-
서산문화원	4	2	1	5	6	-	-	7	3.교육실
논산문화원	4	3	1	5	2	6	-	-	-
당진문화원	-	-	1	2	-	-	4	3	-
금산문화원	-	-	-	-	-	-	-	-	-
부여문화원	-	-	-	-	1	-	-	2	-
서천문화원	8	7	6	5	4	3	1	2	-
청양문화원	1	4	2	-	-	3	-	-	-
홍성문화원	-	3	-	4	-	1	-	-	2.강의실
예산문화원	9	4	3	6	7	2	8	5	1.교육실
태안문화원	1	8	4	7	3	6	9	5	2

25) 1996년에 준공된 기존 태안문화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원사의 신축이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문화원의 시설은 향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삼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문화원부터 국비와 도비, 시·군비의 지원을 받아 시설 확충과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문화원을 신설하여 큰 효과를 본 대전서구문화원 사례가 보여주듯이, 문화원이 시설의 건립, 이전, 확충 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해 지자체를 설득하고 타당성이 있을 시에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래 표와 같이 문화원에서 부족한 시설을 타 기관의 시설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시설은 주로 전시실과 강의실, 공연장이다. 지역시설 간 지원 협약을 체결해 공공목적의 행사나 사업일 경우,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표 V-6] 타 기관 임대시설 이용 현황

구분	기관명	임대시설명
공주문화원	금강아트센터	강의실
	공주대학교	강의실
보령문화원	보령문화의전당	전시실
온양문화원	관내호텔	총회나 전시회, 발표회 때 사용
논산문화원	논산시	논산시문화예술회관 2층(문화원사무실 무상임대)
	화지산신탁	2층 문화공간(어르신문화학교 1개 프로그램)
금산문화원	금산다락원	금산군 소유시설로 문화원 신축시 공유시설로 설계·사용
부여문화원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
예산문화원	추사고택	전시실
	예산군 문예회관	공연장
태안문화원	태안군문화예술센터	전시실, 소공연장
	참여자치시민연대	강의실

(2) 회원 증대와 재원의 다변화

① 회원 증대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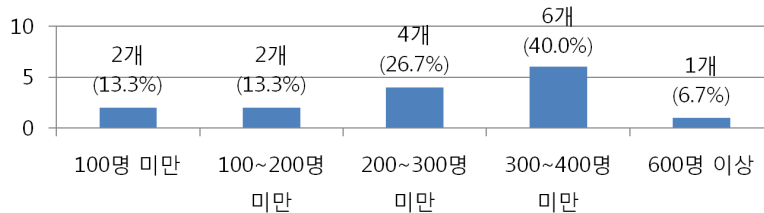
지방문화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진흥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수준의 회원 확보가 필요하다. 문화원이 지역주민 다수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도나 시·군에서도 문화원에 대한 지원 확대의 명분이 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비를 납부하는 정

회원 수의 증가는 문화원의 재정 자립도 신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원 회원 확보 사업은 문화원이 지역문화 진흥의 거점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준회원과 후원회원 등을 제외한 충남지역 지방문화원의 정회원 수는 총 3천891명이다. 이 중 회원수가 100명 미만인 문화원은 2개(13.3%), 200명 미만인 문화원도 2개(13.3%), 300명 미만인 문화원은 4개(26.7%), 400명 미만인 문화원은 6개(40.0%), 600명 이상인 문화원은 온양문화원 1개(6.7%)로 이며, 문화원당 평균 259.4명이 정회원으로 등록해 연 평균 3만원 내외의 회비를 납부하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9] 충남 지방문화원 총회원 현황



충남지역 문화원의 경우, 15개 문화원의 전체 회비수익은 약 1억7천2백43만원으로 문화원당 평균 1천1백49만원의 연회비 수익을 마련하고 있다. 극단적인 대조일지 모르나 2014년 말 기준으로 회원수가 2,006명(총 회원 1,245명, 인터넷회원 761명)인 경기도 이천문화원의 경우, 전체 회비수익은 무려 8천3백49만원에 이른다. 이는 충남지역 문화원 15개의 전체 회비수익의 48.4%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 중에서 임원회비나 특별회비, 과년도분을 제외한 정회원비와 일반회비만 합산한다고 해도 4천9백97만원으로, 충남지역 문화원의 평균 연회비의 4배가 훌쩍 넘는다. 이는 회원 확대를 위한 이천문화원의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천문화원은 2003년부터 CMS 회원관리제도를 도입해, 회비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졌고, 2007년부터는 문화원 홈페이지 개편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에 노력해온 결과, 인터넷회원과 함께 일반회원 수도 동반 증가해 2012년에는 한 해만에 회원 가입자 수가 222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충남지역 문화원들도 이천문화원의 사례를 참조하여 문화원 홈페이지를

재정비해 문화원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보유하고 있는 향토자료를 디지털화해 홈페이지를 향토사자료 아카이브로 활용한다면, 인터넷회원과 정회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회원 증대를 통해 확보한 회비수익은 문화원의 자체경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회비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문화원은 도나 시·군의 문화원지원사업이나 위탁사업에 의지하지 않고도 문화원의 자체적인 고유한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문화원의 사업 특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문화원의 재정 자립도를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회원 확보를 통한 회비 수입의 증대이므로, 향후 충남지역의 문화원은 보다 다양한 연령 계층들을 회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독창적인 생애주기별 사업을 고안하고, 그에 따라 회원 관리 제도와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② 자원 다변화 방안 강구

문화원의 자생력 증진을 위한 자원 다변화 방안으로서 지역 기반 기업체와의 ‘1기업 1지방문화원 메세나 지원협약’을 맺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미 공주문화원과 당진문화원, 예산문화원, 태안문화원이 지역 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자체자금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사업에 활용해오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밖의 문화원도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문화원의 자체자금 마련의 경로를 다방면에서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메세나 및 예술시장 활성화’ 계획이 포함되어 향후 기업의 메세나 확산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①기업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또는 문화예술분야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조특법 개정), ②문화예술후원우수기업 발굴·인증, 후원기업 등 우수 문화예술후원자 대상 ‘문화훈장’ 지원, ③기업과 함께 예술나무 키우기’ 캠페인 추진 등이다.

중앙정부의 기업 메세나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방문화원도 이에 대응해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전략적으로 제휴할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먼저 시범적으로 최소한 100인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를 상대로 문화예술 메세나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알리고, 지방문화원을 후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충남에서는 기업의 메세나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충남문화원연합회나 도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 관리 등 매개 역할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4) 네트워크 :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성화

(1)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의 역할 강화

①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의 기능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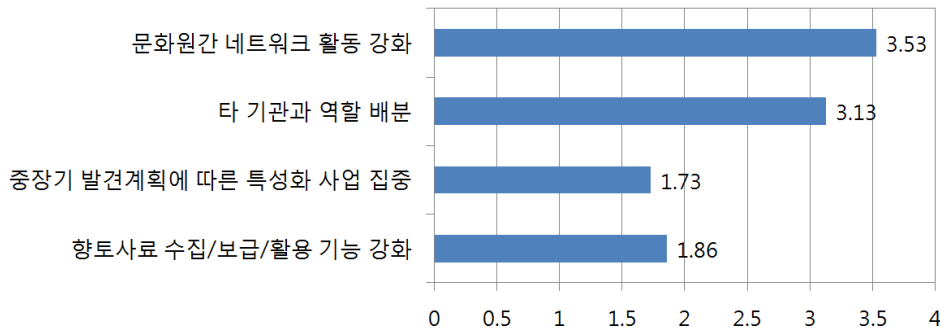
문화원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이 아래 표와 같이 나왔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진다. 중요한 순위별로, '①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원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특성화 사업에 집중한다, ②문화원의 고유사업인 향토사료의 수집, 보급, 활용 기능을 강화한다, ③지역 내 타 기관과 역할을 배분하여 타 기관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④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원 간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한다'이다.

이 결과에서 눈여겨 볼 점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이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원 간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이다.

[표 V-7] 문화원 사업 활성화 위한 필요 조치

구분	향토사료 연구 고유기능 강화	중장기계획과 특성화 사업	타 기관과 역할 배분	문화원 간 네트워크 강화	기타
천안동남구문화원	4	2	1	3	
천안서북구문화원	2	3	1	4	
공주문화원	2	1	3	4	
보령문화원	2	1	4	3	
온양문화원	2	1	4	3	
서산문화원	2	3	1	4	
논산문화원	1	2	3	4	
당진문화원	1	2	4	3	
금산문화원	2	1	3	4	
부여문화원	1	2	3	4	
서천문화원	1	2	4	3	
청양문화원	2	1	4	3	
홍성문화원	2	1	4	3	
예산문화원	2	1	4	3	
태안문화원	2	3	4	5	1_안정적 업무인력 확보

[그림 V-10] 문화원 사업 활성화 위한 필요 조치 (1에 가까울수록 중요)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그동안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가 별도의 사무공간이나 지원 육성 조례 등 활발한 활동을 위한 인프라와 행정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역할이 크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2월 23일에 공포·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의 기능과 역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에 공포된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4.3.3.)와 「강원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4.5.16.)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마련된 조례로서, 충청남도 차원의 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2.23.제정)에 따라 사무직원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등 보조금을 법적으로 지원받으며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조직을 재정비한 후 자체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각 문화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V-8] 전국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광역시·도명	조례명	시행일
대구시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3.3.
강원도	강원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5.16.
충청남도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2.23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가 충남지역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 운영규정」(2009.4.17 5차 개정)에서 각 지회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열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시·도문화원연합회의 기본사업으로서 충남문화원연합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다.

[표 V-9] 한국문화원연합회 규정 상 시·도 문화원연합회의 주요 사업

구분	주요 사업
시·도 문화원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내 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 시·도내 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 자료 등의 제공 ◦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 시·도내 문화원 종사자의 업무향상을 위한 연수 ◦ 기관지의 발간 및 문화원 지원 자료 편찬 ◦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 시·도 내 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기타 시·도지회의 발전과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연합회가 위임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의 처리

출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 운영규정(2009.4.17 5차 개정)

이 중에서도 ‘지역문화 진흥’과 ‘격차 해소’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도내 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충남지역 문화원에 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는 장기적으로 문화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문화원이 스스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나갈 수 있도록 통합 워크숍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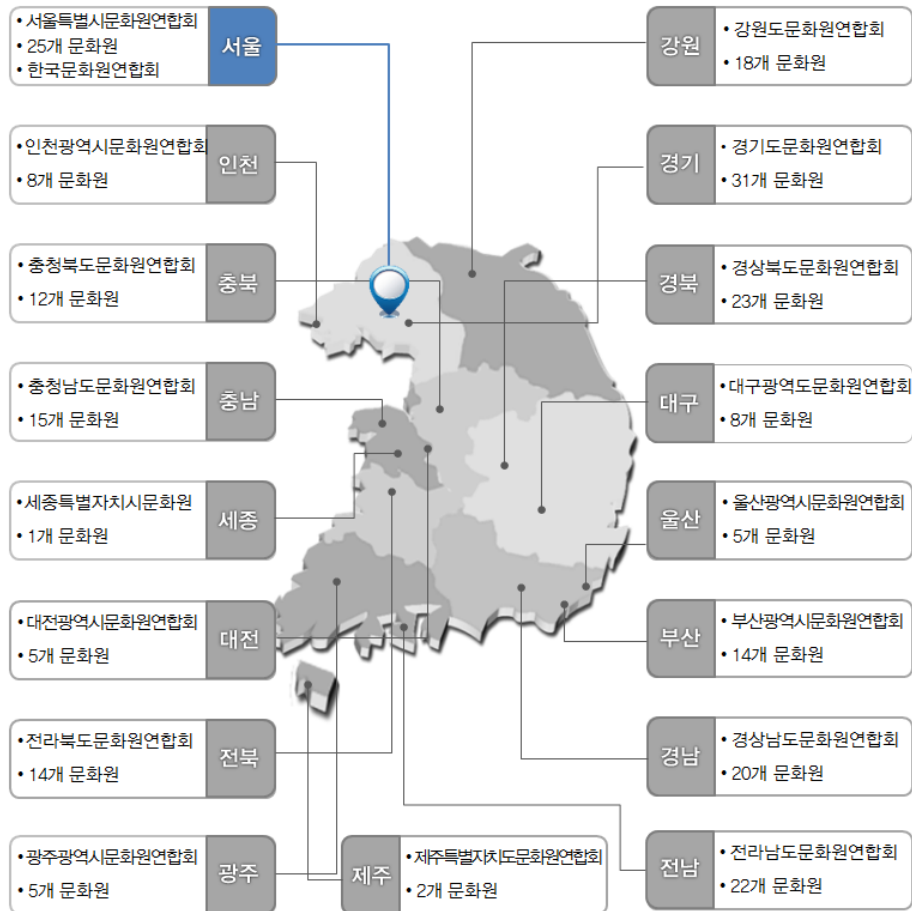
또한 ‘시·도 내 문화원 종사자의 업무향상을 위한 연수’도 강화해야 한다. 형식적인 연수가 아니라 각 지방문화원의 운영 활성화와 실질적인 업무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영, 문화사업 기획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원장, 사무국장, 직원별로 대상을 달리하여 연중 실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방문화원들은 시·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각 지역의 특색을 드러내는 새로운 문화사업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도 문화원연합회가 문화기획 전문가워크숍이나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문화원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외에 문화원별로 통일되지 않아 사용에 혼란을 일으키는 회계관리프로그램 등 운영시스템을 도 문화원연합회의 조율 아래 정비하여 문화원 간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도록 노력할 수도 있다.

② 한국문화원연합회 및 타 시·도 문화원연합회와 교류 강화

도 문화원연합회는 지역 내 문화원 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포함한 타 시·도 문화원연합회와의 교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문화원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있다.

[그림 V-11] 전국 문화원연합회 현황



출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ccf.or.kr/>) 참조하여 재구성

한국문화원연합회는 1962년 전국의 78개 지방문화원을 회원으로 한 사단법인으로 출범했으나,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에 설립 근거를 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특수 법인으로 거듭난다. 2015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주요 역할은 각 시·도의 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조직은 사무총장 아래 경영지원팀, 지역문화진흥팀, 연구기획팀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지원팀은 총회를 주관하고, 지역문화진흥팀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향토문화공모전, 국내외 문화교류사업과 위탁사업을 담당한다. 연구기획팀의 경우, 문화원 관련 조사연구와 평가, 컨설팅, 교육개발, 홍보사업 등을 주관하고 있다.

[표 V-10]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주요 사업

구분	주요 사업	
한국 문화원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6개 문화원연합회, 229개 지방문화원을 회원으로 하는 총괄기구 ◦ 사무총장 아래 경영지원팀, 지역문화진흥팀, 연구기획팀 3팀으로 조직 구성 	
	경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무, 문서관리, 보안, 전산업무 - 인사, 복무, 교육 및 후생복지 관리 - 예산 편성, 집행, 결산, 회계에 관한 업무 - 재산 및 물품관리 - 각종 법규, 정관, 규정, 내규 등의 제·개정 - 총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 - 지방문화원 및 시·도문화원연합회 관리 및 지원업무 - 국회, 정부부처, 유관기관 업무
	지역문화진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어르신문화프로그램,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 향토문화공모전 개최 - 국·내외 문화교류사업(원장·사무국장 연수, 해외연수 등) - 국가 및 기관·단체 위탁사업
	연구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원 발전 조사연구·평가 및 컨설팅 - 문화사업 개발,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향토자료 DB 등) - 지방문화원 통계자료 관리 - 향토문화콘텐츠 개발 및 관리(도서관리 등) - 인재육성 교육개발(지역문화경영교육 등) - 연합회 홍보(우리문화, 지방문화원 수첩 등) - 각종 행사(시낭송의 밤 등)

출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2015.5.7. 검색)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는 충남지역 15개 지방문화원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한국문화원 연합회와 충청도 내 15개 지방문화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위탁사업에 대한 정보를 각 문화원에 신속하게 전달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독려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중앙정부나 도 차원의 문화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각 문화원에 전달하고, 타 문화원의 사업 중 우수사례가 있으면 공유하는 등, 타 시·도의 문화원 간 소통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 시·도의 문화원연합회의 역할을 참조하고, 좋은 사업은 벤치마킹함으로써 충남문화원연합회의 역할을 차차 정비해가야 할 것이다.

[표 V-11] 시·도 문화원연합회의 주요 사업

구분	주요 사업
서울문화원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문화 발간, 서울문화가족 서예·사군자 경연대회, 서울문화가족행사(국악경연대회, 무용경연대회, 한마당 큰잔치, 길쌈경연대회), 전통문화예절교육 교재 발간, 청소년 사생대회, 서울시 문화원연합회 정보화사업, 정기총회, 운영위원회의, 서울문화원장 워크숍 및 정례회의, 서울문화원 사무국장 회의, 서울문화원 간사회의
부산문화원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군문화원 축제 지원, 문화역사탐방 및 타 지역 문화원과 교류, 문화예술 큰잔치, 전국청소년예술제
대구문화원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 운영규정 상 10개 주요사업
인천문화원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 운영규정 상 10개 주요사업
광주문화원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민속예술축제 광주광역시 예선대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광주광역시 향토민속사 발굴 조사
대전문화원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학생품물경연대회, 대전문화유산순례답사, 복권기금지원사업, 정월대보름축제
울산문화원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연구사업(연구발간, 태화루시문집, 금석문, 석남송석하 주해 민속어 모음, 학술세미나, 울산문화연구지 발간), 문화행사(금요문화마당, 달빛문화기행, 함월평생학습축제), 지역사연구(울산문화연구소), 종료사업(처용무 전수 학교, 처용무 공연, 조선족 문화활동 지원, 전국품물경연대회)
경기문화원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문화저널 웹진 발간
강원문화원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 운영규정 상 10개 주요사업 외 기금조성사업
충북문화원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문화가족 발전세미나, 충북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충북학 생국악경연대회, 안전문화 어린이 그리기 글짓기 공모
충남문화원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 운영규정 상 10개 주요사업

전북문화원연합회	◦ 경로효친 및 향토문화글짓기 공모 및 시상, 향토문화 유적지 조사 및 탐방, 향토문화연구심포지움, 전북 문화 책자 발간, 외국인 근로자 전통문화체험, 전라북도내 문화원 임직원 연수
전남문화원연합회	◦ 전남문화원 교류 및 활성화 사업, 전남문화 자료실 운영, 향토문화 연구 심포지움, 전남 향토문화 연구논문 발표회 및 시상, 문화의 날 기념 전남향토문화상 시상, 전남문화원 임직원 연수, 전남문화지 발간
경북문화원연합회	-
경남문화원연합회	◦ 경남지역 문화원 향토지 총람 발간, 시·군 순회 문화원장 연수회, 시·군 사무국장 간사 연수회, 해외문화교류
제주문화원연합회	◦ 전도학생품물놀이경연대회, 한경면 역사문화지 편찬사업, 향토사료집 발간, 제주도 접계문화조사보고서 발간

출처 : 각 시·도 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2015. 5. 7. 검색)

* 주요 역할 부분이 비어있는 것은 시·도 연합회 홈페이지에 연합회만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며, 대구, 인천, 강원, 충남문화원연합회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 운영 규정」 상 다음 10개 역할을 제시함

①시·도내 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②시·도내 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 자료 등의 제공, ③지역문화원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④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⑤시·도내 문화원 종사자의 업무향상을 위한 연수, ⑥기관지 발간 및 문화원 지원 자료 편찬, ⑦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⑧시·도내 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⑨기타 시·도연합회의 발전과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⑩연합회가 위임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의 처리

(2) 지역문화네트워크 구축

앞서 설문조사 결과 지방문화원이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기관을 지역 내/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주로 지역 내 기관과만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 내 기관 및 단체와는 총 178회에 걸쳐 교류활동을 한 반면에 타 지역 기관과는 연간 3회가 전부였다. 지역 내 기관 중에서는 ‘민간기업’(62회, 34.8%), ‘지자체’(51회, 28.7%), ‘문화예술단체’(31회, 17.4%), ‘기타’(15회, 8.4%), ‘학교/교육청’(14회, 7.9%), ‘공공기관 및 공사’(4회, 2.2%), ‘중앙정부부처’(1회, 0.6%) 순으로 협력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지역 내 타 문화시설과의 네트워크 사업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문화원의 강점’을 1에서 4까지 점수로 순위를 부여하도록 한 아래 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문화원이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활발한 연계활동’을 제일 낮은 순위인 4위로 표기했다. 그만큼 연계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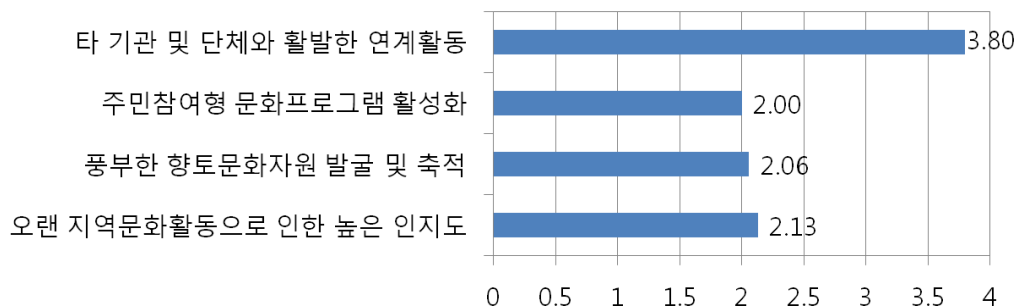
남지역 문화원이 활성화되지 않는 요인이자 약점일 수 있다. 애초에 시설이나 인력, 재원 등 기초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문화원이 타 문화시설과의 교류 없이 수십여 가지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일뿐더러, 문화원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표 V-12] 충남 지방문화원의 강점 순위

구분	오랜 지역문화 활동에 따른 높은 인지도	풍부한 향토문화자원 발굴 및 축적	주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 의 활성화	타 기관 및 단체와 활발한 연계활동	기타
천안동남구문화원	2	3	1	4	-
천안서북구문화원	1	2	3	4	-
공주문화원	3	2	1	4	-
보령문화원	1	2	3	4	-
온양문화원	2	3	1	4	-
서산문화원	3	2	1	4	-
논산문화원	2	1	4	3	-
당진문화원	2	1	3	4	-
금산문화원	3	1	2	4	-
부여문화원	1	3	2	4	-
서천문화원	2	1	3	4	-
청양문화원	1	4	2	3	-
홍성문화원	3	2	1	4	-
예산문화원	2	3	1	4	-
태안문화원	4	1	2	3	5*

* 태안문화원은 5순위의 기타 강점으로 '자료 및 기록물 관리'를 제시함

[그림 V-12] 충남 지방문화원의 강점 (1에 가까울수록 중요)



문화원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역할을 발전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안팎의 다양한 주체들과 일상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협업 활동을 더욱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화교육사업을 제외하고 문화원의 문화예술활동은 대부분 공연, 전시에 편중되어 있으나 전시공간과 공연공간, 수준 높은 예술인 등의 부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 구축과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 문화재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지역문화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원은 연구자문, 활동자문, 교육연수 지원 등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박물관이나 도서관으로부터는 문화원이 보유한 향토자료의 분류 및 데이터화, 정리, 운영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술관은 전시공간이나 인력(큐레이터)을 제휴할 수 있고, 문화재단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의 문화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사업영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께 조정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문화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문화원은 좀 더 전문화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전문인력의 활용 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문화원도 타 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 대학의 학생들에게 문화원의 여러 사업에 참여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지역의 문화매개인력²⁶⁾으로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의 청년들은 문화원이 주관하는 축제나 전시, 공연, 학술행사 등에 자원활동가로서 실무를 보조할 수도 있고, 행사기획이나 홍보, 운영, 작품 출품이나 출연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다. 이때 청년들의 참여가 문화원의 행사에 창의력을 더하고, 청년들도 열정과 창의력을 소모당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원과 대학 간 청년 자원활동가의 역할과 범위, 원칙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일회적이고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학과 문화원이 MOU를 맺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일이다.

26) 장세길(2013)은 문화매개인력은 넓게 보면, 문화생산자, 향유자, 애호가 등 모든 문화활동 참여자가 포함되지만 대체로 문화매개인력은 좁은 의미, 즉 기관, 지역공동체, 협회, 기업, 단체, 문화시설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문화서비스(예술교육 포함)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장세길(2013), 지역 문화복지 활성화 방안-지역 문화매개인력의 노동실태를 중심으로, 문화융성을 위한 지역 문화현장 토론회: 전라북도 자료집, 2013.08.14.

그밖에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향토자료를 시·군의 박물관이나 도서관, 대학에 제공해 연구와 전시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 시 학예사나 사서 등 인적 교류도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 예술단체나 타 문화시설과 교류하는 가운데, 문화원을 비롯한 각 단체들은 상호 경쟁이 아닌 상생의 길을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지역 문화주체 간 연계가 긴밀해져 문화적 기반도 내실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V-13] 네트워크 통한 문화원 발전방안

유형	범위	내용
지역 네트워크	동일 생활권 내 기초자치단체	지방문화원간 네트워크 공동사업 시범운영(공동 순회프로그램, 전문인력·자문위원 공유, 공동 발간사업 등)
기관 네트워크	지역대학, 문화예술단체, 자치단체, 사회단체, 교육청, 각급학교, 도서관, 박물관, 평생학습기관, 지역언론, 농업기술센터 등	기관인사의 당연직 이사 위촉, 문화사랑방 형태의 정기간담회
인적 네트워크	문화예술인, 자원봉사자, 교수, 지역문화활동가	문화원 자문단·운영위원 위촉, 강좌·세미나·워크숍 참여기회 확대
사업 네트워크	지역문화 조사 발굴, 문화강좌, 문화행사 및 축제, 문화예술 학술행사,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역문화콘텐츠 공동개발, 사회통합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운영, 문화기반시설 공동민간위탁사업
정보 네트워크	문화강좌 및 체험프로그램 정보, 향토문화자료, 지역문화 관련 각종 홍보물 및 간행물	지역문화 관련 홍보 및 간행물 공동제작 및 공유, 인터넷 연계 정보 공유
공간 네트워크	각급학교, 문화기반시설,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등	각급학교·문화기반시설·주민자치센터·사회복지단체 공간 활용 협약, 찾아가는 문화강좌 활성화

출처 : 한국문화원연합회(2010),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계획, 182쪽; 이윤희(2012), 71쪽 참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종합정리

(1) 연구배경과 목적

최근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시행(2014.7.29)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지방문화원의 실효적 운영과 성과 창출이 중요해졌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의 시행에 따라 정부가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충청남도의 열악한 문화 환경이 개선될 기회가 확대된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과 함께 충남문화재단의 설립(2014.1)이라는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충남지역 문화진흥기구 및 단체 간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도 발생했다. 지역의 여러 문화 기반시설 및 단체(지방문화원, 문화재단, 문예회관, 문화의 집, 예총 등)에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여 시설, 인력, 재원의 중복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들 간 역할을 재정립하여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한편, 본원에서 2014년도에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 중 실시한 도민공청회에서도 ‘지방문화원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된 사업의 필요성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적은 단 한번도 없어 지방문화원의 발전방안이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지역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지방문화원이 충청남도의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충청남도 지방문화원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지방문화원의 발전을 위한 충청남도과 시·군 차원의 지원 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법 외에도 지방문화원 관계자, 전문가, 행정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의견수렴회,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현지조사법, 워크숍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기존 연구가 전국 지방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인력, 시설, 재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역적 특색이 드러나지 않게 획일적으로 제시한 것과 달리, 충남지역 지방문화원의 실태에 근거한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 ①충남지역의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②자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문화원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며, ③지방문화원의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는 수행된 바 없는 본 연구만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문화와 지방문화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① 지역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지역문화란 지역에서 향유하고 있는 문화, 즉 지역의 전통문화(유산문화), 지역민의 생활문화(생활문화), 미래의 창조문화(예술문화) 등을 포괄하는 것이며,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생활양식 전체로 보아야 한다(이성근, 2003). 지역문화는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를 의미하며, ‘지역’ 개념에는 지리적 공간과 행정구역뿐 아니라 생활공간, 정서공간, 경제공간 등 사회·문화·경제적 공간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임학순, 2003; 양태인, 2013).

이러한 지역문화는 ①지역의 정체성을 발현하도록 하고, ②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③지역 주민의 정신함양과 교육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② 지방문화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지방문화원은 향토문화를 보존·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50년대 초부터 자생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1965년 7월에 비영리법인이 지역사회의 문화계발을 위해 행하는 지방문화사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됨으로써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사업자로서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고, 동법을 근거로 하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지방문화사업자로 등록한 지방문화원은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양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1994년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제정을 근거로 하여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특별 법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졌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방문화원진흥법」(2011 개정) 제8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8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크게 4가지로 유형화하면 향토문화활동, 문화행사활동, 문화교육활동, 문화홍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충남지역 문화원 실태분석

① 정책적 환경

○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조례 현황

문화원이 소재한 충남의 14개 시·군 중에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조례」를 마련한 곳은 11곳(78.6%)으로, 아직 조례가 없는 곳은 천안시와 홍성군, 2곳(14.3%)이며, 서천군의 경우에는 조례를 마련할 예정에 있다. 이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조례」를 보유한 곳이 128개(56.1%)인 것에 비하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이어서 문화원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은 비교적 잘 갖춰진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128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조례」 중에서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진행한 사업 수익금을 문화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28개(22.8%)인데 반해(한국문화원연합회, 2014: 172), 충남지역의 11개 조례에는 관련 조항을 포함한 것이 한 개도 없다. 지방문화원이 자체자금을 마련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 수익금을 문화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지자체가 무상임대해준

문화원 시설의 대관료 일부도 자체자금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원의 재정자립도를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원이 소재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 예산 교부

충남지역 문화원의 인건비는 평균 81.7%가 지자체 예산, 18.3%가 문화원 자체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자체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그러나 보령문화원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문화원의 자체예산으로 지급하고 있고, 예산문화원도 상당 부분 자체예산으로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인건비 전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조받는 경우는 천안서북구문화원과 논산문화원, 금산문화원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사업 현황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현황

지방문화원마다 지역의 특성과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어, 대체로 문화원의 지역 특성화 대책에 대한 중장기적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의 참여로 진행한 두 차례의 워크숍에서 일부 사무국장들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싶으나 인력과 예산의 부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 발전계획의 설립을 위해 연구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나 시·군, 도내 연구기관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자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장기 연구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방문화원들이 적극적으로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이에 근거한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지역 특성화사업 및 우수 운영사례

지방문화원에서는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은 크게 ①역사와 전통을 지닌 연례사업(5년 이상), ②지역특성 반영 사업, ③어르신, 다문화, 향토사 등 각종 기금사업, ④기타 문화원을 대표하는 우수사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조사 결과, 2~3개 문화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원이 지역을 대표할만한 문화 발굴과 육성을 통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 노력 필요

경영환경 분석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사업성과 정기점검이나, 사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경영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인력 양성 방안 필요

취약한 인력구조로 다수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전문경영기획 및 개선을 위해 시간과 재정을 투자할 여유가 부족하므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문화원의 사업 외에 경영에 대한 지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통한 생활밀착형 지역문화거점 공간화 추구

주민 욕구 기반의 동아리를 구성하여 주민 생활강좌, 주민이 직접 강사가 되어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 주민들의 생활과 일상에 기반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동아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문화원과 지역민의 거리가 보다 밀접해질 수 있으며, 문화원이 지역문화 거점 공간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지방문화원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사업 필요

수도권과 다르게 충남지역 지방문화원에서는 문화원과 문화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충남 지방문화원의 홈페이지를 사용자들에게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편하는 한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홍보 전략 수립과 홍보마케팅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매체를 활용해 문화원의 행사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회원 및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간다면 문화원의 입지도 굳건해지고, 문화원 회원 수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③ 인프라 현황

○ 문화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필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해 사무실 외 회의실, 강당, 공연장 및 전시시설, 향토자료실 등 문화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3개 이상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 미만의 시설을 보유한 문화원이 3곳(천안서북구문화원, 논산문화원, 금산문화원)으로 나타나 해당 문화원

에 대한 시설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중 금산문화원의 경우에는 금산군에서 마련한 복합문화시설 다락원과 모든 시설을 공유해서 사용하므로, 별도의 시설 건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천안서북구문화원과 논산문화원의 경우에는 원활한 문화원 활동을 위해 기초적인 인프라를 갖추 수 있도록 정부와 도, 시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천안서북구문화원과 천안동남구문화원은 천안군 시절에 설립된 문화원으로서 인구가 적은 면단위 지역에 위치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천안서북구문화원은 1972년도에 건립되어 40년이 지나 노후화되었고, 2012년도에 일부 리모델링을 했으나 주차장이 없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천안동남구문화원의 경우에도 시내 중심가에서 대중교통으로 40~50분 거리에 위치하다보니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양 문화원의 경우에는 시설 건립보다도 천안 시내의 공공기관이나 빈 건물로의 이전이 문화원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인건비 지원 및 외부인력 수급 등 대책 마련 필요

충남 지방문화원의 인건비 지급 인력 수는 평균 3.5명으로, 사무국장 외 직원 1~2명이 사업, 축제, 동아리, 교육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8.82명), ‘등록박물관’(9.52명), ‘등록미술관’(9.45명), ‘문예회관’(18.22명) 등 타 문화기반시설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의 고유한 역할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 및 외부 인력 수급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재정 자립도 증진 위한 자체수입 마련 필요

지방문화원이 재정 자립도를 키우고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회원 확보와 회비 납부율 증대를 통한 자체수입 마련 및 지역 내 기업과의 메세나 체결, 기부금 지원 등을 통한 후원통로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천안서북구문화원과 청양문화원, 2개 문화원만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 문화원은 지자체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문화원이 자체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보니, 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임대수익을 만들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문화원의 재정자립도를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설 운영수익과 프로그램이나 공연 수익금 일부를 지방문화원의 경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를 개정·보완하는 등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④ 네트워크 현황

○ 지역 내 타 문화시설·기관·단체와 문화거버넌스 구축 필요

충남 지방문화원은 지역 내 타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4)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해외 유사 문화시설과 국내 우수 지방문화원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충남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문화 환경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통해 지방문화원이 고령화·다문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사업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① 해외사례

해외 유사 문화시설(일본의 공민관, 독일의 사회문화센터, 프랑스의 센나시오날)의 운영 사례를 통해, 지방문화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간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 필요하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직원들에게 전문교육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것과 대관 중심이 아닌 기획 공연 중심의 적극적인 운영형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예산, 운영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이고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② 국내사례

국내 우수사례로는 인력 활용 부문에 강릉문화원, 회원 관리 부문에 이천문화원, 예산 확보 부문에 대전서구문화원, 시설 활용 부문에 금산문화원, 경영 혁신 부문에 태안문화원, 이렇게 5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신규 전문인력의 확보 외에도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전문성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홈페이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우수한 모델을 벤치마킹해 향후 홈페이지가 문화원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회원을 확보하는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원의 재정자립도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나름의 노력 외에도 시·군과의 협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노후한 시설의 신축·이전이 필요할 시에는 대전서구문화원과 금산 다락원 모델을 참조하여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네트워크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문화원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을 개선해 나가고, 사업결과를 2차, 3차 사업으로 연계해나가는 것도 문화원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충남지역 문화원의 발전방안

① 기본 방향

충청남도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진흥의 주도적 기관이자 시설로서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크게 정책, 사업, 인프라, 네트워크 측면에서 설정하면, ‘문화자치 활성화 위한 정책기반 확립, 문화원 역할 재정립과 맞춤형 사업 발굴, 문화원 간 인프라 격차 해소, 문화네트워크 통한 지역문화 진흥 제고’로 제시할 수 있다.

② 목표와 추진전략

충남지역 문화원의 발전 목표는 “함께 뛰는 충남 문화원, 고루 크는 지역문화”로 제시하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문화원 자체 발전방안 마련, 문화원 정체성에 맞는 사업 특성화로 전문성 강화, 인프라 개선 및 자생력 증진, 타 기관 및 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성화’로 제시하였다.

③ 충남지역 문화원 발전방안

4개 추진전략(문화원 자체 발전방안 마련, 문화원 정체성에 맞는 사업 특성화로 전문성 강화, 인프라 개선 및 자생력 증진, 타 기관 및 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성화)별로 2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VI-1] 충남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2) 정책제언

충남 지방문화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문화원과 도 문화원연합회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충청남도과 시·군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도 동반되어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지방문화원이 자생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법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충청남도의 역할

①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지원 강화

충남 지방문화원이 문화적 자치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도 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역할 개편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15개 문화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직접적으로 예산 등 사업비를 지원받다 보면, 지방문화원별로 현황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기도 어렵고, 도에 종속되어 관리 받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도민들의 문화욕구가 커지고, 그에 따라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설립되는 상황에

서 지방문화원이 역할을 특성화하여 지역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원연합회를 중심으로 각 문화원의 자치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도나 시·군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도나 시·군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원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각 문화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직접 예산을 지원받기 보다는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를 매개로 하는 것이 문화원연합회와 문화원의 자치역량을 점차적으로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충청남도가 문화원에 지원한 예산을 살펴보면, 문화원별 맞춤형 지원이라기보다는 15개 지방문화원에 동일한 사업비를 균등하게 배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원마다 조직, 인프라, 사업 등에서 격차가 큰 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은 문화원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충청남도에서 지방문화원 관련 사업비로 지원한 예산 내역이다. 지원 부문별로는 ①도 연합회 지원, ②문화원 활동사업, ③지역문화 특성화(공모)사업, ④향토민속 발굴사업, ⑤문화원 건립 및 기능 보강, ⑥시·군 문화원장 해외연수 지원, ⑦지역 현안사업으로 구성된다. 문화원의 운영 실태를 고려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지원금의 균등배분에 그치고 있어 지원에 따른 사업 효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표 VI-1] 2012~2014 충청남도 지방문화원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계	도 연합회 지원*	문화원 활동 사업	지역문화 특성화 (공모) 사업	향토 민속 발굴 사업	문화원 건립 및 기능보강	시군문 화원장 해외연 수지원	지역현안사업		
								지역문화 동아리 활동	오청취당 기념비 건립	지역문화 활동 지원
계	3,955,250	30,000	575,000	150,000	141,750	2,886,000	15,000	30,000	12,500	115,000
2014	2,370,750	10,000	165,000	50,000	47,250	2,056,000	-	30,000	12,500	-
2013	417,250	10,000	245,000	50,000	47,250	50,000	15,000	-	-	-
2012	1,167,250	10,000	165,000	50,000	47,250	780,000	-	-	-	115,000

출처 : 충청남도 문화예술과(2014), 내부자료

※ 도 연합회 지원 : 매년 총 36,000천원(도비 10,000/ 사회단체보조금 26,000)

따라서 15개 지방문화원을 총괄하는 도 문화원연합회가 충청남도의 지방문화원 지원금을 받아 각 문화원의 실정에 맞게 배분하는 방안으로 지원과 관리의 통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도 문화원연합회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닌, 지방문화원의 이해를 대변하고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도 문화원연합회가 활성화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도 연합회에 대한 충청남도의 지원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연합회가 별도의 인력과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기반으로 점차 역할을 키워나가 충청남도가 관리·운영하는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정기적인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시행

본 연구 이전에 충청남도나 시·군에서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지방문화원은 계룡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소재하고 있고, 문화교육, 문화행사, 향토사료 연구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광범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문화원의 운영실태 조사는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실태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 조사로서 문화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정책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발간하고, 이 중에 지방문화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는 양적 자료조사에 불과해 문화원의 실제 운영실태를 심층적·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한편, 2014년에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에서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충청남도 차원에서 도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를 진흥하기를 위해서라도 ‘지역문화실태조사’는 필수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때 지방문화원을 포함한 지역 내 문화시설과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기반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여 점차적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지원방안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③ 문화시설 및 단체 간 역할 조정 지원

지방문화원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대략 10여 가지에 이른다. 이들 중 일부는 예충과 같은 예술인단체나 문화재단과 같은 기구, 문예회관과 같은 시설, 문화의 집이나 각종 문화센터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문화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의 예산 중복 지원과 각 문화시설 및 단체의 유사 사업 운영에 따른 경쟁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간의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러 문화시설이 유사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한다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지역 주민들이다. 지역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문화향유와 참여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청남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각 시설이나 단체의 역할과 사업을 도가 규정할 권한은 없다. 그보다 충청남도는 도 내 여러 문화시설과 단체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들 단체와 기관이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스스로의 역할을 정립해나갈 수 있도록 워크숍이나 정책 토론회 자리를 만드는 식으로 협의과정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 충청남도의 중재와 지원 속에서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예충, 지방문화원 등은 각자의 여건과 전문성에 맞는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시·군의 역할

①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조례 개정 : 운영 수익 활용 관련 내용 보완

지방문화원이 재정자립도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조례」의 마련이 필요하다. 충남지역 15개 문화원 중 현재 관련 조례가 없는 곳은 천안시와 홍성군이며, 서천군은 조례를 마련할 예정에 있다.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원 지원의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만들어 문화원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11개 문화원(73.3%)의 경우에도 어려움은 있다. 조례를 마련한 시·군 가운데 보조금 지원으로 진행한 사업 수익금을 문화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항목을 포함한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지방문화원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체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수익금이나 시설 임대수입 중 일부라도 문화

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사업 운영 수익금을 자체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문화원은 회원들의 회비 수입이나 자체 시설의 대관료 외에 자체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많지 않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회원 수가 많지 않아 회비를 통한 재정의 신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대부분의 문화원이 도나 시·군의 시설을 무상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자체시설을 보유하지 못해 대관료 수입을 만들어내기란 매우 요원한 상황이다.

국내 사례 중 예산 확보 부문의 우수사례로 살펴봤던 대전서구문화원의 경우에는 조례 상 관련 규정은 없으나, 시의 협조 아래 사업 운영비와 대관 수입을 모두 문화원의 자체수입으로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어서 문화원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더불어 사업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었다. 2015년도 운영예산 중 예상 수입이 무려 5억원 정도이며, 이중 문화학교 강좌 수입이 3억5천만원(70%), 대관수입이 1억3천6백만원(27.2%), 회비 등 잡수입이 1억4천여만 원(2.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과천시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문화원이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을 자체자금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충남지역 문화원의 지원·육성 조례를 개정, 보완하거나 최소한 시·군의 협의를 거쳐 사업 운영 수익금이나 시설 임대료의 일부라도 문화원의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화원의 시·군에 대한 재정 의존도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② 문화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장려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필요함은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 지방문화원 중에서 문화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3년 이상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문화원은 단 한 곳도 없고, ‘사업’과 관련하여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한 곳은 2013년도에 <삶꽃사랑운동>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금산문화원 한 곳 뿐이다. 충남지역 문화원의 평균 운영기간이 50.3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인력, 재정, 사업 등에서 전국 문화원의 평균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은 향후 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도 없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 발전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각 문화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 하는 것은 계획의 수립에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는 문화

원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문화원에 해당 시·군이 재정 지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문화원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결국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도 연계가 될 수 있으며, 충남지역의 열악한 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타 시·도와의 문화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문화기부운동 장려 및 홍보

문화원을 비롯한 문화시설과 단체들이 민간기업으로부터 메세나 후원금을 받으며 자체자금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시·군 차원에서는 문화기부운동에 대한 홍보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기업이 문화시설이나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할 시에 10%의 법인세 혜택 효과가 있음을 알리고, 문화기부운동을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문화기부운동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은 시·군에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다.

문화기부운동은 직원 규모가 100인 이상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순차적으로 시행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것이 좋다. 현재 천안시에는 100인 이상 기업체가 168개에 이르며(천안시 홈페이지 ‘기업체 현황’ 참고), 당진시에도 30개가 있다(당진시 홈페이지 ‘기업정보’ 참고). 공주시에는 4개 업체, 부여군 5개, 홍성군에 3개 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농촌지역인 군 단위보다는 주로 시 단위에 규모가 큰 기업체가 많이 있고, 이들 대부분 제조업 공장이다.

대기업과 공장이 많이 들어선 천안시나 당진시의 경우에는 일자리와 함께 이주해 온 이주민과 원주민들 간 문화적 화합을 위한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 공동체 정신을 키우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지방문화원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다. 지역 내 대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의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후원하고, 지방문화원이 문화기부를 통해 결연을 맺은 기업에 사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결연 기업을 홍보해준다면, 기업과 문화원이 문화예술진흥의 파트너로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청남도 내에서는 아직 문화예술 분야 민간 기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크지 않다. 현재 충남의 지방문화원 중에서는 4곳(공주, 당진, 예산, 태안)이 지역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자체자금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농협으로부터 축제 등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후원을 받고 있으며, 일반 기업으로부터 상시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시·군이 문화기부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될 수 있을 때까지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기부운동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향후 연구과제

충남지역 문화원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충남도 내 15개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의견수렴회, 설문조사, 사무국장 워크숍, 지방문화원 우수사례 워크숍, 자문회의, 현지답사 및 인터뷰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반면, 문화원 회원이나 지역주민들의 문화원 이용실태나 문화원에 대한 인식 및 수요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각 문화원별 특성화 방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도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충청남도 내 15개 지방문화원 전체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연구한 본 논문에서 각 문화원의 특성화 방안과 발전방안까지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향후 문화원의 개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할 연구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 김규원(2014), 지역 문화매개인력 현황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혜인(2013), 2014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효정(2007),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효정(2014),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활성화 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신성희(2008), 인천시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인천발전연구원
- 전국문화원연합회(2007), 2006 지방문화원 전통 및 향토문화 지원사업
- 전병태(201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정숙(2014),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현성(2014),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충남발전연구원(2015), 전국 지방문화원 우수사례 워크숍 자료집
- 한국문화원연합회(2010), 2010 우수문화원 관계자 선진문화시설 연수 결과보고서
- 한국문화원연합회(2012), 2012 전국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연수 자료집
- 한국문화원연합회(2012), 한국문화원연합회 50년사
- 한국문화원연합회(2013), 2013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조사 연구보고서
- 한국문화원연합회(2013), 2013년 제20차 전국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연수 자료집
- 한국문화원연합회(2013), 지방문화원 활성화 중장기 계획(2013~2017)

한국문화원연합회(2014),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문화원연합회(2014), 2014 지방문화원 총람(사업편)
 한국문화원연합회(2014), 2014 지방문화원 총람(현황편)
 한국문화원연합회(2014),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정 관련 한국문화원연합회 정책포럼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6),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7), 선진국의 문화예술조직 운영사례 조사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9),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9),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허은영(2010), 문화시설 운영 효율성 지표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허은영(2015), 문화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연구논문

김미향(2010), 일본 공민관 제도의 전개과정과 특질에 관한 연구,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 연구, 127~150쪽
 김중두(2014), 일본 생애교육 추진체제와 정책 효과 탐색,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8 권 제1호, 61~71쪽
 김진학(2007), 지방문화원 조직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서빈(2004), 우리나라의 지역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정희(2008), 향토자료 관리를 위한 문화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시·군 문화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정희·장우권(2008), 문화원의 향토자료 관리 실태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25권 3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97~20쪽
 박명규(1992), 지방자치와 지방문화: 지역문화 육성과 지방문화원의 역할, 지방행정, 제41권 468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6~24쪽
 박은희(2013),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문화원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호(2001), 충북지역 문화원 실태와 활성화 방안,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 3, 23~47쪽

서은희(2008),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한국의 문화예술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야마다 노리히로(2004), 일본의 공민관 행정의 과제와 전망, 한국지방자치학회-한일지방자치 국제 세미나

양태인(2013),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세경(2010), 인천 소재 문화원의 문화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문화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오지혜(2013),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대한민국 문화원상 우수프로그램 부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옥승현(2006), 문화원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여수대학교 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성근(2003),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 영남지역발전연구,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103~18쪽

이원태(1998),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정책의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9집, 101~116쪽

이원태(2000), 문화 학습증진을 위한 지역 문화시설 운영개선 방안, 문화정책논총, 제12집, 83~111쪽

이윤희(2012),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장현일(2000),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고아주고아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정갑영(1996), 독일 사회문화센터 운동의 전개와 그 의의, 문화정책논총, 제8집, 81~105쪽

정갑영(1997), 독일의 사회문화센터 '모두를 위한 모두의 문화'의 실천 현장, 월간 너울-특별 탐방, 3월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영희(2002),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청주시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정현경(2000), 일본커뮤니티센터 소개, 정책세미나 자료

지영희(2014), 지방문화원의 사회적 기업 창업사례 연구: 화순문화원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동현(2012),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기능적 역할 연구, 역사문화연구, 제44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79~315쪽

□ 단행본

고바야시 분진·이토 오사카즈(2010), 일본의 사회교육·평생학습, 학지사

금산군지편찬위원회(2011), 금산군지3: 변화와 도약의 인삼고을

데우치 아키토시·오지마 미와(2010), 일본의 사회교육·평생학습, 학지사

류정아(2008), 한국의 지역문화, 대왕사

이종인(2005), 문화정책과 문화행정

이현식(2012), 성찰적 창조도시와 지역문화

임재해(2004), 지역문화 그 진단과 처방, 지식산업사

임정희(2006), 문화도시 조성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임학순(2003),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문화융성 시대 국가 정책의 방향과 과제

Richardson, H.W.(1979). *Regional Economic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신문기사 외

이영민 기자(2015.01.22), "논산문화원 신청사 3월 지산동 일원에 착공", <대전일보>

장태갑 기자(2015.02.05), "충남 노인자살률 10만명당 107명 '전국 최상위'", <충청일보>

금산다락원(2009), 금산다락원 운영위원회 자료집

□ 부록1. 1차 설문조사지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2014년 5월 · 한국문화원연합회 · ☎02-704-2312

** '2013년'을 기준으로 각종 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작성해주시시오

안녕하십니까?

「2014지방문화원실태조사」를 위해 지방문화원의 운영 및 사업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지방문화원실태조사」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문화지표를 반영한 지역문화 특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개별 지방문화원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원 간 격차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입니다.

「2014지방문화원실태조사」는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2014지방문화원실태조사 보고서」로 발간될 계획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제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고, 각종 사례 등을 풍부하게 제시해주셔서 「문화원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2014지방문화원실태조사」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 34조에 의거해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에 대한 제반사항은 연구기획팀(김태현 팀장/02-704-2312)에게 문의 바랍니다.

* 항목 기재시 내용이 많을 경우 표를 추가하거나, 별지를 적극 활용바랍니다.

A1. 문화원명	() 문화원	A2. 개원년도*	()년	
A3. 시설현황	(1) 시설유형	① 독립원사(문화원 소유) ② 독립원사(지자체 소유) ③ 지자체소유 복합시설 임대 ④ 개인건물임대 ⑤ 기타()		
	(2) 면적*	· 대지 () m ² , · 연건평 () m ²		
	(3) 건물건립년도	()년		
A4. 기금총액	()원	A4. 기금구성	(1) 자치단체 보조	천원
			(2) 자체 조성	천원
			(3) 기타	천원

*A2: oo문화관 등 현재와 명칭은 다르더라도 문화원의 전신을 포함하는 개원년도임

*A3-(2): ③에 해당할 경우 문화원이 사용하는 공간만 해당됨

A100. 목표 및 비전

1. 귀 문화원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3년 이상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습니까?

(*향토사 연구 및 발굴사업 제외)

- ①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다
 ② 일부 사업에 한해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다 → **문 1-1번** 으로 가십시오.
 ③ 없다 → **문 2번** 으로 가십시오.

- 1.1.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을 경우 수립년도와 추진실적을 말씀해주십시오.

중장기 발전계획명	주요내용	수립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
		년	%
		년	%
		년	%

2. 귀 문화원에서 향토사 연구 및 발굴사업과 관련하여 3년 이상 중장기 연구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종합적인 중장기 향토사 연구 및 발굴사업 계획이 있다
 ② 일부 중장기 향토사 연구 및 발굴사업 계획이 있다 → **문 2-1번** 으로 가십시오.
 ③ 없다 → **문 3번** 으로 가십시오.

- 2.1. 중장기 향토사 연구 및 발굴 사업 계획이 있을 경우 수립년도와 추진실적을 말씀해주십시오.

중장기 향토사업 계획명	주요내용	수립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
		년	%
		년	%

3. 귀 문화원의 2013년 사업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다면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십시오. (*사업 중복 기재 금지)

구분		사업 명	주요 내용/특성
(1) 역사와 전통을 지닌 연례사업(5년 이상)	① 있다(⇨)		
	② 없다(⇩)		
(2) 지역특성 반영 사업	① 있다(⇨)		
	② 없다(⇩)		
(3) 어르신, 다문화, 향토사 등 각종 기금사업	① 있다(⇨)		
	② 없다(⇩)		
(4) 기타 문화원을 대표하는 우수 사례	① 있다(⇨)		
	② 없다(⇩)		

4. 귀 문화원은 **운영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1) 문화원 경영환경 분석	연 () 회	(4) 사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연 () 회
(2) 타 문화원/기관 우수사례조사	연 () 회	(5)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체 워크숍	연 () 회
(3) 사업성과에 대한 정기점검	연 () 회	(6)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부 컨설팅	연 () 회

A200. **사업/프로그램/동아리**

****다음과 같이 사업을 구분해 주십시오. (1) 문화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강좌/체험/공연/복합형 포함), (2) 공연 프로그램, (3) 전시 프로그램, (4) 공모/경연 프로그램, (5) 지역/커뮤니티(공동체) 프로그램, (6) 전통문화(향토문화) 전승·보전 프로그램 (7) 위탁사업프로그램 (8) 세미나 토론회 등 학술행사 프로그램 (9) 축제 프로그램**

5. 2013년 한 해 동안, 귀 문화원에서 운영한 **사업 현황**을 말씀해주십시오.

(** ‘전체 사업 현황표’를 별도로 작성해 주십시오) (*프로그램별 중복 기재 금지)

구분	프로그램 현황				인력/수혜자(참가자)			예산
	전체 프로그램수	전체 횟/일수	전체 시수	투입 인력 수	직접수혜자 (참가자) 수	간접수혜자 (참가자) 수	만족도/ 피드백	전체 예산
(1)문화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참여계층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기타()% 합계 (100)%						
(2)공연 프로그램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참여계층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기타()% 합계 (100)%						
(3)전시 프로그램	개	일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참여계층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기타()% 합계 (100)%						
(4)공모/경연 프로그램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참여계층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기타()% 합계 (100)%						
(5)지역교류/지역탐방/커뮤니티 프로그램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참여계층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기타()% 합계 (100)%						
(6)향토문화 전승·보전 프로그램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참여계층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기타()% 합계 (100)%						
(7)위탁사업 프로그램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참여계층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기타()% 합계 (100)%						
(8)세미나 토론회 등 학술 행사 프로그램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참여계층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기타()% 합계 (100)%						
(9)축제 프로그램	개	일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참여계층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기타()% 합계 (100)%						

*투입인력 수 : 강사, 출연진 등 참여 인력 수
 *직접 수혜자(참가자) 수 : 공연, 전시, 교육 등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참여자 인원
 *간접 수혜자(참가자) 수 : 프로그램 간접 수혜자 수(예: 관람객 등)
 *피드백 여부 : 프로그램종료 후 만족도 조사, 사업후기작성 등 피드백 활동 여부
 *참여 계층 :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계층 합계가 100%가 되도록 기재

* ‘프로그램 횟수/시수’는 프로그램별 횟수/시수 합산, ‘전체 참여자 수’는 프로그램별 참여자 합산
 * ‘전체 사업 현황표’를 작성한 후, 합산해서 기재
 * 축제는 주최, 주관(의 경우 단독주관)만 해당됨

※ 사업유형별로 전체 예산을 조사하는 이유는 총사업비에서 ‘사업유형별 비중’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각 사업유형별 사업비의 합이 ‘<24번> 문화원의 예산 중 사업비 총액’과 같아야 함

6. 현재 귀 문화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현황을 말씀해주십시오.

(1) 동아리 수/ 회원 수

동아리 명	지역기반 활동	회원 수	동아리 지원 여부			동아리 활동				
			예산	시설	컨설팅	매우 활발 하다	활발 하다	보통	활발 하지 않다	전혀 활발 하지 않다
	① 한다	명	천원	① 지원	①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② 안한다			② 미지원	② 미지원					
	참여계층 활동내용	어린이 : () %	청소년 : () %	중장년 : () %	어르신 : () %	기타 : () %	합계 : (100)%			
	① 한다	명	천원	① 지원	①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② 안한다			② 미지원	② 미지원					
	참여계층 활동 내용	어린이 : () %	청소년 : () %	중장년 : () %	어르신 : () %	기타 : () %	합계 : (100)%			
	① 한다	명	천원	① 지원	①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② 안한다			② 미지원	② 미지원					
	참여계층 활동 내용	어린이 : () %	청소년 : () %	중장년 : () %	어르신 : () %	기타 : () %	합계 : (100)%			
	① 한다	명	천원	① 지원	①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② 안한다			② 미지원	② 미지원					
	참여계층 활동 내용	어린이 : () %	청소년 : () %	중장년 : () %	어르신 : () %	기타 : () %	합계 : (100)%			
	① 한다	명	천원	① 지원	①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② 안한다			② 미지원	② 미지원					
	참여계층 활동 내용	어린이 : () %	청소년 : () %	중장년 : () %	어르신 : () %	기타 : () %	합계 : (100)%			
동아리 총 수	개	동아리 총 회원 수	명							

*참여계층 : 참여회원 분포로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기타의 합계가 100%가 되도록 기재
 *지역기반 활동 : 지역 주민 대상 공연, 전시, 모금 운동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동아리 활동 범위

A300. 연구·발간·정보·자료

7. 2013년 한 해 동안, 귀 문화원에서 운영한 **연구사업 현황**을 말씀해주십시오.

구분	향토문화 연구사업	향토문화 외 연구사업
(1) 연구 사업 건수	총 건	총 건
(2) 주요 연구내용		
(3) 예산	총 천원	총 천원
(4) 투입인력	내부 인력 ()명	내부 인력 ()명
	외부 인력 ()명	외부 인력 ()명

8. 귀 문화원에서 발간한 **발간자료 현황**을 말씀해주십시오,

구분	발간 종수	발간 부수
(1) 문화원 개원 이후 총 발간 자료 현황	종	권
(2) 2009년~2013년 5년간 발간 자료 현황	종	권

8.1. 귀 문화원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발간한 자료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분량이 많을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해 주십시오

(1) 향토문화 자료

구분/도서명	주요내용	발간 부수	발간형태	배경시기	발간년도
		권	정기/비정기		년
		권	정기/비정기		년
		권	정기/비정기		년
		권	정기/비정기		년
		권	정기/비정기		년

(2) 향토문화 외 자료(문화원지/지역 관광정보/지역정보소개 등)

구분/도서명	주요내용	발간 부수	발간형태	배경시기	발간년도
		권	정기/비정기		년
		권	정기/비정기		년
		권	정기/비정기		년
		권	정기/비정기		년
		권	정기/비정기		년
		권	정기/비정기		년
		권	정기/비정기		년
		권	정기/비정기		년
		권	정기/비정기		년

9. 귀 문화원의 자료운영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발간책자, 자료 등을 보관하는 별도의 자료실	① 있다 ② 없다
(2) 영구보존을 위한 별도의 자료 아카이빙(디지털화 등)	① 있다 ② 없다
(3) (자료실 유무에 상관없이) 전문 사서 배치 여부	① 있다 ② 없다
(4) (자료실 유무에 상관없이) 자료 대출 기능	① 있다 ② 없다
(5) (자료실 유무에 상관없이) 문화원 행사 프로그램 산출물 자료 등을 보관	① 있다 ② 없다
(6) 발간책자 등 자료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있다 ② 없다

10. 귀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도서)와 음반, 비디오 자료 등 시청각 매체의 총 수는 몇 개 입니까? 매체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장서(도서)	(3) 음반(테이프,CD)
(2) 영상/비디오	(4) 기타()

11. 귀 문화원에서 이용자에게 「지역정보서비스」(예컨대, 지방자치정보, 행정 정보,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 정보, 지역 문화재 정보, 지역 문화관광 정보, 기타 지역사회 정보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제공한다면, 어떤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까?

구분	(1) 홈페이지	(2) 블로그/ SNS	(3) 간행물	(4) 메일링	(5) 기타 ()
① 제공한다 (㉠)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② 제공 안 한다 (㉡)					

A400. 홍보/홈페이지

12. 2013년 한 해 동안, 문화원 전체 혹은 문화원 개별사업과 관련한 홍보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홈페이지	블로그 SNS	뉴스레터 메일링	신문 일간지	중앙방송 지방방송	포스터/ 리플렛	기타 ()	2013년 전체
(1) 홍보건수	___건	___건	___건	___건	___건	___건	___건	총 ___건
(2) 정기적 홍보활동	① 하고 있다 ② 하고 있지 않다							

13. 귀 문화원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운영하고 있다



② 운영하고 있지 않다 →

문 14번

으로 가십시오.

13.1. 귀 문화원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프로그램 안내 등 정보	① 제공하고 있다	② 제공하고 있지 않다
(2) 소장 자료목록 서비스	① 제공하고 있다	② 제공하고 있지 않다
(3) 자료 다운로드 서비스	① 제공하고 있다	② 제공하고 있지 않다
(4) 회원가입, 메일링 등 회원관리 서비스	① 제공하고 있다	② 제공하고 있지 않다

B100. 시설

14.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m²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의 보유여부를 해당되는 난에 표기해 주시고, 그 면적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시 설	보유 여부	수	사용 일수	면적 (단위: m ²)	주민개방	대여비
(01) 사무실	① 있다(⇔) ② 없다(↓)	개	주 ()일		① 개방(⇔) ② 폐쇄(↓)	① 무료 ② 유료
(02) 회의실	① 있다(⇔) ② 없다(↓)	개	주 ()일		① 개방(⇔) ② 폐쇄(↓)	① 무료 ② 유료
(03) 강당 (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① 있다(⇔) ② 없다(↓)	개	주 ()일		① 개방(⇔) ② 폐쇄(↓)	① 무료 ② 유료
(04) 전시실	① 있다(⇔) ② 없다(↓)	개	주 ()일		① 개방(⇔) ② 폐쇄(↓)	① 무료 ② 유료
(05) 도서실	① 있다(⇔) ② 없다(↓)	개	주 ()일		① 개방(⇔) ② 폐쇄(↓)	① 무료 ② 유료
(06) 강당 외 별도 공연장	① 있다(⇔) ② 없다(↓)	개	주 ()일		① 개방(⇔) ② 폐쇄(↓)	① 무료 ② 유료
(07) 향토사연구소	① 있다(⇔) ② 없다(↓)	개	주 ()일		① 개방(⇔) ② 폐쇄(↓)	① 무료 ② 유료
(08) 향토사료전시관	① 있다(⇔) ② 없다(↓)	개	주 ()일		① 개방(⇔) ② 폐쇄(↓)	① 무료 ② 유료
(09) 기타 ()	① 있다(⇔) ② 없다(↓)	개	주 ()일		① 개방(⇔) ② 폐쇄(↓)	① 무료 ② 유료

15. 귀 문화원에 설비·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 ☐ ① 경사로 ☐ ② 장애인용 화장실 ☐ ③ 승강기
☐ ④ 점자 안내판 ☐ ⑤ 공연장 내 장애인석 ☐ ⑥ 기타 (⇔)

16. 귀 문화원의 시설 개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연간 이용자 수	_____명	(2) 개방시간	평 일	오전 __시 : __분 ~ 오후 __시 : __분
			토요일	오전 __시 : __분 ~ 오후 __시 : __분
			일요일	오전 __시 : __분 ~ 오후 __시 : __분
			공휴일	오전 __시 : __분 ~ 오후 __시 : __분

※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통상적으로 개방하는 경우에만 작성해 주십시오.(일시적 개방제외)

B200. 조직 및 인력

17. 귀 문화원 운영과 관련된 **조직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이사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문화원분원, 향토사연구소 등 문화원의 제반조직)

조직명	인원 수	주요 기능
(1) 이사회		
(2) 운영위원회		
(3) 대의원회		
(4) 문화원 분원		
(5) 향토사연구소(회)		
(6) 기타 ()		

* 위에서 이사회는 주요기능을 기재하지 말 것

18. 사무국장 등 현재 문화원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력(인턴 포함)**의 직책, 연령 등 인력현황을 각 인력별로 적어주십시오. (전공 여부는 최종학력 기준, 경력은 최소 3년 기준)

직책	채용방식	고용형태	연령	문화원 근무기간	상근 여부	문화예술 분야전공
(01) 원장	①공개채용	①정규직	세 ()년 ()개월		①상근	①전공 ②비전공
	②추천	②비정규직				
	문화예술단체	중사경력			②비상근(겸직)	
(02) 사무 국장	①공개채용	①정규직	세 ()년 ()개월		①상근	①전공 ②비전공
	②추천	②비정규직				
	문화예술단체	중사경력			②비상근(겸직)	
(03)	①공개채용	①정규직	세 ()년 ()개월		①상근	①전공 ②비전공
	②추천	②비정규직				
					②비상근(겸직)	
(04)	①공개채용	①정규직	세 ()년 ()개월		①상근	①전공 ②비전공
	②추천	②비정규직				
					②비상근(겸직)	

구분	여부	제정일	개정일	비고
(2) 운영규정 (정관 외)	① 있다(↔) ② 없다(↓)			
- 직제규정	① 있다(↔) ② 없다(↓)			
- 인사규정	① 있다(↔) ② 없다(↓)			
- 보수규정	① 있다(↔) ② 없다(↓)			
- 복무규정	① 있다(↔) ② 없다(↓)			
- 여비규정	① 있다(↔) ② 없다(↓)			
- 문서처리규정	① 있다(↔) ② 없다(↓)			
- 회계규정	① 있다(↔) ② 없다(↓)			
- 회의수당규정	① 있다(↔) ② 없다(↓)			
- 위임전결내규	① 있다(↔) ② 없다(↓)			
- 운영위원회규정	① 있다(↔) ② 없다(↓)			
- 임원선임관리규정	① 있다(↔) ② 없다(↓)			
- 00문화원 회원관리규정	① 있다(↔) ② 없다(↓)			
- 00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운영규칙	① 있다(↔) ② 없다(↓)			
- 취업규칙	① 있다(↔) ② 없다(↓)			
- 차량관리규정	① 있다(↔) ② 없다(↓)			
- 건물(원사)관리규정(대관포함)	① 있다(↔) ② 없다(↓)			
-	① 있다(↔) ② 없다(↓)			
-	① 있다(↔) ② 없다(↓)			
-	① 있다(↔) ② 없다(↓)			

B300. 회원

23. 귀 문화원 운영과 관련된 **회원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사’, ‘대의원’, ‘일반 회원’, ‘명예회원’ ‘기타’로 구분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회원 수	회비납부 회원 수	연회비
(1) 이사	() 명	() 명	() 천원
(2) 대의원	() 명	() 명	() 천원
(3) 일반회원	() 명	() 명	() 천원
(4) 명예회원	() 명	() 명	() 천원
(5) 기타:()	() 명	() 명	() 천원

* ‘대의원’이 이사, 일반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중복될 경우 기재하지 말 것

B400. 재정·예산/기금

24. 귀 문화원의 **2013년도 결산규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금액(천원)
◦ 결산 총액	천원
* 결산 총액 중 ‘사업비’ 총액	천원
* 결산 총액 중 ‘경상비’ 총액	천원
(1) 보조금 중 지방비	천원
(2) 보조금 중 국고(기금 등) *우리회 지원사업은 국고에 해당됨	천원
(3) 위탁사업비 - (1), (2)를 제외한 제반 사업비	천원
(4) 후원금/기부금, 회비, 사업수입 등 자체 수입	천원
(5) 기타 ()	천원

25. 귀 문화원의 재원개발 노력 및 실적으로 2009년에서 2013년 5년 동안, 기업/민간 단체 등 외부의 후원·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실적을 작성해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문 26번** 으로 가십시오.



구분 년도	건수	금액(현금, 현물 총액)	주요 수령처	주요 수령 명목
2009년	건	천원		
2010년	건	천원		
2011년	건	천원		
2012년	건	천원		
2013년	건	천원		

30. 귀 문화원에는 해외 국가, 지역, 단체와의 교류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문 31번** 으로 가십시오.

30.1. 귀 문화원에서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 동안 해외 국가, 지역, 단체와 교류를 진행한 건수와, 그 중 주요 교류대상과의 교류 기간과 주최당국, 교류 국가/단체명, 경비 부담률, 주 교류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교류 건수	교류 기간	주최	교류국가/단체명	경비 부담률		주 교류내용
건	____년부터 ____년까지	① 문화원 주최		문화원	%	
		② 해외 주최		해외	%	
		③ 공동 주최		기타()	%	

D500. 기초 문화재단

31. 귀 문화원이 위치한 지자체에는 기초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설립되어 있다면 공동 프로그램 진행, 정보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협력정도				
		매우 협조적	다소 협조적	보통	다소비 협조적	매우비 협조적
설립 여부	① 설립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설립 예정에 있다					
	③ 없다					

D400. 문화유산

32. 귀 문화원에서는 문화원형(문화재 및 전설, 민담, 설화 등 문화콘텐츠)을 가공·활용하여 프로그램 및 사업 개발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설문종료**

↓

32.1. 문화원형을 가공·활용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구분	문화원형	활용사례 주요내용
(예시)	민속콘텐츠	수령 750년 감나무/설화	수령 750년 감나무를 활용한 상주곶감공원 및 상주곶감축제
(1)			
(2)			
(3)			

문화원형(유산) 구분

- *국가지정문화재 :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 *시도지정문화재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 *비지정문화재 : 일반동산문화재, 매장문화재
- *문화재자료 :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
- *등록문화재 :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 *민속콘텐츠 : 설화, 민요, 민속언어, 일생의례, 전통마을, 농업기술, 농기구, 민속신앙, 민속놀이 등.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확인란	(인)	● 검증란	(인)
-------	-----	-------	-----

※ 아래의 [별지] - '현황표'는 사업 현황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제시된 양식보다 분량이 많을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해 주십시오.

(1) 문화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강좌/체험/공연/복합형 포함)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현황			인력/수혜자(참가자)			만족도/ 피드백	예산
	전체 프로그램	전체 횟/일수	전체 시수	투입 인력 수	직접수혜자 (참가자) 수	간접수혜자 (참가자) 수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2) 공연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현황			인력/수혜자(참가자)			만족도등 피드백	예산
	전체 프로그램	전체 횟/일수	전체 시수	투입 인력 수	직접수혜자 (참가자) 수	간접수혜자 (참가자) 수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3) 전시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현황			인력/수혜자(참가자)			만족도등 피드백	예산
	전체 프로그램	전체 횟/일수	전체 시수	투입 인력 수	직접수혜자 (참가자) 수	간접수혜자 (참가자) 수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4) 공모/경연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현황			인력/수혜자(참가자)				예산
	전체 프로그램	전체 횟/일수	전체 시수	투입 인력 수	직접수혜자 (참가자) 수	간접수혜자 (참가자) 수	만족도등 피드백	전체 예산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5) 지역교류/지역탐방 등 지역커뮤니티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현황			인력/수혜자(참가자)				예산
	전체 프로그램	전체 횟/일수	전체 시수	투입 인력 수	직접수혜자 (참가자) 수	간접수혜자 (참가자) 수	만족도등 피드백	전체 예산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6) 향토문화 전승보전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현황			인력/수혜자(참가자)				예산
	전체 프로그램	전체 횟/일수	전체 시수	투입 인력 수	직접수혜자 (참가자) 수	간접수혜자 (참가자) 수	만족도등 피드백	전체 예산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7) 위탁사업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현황			인력/수혜자(참가자)				예산
	전체 프로그램	전체 회/일수	전체 시수	투입 인력 수	직접수혜자 (참가자) 수	간접수혜자 (참가자) 수	만족도등 피드백	전체 예산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8) 세미나·토론 등 학술행사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현황			인력/수혜자(참가자)				예산
	전체 프로그램	전체 회/일수	전체 시수	투입 인력 수	직접수혜자 (참가자) 수	간접수혜자 (참가자) 수	만족도등 피드백	전체 예산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9) 축제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현황			인력/수혜자(참가자)				예산
	전체 프로그램	전체 회/일수	전체 시수	투입 인력 수	직접수혜자 (참가자) 수	간접수혜자 (참가자) 수	만족도등 피드백	전체 예산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개	회	시간	명	명	명	① 한다 ② 안한다	천원

□ 부록2. 2차 설문조사지



2014 충남 지방문화원 실태조사(2차)

2015년 1월 · 충남발전연구원 · ☎041-840-1255

**** '2013년'을 기준으로 각종 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작성해주시시오**

안녕하십니까?

「2014 충남 지방문화원 실태조사」를 위해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 충남 지방문화원 실태조사」는 개별 지방문화원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원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입니다.

「2014 충남 지방문화원 실태조사」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실시한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2014.5)에 대한 후속 조사로, 충남 지방문화원의 실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는 추후 「충남지역 문화원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보고서」로 발간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제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 34조에 의거해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에 대한 제반사항은 **최영화 책임연구원(041-840-1255)**에게 문의 바랍니다.

문화원명	() 문화원
------	------------------------------

A. 시설

1. 귀 문화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십시오.
단,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X'로 표기해주시오.

시설구분	활용순위
① 사무실	
② 회의실	
③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④ 전시실	
⑤ 도서실	
⑥ 강당 외 별도 공연장	
⑦ 향토사연구소	
⑧ 향토사료전시관	
⑨ 기타 ()	

2. 귀 문화원에서 가장 부족하거나 필요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십시오.

시설구분	필요순위
① 사무실	
② 회의실	
③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④ 전시실	
⑤ 도서실	
⑥ 강당 외 별도 공연장	
⑦ 향토사연구소	
⑧ 향토사료전시관	
⑨ 기타 ()	

3. 귀 문화원의 시설(공간)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십시오.

시설 관련 문제점	중요순위
① 시설의 부족	
② 시설의 노후화	
③ 시설 관리인력의 부족	
④ 시설 내 장비(기자재)의 부족	
⑤ 기타 ()	

4. 귀 문화원의 부족한 시설을 타 기관과 협조를 통해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 **문 4-1번** 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다

41. 타 기관의 시설을 임대하여 활용할 경우, 어느 기관 어느 시설인지 말씀해주세요.

기관명	임대 시설명

5. 귀 문화원의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시설 활성화 관련 조치 사항	중요순위
① 시설 조성 / 건립	
② 시설 리모델링	
③ 시설 관리인력 확충	
④ 시설 내 장비(기자재) 마련	
⑤ 기타 ()	

B. 인력

6. 귀 문화원의 전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사무국장을 포함한 적정 인력은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 ① 2명 이하 ② 3~4명 ③ 5~6명 ④ 7~8명 ⑤ 9명 이상

7. 귀 문화원에서 인원 보충이 가장 필요한 인력은 어느 분야의 인력입니까?

인원 보충 필요 분야	필요순위
① 향토자료 관리 전문인력(학예사)	
② 문화사업 기획 및 운영 전문가	
③ 시설관리 전문가	
④ 행정전담 사무직원	
⑤ 기타 ()	

8. 문화원 전체 운영 측면에서 **현재 사무국장의 주요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의 현재 역할	중요순위
① 경영 총괄	
② 사업/프로그램 기획·운영	
③ 건물/시설 관리	
④ 향토자료 수집 및 연구	
⑤ 기타 ()	

9. 문화원 전체 운영 측면에서 사무국장의 주요한 역할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무국장의 주요 역할	중요순위
① 경영 총괄	
② 사업/프로그램 기획·운영	
③ 건물/시설 관리	
④ 향토사료 수집 및 연구	
⑤ 기타 ()	

10. 귀 문화원 직원들의 고용형태는 어떠합니까? 고용형태별 번호를 써주십시오.

고용 형태	①정규직	②무기계약직	③단기계약직	④임시직	⑤기타()
직위	인원(명)		고용형태		
사무국장	(명)				
직원	(명)				
	(명)				
	(명)				
	(명)				

11. 귀 문화원 직원들의 연봉은 어느 수준입니까? 근속연수에 따른 연봉 수준별 번호를 써주십시오.

연봉 구분	① 2천 미만	② 2천~2천5백 미만	③ 2천5백~3천 미만	④ 3천~3천5백 미만
	⑤ 3천5백~4천 미만	⑥ 4천~4천5백 미만	⑦ 4천5백~5천 미만	⑧ 5천 이상
(단위: 만원)				

직위	인원(명)	근속연수(년)	연봉 수준
사무국장	(명)	(년)	
직원	(명)	(년)	
	(명)	(년)	
	(명)	(년)	
	(명)	(년)	
	(명)	(년)	

12. 귀 문화원의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십시오.

인력 활성화 관련 조치 사항	중요순위
① 전문인력 확충	
② 직무능력 강화	
③ 신분(고용) 보장	
④ 임금 및 복지 처우 개선	
⑤ 기타 ()	

C. 예산

13. [사업비] 귀 문화원의 현황을 고려할 때, **축제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 지원금(보조금)**이 어느 수준이어야 문화원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 지원금 규모	① 1~3억원	② 4~6억원	③ 7~9억원	④ 10~12억원	⑤ 13억원 이상
------------	---------	---------	---------	-----------	-----------

※. 축제는 단일항목만 해도 수천만원에서부터 수억원이 될 수 있으므로 축제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 보조금을 조사함

14. [경상비] 귀 문화원의 **현재 경상비(인건비 포함) 지원금**은 어느 정도이며, 직원 규모를 고려할 때 **적정 경상비(인건비 포함) 지원금**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비 지원금 규모	① ~1억	② ~1억5천	③ ~2억	④ ~2억5천	⑤ ~3억	⑥ 3억 이상
------------	-------	---------	-------	---------	-------	---------

경상비(인건비 포함) 지원금	경상비 규모(단위: 원)
① 2013년 기준 경상비 지원금	(원)
② 적정 경상비 지원금	(원)

15. 귀 문화원에서 자체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

- ☐ ① 회원들의 회비
 ☐ ② 기부금/ 찬조금
 ☐ ③ 시설 대관료/ 임대료
 ☐ ④ (위탁)사업 수입
 ☐ ⑤ 기타()

16. 국비와 지방비가 현재보다 더욱 줄어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16-1번** 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16-1. 국비와 지방비가 줄어든 경우, 예산 마련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예상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 마련 방법	예상 금액 (단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17. 문화원의 자체 경상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십시오.

예산 관련 조치 사항	중요순위
① 지자체의 문화원지원육성조례상 사업 운영수입을 문화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원 확보를 통해 회비 수익금을 확충한다	
③ 시설 리모델링 및 확충을 통해 시설 대관수입과 공연수입을 창출한다	
④ 위탁사업 및 공모사업의 증대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한다	
⑤ 기타 ()	

18. 문화원의 일반 참가자 및 회원 현황과 회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특별 기부금/ 찬조금 제외)

회원 구분	회원 수 (단위: 명)	가입비	연회비 금액 (단위: 원)
정회원 (정규 회비납부 회원)	(명)	(원)	(원)
준회원 (행사, 프로그램 참여자)	(명)	0 (원)	0 (원)
2013년 기준 회원/ 회비 총계	(명)	(원)	(원)

D. 사업

19. 귀 문화원의 여러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비중을 표시해 주십시오.

※ 2013년도 수행사업을 기준으로 사업비의 규모(50%)와 사업량(50%)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해주십시오.

사업 구분	비중(%)
① 향토문화사업 (예: 향토·민속자료 조사, 발굴, 연구, 편찬 사업 등)	%
② 문화행사사업 (예: 각종 축제, 대회, 공모전, 음악회, 사진·미술전시회, 문학제 등)	%
③ 문화교육사업 (예: 문화학교, 교양강좌, 역사탐방, 답사, 사회교육 등)	%
④ 문화홍보사업 (예: 지역문화 교류 및 홍보 활동 등)	%
⑤ 기타 ()	%
총계	100%

20. 타 문화원과 구별되는 귀 문화원만의 특별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사업 구분	사업명 (복수 제시)
① 향토문화사업	
② 문화행사사업	
③ 문화교육사업	
④ 문화홍보사업	
⑤ 기타	

21. 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회원과 주민들의 반응과 참여가 가장 좋은 사업은 무엇입니까?

사업 구분	중요 순위
① 향토문화사업	
② 문화행사사업	
③ 문화교육사업	
④ 문화홍보사업	
⑤ 기타	

22. 귀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사업 구분	중요 순위
① 향토문화사업	
② 문화행사사업	
③ 문화교육사업	
④ 문화홍보사업	
⑤ 기타	

23. 귀 문화원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사업 활성화 관련 조치사항	중요순위
① 문화원의 고유사업인 향토사료의 수집, 보급, 활용 기능을 강화한다	
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문화원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특성화사업에 집중한다	
③ 지역 내 타 기관과 역할을 배분하여 타 기관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④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원 간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한다	
⑤ 기타 ()	

E. 운영

24. 타 문화원에 비해 귀 문화원이 가진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원의 강점	중요순위
① 오랜 지역문화 활동에 따른 높은 인지도	
② 풍부한 향토문화자원 발굴 및 축적	
③ 주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	
④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활발한 연계활동	
⑤ 기타 ()	

25. 타 문화원에 비해 귀 문화원이 가진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원의 약점	중요순위
① 지역 내 인지도 부족과 경쟁력 약화	
② 향토문화자원의 전문적 관리 및 활용 부족	
③ 주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의 특성화/ 다양성 부족	
④ 타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활동 미약	
⑤ 기타 ()	

26. 향후 귀 문화원의 미래 전망은 무엇입니까?

문화원의 미래 전망	중요순위
① 선도적인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② 생활권단위 문화사업 활성화의 거점	
③ 문화 소외계층/ 다문화 지원 확대	
④ 글로벌/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⑤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확인란

(인)

● 검증란

(인)

□ 부록3. 연구회의록

1) 지방문화원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의견수렴회

(1) 개요

일시	2014년 12월 15일(월), 오후 2:00~4:00	
장소	충남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 107호	
주요 안건	〈충남지역 문화원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1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의견수렴	
참석자	문화원 (24명)	나태주 (공주문화원 원장/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장) 현대수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안용산 (금산문화원 사무국장) 류제협 (논산문화원 원장), 이준창 (논산문화원 사무국장) 유종인 (당진문화원 원장), 강대원 (당진문화원 사무국장) 임기석 (보령문화원 원장), 임성빈 (보령문화원 사무국장) 이준호 (서산문화원 원장), 김영철 (서산문화원 사무국장) 최재수 (서천문화원 부원장) 김시운 (예산문화원 원장), 박세진 (예산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우 (온양문화원 원장), 김형기 (온양문화원 사무국장) 곽승일 (천안동남구문화원 사무국장) 신광식 (천안서북구문화원 사무국장) 이진우 (청양문화원 원장), 복은주 (청양문화원 사무국장) 김한국 (태안문화원 원장), 정지수 (태안문화원 사무국장) 유환동 (홍성문화원 원장), 김병제 (홍성문화원 사무국장)
	충청남도 (4명)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유병덕 (문화예술과 과장) 이상용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명현정 (문화예술과 주무관)
	연구진 (2명)	박철희 (충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연구위원) 최영화 (충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2) 내용

① 태안문화원

-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최종보고서를 읽었는데, 연구내용이 잘 되어있으나 실제로 예산과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성과 구체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됨
- 본 연구가 문화원의 구체적인 발전방안의 토대를 이루도록 지방문화원 지원 조례 개정 필요성 관련 내용도 담아야 함
- 식물화한 천안문화원의 구체적인 처리 방안도 논의해야 함
- 문화원 조직의 안정화 방안(적정인원 배치, 운영예산 확보, 지자체와 파트너십, 정치적·제도적 방지 장치, 자체 재정 정비, 시설 보완 등)

② 서산문화원

- 도청이 내포로 이전하면서 해매고 있음. 문화예술이 빈약하고 충청남도가 어디로 가야할지 길을 못 찾음. 내포문화제는 도청에서 담당하고 홍성은 홍성의 문화(역사인물축제)를 담당해서 육성해야 함. 백제문화제와 내포문화제를 쌍벽으로 육성하여 각 시군으로 퍼질 수 있게 충청남도가 방향과 중점시책을 설정해야 함
- 학술적으로만 연구하지 말고 15개 문화원 식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야 함
- 예산 부문: 도에서 문화원에 주는 예산이 열악함 도:시군=3:7의 예산 비율. 정책적으로 문제임. 서산은 공간이 있어서 대관료 수입이 있음. 문화원의 재정 자립도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 마련해줘야 하며 사회적 기업을 배려해줘야 함
- 인적자원 부족: 관광해설사가 현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원에 예속되어야 함. 시군의 학예사도 문화원에 배치되어야 함
- 평생교육(문화학교): 마트 등에서도 무자격자가 많이 교육을 함. 행정관처에서 제도적으로 주재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③ 보령문화원

- 문화예술 예산이 도 전체예산의 3.8%, 시군의 문화예술 예산도 증액돼야 함
- 도의 예산으로 충남학 강의를 진행 중인데 평생교육진흥원과 역사문화원에 위탁하는 것보다 문화원이 향토문화에 관해 전문성이 큼. 우리문화줄기 찾기 사업, 우리지역 바로 알기 교양강좌가 충남학 강의와 유사함. 관리를 행정적으로 해줘야 함

④ 홍성문화원

- 문제는 ‘돈’과 ‘사람’임. 예산 지원과 전문인력 배치 필요. 문화원의 예산 중 국비나 도비가 10%도 안 됨. 그 예산으로 전문인력을 못 씀.
- 전문인력의 배치와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⑤ 청양문화원

- 도의 문화예술 예산이 3.8%는 대단한 수치이나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음. 청양시의 문화예술 예산은 0.76%에 불과함
- 문화원 직원의 인건비는 초임이 180만원 수준임. 5~10년차 실무직원의 경우에도 180만원이 넘는 사람은 흔치 않음. 초임 월급이 최하 150~180만원 정도인데, 일반 단체 수준의 처우 밖에 못 받고 있음. 치부라도 인건비 현황을 과감하게 공개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함. 정상운영비, 인건비의 확대가 필요함.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움. 특히 축제, 콘텐츠 관련 전문가 영입이 필요함
- 문화예술 단체가 시장, 군수에게 예산지원 요청하면 지원함. 무분별한 지원도 창구를 단일화해서 문화원을 통해 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내년부터 문화기부운동을 시작할 예정임. 기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함. 기업에서 기부 시 10% 법인세 혜택이 있음. 도 차원에서 문화기부운동 홍보를 통해 확산시켜주길 바람
- 문화원의 위기의식: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센터 등 많은 기관들이 문화원과 유사프로

그램을 운영해서 문화원이 설 자리가 없음. 생활체육(장애인체육, 노인체육 등) 예산이 문화원 보다 많음.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 보완해서 도의 적극적인 관심 아래 문화원이 그 분야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온양문화원

- 시 자치단체장과의 관계가 좋으면 예산이 지급되고, 안 좋으면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도에서 행정적으로, 시장·군수가 누가 되었든 어느 적정선까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함. 예산 증액도 필요함
- 문화강좌를 안 하는 곳이 없음. 문화원과 평생학습관의 애로사항이 많음
- 생활문화센터로 문화원을 지정, 그러나 운영비 애기가 없음. 도에서 행정적으로 보완 필요함
- 이 연구가 도정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 도정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발표로만 끝나서는 안 됨

[7] 예산문화원

- 예산과 조직이 문제. 문화원이 사회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하며, 모든 문화를 종합할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해야 함. 이를 위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사회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음. 예산 매칭은 실질적·내용적으로 실속이 없음. 도와 시군의 지원사업 외에 자체자금을 마련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보령은 막막하고 청양은 좋음. 문화원마다 차이가 큼
- 문화원 직원들에 대한 복리 후생비 필요. 직원들이 혹사당하고 있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의 마련이 요구됨

[8] 당진문화원

- 충남의 전체 문화원 회원수가 6,600명임. 당진문화원의 경우 부임 전 200명 정도였으나 현재 550명임. 자치단체장이 보기에 회원수가 1천명은 넘어야 지원해주지, 100~200명 정도인데 지원해주는 명분이 서기 어려움. 충남 문화원이 회원 수와 연

간 참여자 수를 늘려야 함. 충남과 충북이 비교가 많이 되는데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가 검토 필요

- 문화재단이 특히 시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 당진은 문화재단과 문화원 간 경쟁이 심함. 문화재단은 조례가 있어서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을 받아 1인당 1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문화원은 2~3만원임. 앞으로 생기는 문화재단과의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도 연구에 담아주기 바람
- 문화원에서 직원 퇴직금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철저하게 확보해야 함

9] 논산문화원

- 금산의 문화원 중장기계획 내용을 들어봤으면 함
- 원장의 해외문화탐방(해외연수) 예산을 시군에서 보조해줘야 함. 한 번은 원장이, 다른 한 번은 사무국장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함

10] 서천문화원

- 충남지역 문화원의 실태와 시사점과 문제점이 잘 정리되었음. 문제점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제시해주기 바람
- 최소한 문화원의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함. 이 정도의 시설과 인력, 예산, 프로그램은 갖추어야 문화원으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 제시
- 문화원이 지역의 특성과 지방역사의 중심이라면 이러한 문화원의 역할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필요함. 원장이 바뀔 때마다 전문인력이 바뀌면 안 됨
- 복지와 문화: 시군마다 복지, 문화와 관련된 백화점식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음. 문화원이 그 지역의 문화를 총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여건을 조성해줘야 함
- 강사의 경우에도 교육학적 자질과 향토문화에 대한 지식, 2가지를 모두 갖춰야 함.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찾는 문제가 있음

11 금산문화원 사무국장

- 금산문화원의 중장기 계획인 <삶, 꽃, 문화>운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함. 2012년에 시작해 현재 2년차에 접어들음. 금산문화원 육성 조례 통과 후, 예산을 확보해 금산군 내 각 지역별로 읍을 중심으로 진행됨. 470개 마을을 대상으로 3가지 사업(<삶, 꽃>, <찾아가는 마을 풍류>, <마을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단위로 500명의 문화원 회원단체와 소외된 이들과 귀농귀촌자, 다문화 이주자들과 함께 진행 중임. 이는 지원육성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 <충남 지방문화원 육성조례>를 만들어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담아줘야 함

12 서산문화원 사무국장

- 충남의 문화원들이 80~90년대에는 활동을 활발히 했음. 그러나 충남 문화원연합회 사무실도 없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음. 경기도는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함. 잘 되는 것을 보고서에 써서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대전의 경우, 시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50% 보조해주고 있음. 이런 부분도 담아주었으면 함. 문화원이 사회공헌도가 높은데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13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 문화예술단체 중 문화원이 가장 큰 조직임.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229개 단체에 이름. 그러나 문화원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됨.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있지 못함
- 인건비의 경우, 자치단체장, 의원의 눈치도 봐야 함. 시장이나 군수가 바뀌면 문화적 마인드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짐. 문화사업은 정치적인 것과 거리를 두고 지원이 되어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특히 향토사 연구, 전승 사업의 경우 문화원만의 고유, 공익사업임. 이것만큼은 국비에서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 전문성: 문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원마다 전문인력이 1명씩은 절

대적으로 필요함. 사무국장은 총체적인 일만 해야 함. 문화원 직원들도 현실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 필요

- 시설: 교육기자재, 장비, 시설이 부족해서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 안정적인 재원도 뒷받침되어야 함.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인력과 예산을 받고 있음

14 천안동남구문화원 사무국장

- 천안시의 경우 인구는 많은데 활동은 미미함. 인력, 예산, 시설도 하위권임. 그 이유 중 하나는 원사가 인구 1천명 단위 지역에 위치해있기 때문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음. 시내권에서 활동을 하면 행사의 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식물화 된 천안문화원을 그대로 놔둘 거면 차라리 동남구나 서북구문화원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줄 필요가 있음. 천안문화원 자리에 2012년도에 천안문화재단이 생겨남

15 천안서북구문화원 사무국장

- 서북구문화원은 인구 3만명 지역에 위치해있고 자체 건물임. 위치를 북단구로 옮겨야 함

16 온양문화원

- 문화원 실태를 보다 핵심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내서 국장과 미팅 필요

17 서산문화원

- 천안문화원은 문화원연합회에서 제명된 상태임. 문화원이 사무실을 옮기는데 필요한 예산은 천안시장,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임
- 현재 축제육성위원장직을 맡고 있음. 법상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상 문화원 밖에 없음. 예충이 예술인대회를 하는데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처럼 문화인들도 예술인단체처럼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주겠다고 고 김

- 영천 문화원협회장 때 이미 약속한 바가 있으나 예산을 안 줌. 예충이 받는 예산의 50%라도 지원해줘서 문화가족한마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 지방문화원 지원 조례가 필요함. 2015년도에 공무원들이 바로 만들어줬으면 함

18 나태주 충남문화원연합회장

- 회의 정리 및 공지사항 공지. 문화원대회는 12월 30일 보령문화원에서 함. 도에서 1천만원을 연합회에 지원해 줌

19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 연구가 연구로 끝나지 않고 같이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이끌어내도록 할 것임. 문화원의 과거의 기능과 역할이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됨. 앞으로 문화원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 생활문화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회원 수를 늘리고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 향후 문화원의 역할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정책과제로 진행해 문화원의 자생성을 키우는데 일조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다음 회의 때 진행하겠음
- 인력과 예산의 증대는 명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임. 문화원 가족이 문화원의 일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같이 목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함. 그러나 인력과 돈이 먼저 있어야만 문화원이 활성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음
- 해외연수비용을 추경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
- 문화원 지원 조례는 현재 만들려고 함. 형식은 추후 상의할 것임
- 문화가족 한마당은 지역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후 더욱 구체화 필요
- 제대로 된 문화원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람

20 청양문화원

- 국장에게 건의 사항. 문화원마다 원장과 사무국장의 전공분야가 다름. 예산이나 회계, 조직, 경영 일반에 관한 교육을 1년에 2차례 정도 도에서 진행해줬으면 함

2) 농촌형 지방문화원 워크숍

(1) 개요

일시	2014년 12월 23일(화), 10:00~12:00	
장소	충남발전연구원 3층 세미나실	
주요안건	충남지역 농촌형 지방문화원 운영실태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참석자	문화원 사무국장 (5명)	김영철 (서산문화원 사무국장) 김인권 (부여문화원 사무국장) 박은희 (서천문화원 사무국장) 김병제 (홍성문화원 사무국장) 정지수 (태안문화원 사무국장)
	연구진 (2명)	박철희 (충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연구위원) 최영화 (충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2) 내용

① 정지수 (태안문화원 사무국장)

- 문화원 실태조사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려움. 계량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위탁사업비, 경상운영비, 자체 운영비 등 사업비 부문과 실질 사업 등)
- 실제 운영규모는 ①경상인력비, ②문화원 자체인력, ③문화원에서 관리, 분류되는 자료량으로 판단
- 2011년 7월 21일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전문 개정되었으므로 이론적 배경 부분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해야 함
- 문화원에서 다문화사업을 진행함
- 문화원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향토사료 및 정보의 제공이므로 평가 시 이를 반영해야 함
- 연간 참여자 수는 회원(정회원: 회비 납부, 준회원: 참여회원)을 참고하여 산정해야 함
- 자체자금 부문: 지방문화원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 자체자금은 대부분 회원 회비

- 수입이나 기업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집중하면 다른 사업을 하기 어려움
- 문화원 직원의 이직이 잦음. 문화원 원장과 직원과의 관계에 따라 직원의 신분(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원의 신분 보장이 필요함.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함
 - 전문공연장과 세미나실이 필요함. 특히 작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이 거의 없어서 기본적 활용이나 대관수입 창출에 어려움이 있음
 - 문화원별 자부담율의 개선이 필요함
 - 도 차원에서 경상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문화원 원장 및 직원 교육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움. 도 지회를 통해서 연 2~3회 정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문화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기본자료와 양식을 만들어서 제공해줬으면 함. 그러나 중장기 발전계획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예산 범위 이외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움. 기본계획 양식을 설정해주면 시군에서 예산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문화원마다 유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음. 유사프로그램은 대부분 잘 되고 호응이 높은 편으로, 전국적인 문화복지 평준화와 문화혜택 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됨. 따라서 프로그램 일몰제에 반대함. 예충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는 측면도 있음

② 김인권(부여문화원 사무국장)

- 문화원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자율이 없음.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님
- 문화원의 최소한의 시설 마련 문제. 대부분 '자기집'이 없음. 부여문화원의 경우, 최근 군민회관에서 부여 청소년수련원 건물로 이사함. 시설이 있어야 임대비용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음. 그러나 부여문화원은 시설을 관리하는데 시설 운영수익은 부여군으로 귀속됨. 부여군의 문화원 운영조례상 문화원 수익이 부여군으로 가게 되어 있음
- 문화원 원장의 비전문성과 정치성의 문제. 원장이 문화원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세우는 문제. 원장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 문화원 사업이 달라짐

- 문화원 평가의 문제. 지원을 받아 사업 시행 후 평가 및 정산과정이 복잡해서 힘들
- 평가기준의 문제: 지방문화원 자료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함. 향토자료 보존관리가 지방문화원에서 중요함. 부여문화원이 백제문화제 사진자료를 보유하여 백제문화제 60년 도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단순히 책 1권 발행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음. 각 문화원마다 5억씩 지원해주고 3년 사업 후 평가한다면 수긍할 수 있으나, 틀에 맞춰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못함. 각각 여건이 다름
- 직원이 적고,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사무국장이 실무도 보고 보도자료도 쓰고, 보조금 신청양식도 작성해야 하는데, 행정의 달인이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산 프로세스가 복잡함
- 인건비/프로그램 사업비의 일정 지원이 필요함. 정부 보조 없이 자생력을 키워나가라고 하기 보다는 직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라고 하는 편이 맞음
- 태안문화원: 유치원 행사 등을 문화원에 맡겨서 하면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임. 문화원에 작은 전문공연장을 마련하면 운영비 절감 효과가 크며 지자체에서도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음. 행사가 많은 곳에서는 1년에 100회 정도 작은 행사가 열림
- 부여문화원: 군에서 지역 기반 프로그램 집행은 문화원에 맡김. 행정기관이 보기에 타 시설이나 단체에 맡기기에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임. 다른 데에 지원하면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상한 단체에 주지 않고 문화원에 주는 경우가 많음

③ 박은희(서천문화원 사무국장)

- 시설은 모두 갖추
- 그러나 인원이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청소인력 1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2명임. 문화원 강당에서 어린이집 행사가 매일 밤 있음. 문화원 사업 규모에 비해 직원이 너무 적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매우 힘들.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혼자서 세분화된 업무를 다 도맡아 해야 함. 문화원이 5대 문화기관 중 하나라고 하는데 그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 문화원 사업이 많으므로 사업비 액수만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됨
- 서천군의 작은 단체들이 문화원 시설을 많이 활용함. 전기세 및 냉난방비 때문에 임대료가 6만원 정도인데 왜 공공기관에서 임대료를 받느냐는 이의 제기가 있음
- 사업, 예산, 인력 관련 제안: ①문화원 사업 중 반응이 좋은 것은 공유했으면 함, ② 공모사업 정보는 서로 공유했으면 함. 사업비가 늘어나 외관상 활성화된 것처럼 보임, ③도서관 활용 문제가 있음: 문화원이 50년이 넘게 운영되다 보니 보유한 자료량이 방대하나 일반도서관과 달라서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각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④직원들이 모두 1년 계약직(사무국장만 3년 계약직)이라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 어려움→내부적으로 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정규직화할 수 있음
- 문화원은 예충, 민예충 같은 단체와 달리 기관임. 중장기 발전계획은 예산에도 들어가 있었으나 계획에 그침. 분량보다 어떻게 계획 마련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
- 부여문화원: 중장기 발전계획 예산으로 2~3천만원이 필요함. 왜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한지 정리 필요
- 태안문화원: 도서분류체계 잡는 것이 어려움. 십진분류가 아닌 자체분류(지역/분야별)로 정리하면 다른 데이터와 호환이 안 됨. 8천권 정도 되는 자료를 분류해서 데이터화하려면 전담직원이 필요함. 결국은 향토자료가 문화원의 큰 재산이므로 이 사업이 우선시되어야 함. 도서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1년간 전문인력 3~4명을 활용해야 하므로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

④ 김병제(홍성문화원 사무국장)

- 문화원의 향토자료에는 관심이 많지 않음. 대신 공모사업에 관심이 많음
- 문화원에 대한 원장의 영향력이 큼
- 홍성문화원의 경우 규정집을 수정하려고 함. 현재 직원들의 지위 보장이 안 되고 있음. 신분 보장의 지속성 없이는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음
- 직원들의 급여가 문화원의 치부라고 할 수 있음. 4년차 여직원 월급이 130만원 정도임. 27개 문화학교 사업을 혼자 운영하며 350명의 출석체크와 선생 관리를 하고 있음
- 향후 5년간 문화원 활동의 밑그림이 될 장기계획을 세운 바 있음. 역사인물 7명을 조명

- 하는 책과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인데, 사무국장이 기안을 올리고 원장이 결재하고 군청 계장과 과장을 거쳐 의회 기획실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계획이 사라져버림
- 문화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특성화사업도 아니고 공모사업을 탐 썩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공모사업의 프로그램 심사위원단도 예측 쪽 인사들이 많고, 사업별 나누기를 함. 다른 특성화사업을 넣어도 심사에서 배제됨.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특성화사업을 각 문화원별로 가면 좋을 듯. 태안은 '자연', 부여는 '역사'식으로 같이 고민할 필요 있음
 - 향토전시실, 도서관과 같은 시설은 있지만 사람이 일년에 한 명도 안 옴. 효율성이 없음
 - 홍성문화원은 강의실이 딱 1개가 있는데 홍성군민이 원하면 언제든 개방을 함. 평일은 밤 9시까지, 토~일요일은 대관이 들어오면 개방함
 - 문화원 참여자 350명 중 300명은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요가, 댄스, 필라테스 등을 함. 이런 프로그램들에 사람들이 많이 옴. 그러나 문화원의 프로그램으로는 이보다 장구, 피리 등을 가르치는 게 맞다고 봄
 - 문화원이 본연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묶어놓으면 좋겠음
 - 회계, 정책, 프로그램 관련 직원 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의무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⑤ 김인권(부여문화원 사무국장)

- 문화원마다 상황과 특성이 각각 다름. 부여문화원의 경우,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원에서 안 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함
- 잘 되는 문화원은 직원이나 사무국장이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하는 곳이고, 안 되는 문화원은 원장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곳임
- 신입 원장들은 1박2일 세미나를 통해 문화원 업무의 특성을 교육받으면 좋겠음

⑥ 김영철(서산문화원 사무국장)

- 문화원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제한해놓을 필요는 없음. 문화원의 사업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함. 자체판단해서 자율성 있게 해야 함

- 서산문화원은 지은 지 15년 정도 됨. 건립비용은 15억원 정도임. 공간은 많은 편이고 프로그램도 활발함. 1년에 14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대관수입도 연간 5천만원 정도임. 문화원이 발전하려면 하드웨어가 꼭 필요함
- 태안문화원은 지은 지 20년 됐는데 80억원 이상 투자해서 다시 짓고 있음. 도나 연합회에 의지하기 보다는 사무국장과 원장, 자치단체장의 3박자가 중요함
- 인력은 원장 외 정직원 3명과 계약직 2명임. 정직원은 공무원 수준 대우를 받고 있고, 사무국장은 6급 상당임. 급여 문제는 원장이 안 되면 사무국장이라도 투쟁해야 할 문제임. 경상비는 도에서 쉽게 투자하지 않음
- 대전의 경우, 문화원이 생긴 지 20년이 됐는데 경상비는 대전광역시에서 50%, 구에서 50% 지원해서 직원 고용이 안정화된 사례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은 거쳐 가는 것과 실질적인 것을 모두 합해서 14억 원 정도 집행함
-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은 6백시간 정도 지급되는데 상반기에 다 나감. 1천시간은 줘야 함
- 사업 부문은 자치단체에서도 일할 곳이 많음. 평생학습관, 복지관 등에 대한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음. 94년도부터 지역문화학교와 평생교육을 문화원이 선도하면서 전통무용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아마추어 수준의 실력을 배양하게 됨. 이를 사회 환원 차 복지과에서 노인교육(교육형, 복지형)을 하는데 한 달에 70명 정도 20시간 20만원 정도 급여를 지출함. 이 사업을 하는데 계약직 직원 1명을 쓰고 있음. 앞으로 문화원의 사업은 생산과 보급을 매개하는 복지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임. 사업을 확보하려면 문화원의 패를 키워야 함
- DB 관련해서는 20평 철제서가에 1만권 가량의 향토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을 해야 함
- 서산시 공모사업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 15개의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음. 바코드 작업을 하는 것인데 시에서 하드웨어(컴퓨터, 바코드리더기)를 받아서 준비함. 전담인력을 받아서 입력시켜야 함. 직원은 7명 정도로 자치단체와 함께 하면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음
- 충청남도연합회의 경우, 고정 사무실과 직원이 없음. 연합회의 사무처장이 사업을 따서 분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함. 문화원 지원에 대한 도의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문화원 성장이 지체됨. 도 연합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1~2년은 더 걸릴 듯

3) 도시형 지방문화원 워크숍

(1) 개요

일 시	2014년 12월 23일(화), 14:00~16:00	
장 소	충남발전연구원 3층 세미나실	
주요안건	충남지역 도시형 지방문화원 운영실태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참석자	문화원 사무국장 (6명)	박승일 (천안동남구문화원 사무국장) 신광식 (천안서북구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임성빈 (보령문화원 사무국장) 이준창 (논산문화원 사무국장) 강대원 (당진문화원 사무국장)
	연구진 (2명)	박철희 (충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연구위원) 최영화 (충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2) 내용

① 현대수(공주문화원 사무국장)

- 전국적으로 1990년대 들어서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문화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으나, 충남에서는 연구한 적이 없음
- 시설은 전반적으로 너무 노후화되었음. 공주문화원은 2001년도에 새로 건립됨. 대전 서구문화원은 6층짜리 최신건물임. 농촌형으로 갈수록 문화원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원사가 사무실을 대여 받는 수준임
- 인력, 시설, 사업, 운영 모든 것이 돈과 연관되다 보니까 예산과 사업 얘기 외엔 할 것이 없음. 문화원 자체 수입은 회비, 찬조금, 사업수익(지역문화학교) 외에는 거의 없음. 시군에서는 자부담이 있어야 공모사업에 유리함. 그러나 자담을 사업에 넣을 여력이 10%도 안 됨.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
- 문화원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키워나갈 필요는 있음. 지속되려면 돈을 버는 문화원이

- 되어야 함. 자담 수익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공연수익은 받기가 어려움
- 문화원이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신문화와 향토문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정신문화·향토문화:생활문화=50:50임. 그러나 문화원의 시설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타 기관과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생활문화도 타 시설에 빼앗김
-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동사무소나, 대학, 자치센터에서는 하지 않도록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사방에서 다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폐강되는 경우도 많음
- 인력: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특성화, 차별화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움. 학예사나 연구사 인력을 보강해서 문화원만의 특성화된 사업을 해야 함. 문화원 직원의 고용 불안정으로 장래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임. 문화원장이 바뀌면 직원도 바뀔
-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만 하라고 했지, 그것이 어떤 역할인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적이 없음. 토론회, 의견수렴회, 세미나를 많이 해서 도나 시군의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원장의 마인드도 중요함. 원장직이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사명감이 떨어짐. 문화원을 발판으로 정치적 야망을 키우려고 하기도 하고, 명예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음.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와야 함
- 고령화사회, 다문화사회화가 지속됨에 따라 문화소외계층도 갈수록 늘어날 것임. 문화원이 타 문화시설 사업도 병행하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됨

② 싯광식(천안서북구문화원 사무국장)

- 72년도에 문화원이 설립되었으며, 96년도에 문화원이 통합될 시 천안은 3개 문화원이 통합 안 됨
- 성환문화원은 2012년도 1월에 천안서북구문화원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당해 2월에 원장이 선출됨. 그 사이 1년 6개월간 보조금이 끊김. 작년 9월에 정상화되어 보조금 지급이 재개됨. 그동안 서자 취급을 받았고, 2012년 1년간 원장이 3번 바뀔
- 아우내문화원이 2011년에 천안동남구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활동 반경이 커짐

- 충남도에는 4개 문화원만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공주, 보령, 온양, 서북구문화원임. 건물은 72년도에 건립되어 40년이 지나 노후화됨. 2012년에 리모델링을 요구해서 천안시 7천만원, 도의원 사업비 7천만원, 도합 1억 4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함. 그러나 강좌를 하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어서 접근성이 떨어짐. 시내 중심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구체를 조직하여 추진 중임. 성환의 문예회관 건물, 천안 서북구청의 건물 빈 곳을 달라고 추진 중임
- 인력은 2명이 있으며, 2003년도에 전국 문화원 사무국장 연봉이 계약직으로 1800만원 정도였음
- 예산은 문화활동과 경상비가 1억 2천, 회비 수강료가 1천5백~1억 정도임
- 그동안은 천안문화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없었음. 도서관, 주민센터 등 주변 문화기반시설과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중복이 되지 않게 하고 있음
- 문화원은 인구가 3만명 있는 곳에 위치함. 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음

③ 광승일(천안동남구문화원 사무국장)

- 천안시 병천면에 위치함. 50년 이상 된 노후한 건물임
- 해당 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상대적, 구체적인 연구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7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문화원이라고 하기에 입지적, 환경적으로 민망한 정도이며, 도시형이 아니라 인구 1만명이 거주하는 면단위에 위치하다 보니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주민이 거의 없음.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민의 문화만족도는 제자리임
- 문화교실 관련해서는 시청 홍보지에 인쇄하여 배포함. 하루에 20~30통 정도 문의전화 오지만, 대중교통으로 40~50분 거리에 위치하고,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문화향유 시간이 없음. 시내권 시민들은 문화향유 욕구가 큼
- 천안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천안삼거리공원, 천안박물관, 홍타령관의 관리를 문화원으로 이전하면 좋을 것
- 과거에 연연해하기보다 이미지를 제고하는 발전방안을 찾아야 할 듯. 천안시 서북구와 동남구문화원은 천안군 시절에 생긴 것이므로 시에 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음

④ 이준창(논산문화원 사무국장)

- 신축원사 설계를 마쳤고, 500평 시민공원 안에 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임
- 57년 12월에 창립되어서 2년 뒤면 60주년이 되므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 중임
- 지역문화 발전 관련해서 포럼을 통해 논산시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중
- 향토사연구는 문화원의 최후의 보루, 숙명과도 같은 사업임. 문화원이 향토사 관련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주도해야 함
- 문화원장이 정치적으로 행보와 대외활동의 문제. 시장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안 되면 예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됨. 정치적 중립이 중요
- 사업은 절반 정도 시 주관 행사를 하고, 문화원을 통해 지자체 사업을 많이 해서 2015년에는 직원이 4명이 될 것
- 시군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생명임
- 직원 복지의 문제
- 문화원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소외계층을 문화원이 끌어안고 가야 함
- 사무국장 연봉은 10년 전에 1천2백만원 정도에서 현재 4~5배 정도 증가

⑤ 임성빈(보령문화원 사무국장)

- 연합회나 도에서 좋은 전문가 1명을 배치해서 각 문화원을 컨설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안
- 원장, 사무국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
- 각 문화원의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금격차 문제가 있음
- 자생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문제. 그러나 무엇을 통해,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지 제안 바람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그러나 문화원 회원은 소외계층이 아님. 회원의 회비를 먹고 사는 문화원이 소외계층을 위해 일 할 수 있겠는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하기가 어려움

- 연구가 뜬구름 잡는 연구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좋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연구자료를 활용하면 문화원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음

⑥ 강대원(당진문화원 사무국장)

- 사무국장이 된 지 6개월 밖에 안 됨. 직원은 국장 1명, 직원 1명임
- 5월 20일에 원장이 취임하면서 회원을 1,500명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고, 일단 기존 3백명에서 6백명으로 2배가 확대함. 각 3만원씩 회비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고령 어르신 회원임
- 3층 건물인데 2~3층은 문화의집을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3천만원 보조금(인건비+운영비) 지원받음. 1층만 문화원임
 - 문화의 집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 충남에서는 금산 추부 쪽이 활발히 운영이 됨. 반은 위탁운영, 반은 시 직영체제로 운영됨
 - 천안은 천안문화원이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없어짐
- 충남지역 향토사료 발굴과 소외계층 사업을 한다고 비전선포를 했으나 예산이 삭감됨. 소외계층 문화탐방 교육을 못하게 됨. 번역사업도 1년만 하고 답보상태에 있음
 - 공주문화원: 시군에서 가장 만만한 게 문화예술지원사업임. 연차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문화원이 많음
- 문화재단의 문제도 있음. 현재 충남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역은 아산, 천안, 당진임. 문화예술학교를 당진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내년도 말이 공동수탁 기한.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자부담은 회비와 보조금이 전부임. 기부금은 큰 행사에 지출함
- 시설 리모델링 비용 2억원을 신청했으나 의회에서 삭감됨
- 당진에 여러 시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문화원이 소외되고 있음
- 120~150만 원 정도 급여로는 전문성 있는 직원 확보가 어려움
- 이천, 강릉문화원 운영실태 참고. 이천문화원은 회원이 2천명이어서 가입비와 연회비가 따로 있음. 강릉문화원은 직원이 14명이나 됨
 - 사무국장과 몇몇을 제외하고 강릉시에서 파견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이 분야별로

파트를 나눠서 세부적으로 강릉시에서 할 수 있는 문화행사, 문화축제를 다 문화원 쪽에 밀어줌. 지원도, 예산도 전액 시에서 지원하다보니까 활성화될 수밖에 없음

⑦ 현대수(공주문화원 사무국장)

- 서울에는 수강생만 받아서 문화학교만 운영해서 유지하는 데도 있음. 이는 위낙 인구가 많아서 가능한 것임. 소도시나 농촌형 문화원에서는 어렵없음. 책임강사제 필요. 강사가 좋으면 수강생 관리에 수월할 것
- 문화원이 살기 위해서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음. 정치적 중립은 형식적인 예기임. 시장, 군수, 구청장과 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어려움
- 회원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님. 진성 회원이나 아니냐, 회비가 얼마인가가 중요함. 보통 3~5만원, 10만원 정도인데 실제로 문화원에 동참하는 회원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함. 서산문화원은 분원제로 가고 있음
- 『공주문화』는 출향인사를 통해 찬조금을 받아서 확보함으로써 자담수입을 증대함. 향우회 쪽에서 찬조금이 좀 들어옴
- 문화원은 향토사강좌, 정신문화 부분에 중점을 뒀야 함. 향토사강좌는 정신문화 쪽에서 문화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놓쳐서는 안 되고, 다른 데서는 할 수도 없는 사업임. 부여나 공주의 경우는 특수함. 수강생이 대부분 정해져 있음. 민속 발굴이나 책 발간 사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시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문화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제주도와 충청남도만 '연합회'가 없음. 연합회 사무처장과 사무실, 직원이 필요. 충남 예충은 5천만원 전세 사무실이 있음. 도에서 1인 인건비 지원을 약속함
-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사업비만 지원해주고 시군에서 경상비(문화원 운영비)를 지원해줌. 도에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1천만원이라도 지원해주면 시군과 매칭해서 2천만원이 될 수 있음

⑧ 임성빈(보령문화원 사무국장)

- 시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무국장 연봉이 2,500~3,000만원 수

준임. 공주, 금산, 부여문화원 사무국장 연봉도 4,000만원 미만임. 퇴직금도 마련이 안 됨. 문화원 직원의 노후대책이 필요함. 표준 기준은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문화원이 없음.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공무원 6급 계장급 대우가 필요함

-금산과 부여문화원의 경우, 사무국장 재직기간이 30년이 넘었으나, 연봉은 3천 이상~4천 미만임

- 간사들의 이직률이 높음. 직원 신분이 보장이 된 상태에서 업무를 판단해야 함. 직원 고용 안정화와 고용형태 통일화가 필요함. 2003년도에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만든 연합회 표준고용계약에 따르면 최소 3년 계약이 보장. 단, 계약이 서울에서 만들어서 호봉수 등이 농촌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임

-보령문화원은 2012년도 1월에 내부규정을 만들

- 자체수익: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조례에 자체수익에 관련해 수익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관에 나옴

-당진시에서 정관을 수정하려고 했으나 “바꿀 수는 있지만 안 바꿨으면 한다”고 권고를 받음

-회비수입, 문화학교 수강료, 등록비 외에는 수입이 어려움

-청양문화원이 자체수익이 높음. 교통의 요지인 청양4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1층을 임대해 임대수입을 거두고 있음

-보령문화원은 2014년도 11월에 이전함

- 공모사업 담당직원의 인건비는 공모사업에 넣음
- 실무교육 및 회계교육에 대한 문제. 각 시군에서 정산할 때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해오라고 요구함. 아르떼교육이 있음.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도 교육을 시행하나 형식적임. 충청남도만이라도 도나 도 연합회에서 교육을 담당하여 쓰기 쉽고 편리한 통일된 회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직무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의무화 필요함

3) 홍성문화원 현지 답사 및 인터뷰

(1) 개요

일 시	2015년 1월 9일(금), 13:00~16:00	
장 소	홍성문화원	
주요안건	홍성문화원 시설 답사 및 원장, 시설관리과장 인터뷰	
참석자	홍성문화원 (2명)	유환동 (홍성문화원 원장) 강청식 (홍성문화원 시설관리과장)
	연구진 (1명)	최영화 (충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2) 내용

① 강청식(홍성문화원 시설관리과장)

- 홍성문화원은 원래 홍주성 내 역사박물관 위에 있었는데 홍주성 복원 때문에 이전함. 2005년도에 3층 건물로 설립되었고 시설관리는 1인이 담당하고 있음. 시설관리를 위한 전기세와 기름값은 대관료와 군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② 유환동(홍성문화원 원장)

- 홍성문화원에서는 17개 문화학교를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
- 전시공간은 전시문화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낮음. 전시의 경우, 출향 서예인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여 장학기금으로 활용함. 그러나 전시 입장료를 올려서는 사람들이 안 오므로 이를 통해 자체수익을 만들기는 어려움. 문화원 행사는 대부분 무료공연, 전시가 많음
- 자주 활용하는 공간은 전통예절실과 강의실임.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함
- 문화원 직원은 사무국장 1인, 간사 1인, 팀장 1인, 시설관리과장 1인으로 총 4명이며,

- 추가로 내포역사인물축제 전담으로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이 군비와 도비,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음
- 홍성군에 학예사는 3명이 있는데 각각 홍주성역사관, 군청, 고암 이용노 생가 기념관에 있음. 문화원의 경우,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학예사 활용이 어려움. 별도로 향토 문화연구회를 운영하는데 회원들이 향토자료를 발굴해서 책자로 만들
 -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면 옛마을 유래가 사라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도서관은 향토자료 위주이나 사서가 없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음. 이를 북카페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면 어떨지 구상 중임
 - 원장의 정치적 중립은 문화원 운영에서 반드시 필요함
 - 챔버 오케스트라 창단. 국악관현악단,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운영
 - 내포가 홍성으로 오면서 홍성문화원은 내포시대에 맞추어 문화학교를 활성화시킬 예정임
 - 청운대와 폴리텍 대학에서도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문화원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계획임
 - 2018년은 홍주 지명 1,000년 되는 해임. 향토사학자, 향교 등이 회원으로 있는 향토 문화연구회를 통해 향토, 민속자료 발굴을 활성화할 계획임
 - 예총과 문화원 간 관계: 예총이 문화원 1층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여해서 사용 중임.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정월대보름 행사에 예총이 참여하여 공연을 하는 등 역할을 하고 있음
 - 문화재단 설립 관련: 군 단위에 문화재단이 생기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함.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대체로 단체장의 인맥으로 조직이 구성됨. 현 단계에서는 문화원이 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함
 -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첫째는 전문인력(학예사, 공연기획 인력)과 인건비 예산 지원, 둘째는 상시 할 수 있는 마당극의 활성화, 셋째는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당진 솔피성지와 서산 해미읍성처럼 홍성의 천주교 성지길인 홍성읍성에서 마당극 형태의 순교극단을 주말 상설공연처럼 운영할 계획. 넷째, 홈페이지 리뉴얼이 필요한 상황임

[부록 그림-1] 홍성문화원 시설 사진



지하 전통체험장



1층 공연장



2층 전시실



2층 회의실



3층 강의실



3층 전통예절실

자료 : 최영화(2015.01.09), 직접 촬영

4) 전국 지방문화원 우수사례 워크숍

(1) 개요

일 시	2015년 1월 30일(금), 12:00~15:00	
장 소	충남발전연구원 3층 세미나실	
주요안건	지방문화원 우수사례 발표 및 충남 문화원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참석자	발표 (5명)	인력 활용 부문 : 심오섭 (강릉문화원 사무국장) 회원 확보 부문 :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예산 확보 부문 : 송재민 (대전서구문화원 사무국장) 공간 활용 부문 : 안용산 (금산문화원 사무국장) 경영 혁신 부문 : 정지수 (태안문화원 사무국장)
	토론 (2명)	현대수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박세진 (예산문화원 사무국장)
	연구진 (2명)	최영화 (충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신선하 (충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연구원)

(2) 내용

① 현대수(공주문화원 사무국장)

- 강릉, 이천, 대전문화원과 비교자체가 모순. 인구, 인력, 예산, 회원부분에서 소규모의 농촌형 문화원이 되쳐 질 수밖에 없고 강릉은 문화원 중 가장 인력이 많고 운영비 자체에서 차이가 있음. 타 문화원의 직원채용부분, 회원관리부분에서 정회원과 일반회원의 구분과 회비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충남 시군 문화원이 따라가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많고 농촌형문화원에 맞는 인력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대전 서구의 예산확보부분에서 문화학교, 대관수입, 주차장운영 자체수입이 5억인데 이 수입이 문화원 수입으로 입금되는 것인지, 운영비를 7:3으로 자체수입으로 70% 운영 시에서 인건비로 30% 보조로 운영하는 부분이 시설부분이나 모든 면이 선두적인 부분인데 시군문화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의견 부탁

② 심오섭(강릉문화원 사무국장)

- 인력부분은 조례에는 있지만 현 문화원에 시 인력 파견은 없고 장단점이 있어서 실행하고 있지 않음. 직원이 40~50명 이상 일 때는 고려해보겠지만 직원 위축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조례에만 만들어놓음. 수입부분은 자부담 회원, 임원회비, 강좌수업, 대관수입, 예맥아트센터, 공모사업을 통한 15~20%수입, 이러한 자체예산수입부분구조와 지역의 기부금, 은행 후원 등이 있고 직원채용 부분은 공채 채용을 원칙으로 3~6개월 수습기간 후 정식채용, 급여기준은 보고서 8page참고 신규는 6급으로 시작됨
- 공모사업, 각종용역사업은 문화원의 자체 업무가 아니기에 일을 해준 것에 대한 보수로 자체수입 활용. 수입이 공모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기획을 한 직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의 수입이고 직원에게 이중 봉급은 없으나 인센티브는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직원의 봉급이 올라감
- 예맥아트센터 설립 시 10억원은 도비·시비로 확보. 예맥아트센터의 땅은 무상대여를 받고 5년마다 재계약, 지상건물은 강릉문화원 명의로 기부채납을 통해 운영관리비를 받음. 학교를 문화원 등기로 해냈기 때문에, 활용목적이 떨어지기는 상황에 대비. 예맥아트센터 설립을 위한 시드머니 1억원은 문화원에서 기금모금과 자체사업을 통한 수입으로 마련함

③ 이동준(이천문화원 사무국장)

- 이천문화원의 회원과 회비에 관해서는 우선 문화원 회원관리규정 첨부자료를 참고. 정회원, 일반회원을 구분, 특별· 명예회원 등으로 구별하여 임원들의 회비가 높음. 일반은 월 5천원 정회원은 1만5천원 특별회원은 2만원에서 10만원사이로 명예회원은 위촉하는 경우도 있음 임원에서 원장님 30만원 부원장 10만원 이사 5만 원 정도로 경상적 회비수입은 9천에서 1억 사이, 일반회원은 문화원의 행사, 프로그램참여, 강좌할인혜택이 있고 정회원은 의사결정, 총회참석권한, 문화원 책자발간 서비스, 정회원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제공 등이 있고 이외 이천문화원의 수입구조는 8천~1억 정도가 회비수입정도, 행사를 통한 회비로는 주말행사에는 참가비 2만원과 시의 지원, 문화강좌 수입, 문화지발간은 하이닉스 같은 기업을 통해 찬조금 300~800사이를 받음

- 이천이 군이 었을 때는 인구가 5만에서 8만 이였다가 하이닉스가 들어오며 10만에서 20만으로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문화적인 자원은 태안, 금산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부러운 점이고 영국이나 작은 도시들도 문화산업을 통해 먹고살기 때문에 이천이 살아남기 위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의 콘텐츠 화를 통해 실속 있고 질 높은 문화 사업을 하는 문화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이천지역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가고 질 높은 삶의 경험이 중요, 충남의 문화적 자산을 21세기 가치에 맞게 콘텐츠로 이끌어 내는 것들을 내실 있게 시민들에게 끌어가는 것이 중요
- 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창조금을 받는 경우. 기업에게도 펀드레이징을 통해 펀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며 문화원도 문화를 어떻게 즐겨야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 기업들에게도 어떤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기업의 후원이 가능함
- 창조금을 받을 경우, 문화원이 기업에 제공해주는 것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 어떤 부분들을 기여하게 되는지 사회봉사 부분들이 있음. 기업 홍보에 대해서는 사익적인 홍보보다는 공익성이 있는 홍보를 함
- 안동과의 자매결연 방식 관련. 안동, 제주, 일본과 결연을 통해 직원교류, 협업프로젝트, 지역의 공통성이 있는 부분들을 문화적인 자산으로 발굴해나갈지에 대한 연구

④ 송재민(대전서구문화원 사무국장)

- 예산, 자체수입은 문화원이 스스로 별어서 경영평가부분에서 우수문화원으로 선정, 순수한 자체운영비이고 시청이나 도로 가진 않고 오케스트라, 풍물, 메타댄스 3개의 상주단체 운영이 직접적으로 예산과 관련, 공연을 통해 입장료 수입을 얻고 수준 높은 상주단체운영으로 공연의 지속성이 있음, 각 문화원들과 카페를 통해 공유가 중요하고 인구, 역사적 비례가 맞아야 하지만 이점은 반영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고 있음
- 상주단체 운영비는 사업으로 예산을 구에 신청, 수익금은 지역의 수입금으로 사용, 원장님이 200만 원 정도 매달 지원, 좋은 여건으로 타 문화원들과의 차이는 있음. 지역의 수익으로 안가고 문화원 자체수입으로 모든 관리도 문화원이 보조 인력만 지원
- 시·군·구별 비슷한 수준으로 비교가 가능한 지역끼리의 벤치마킹이 필요

⑤ 박세진(예산문화원 사무국장)

- 충남의 문제는 문화원간 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임. 이를 상향 조정하여 평균화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부탁함
- 또한 문화원의 고용 불안정이 있음, 자체수익이 문제가 됨 이러한 상황을 이루려면 문화원을 공공기관화 시키는 방법을 제안, 지방곳곳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 문화원의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화의 방법을 제시함
- 문화원이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뒷받침 되어야함

⑥ 현대수(공주문화원 사무국장)

- 문화원 사무국장, 직원들의 신분보장, 문화원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일의 여건을 이루고자함, 도시와 농촌의 비교는 역부족이지만 농촌 나름의 정신문화 콘텐츠를 통해 50여년 가까이 이루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형 문화원의 방향을 제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로 집중
- 문화원 회원확보, 지역인력활용을 통해 사업 확보

□ 부록4.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2354호 신규제정 2014. 01.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생활문화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협력활동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14조(문화도시심의회 설치)

-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 2.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 3.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 ②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24조(과태료)

-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2014.1.28 제123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호 중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중 “위원회·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을”을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로 한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최영화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박철희 연구위원

신선하 연구원

전략연구 2014-36 · 충남 지방문화원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글쓴이 · 최영화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5년 2월 27일 / 발행 · 2015년 2월 27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255(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59

ISBN · 978-89-6124-286-8 03350

<http://www.cdi.re.kr>

© 2014,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